

2019年

京畿鄉土史學 第24輯

경기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上

수원,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양주,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京畿道文化院聯合會

京畿鄉土史學

第24輯

 京畿道文化院聯合會

발간사

‘ 경기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

지금까지 문화원이 얼마나 향토문화연구에

힘써왔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지난 2006년 경기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어느덧 경기향토사학 제24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가운데, 10년, 20년 후의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경기향토문화연구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경기향토문화연구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향토문화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경기향토사학 제24집

은 ‘경기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주제로,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 현황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향토사학 제24집은 지금까지 문화원이 얼마나 향토 문화연구에 힘써왔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토문화연구소와 문화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위원 여러분께서 향토문화연구의 현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연구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었다면, 12개 시,군 문화원의 연구현황 분석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향토문화연구소 심포지엄 및 향토사학 발간을 통해 경기향토문화연구의 성과와 과오를 모두 마주했습니다. 지역별로 연구의 질적 혹은 양적 차이가 존재했으며, 중복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향토문화 연구자들의 열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도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더불어 경기 지역 향토문화연구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원철 소장님을 비롯해, 모든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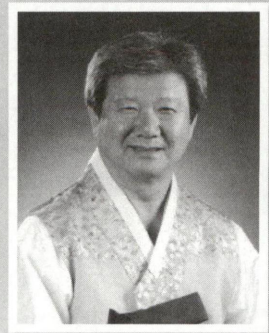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 상 덕

인사말

‘경기향토사학 24집을 내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뒤돌아보기



3·1 운동 100주년인 금년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주 독립의 기치를 드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해였습니다. 저희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역시 지난 가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년에는 문화로 번영하는 국가를 기원한 김구 선생의 소원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 연구 주제는 「경기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였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주체적으로 창발시킨 지역 문화의 총합이 곧 경기도 향토문화인바, 경기 향토문화연구 성과를 알기 위하여 31개 시·군 각각의 향토문화연구 성과를 돌아보았습니다. 8월에 심포지엄을 통하여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활동에 관하여 토론하고, 연간지 『경기향토사학 24집』에는 12개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 분석 자료를 실었습니다. 2차 년도에 나머지 19개 시·군이 모두 발표하고 나면, 광복 이후 70여년 지속하여 온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 성과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방 문화원의 미래 향토문화 연구를 기획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신의 길을 걷지만 우리는 무심코 스치기 일쑤입니다. 산길을 걸을 때에도, 잠시 멈추어 뒤돌아보아야만 산경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듯이, 과거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는 그러한 뒤돌아보기입니다. 향토문화연구나, 그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일 모두 귀한 가치를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금년의 1차년도 분석에 참여한 시·군 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내년 2차년도의 시·군은 금년의 연구자료를 길잡이 삼아, 더욱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3년의 노력 끝에 금년 7월에 『경기향토문화대학』 1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경기 지역문화 발전을 감당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3년간의 긴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생을 배출한 것입니다. 3년의 교육과정을 진행한 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물론이고, 수료생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 분들이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회의 노력과 수료생의 의욕이 계속하여 어우러진다면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발전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지역문화 창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속하여 경기향토문화 연구가 경기지역학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정 원 철

|| 목 차

수원의 향토문화 연구	염상균	9
성남문화원의 향토사연구 현황	백남옥	27
부천 향토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양경직	79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현재와 미래	황수근	105
의정부지역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나	최영희	119
시흥 향토문화 연구 현황 및 과제 -시흥문화원 활동을 중심으로-	정원철	141

파주시 향토문화재연구의 방향성과 활용에 관한 고찰	차문성	163
양주 향토문화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창래	193
포천의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최창근	219
여주학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성문	245
동두천 역사와 문화시대 어떻게 대비(對備)할 것인가	이명수	267
연천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고희상	293

수원의 향토문화 연구

염 상 균 (수원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초창기 수원문화원의 향토문화 업적
- III. 발전기에 진입한 향토문화 연구와 실천
- IV. 향토문화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다
- V. 최고의 문화원을 지향하며
- VI. 나오는 말

집필자

염 상 균

수원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장

I. 들어가는 말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문화원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다. 지역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겨서 과거에 문화원이 하던 업무가 대거 이전되었다. 또한 세태의 변화 역시 문화원을 비껴가지 못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요구되기도 한다. 웬만한 프로그램은 굳이 문화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집 주변의 주민복지센터에서 소화하고도 남는다. 물론 그 교수방법이나 교육의 질은 차치하더라도 접근이 용이한 점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원보다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문화원이 틈새에 끼어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원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수원은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원의 설립도 60년이 넘었으므로 제법 자리를 잡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만 해도 셋이요, 미술관 역시 그러하고, 도서관은 또 어떠한가? 게다가 문화재단이며 여성회관 등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힘쓰는 중이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다양한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강좌와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비록 논문의 형식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수원문화원이 이끌어온 수원의 향토문화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 미래가 지향해야 할 답은 이미 과거에 존재한다고 하지 않던가. 우선 수원의 향토문화 연구 전반에 걸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어렵고 암울했던 초창기에도 수원문화원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었기 때문이다. 이 저력이 수원의 문화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었음은 물론이요,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오는 흐름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기존의 성과만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다. 시행 과정에서의 과오는 훗날 수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것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수원문화원에서는 이미 50년사와, 그 50년사를 수정하고 보완한 60년사를 펴냈다. 그 두 책을 분석하고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주석과 출처를 달지 않았는데 이는 『수원문화원 60년사』에 실린 내용을 이 글의 편제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집필했기 때문이다.

II. 초창기 수원문화원의 향토문화 업적

수원문화원은 1955년 창립을 추진하여 1956년 8월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10월 28일 개원하기에 이른다. 이때는 전국에서 지방문화원을 창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당시 수원문화원은 사실 수원시청이 주도한 일종의 시립단체였다. 원장은 ‘위원장’이라는 호칭으로 수원시장이었고, 사무국장은 시청과장이었으며, 시청 공무원이 문화원 직원을 겸했다. 그랬어도 향토문화에 대한 문화원의 역할은 해냈는데, 그 증거가 1958년 8월에 『수원문화』라는 문화예술잡지를 펴낸 것이다.

전후 복구 사업에 문화는 소외될 수밖에 없던 현실에서 잡지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수원문화』는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한강이라는 이름의 관문’, ‘카메라맨 소감’, ‘공무원과 독서’, ‘통학생의 하루’, ‘시험’ 등의 수필과 ‘젊은 신화’, ‘어느 날’ 등의 단편소설, 그리고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불상 사진 등을 실었다. 또한 수원문화원 운영위원회 정관, 문화원 조례, 문화원 사업 개요 등도 수록하였다.

1958년 수원문화원은 산하단체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다.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문화원의 존재를 알리고 문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원장도 민간인이 맡았다가 다시 시장이 맞는 등 진통을 겪었고, 수원문화원의 향토문화에 대한 활동도 움츠러들었다. 그러다가 1962년 수원문화원이 본격적인 민간문화원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문화과 예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국공보원의 지원으로 농촌을 돌며 영화상영 등 국민계몽활동을 펼쳤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특히 부녀자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문화원에서 따라 할 정도로 우수했다.

수원문화원은 1962년 4월 14일, 옛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대강당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 성황을 이루었던 이 음악회는 1964년 8월 28일로 이어진다. ‘안익태 선생 초청 음악회’에서 독창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던 소프라노 김천애를 초청해 역시 농대 강당에서 음악회를 연 것이다. 당시의 분위기로는 고급의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1963년 11월에 창립한 아동연극단 ‘색동극회’는 경기도 최초의 아동 극단인데 이미 1958년 발족한 ‘어린이 합창단’과 1964년 「어린이 예술제」를 열었다. 음악을 앞세운 수원문화원의 이 같은 행보는 수원에 새로운 문화의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5년 문화원 주도로 ‘난파합창단’이 창립된 것이다. 1966년 5월 연 창단 공연은 성황을 이루었고, 이는 곧 ‘난파음악회’와 정기적

인 신년음악회·송년음악회로 이어져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원 출신 홍난파 선생의 음악적인 업적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였다. 난파합창단은 나중에 시립합창단의 모체가 되었고, 수원이 음악의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홍난파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건립기금을 모금하여 1968년에 건립하였다. 향토문화에 대한 열정이 하나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수원최초의 극단인 ‘화홍극회’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사진대회를 개최하고, 전시회를 여는 등 사진에서도 문화원의 역할은 컸다. 문학에 대한 문화원의 지원과 격려도 막강했다.

1963년 문화원 내에 ‘에트랑제’, ‘서호림’ 같은 문학동인회가 등지를 틀었고, 이는 1964년 무려 12차례에 걸쳐 시화전을 여는 계기로 이어졌다. 전후의 피폐하고 암울했던 분위기를 향토문화로 반전시킨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수원화성’ 복원의 시작도 수원문화원의 몫이었다. 수원문화원은 ‘망가져가는 수원의 문화재를 살리자’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름다운 수원’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시민들을 상대로 순회상영을 하였다. 화성의 망가진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훼손된 원인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화성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1973년 ‘수원성복원정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고, 1975년부터 79년까지 수원화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1974년 수원문화원이 향토문화를 되살려낸 걸작이 나왔다. 제 11회 화홍문화제 때 처음으로 ‘정조 화산능 행차’를 재연해낸 것이다. 문화원장의 역량에다 원로학자들의 조언, 교사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였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수원문화원의 향토문화 실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학, 음악, 미술, 전시 등은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해나갔고, 전통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며 정리하여 보전하는데 힘썼다. 향토사지를 편집하고 보급하였으며 향토문화제를 주관하였다. 게다가 문화원 소속 문예단체를 거느렸는데, ‘경기청년미술인회’, ‘레크레이션모임’, ‘난파합창단’, ‘맥산악회’, ‘별모임’, ‘꽃꽂이모임’ 등이었다.

1983년부터 시작하여 1986년 발행한 『수원시사』 역시 수원문화원의 업적이었다. 수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역사와 향토 자료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1985년에 단행본으로 『내 고장 문화 논단』을 펴냈고, 또한 이 시기에 팔목할 점은 향토문화강좌였다. ‘문화재의 개념과 보호’, ‘내 고장 문화재’, ‘미풍양속과 세시풍속’, ‘지방사와 지역문화의 새로운 인식’, ‘향토애와 지명’, ‘한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라사랑의 길’, ‘삼강오륜’ 등을 주제로 삼았다.

Ⅲ. 발전기에 진입한 향토문화 연구와 실천

1988년 3월호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수원사랑』 잡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원문화원의 대표 매체이다. 『수원사랑』을 통해 수원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결집시켰고, 수원화성 알리기와 내 고장 살리기 사업을 펼쳐나갔다. 월간 『수원사랑』과 더불어 1년에 한 번 『수원문화』도 펴냈는데,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과 문학작품, 문화계 소식 등을 다루었다.

1988년 ‘효의 성곽순례’를 시작하면서 수원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75년부터 79년까지 화성의 복원이 이루어졌고 시민들이 화성에 대해 자긍심을 지닐 때였다. 이는 곧 1989년 ‘수원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의 발족으로 이어졌고,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시급성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화성행궁 터에는 경기도 수원의료원이 자리를 잡았으며, 증축을 해서 종합의료센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마저 내놓은 상황이었다.

수원의료원의 증축을 저지하기 위해 수원문화원은 학술대회를 열었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화성행궁의 복원 의의와 계획’, ‘화성행궁지 지표조사’, ‘화성행궁 자료조사 발표’ 등으로 화성행궁의 중요성과 복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또한 ‘화성행궁을 복원하자’는 캠페인도 문화원에서 주도하였으며, 수원의료원의 이전을 건의하고 1994년 완전 철거에 이르게 한다. 이후 발굴과 복원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오늘날의 화성행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

음악도시로 자리를 잡은 수원에 1988년부터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가 시작되었다. 관악이며, 합창, 교향악, 국악, 팝 등 다양한 음악으로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였다.

주부대학과 시민대학을 열어 문화강좌를 개설한 것도 1988년부터였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문화학교를 열기도 하였다. 유적답사와 수영, 탈춤, 음악과 미술 등을 가르치거나 체험하게 하였다.

1993년에는 수원의 민속놀이인 장치기를 발굴해 정리하여 『수원 장치기』를 향토문화연구소 간행으로 펴냈다. 다른 민속관련 저서로는, 『수원의 민속 길마재 줄다리기』, 『원천 역말 서낭제 및 우물제사』 등도 펴냈다.

1996년은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의 해’였다. 그런데 당시 심재덕 문화원장이 수원시장에 당선되어 200주년 행사는 대규모로 치러지게 되었다. 이미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기념사업회의 사무실은 시청으로 옮겨져 준비를 해왔던 터였다. 그러나 성의 이름을 ‘수원성’과 ‘화성’으로 달리 부르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에 ‘수원성 제 이름 찾기 운동’을 벌였다. 서지학자였던 사운 이종학 선생이 문제 제기를 하고 문화원과 수원시의 노력으로 12월 28일 정부에 의해 사적 제

3호인 ‘수원성’이 본래의 이름인 ‘화성’으로 변경되었다.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문화원에서 추진해오던 사업과 시에서 추진해온 사업 중 우수 사업에 집중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

‘제 9회 수원여름음악축제’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열었다. 국악과 합창, 교향악과 팝페스티벌 등 주제를 각기 달리하면서 수원을 음악의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정조대왕 및 혜경궁 홍씨 역 선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정조대왕에 유근중 씨, 혜경궁 홍씨에 김명현 씨를 각각 선정하였다. ‘수원성 그리기 대회’도 200주년 기념이라는 부제를 걸고 확대하였다. 그러나 뛰니 뛰니 해도 ‘제 33회 화홍문화제’는 더욱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가 지지대고개부터 수원고등학교 구간에서 펼쳐졌고 융통제향 재연도 이루어졌다.

1988년 3월 창간호를 발행한 월간 『수원사랑』이 1996년 6월 지령 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또한 1989년 10월부터 수원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휘 박사)’를 범시민적으로 구성하고 화성 관련 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해왔던 화성행궁 복원 사업도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 7월 18일, 드디어 ‘화성행궁 복원 기공식’이 열린 것이다.

1996년에 『한말 일제하 수원기사 색인집』과 『수원의 민속 못골 호신당제』를 펴내기도 하였다.

1997년은 정부에서 정한 문화유산의 해였다. 이해 수원화성은 운명처럼 커다란 경사를 맞이하게 된다.

『수원사랑』의 지속적인 발간과 ‘민속 연 만들기 강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주부대학’, ‘효의 성곽순례’를 비롯하여 ‘여름음악축제’, ‘경기도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와 ‘화홍문화제’의 주관 등 하루하루가 바쁘게 사업과 강좌 등을 이어갔다. ‘제 2회 정조대왕 및 혜경궁 홍씨 역 선발대회’도 열었다.

문화유산의 해를 기념하여, ‘수원시 문화유산전’을 열었고, ‘제 10회 수원여름 음악축제’도, ‘화성 그리기 대회’도 개최하였다. 『수원의 문화유산』도 1997년에 펴냈는데 문화원이 수원의 문화유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간행도 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수원의 경사는 1997년 12월에 찾아왔다. 12월 4일 수원화성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창덕궁과 함께 등재된 것이다. 이제 수원화성은 수원시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된 것이다. 아니 세계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그것도 정부가 정한 ‘문화유산의 해’에 벌어진 일이다. 『화성성역의궤』라는 소중한 기록을 남긴 조상들의 해안이 수원화성 완공 2백여 년 만에 빛을 보았다고 할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파괴되고 왜곡되었던 수원화성의 가치를 『화성성역의궤』가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수원문화원장을 역임했던 심재덕 수원시장과 수원시의 노력이 정부의 어느 기관보다 더

켰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다. 심재덕 시장이 1997년 6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까지 직접 찾아가 위원들에게 수원화성의 가치에 대해 역설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IV. 향토문화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다

1998년은 월간 『수원사랑』의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당시 김종기 문화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수원사랑』은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향토문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림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샘물처럼 솟구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치하하였다. 문화원이 향토문화를 보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잡지가 제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2월에는 『수원 어제, 오늘…내일』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수원의 역사’, ‘수원의 정신문화와 예술’, ‘수원의 주거문화’, ‘수원의 음식문화’ 등을 조명하였다.

3월 25일에는 화성행궁의 주 건물인 봉수당 등 3개 건물이 완공되었다. 수원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복원을 주장하였고,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에 결실을 본 것이어서 문화원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문화사연구회(회장 리제재)는 6월에 『수원문화사 연구』 창간호를 발간한데 이어 12월에 『수원문화사 연구』 제 2호까지 발간하는 기염을 토했다. 수원의 선사 문화 등 수원 지역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수록하여 수원 지역학 연구에 기초가 되게 하였다.

1999년 6월에는 『수원지명총람』을 발간하였다. 수원의 정체성을 찾고 내 동네의 지명 유래를 확인하여 나 스스로가 지역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인식하자는 취지였다. 이 책에는 마을의 특성과 민속 및 자연 환경 등에 따라 붙은 지명을 정리하였다. 또 조상의 생활상과 삶의 애환 등,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흔적들을 집대성하였다.

그동안 수원문화원이 주관하면서 사용해오던 ‘화흥문화제’의 이름을 ‘수원화성문화제’로 바꾸었다.

2000년 밀레니엄의 들뜬 분위기 속에 수원문화원은 그동안 사용하던 권선구청의 별관인 문화원사에서 수원시민회관으로 이전하였다. 민간 위탁에 관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로써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문화원으로서는 보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구조 조정의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게다가 시설의 문화원 사업 사용으로 효율적 이용 효과까지 누리게 되었다.

책자 발간도 역시 활발하였다. 수원의 설화와 마을제당을 정리하여 『수원 문화의 뿌리-설화, 마을제당 편』을 간행하였고, 『우리고장 수원』도 발간하였다. 이 책의 간행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초등학교생들에게 수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2001년에도 책자 발간은 이어졌다. 『수원관련 문헌 목록집』이 2월에 발간되었다. 광복 이후부터 2000년까지 이곳저곳에서 발간된 책자에서 수원 관련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전년도에 책을 발간하지 못한 수원문화사연구회에서도 『수원문화사 연구』제 4호를 9월에 발간하였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주택복권에 수원화성문화제 사진 12컷을 실어 발매하였다. 10월 1일부터 6일까지 840만장이 발행돼 전국에서 판매되었는데 제 38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려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민들은 주택복권에 수원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2002년에는 모든 행사가 월드컵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6월 1일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를 시작으로, 6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장안공원과 화성행궁,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수원화성국제연극제가 열렸다. 또한 수원국제음악제와 시장거리축제와 월드컵 문화의 거리축제 등 시내 전체가 월드컵 분위기에 휩싸였다.

책자의 간행은 장용영의 본영과 외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 『장용영과 24반 무예』와 『해경궁 흥씨 회갑연』 등을 펴내며 수원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수원문화사연구회에서는 『수원문화사 연구』제 5호를, 『구한말·일제하 수원관련 신문자료집』도 발간하였다.

2003년 7월, 제 16대 수원문화원장으로 부원장이었던 유병현 씨가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유병현 신임 원장은 “수원문화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탄탄해야 시민들에게 지역 문화 보급 활동을 문화원이 감당해낸다.”고 하였다. 전임 김종기 원장은 2월,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월 27일에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3.1운동 8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수원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이라는 주제로 수원문화원이 주최하고, 수원문화사연구회와 한국민족운동사학회가 주관하였다.

2004년, 수원문화원은 수원지역 중심의 학술연구단체인 수원학연구소를 창립하였다.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현판식 후 열린 첫 학술대회에서는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홍규(경기대) 교수가 ‘경기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이란 기조 발표를 하였다.

제 17회를 맞이한 ‘효의 성곽순례’는 ‘이야기가 있는 화성 순례’로 바뀌었다. (사)화성연구회 회원들과 문화유산해설사가 구간을 나눠 해설을 맡았다.

이해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가 첫발을 내딛었다. 가능한 한 모든 문화행사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 문화원의 의지였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정조대왕의 능행차 길을 따라 순례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20명이 참가하여 전원 무사히 순례를 마쳤다. 전문학예사가 동행하여 해설을 곁들였음은 물론이다.

1988년 창간 이후로 단 한 호도 거르지 않은 『수원사랑』이 2004년 10월호로 통권 200호를 맞이했다. 수원문화사연구회에서도 『수원문화사 연구』 제 6호를 발간하였다. 『아듀 거리축제』와 『화령전 고유별다례』도 2004년에 간행하였다.

2005년은 첫 해외 탐방과, 청소년 해외 역사탐방, 제 1차 역사문화탐방이 시작된 해이다. 6월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산둥성의 태산, 곡부 등을 돌아보았고, '일본 속의 한국역사'로 기획된 청소년 해외역사탐방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북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3월 8일에는 첫 역사문화탐방지로 충남 서산 일대를 답사하였다.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는 5월 20일 제 2회 수원학연구소 학술대회를 호텔 리츠에서 개최하였다. 주제는 '수원시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었다.

『수원 대유평 진폐배기 농악』, 『수원시 읍전동지』 그리고 『수원의 민속자료 조사』 등을 잇달아 간행하여 민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88년 3월에 창간한 월간 『수원사랑』이 2006년 1월호를 끝으로 월간지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다. 20년 가까이 단 한 번의 결간도 없이 이어온 수원문화의 교두보가 종말을 알린 것이다. 통권 215호가 마지막이었다. 대신 앞으로는 계간으로 제호와 통권도 이어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수원사랑』 2006년 여름호의 통권은 216호가 된다. 이는 2019년 겨울호를 발행하면서 통권 270호를 맞이하게 된다.

2006년에도 민속에 대한 관심으로 『수원의 마을굿』과 『수원 재인청 농악』을 펴냈다. 2008년에는 『수원사람들의 삶과 문학』을, 2009년에는 『수원 대유평 두레』를 펴냈다.

2010년 11월 11일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학연구소는 화성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숨어있는 수원 재발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 1주제로 '수원화성의 천주교 사적지에 대한 재조명'을 수원교회사연구소 원재연 실장이 발표하고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장우 실장이 토론했다. 제 2주제는 '수원의 물길, 물에 대한 사회적 상상하기'는 경기문화재단의 최춘일 문화협력실장이 발표했다. 제 3주제 '산자수명(山紫水明), 수원 지방 산맥을 찾아서'는 수원시 김충영 건설교통국장이 발표했다. 제 4주제는 '수원의 장시의 어제와 오늘'을 한양대 사학과 주혁 교수가 발표했다.

2010년에 『숨어 있는 수원유적 발견』과 『수원 걸림굿』을 펴냈다.

『수원시사』의 세 번째 발간

『수원시사』는 2009년 4월 수원문화원이 위탁받아 수원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5년 2개월간의 자료수집과 관계자들 및 필자들의 노력 끝에 2014년 6월 완성하였다. 유병헌 원장의 재임 시에 시작한 『수원시사』가 염상덕 원장 때 출간을 본 것이다.

『수원시사』는 수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고증하고 조명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총 20권으로 발간하였다. 지난 1986년(총 1권)과 1996년(총 4권)에 발간된 수원시사의 성과를 넘어 철저한 기초 지역 향토자료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원의 역사와 문화, 도시의 발전과 변천사 등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또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수원시민들의 삶을 담았다.

1권에서부터 10권은 수원의 지리적 환경, 도시공간과 구조, 정치변동과 지방자치, 산업과 경제 성장,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문화와 예술, 종교와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고, 11권부터 15권은 수원의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담았다. 16권은 수원의 역사를 알기 쉽게 답사기로 만들었고, 17권은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려준다. 17권부터 20권은 자료집으로 옛 문서, 사진자료 등을 담았다.

발간기념식과 발간기념 전시회는 2014년 6월 26일 수원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전시회는 『수원시사』에서 가려 뽑은 사진으로 채웠다.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이라는 주제로 1960~1970년대의 수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V. 최고의 문화원을 지향하며

2011년 3월 14일 제 18대 염상덕원장의 취임식이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 염태영 수원시장, 강장봉 수원시의회의장, 정미경·이찬열 국회의원, 김상희 도의원, 명규환 시의원 등과 각 시·군문화원장, 이장우 화성문화재단 이사장, 유완식 화성운영재단 대표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염상덕 원장은, ‘수원만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새롭게 조명해 지역적, 전국적, 세계적인 명품 문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문화강좌를 수원문화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수원학 연구도 더욱 활성화해 지역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하에서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수원문화원이 지닌 역사성과 전통을 살려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시에서도 수원문화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국내 최고의 문

화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염상덕 원장은 부드러운 지도력으로 연임하며 수원문화원장으로 재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2013년 7월에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2015년 2월 만장일치로 재추대되어 제 9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으로 재신임을 받았다.

책자의 간행은 계속되어 2012년 『수원을 아시나요』와 『정조의 시와 필묵의 동행』을 발간하였다. 2013년에는 『오색유회』, 『제 50회 화성문화제 사진전』, 2014년에 『꽃피마을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펴냈다. 특히 『수원을 아시나요』는 수원의 역사는 물론이고 향토문화 전반에 대해 재미나게 다룬 책이어서 인기가 높았고, 발간하자마자 품절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수원문화원은 2005년 3월, 충남 서산 일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첫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수원의 향토문화와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비교하고 분석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여행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2007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였고 2008년은 5회,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 년에 7회에 걸쳐 전국을 다녀왔다. 2013년부터는 3월에서 11월까지 9회를 실시하되 회원의 요구에 따라 횟수를 늘리기로 하였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2014년부터 수원문화원의 인문학 역사탐방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 2019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2013년부터는 특별기획탐방도 시작하였다. 12월 2박 3일 동안 경주의 신라 유적, 2014년 11월엔 남해안의 이순신 장군 유적지 일대, 2015년은 전라남도의 진도, 해남, 완도, 강진 지역을 역시 2박 3일에 걸쳐 탐방하였다. 2016년 역시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경북 의성과 청송, 울진, 영양 등과 강원도 삼척과 태백 일대를 탐방하였다. 2017년에도 경남 합천과 밀양, 부산, 양산 등의 가야문화권을 탐방하였다. 2018년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역시 2박 3일을 다녀왔고, 2019년에는 지리산 주변의 문화를 찾아 다녀왔다.

2011년 12월 수원시 민속예술단 창단 공연을 가졌다. 제 21회 수원사랑 큰잔치와 더불어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관람하였다. 수원시 민속예술단은 이후 2016년 ‘해후’를 공연하였고, 2017년에는 퓨전 음악극 ‘청춘빨당’을 공연하였다. 수원민속예술단의 제7회 정기공연 작품인 ‘청춘빨당’은 일제강점기 수원의 종묘회사였던 ‘부국원’을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명랑하고 유쾌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해마다 열어온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점점 열기가 더해져 수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2012년 10월 25일 저녁 7시 수원 제2야외음악당(만석공원)에서 뮤지컬 전문배우 전수경

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The Best of Musical’로 가을 저녁 흥취를 돋웠다.

기획 공연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에서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비롯해 ‘드림걸즈’, ‘42번가’, ‘그리스’ 등 유명 뮤지컬을 전문 배우들의 음성으로 들려주었다. 또 ‘사랑이 지나가면’과 ‘붉은 노을’ 등 대중의 귀에 익숙한 음악도 함께 펼쳐졌다.

이는 야외 공연을 누리기에 좋은 계절을 맞아 고가의 뮤지컬을 봐야만 즐기는 주옥같은 음악들을 한 자리에서 무료로 즐기도록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관람료는 전석 무료다.

수원장치기를 발굴하고 증언을 받아 책으로 엮어낸 주인공도 수원문화원이었다. 또한 오늘날까지 해마다 재현해나가는 주체도 역시 문화원이다.

장치기는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유사한 경기로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격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적당한 길이의 끝이 굽은 장(막대)을 사용한다 해서 ‘장채놀이’라고도 하며, 짚 덩이를 뭉치거나 소나무의 옹이를 깎아 만든 공을 갖고 놀이를 한다는 점에서 ‘얼레공치기’라고도 부른다.

『고려사절요』, 『경국대전』, 『무예도보통지』 등과 같은 사료에 보면 장치기는 흔히 격구라 표현되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데, 고려 때는 여자들이 이 놀이를 할 때 치장이 너무 호화스러워 나라에서 중지를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장치기는 초기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경기로 행해졌다. 그러던 것이 점차 시간이 흐르며 단순한 대중적 전통 놀이로 변하게 되었다. 일제하인 1931년 2월 5일 수원군 서탄면 황구지천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수천의 인파들로 북적거렸다. ‘전 조선 얼레공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이들을 응원하거나 경기를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장치기가 대중적 놀이 혹은 경기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수원장치기는 타지방에서 보기 힘든 특색이 하나 보인다. 경기에서 지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경기장 양편에 지게 2개를 세워 골문을 만들고 지게 작대기(장)를 이용해, 짚을 단단히 묶은 뒤 형 짚으로 썬 얼레공을 상대방의 골문에 넣는다. 경기는 주로 마을대항으로 이루어진다. 장치기에서 이길 경우 풍년이 들고 질 경우 흉년이 든다는 인식 때문에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각각의 마을은 농악으로 구성된 두레패를 동원하여 흥을 돋우고 사람들은 목이 터지도록 응원의 함성을 질러댄다. 경기 후에는 승패에 따라 선수들끼리 동물의 흉내를 내게 하거나 비단 옷을 입은 여자로 분장시키는 등의 익살스런 별주기와 무동을 태워 길놀이를 하는 상주기 놀이가 이어졌다. 겨울에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기 위해 놀이로서 행해졌던,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든 장치기! 마을의 화합과 친목, 대동단결의 방편으로도 사용되었던 그 장치기 놀이가 오늘날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보존하고 시연한다.

2011년부터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짚신 신고 화성 걷기'를 시작하였다.

짚신으로 만든 신, 짚신. 그 명칭이 옛 문헌에 등장하는 것을 따져보면 짚신의 역사는 약 2천여 년 전 마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대중적 평상화로 서민의 발이었다. 하지만 21세기에 짚신은 다양한 소재와 기능의 신발들에 자리를 잃은 채 '유물'이 됐다. 수원문화원은 가치가 사라진 짚신에 새 기능을 부여했다. 짚신을 신음으로써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내가 사는 마을과 그 속의 세계문화유산을 깊이 들여다보게 했다.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그 기능은 '돋보기'가 된, 새로운 짚신을 만났다.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데 돈을 내고 체험하는 행사치고는 높은 참여율이다. 창룡문 현장 접수창구에 모인 체험객 중 인터넷 사전 등록자들은 접수증을 낸 후 짚신과 짚신 주머니, 생활한복 상의, 생수, 지도 등을 받고 본격적인 세계문화유산 화성 걷기에 나섰다. 현장 접수자 대부분은 가족 단위였다. 남녀노소 시민 모두는 짚신을 프로그램 선택 이유로 꼽았다. 도심에서 짚신 신고 걷는 생경한 문화 체험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창룡문에 모인 시민들은 짚신을 신고 세계문화유산을 누볐다. 장안문, 서장대, 수원화성행궁. 수원화성 행궁광장까지 약 2.9km의 구간을 걸었다. 자신이 사는 수원시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떼는 것에서 '느림의 미학'이 피어올랐다.

소설가 홍성원의 문학세계 수원학연구소 학술대회

2013년 11월 13일, 수원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수원의 대표 소설가 '홍성원'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홍성원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수원매산초, 수원북중, 수원농림고교를 졸업했다. 196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빙점지대'가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후 '남과 북', '먼동', '달과 칼' 등 수많은 소설을 남겼다. 특히 남양과 수원을 무대로 한말에서 3·1운동에 이르는 격동의 세월을 생생하게 보여준 작품 '먼동'은 1993년 드라마로도 제작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학술대회에서는 1960~70년대 홍성원의 작품을 통해 젊음의 의미와 한국 근대사의 총체적인 모습을 되짚어보았다. 최동호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동식 인하대학교 교수, 복도훈 문학평론가, 이승준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수원학연구소에서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로

2004년 수원문화원이 설립한 부설 연구기관 수원학연구소는 10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

다. 『수원학 연구』 논문집을 10권 발행하였고, 해마다 학술대회를 열어 ‘수원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수원시의 방침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학연구소’ 명칭을 넘기고 2014년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소’로 출범하였다. 이후 『수원화성향토문화연구』 논문집을 해마다 발행하여 2018년 제 5호를 발간하였고 2019년도 발간을 준비하는 중이다.

논문집에는 해마다 벌인 학술대회의 논문도 함께 실는다. 2014년 ‘심재덕 전 수원시장을 재조명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학술대회의 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을 함께 수록하였다. 일반논문은 수원과 관계되는 논문으로 국한했다.

2015년 논문집에는 ‘수원에서 만주까지 독립운동가 임면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발표 논문 3편과 수원지방의 두레에 관한 논문 3편, 수원학에 관한 논문 1편 등 7편을 수록하였다.

2016년 논문집에는 ‘수원화성 축성, 방문,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 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을 수록하였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원문화원 개원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학술대회, ‘수원의 문화적 위상과 문화원의 역할’에 관한 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을 수록하였다.

2018년에는 학술대회와 관련한 특집논문으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가치’, ‘을묘원행 행사의 특징과 가치’,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성조의 성격과 현대적 계승방안’ 등을 수록하였다. 또 일반논문으로는, ‘을묘원행로의 과거와 현재’, ‘정조임금의 논어관’, ‘수원출신 염석주와 만주 농장’, ‘정조대 수원 별시 문과 고찰’ 등 총 7편의 논문을 실었다.

2019년은 ‘수원의 산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으며, 학술대회 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이 수록될 예정이다.

단행본도 발행하였는데 수원의 역사와 근대는 물론이고 현대까지 담아낸 『수원을 아시나요』, 구전되어온 설화를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꾸민 『수원의 설화』, 제 2의 『수원을 아시나요』 격인 『별별수원』, 오랜 세월 수원에서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얘기인 『알뜰살뜰 수원상인』, 수원의 두레를 정리한 『수원두레』, 각 마을의 우물고사를 담아낸 『우물고사』, 수원의 대표 거리를 망라한 『수원의 별별 거리』, 『수원의 동제와 마을 축제』, 『수원의 보물과 무형문화재』 등이다.

수원문화원은 2015년 9월에 45년 된 수원시민회관을 재단장 해 ‘수원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편의시설이 부족하였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방음장치를 갖춘 강의실도 마련하여 음악 관련 강좌에 요긴하게 쓰인다. 찾아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대폭 개량한 셈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수원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민에게 개방해 마음껏 창작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색소폰, 미술, 음악, 한복 제작 등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동아리가 생활문화센터의 모임 공간을 자유

롭게 이용한다.

‘제20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수원 두레’가 대상을 차지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오산문화원이 공동주관한 경기도민속예술제에는 경기도내 30개 시군의 각 대표급 민속예술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9월 18~19일 오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경연을 벌였다. 이번 경연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소리 등 장르의 구분 없이 민속예술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치러졌다.

성년을 맞은 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원문화원의 수원 두레(고종 임광식, 지도위원 김현수)는 정조대왕이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면서부터 유래된 전통 농악이다. 타 지역 풍물에 비해 토속적이고 질서와 법도 있는 화려한 군악 및 도시 풍물이 특징이다.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원 두레’는 이듬해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최우수상은 이천문화원의 〈용면리 줄다리기〉가, 우수상에는 용인문화원의 〈포곡읍에 전해 내려오는 장례행렬 재현〉과 파주문화원의 〈교하 기세울 농악〉이 각각 선정되었다. 공로상에는 ‘안성 청룡 바우덕이 지경다지기’(안성), ‘석천 농기 고두마리’(부천), 예술상에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성남), ‘안산 둔배미 배치기 소리’(안산), ‘오산외미 거북진 놀이’(오산), 민속상에 ‘화성 두레 농악 판제’(화성), ‘양주들노래’(양주), ‘구리 구지농악’(구리) 등이 각각 뽑혔다. 우수상을 비롯한 공로상, 예술상, 민속상 수상 단체는 2016년 경기도우수민속예술 보존단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수원두레’는 2016년 10월 15~16일 전북 전주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수원뿌리학교 개설과 찾아가는 뿌리학교

2016년 4월 수원문화원 부설 수원뿌리학교가 출범하였다. 수원의 향토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1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수원뿌리학교는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봄에 시작하는 1학기는 ‘수원화성’에 관한 집중 강의로 15강을 구성한다. 축성 배경부터 용릉과 건릉, 용주사에 이르기까지 이론은 물론이고 4차례에 걸친 현장답사도 진행한다. 화성의 행궁 등 중요시설을 돌아보는 1, 2차 답사에 이어 3·4차는 버스를 대절하여 용릉과 건릉, 용주사와 독산성, 켄리사까지 답사하는 일정이다.

가을에 시작하는 2학기에는 문학이며, 농업 등 수원의 이모저모를 담아내는 강좌로 역시 15강을 진행한다. 사근행궁 터와 지지대비, 고영근 묘소, 해우재, 영화정과 만석보를 처음으로, 우장춘 묘소와 향미정, 축만제, 지동 마을만들기, 수원향교를, 심곡서원과 조광조 묘소, 심온 묘소와 광교 박물관, 봉녕사 등 4차례에 걸친 현장답사도 이어진다. 두 학기를 모두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도 수여한다.

‘찾아가는 수원뿌리학교’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각 학교나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강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의 수업과 연계하여 ‘수원화성의 축성 배경’이나 ‘윙룡과 건룡 이야기’ 등이 인기를 끈다.

수원대학교와 MOU 체결

2016년 4월 12일 수원문화원과 수원대학교는 수원지역의 문화교류 및 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문화원형 대표 브랜드 및 공연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고, 문화예술 인력 활성화를 위한 전통예술 전문 인력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하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시설·인력 등에 대한 공동 지원과 전통예술 관련 학술정보 등을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할 것은 물론이고, 수원지역의 민속예술을 보존하며, 예술컨텐츠와 브랜드를 개발해 민속예술을 다각도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해마다 진행하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2004년 처음 시작한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행사가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수원화성을 거쳐 윙룡에 이르는 62.2km 구간에서 펼쳐졌다. 수원시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여 수원, 서울, 인천 등 각지에서 참가한 160여 명의 청소년들은 3박4일간 정조대왕이 현릉원(사도세자의 묘소) 참배를 위해 지났던 길을 따라 걸으며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되새겼다.

순례단은 서울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열린 출정식 후 창덕궁을 돌아보고 경복궁, 서울역, 한강대교, 노량행궁 등을 순례하였다. 저녁에는 수원화성과 을묘원행에 관한 특강을 듣고 첫 날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시흥행궁 터, 지지대고개, 만석공원을 거쳐 장안문에서 수원화성 입성식을 열었다. 셋째 날에는 수원문화원, 수원향교, 윙룡, 용주사를 지났고, 마지막 넷째 날에 수원화

성 성과를 감사하며 모든 순례 일정을 마쳤다.

3박4일간 모든 순례를 마친 한 학생은 “너무 더워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도 “책으로만 배우던 정조대왕의 능행차 구간을 내 발로 걸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뿌듯해 하였다.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해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 28회를 맞이하였다.

음력 1월, 정월(正月)의 보름달이 뜨는 날인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보름달을 보며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한 해의 평온을 기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시 풍속을 행하는 날이다. 특히 정월대보름에 뜨는 보름달은 일 년에 열두 번 뜨는 보름달 중 가장 크게 떠오르며,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수원문화원은 해마다 올 한해의 안녕과 염원을 기원하는 행사와 옷놀이, 연 만들어 날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도록 행사를 마련, 정월대보름의 뜻을 되새긴다. 이 밖에도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전통문화공연과 퀴즈대회 및 상품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로 참여한 시민들을 즐겁게 해준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수원시민과 수원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려는 의도이다. 세시풍속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느끼고, 널리 알리기 위한 일이기도 해서 뜻깊은 일이다.

60년간 수원의 문화를 이끌고 책임져온 수원문화원

2016년 10월 수원문화원 개관 60주년 기념식 및 수원사랑큰잔치가 열렸다. 1부에서는 수원문화원 각 동아리의 공연이 흥겹게 이어졌고, 2부에서는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호국선열을 위한 묵념, 내빈소개에 이어 염상덕 수원문화원장이 기념사를, 내빈들이 축사를 하였다. 또한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 모범적인 2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수원문화원 개원 60주년기념식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문화나눔 봉사단 ‘검정고무신’의 신명나는 난타공연이었다. 축하공연인 ‘검정고무신’과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아리랑’ 공연을 선보인 노인들의 몸짓이 절도 있고 힘이 넘쳐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회갑을 맞이한 수원문화원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친구’들이 신명나게 놀았던 셈이다.

VI. 나오는 말

수원문화원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6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향토문화 연구와 발전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는 곧 오늘날 수원이 문화도시로 인정받는 성과로 드러났다. 수원성에서 수원화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였고, 화성행궁의 복원을 이루어냈으며, 음악과 미술, 문학과 연극 등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온 전인차였다. 그러나 문화원 자체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지금의 상황을 탈피해야 할 책임 역시 막중하다. 그 방법과 목표는 당연히 향토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내 지역의 역사와 민속에서 큰 줄기를 찾아야 하고 그를 계승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급한 일은 과거의 업적 중에서 기존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찾아야 하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향토문화는 그 속성상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구나 인력의 확대와 확충이 필요하고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다. 아직 정리하지 못해 흩어진 기록이나 문서, 사진 등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한다. 가능하면 디지털 자료로 환원하여 보존하는 게 좋다. 잠정적으로는 기록문화관의 설립과 운영도 문화원이 맡아야 한다. 과거의 행적이 화려했고, 그 성과가 잘 드러났다고 안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놓아야 하면서 동시에 보다 질 높은 향토문화를 보급시켜야 한다.

성남문화원의 향토사연구 현황

백 남 옥 (경기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目 次

I. 머리말

II. 성남문화원의 발행 도서명

1. 향토사 자료집
2.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단행본
3. 성남향토문화총서
4. 연구논문집과 학술회의·학술토론회
 - 1)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논문집
 - 2) 광주문화권협의회(광주, 성남, 하남문화원) 논문집
 - 3) 학술회의
 - 4) 학술토론회
 - 5) 학술토론회·세미나·기타 논문집
5. 기타 도서

III. 맺음말

집필자

백 남 옥 경기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I. 머리말

서울시는 1968년부터 무허가 판잣집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의 남쪽에 광주대단지를 조성하였다. 서울시가 상하수도 같은 도시의 기반 시설과 주택조차 짓지 않고 1969년 9월 1일부터 철거민을 이주시켰다. 1971년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수 만 명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1973년 7월 1일에 광주대단지는 광주군의 돌마면·낙생면·대왕면·중부면·세촌면을 행정구역으로 삼아 성남시가 되었다.

성남문화원은 1978년 7월 5일에 문예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1980년 9월 30일에 사단법으로 설립 되었다. 1980년대의 성남문화원은 전국의 여느 문화원이 그러 하듯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 즈음 성남문화원은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일당 강씨’의 문집을 발굴하여 강정일당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1986년 3월 4일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제외하곤 성남문화원은 전국의 여느 문화원처럼 ‘백일장’·‘응변대회’·‘미스 성남 선발대회’·‘호돌이 씨름대회’ 등과 같은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성남문화원은 1987년에 문화원의 소식지인 <성남문화>가 창간되었을 뿐 도서 발행은 없었다.¹⁾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의 남·서부지역 일부를 ‘분당’으로 개발하고 1996년 3월 까지 입주를 마쳤다. 신도시인 ‘분당’은 서울의 강남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입주한 주민들 사이에 ‘천당 아래 분당’이란 말이 유행될 정도로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다. 성남시민들은 구시가지와 분당사이에 ‘한 지붕 두 가족’이라 할 정도로 간극이 생기면서 ‘구시가지’와 ‘분당’의 정서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성남문화원은 향토사와 문화를 연구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1993년 성남문화원은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향토문화연구소’는 가천대학교·동서울대학교·신구대학교·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던 인문사회분야 교수와 향토사연구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1994년 제1호 『城南文化研究』란 논문집을 발

1) 성남문화원, 『城南文化院 四十年史』, 2018.6.30. pp.146~148.

간하였다.²⁾

이후 성남시의 향토사와 문화에 관계되는 논문이 매년 발표되면서 2018년까지 『城南文化研究』 제25호를 발행하였다.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 발표가 대략 250여 편이 될 정도로 대단한 학문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향토문화연구소는 2013년 12월 27일 '성남학연구소'를 개명하고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사회·경제 분야까지 연구영역을 넓혔다.

성남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소의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1998년 각 분야의 전공학자들이 집필한 『성남의 역사와 문화』란 단행본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후 성남문화원은 성남시의 향토사와 문화에 관계된 다양한 도서를 발행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성남문화원이 주관하여 1996년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한국·중국·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한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중·일의 학자들이 남한산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국내학계의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성남문화원의 향토사연구는 국내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향토사연구를 국제화하였다.³⁾

국제학술회의는 2회까지 하였고 그 후 학술회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의 제 23회 학술회의 주제인 '지역문화의 창달의 중심 성남문화원'이란 내용에서 보듯 성남문화원의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깊이 알 수 있고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학술회의와 더불어 1999년 '제1회 학술토론회-송산(松山) 조견(趙狷) 인물 연구'를 시작으로 성남지역에 묘역을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전주이씨 덕양군과 참판공 이순제연구'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현안에 대하여 '학술세미나'란 형식으로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한산성으로 연해져 있는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향토사에 대하여 성남문화원은 하남문화원·광주문화원과 공동으로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학술회의'·'학술토론회'⁴⁾·'학술세미나'⁵⁾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도서로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남문화원의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성남문화원은 향토사에 대한 축적된 역량을 인정받아 2014년

2) 성남문화원, 『城南文化院 四十年史』, 1994.

3) 성남문화원,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1996. 학술회의는 2018년 제23회 학술회의까지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발표 논문을 모아 책을 발행하고 있다.

4) 성남문화원, 『송산 조견 인물연구』, 1999. 학술토론회는 2019년 제13회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발표 논문을 모아 책을 발행하고 있다. 인물연구와는 달리 '봉수지 원형을 위한 시민 종합토론회'(2006)와 '성남지역 3.1운동 기념 학술토론회'(2008)가 두 차례 열렸고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책을 발행하였다.

5) 성남문화원,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1999. 천림산 봉수를 고증하는 세미나가 한차례 열렸다.

『성남시사』 10권을 주관하였다.⁶⁾

그리고 성남문화원은 ‘성남사랑글짓기’⁷⁾와 ‘둔촌 청소년 문학상 백일장’을 매년 개최하여 입상한 작품을 모아 도서를 발행하고 있다.⁸⁾

이처럼 성남문화원과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성남학연구소가 발행한 책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경기도의 향토사연구를 위한 학술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된 도서를 ‘향토사에 대한 자료집’·‘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도서’·‘성남향토문화 총서(마을지)’·‘학술논문집’·‘학술회의’·‘학술토론회’·‘학술세미나’에 관한 도서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예하면 ‘백일장’가 같은 문화행사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 발행한 도서를 기타 도서란 항목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II. 성남문화원의 발행 도서명

1. 향토사 자료집

◆ 도서명 : 城南 『城南金石文大觀』 (上)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3. 12. 24

내 용 : 神道碑(12기)/ 墓碣(16기)/ 墓表(19기)/ 事蹟碑(4기)/ 墓地銘(4기)/ 附錄

◆ 도서명 : 城南 『城南金石文大觀』 (下)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6) 성남시사편찬위원회, 『城南市史』 1~10, 2014. 성남시사편찬위원회를 성남문화원에 두고 문화원이 시사편찬을 주관하였다.

7) 성남문화원, 『성남이여, 영원하라』, 2008. 『성남이여, 영원하라』라는 수상 작품집의 발행은 제1회(1994)~제27회(2018)까지 이어 지고 있다.

8) 성남문화원, 『둔촌 중국 백일장』, 2014. 제1회 둔촌 중국 백일장은 중국 심양시 인민정부광장에서 실시하였고 2019년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둔촌 중국 백일장』이란 도서는 둔촌 중국 백일장에 입상한 작품집으로 2014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2001년 제1회 송산 어린이 백일장을 성남문화원이 주관하여 현재까지(2019, 19회) 이어 지고 있으나 도서는 발행하지 않고 있다.

발행일 : 2006. 12. 30

내 용 : 神道碑(8기)/ 墓碣(11기)/ 墓表(35기)/ 事蹟碑(6기)/ 附錄

◆ 도서명: 國譯『高麗名臣傳』(上)

저자 : 金甬(金陵) 남공철(南公轍)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4. 12. 30

내 용 : 고려명신전 권1~권5권

◆ 도서명: 國譯『高麗名臣傳』(下)

저자 : 金甬(金陵) 남공철(南公轍)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6. 12. 30

내 용 : 고려명신전 권6~권12

◆ 도서명 : 國譯『靜一堂遺稿』(上)

저자 :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

발행일 : 1998. 10. 17

내 용 : 시(詩)/ 명(銘)/ 서(書)

척독(尺牘)/ 별지(別紙)/ 기(記)

설(說)/ 제발(題跋)

◆ 도서명 : 國譯『靜一堂遺稿』(下)

저자 : 정일당(靜一堂) 강씨(姜氏)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2. 12. 31

내 용 : 시(詩)/ 서(書)/ 편지(尺牘)

부 별지(附別紙)/ 기(記)/ 제사와 제발(題跋)

묘지명(墓地銘)/ 행장(行狀)/ 제문(祭文)
명문(銘)/ 잡저(雜著)/ 시(詩)/ 척독(尺牘)
부록(附錄)/ 발문(跋文)

◆ 도서명 : 『성남지역 3·1독립운동 자료집』

발행인 : 남선우,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발행일 : 2003. 12. 30

내 용 : 제1부 성남지역 3·1독립운동 근거자료

제2부 성남지역 3·1독립운동 추념식 기사자료

제3부 3·1독립운동 추념식 기사자료

제4부 성남지역 3·1운동에 관한 논설·제안

◆ 도서명 : 『성남지역 여성사 자료집』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3. 12. 31

내 용 : 박순임. 전통시대여성의생활과의식

천화숙.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김도형. 일제하 성남지역 여성교육과 민족운동

서승갑. 해방 후 성남여성의 관련자료

◆ 도서명 : 『한국의 봉수 40선』

성남 천립산 봉수원형·복원을 위한 사례조사 자료집 I

발행인 : 한춘섭발행처 : 성남문화원발행일 : 2007. 7. 20

내 용 : I. 사업개관

II. 한국의 봉수 40선

III. 천립산 봉수 복원을 위한 타 지역 봉수 답사 보고

◆ 도서명 : 『봉수 문헌 자료집』 성남 천림산 봉수 복원 종합 보고서Ⅱ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11. 30

내 용 : 논표 - 김주홍. '海東地圖'의 봉수표기 형태 고찰

烽燧 문헌 기록 - 1. 봉수 관련 고문서

2. 天臨山 烽燧에 관한 기록

3. 古代의 봉수 관련 기록

4. 文集의 烽燧 기록

5. 文集의 烽火 기록

6. 文集의 연대 기록

7. 申景濬. '旅庵全書'에 기록된 烽路

8. '朝鮮王朝實錄'의 봉수 기록

9. '承政院日記'의 봉수 기록

10. '日省錄'의 봉수 기록

11. '備邊司謄錄'의 봉수 기록

◆ 도서명 : 『성남역사의 증언록』 (자료조사 보고서)

일 시 : 2012년도에 기초 자료 조사

(책자발간은 2013년도 추진)

주 최 : 성남문화원

주 관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후 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내 용 : 오늘의 성남이 있기까지 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의 변화 발전 과정에 대한 증언과 관련자료를 연차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발간하는 사업 중 이른바 '8. 10 광주대단지 사건'을 전후한 사회상을 밝혀주는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청취하여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보존과 전승을 기하고자 함.

◆ 도서명 : 『남한산성일대 독립운동사 자료집』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3. 11. 17

내 용 : 한춘섭. 남한산성 지역의 의병전쟁

윤종준. 성남출신의 의병장

서평일 · 한춘섭. 의병관련기록

서승갑. 남한산성 지역의 독립운동사 조망

2.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단행본

◆ 도서명: 『향토문화의인물』 1- 여류문인강정일당

발행인 : 이용상

집필자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2. 8. 1

내 용 : I. 강정일당은 누구인가?

II. 강정일당의 생애

III. 부덕을 지닌 문인의 위치

IV. 여류문인이 남긴 높은 뜻

◆ 도서명 : 『96 향토사료관설치를위한기초조사연구』

연구진 : 허창무, 소진광, 장정옥, 장철수, 전보삼, 조병로, 변영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6. 12. 31

내 용 : 제1장 서론

제2장 향토사료관의 기능과 활용방안

제3장 남한산성과 관련한 향토사료와 전시방안

제4장 성남시 유형의 향토사료와 전시방안

제5장 성남시 민속자료 및 전시방안

제6장 향토 음식 문화의 변천과 전시방안

제7장 향후 연구과제

◆ 도서명 : 『97 성남 향토 사료관 기초조사연구』

연구진 : 허창무, 소진광, 신원봉, 박종민, 변영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7.

내 용 : I. 들어가는 말

II. 연구의 기본의도

III. 주요 도시의 지역박물관 전시 사례 연구

- 인천시립박물관, 강릉시립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IV. 성남향토사료관 기본 전시 계획

◆ 도서명 : 『98 성남향토사 사료관 기초조사연구』

연구진 : 소진광, 김은형, 원준연, 고광철, 원미연, 김이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8.

내 용 : I. 서론

II. 성남시 도시성장과 발전전략

- 성남시 문화수요의 전제

III. 성남시 향토사료관의 위상정립

IV. 성남시 향토사료관 입지분석

V. 정책대안제시

◆ 도서명 : 『성남의 역사와 문화』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8. 2. 10

내 용 : 배기동, 성남의 선사문화

백남옥, 백제한성시대의성남

신안식, 고려시대성남지역

조병로. 남한산성의축성과
전보삼. 남한산성과병자호란
허창무. 조선과청의외교관계
천화숙. 성남지역에서의근대화운동과민족운동
서승갑. 일제하성남지역의민족운동
한춘섭. 광복이후성남의역사
소진광. 성남의도시발달
조유전. 성남시의유적과유물
장철수. 광주및성남지역의민속

◆ 도서명 :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1. 12. 31

내 용 : 성남시의 자연환경과 지명

성남의 고대역사

성남의 중세역사

성남의 근세역사

성남의 근대역사

성남의 현대역사

성남의 인물과 문학

성남의 문화유산

◆ 도서명 : 『성남지역 의병조사 연구』

편집위원 : 백남옥, 천화숙, 전보삼, 서승갑

집필진 : 전보삼, 김도형, 서승갑, 이승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2. 12

내 용 : 병자호란시 성남지역의 의병자료 연구

한말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일제하 성남지역 항일 의병정신의 계승

성남지역의 항일 의병항쟁과 독립운동

◆ 도서명 : 『내 고장 성남』 (초판)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3. 5. 30

내 용 : 제1장 성남시 개관

제2장 성남의 탄생

제3장 성남의 문화유산과 인물

제4장 성남의 어제와 오늘

제5장 성남의 미래

◆ 도서명 : 『관교마을의 생활 · 문화지도』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4. 2. 27

내 용 : I. 관교마을의 생활 · 문화지도를 열면서

II. 지도로 본 관교마을

III. 생활 · 문화로 들여다 본 관교마을

IV. 도시 근교의 전형인 운중마을

V. 문화유적에 나타난 관교

◆ 도서명 : 『강정일당 추모 詩낭송집』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5. 7. 7

내 용 : 이주희. 탄원삼장을 짓고

한춘섭. 모닥불 훈이였네

김영의. 그대는 우리의 누구십니까

윤광열. 당신은 언제나

양정은. 강정일당 사랑말씀
이영성. 님의 사랑
표수재. 중용을 읽은 후, 선날 그믐날
장충렬. 사람이 산다는 것.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임혜숙. 月在手風滿袖(월재수풍만수)
김진이. 정일당 사랑말씀

◆ 도서명 : 『강정일당 향토인물에 대한 추모 강연회』

강연일 : 2005. 07. 20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5. 07. 20

내 용 : 성남시 승격 32주년을 기하여 성남시민들에 의해 추앙된 향토유적 제1호 강정일당의
인물, 사상, 작품에 대한 연구

◆ 도서명 : 『성남문화유적』

발행인 : 남선우, 한동익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5. 12. 30

내 용 : I. 머리말

II. 역사적 고찰

III. 문화유적

IV. 맺는 말과 드리는 말

◆ 도서명 : 『내 고향 성남』 (2차 개정판)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6. 5. 10

내 용 : 제1장 성남시 개관

제2장 성남의 탄생

제3장 성남의 문화유산과 인물

제4장 성남의 어제와 오늘

제5장 성남의 미래

◆ 도서명 :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발표일 : 2006. 5.16~5.17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연구소

발행일 : 2006.5.16

내 용 : 성남시 금토동 관내에 조선 초기 봉화터로 사용되던 천림산 봉수지의 복원과 한국 봉수에 관한 연구. 조사 자료집

◆ 도서명 : 『판교신도시 마을 및 시설 이름붙이기』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6. 7.

내 용 : 제1장 판교신도시 지명제정 진행일정

제2장 이름 붙이기 개요

제3장 간행사

제4장 판교 지역의 역사적 고찰

제5장 판교 옛 지명 조사

제6장 판교 지명(복수안)

제7장 판교 지명(1차안)

제8장 판교 지명(2차안)

제9장 판교 지명(3차안)

제10장 판교 지명(최종안)

제11장 판교 지명(최종확정안)

◆ 도서명 : 『내 고장 성남』 (3차 개정판)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7. 5. 10

내 용 : 제1장 성남시 개관

제2장 성남의 문화유산과 인물

제3장 성남의 어제와 오늘

제4장 부록

(* 2018년까지 매년 재판을 발행하고 있다.)

◆ 도서명 : 『성남오리뜰두레農樂』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보고서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7. 12. 31

내 용 : I.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사업 계획(안)

II. 성남 오리뜰두레농악 복원 및 재현사업 개요

III. 성남 오리뜰두레농악

IV. 성남 오리뜰두레농악의 복색과 소품

V. 성남 오리뜰두레농악의 진풀이와 장단

VI. 보도자료

◆ 도서명 : 『성남문화원 30년사』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7. 5

편집인 : 한춘섭, 윤종준, 공경희, 로윤지

내 용 : 제1장 돌아본 30년

제2장 30년 발자취

제3장 앞서 가는 주요 사업

제4장 내 고장 성남

부록

◆ 도서명 : 『역사속으로의 성남여행』

발행인 : 한춘섭 · 윤종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9. 6

내 용 : 제1장 성남의 역사

제2장 성남의 지명유래

제3장 성남의 문화유산과 인물

제4장 성남의 어제와 오늘

◆ 도서명 : 『역사 숨소리가 있는 남한산성』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0. 4. 25

편집인 : 윤종준, 김대성

내 용 : 기호일보에서 1년간 연재되었던 남한산성을 책으로 발간하여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남한산성과 성남의 역사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서적

◆ 도서명 : 『성남인물지』 (광복이전 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0. 7. 5

내 용 : 1945년 이전까지 활동했던 성남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 해보고 훌륭한 인물들
의 성품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용한 서적

◆ 도서명 : 『성남 옛이야기』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0. 11. 30

제 작 : 한누리미디어

내 용 : 우리 고장 성남에 전해오는 옛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한권의 책으로 총 정리한 것이다.

옛날 이야기를 대개 ‘설화(說話)’라 하고, 이것을 크게 신화·전설·민담의 세 가지로 분류 한다. 역사에 얹힌 뒷 이야기와 지명전설·성명전설 등이 있고 암석·수목·산천 등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 도서명 : 『성남시 40년사』

발행인 : 이재명

발행처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발행일 : 2014. 12. 15

내 용 : 제1권 지리 -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지리

제2권 역사 - 한눈에 보는 성남의 기록

제3권 전통의 향기 - 문화유산·민속·성씨·인물

제4권 정치경제 - 풀뿌리 자치와 산업경제

제5권 현대사회 - 문화·예술·교육·시민 생활

제6권 도시개발사 - 도시박물관. 성남

제7권 민주주의 -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제8권 생애사 -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제9권 부록1 -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제10권 부록2 - 성남 길라잡이 사전

◆ 도서명 : 『성남의 역사와 문화』 -성남시사(40년사)보급판

발행인 : 이재명

발행처 : 성남시사편찬위원회

발행일 : 2015. 02.

내 용 : 성남시사 40년사 (전10권)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지리, 한눈에 보는 성남의 기록, 문화유산·민속·성씨·인물, 풀뿌리자치와 산업경제, 문화·예술·교육·시민 생활, 도시박물관 성남,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이웃사촌 사는이야기, 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성남 길라잡이 사전 등을 간략히 정리한 보급판

3. 성남향토문화총서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1

(성남의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성남시 민간신앙 조사보고서-)

발행인 : 박 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1. 02. 20

내 용 : 제1편 조사개요

제2편 마을신앙(수정구 · 분당구 · 중원구)

제3편 가정신앙(수정구 · 분당구 · 중원구)

부록 : 성남지역 민간신앙 일람표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2 (판교 마을지 I)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1. 12. 31

내 용 : 제1장 판교의 자연환경

제2장 판교의 역사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제4장 판교마을의 실태조사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3 (판교 마을지 II)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2. 12. 31

내 용 :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전근대사회 판교지역의 지리

제3장 판교의 생활과 문화

제4장 판교 지역의 문학

제5장 판교 지역의 실태 1(삼평 · 백현 · 궁내동)

제6장 판교 지역의 실태 2(운중 · 석운 · 대장 · 하산운동)

부록 : 판교 및 성남의 인물 연구사 정리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4 (대왕 마을지)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4. 12. 30

내 용 :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대왕마을의 자연 · 인문 환경

제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제4장 대왕마을인의 삶과 문학

제5장 지명으로 풀어 본 대왕마을

제6장 대왕마을의 일상사적 접근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5 (북정 · 태평 마을지)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5. 12. 20

내 용 :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마을의 역사

제3장 마을의 문화유적

제4장 마을의 정치 · 경제 · 사회

제5장 마을의 생활과 문화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6 (금광 · 단대 · 상대원 마을지)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6. 12. 30

내 용 : 제1장 마을의 역사

- 제2장 상대원동 마을지
- 제3장 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유산
- 제4장 마을의 주요기관과 사회적 기능
- 제5장 전래풍속(傳來風俗)
- 제6장 성남시 재개발 현황과 방향

◆ 도서명 : 『성남향토문화총서』 7 (돌마 마을지 上)

-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여수동, 이매동, 야탑동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7. 12. 30

내 용 : 윤종준, 돌마지역의역사와문화

한동억, 한동열, 돌마면의지명유래

이연복, 돌마면의세거성씨

전봉구, 박성한, ‘성남의경제활동현황

최명숙, 마을의주요기관과사회적기능

4. 연구논문집과 학술회의 · 학술토론회

1)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논문집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호

발행인 : 이창열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4. 5. 20

내 용 : 김창환, 성남시의 지형환경 연구

박상규, 성남지역의 지명성격 고찰 百濟語와 高句麗語의인 요소를 중심으로

어순영, 민족문화선양에 관한 소고

이형구. 永昌大君 묘지명 발견과 永昌大君 略史
 장삼현. 성남의 세거성씨와 인물고 분묘를 중심으로
 전보삼. 碧巖 覺性禪師의 생애와 사상
 한춘섭. 성남 漢詩 同人 [詩集] 자료 고찰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호

발행인 : 이창열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4. 12. 30

내 용 : 김창환. 성남시 모란 지역의 상가 기능에 관한 연구
 박상규. 성남시 지명연구 수정구 고등동 ‘도랑터’를 중심으로
 백남옥. 백제의 초기 강역에 관한 연구
 어순영. 전재열. 한국 민속 공연장 시설기준을 위한 기초적 연구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한춘섭. 모란지역의 향토사 정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3호

발행인 : 이형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5. 12. 30

내 용 : 김창환. 성남시의 인구증가와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Ⅰ)
 박상규. 성남지역의 지명어 ‘재’ 연구
 백남옥. 고대 남한산고
 소진광. 성남의 산업구조
 장삼현. 금광동 광산 김씨에 관한 연구
 장철수. 경기지역과 동구릉의 문화적 연관성
 전보삼.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위상 연구
 한춘섭. 성남지역 의병사 연구
 허창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목적과 활동
 조병로.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Ⅰ)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4호

발행인 : 오세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7. 1. 20

내 용 : 허창무.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본 남한산성의 위상과 가치 재조명

장철수. 남한산성 백제 시조 溫祚王廟의 건립과정

백남옥. 백제 한성시대의 도성에 관한 연구

조병로. 17. 8세기 남한산성의 재수축에 관한 일고찰

장삼현. 남한산성과 의리사상에 대한 연구

박상규. 삼전도 대청황제 공덕비문의 원문재구와 보존책에 관한 연구

전보삼. 남한산성 문화재 현황과 보존책에 관한 연구

한춘섭. 남한산성 가톨릭 순교사 고찰

김창환. 남한산성의 지형환경 연구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5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0. 1. 20

내 용 : 백남옥. 삼국의 전성기의 성남지역에 대한 考察

조병로. 조선후기 남한산성의 수축과 방어시설(II)

장철수. 남한산성 현절사의 건립과정

전보삼. 남한산성 문화유적의 보존과 현안에 대하여

조유전.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비교 연구

한춘섭. 漣村 李集의 연구

최종민. 경기도 동남부 지방의 상여소리와 달구소리 연구

천화숙. 1920년대 조선 여자기독교청년회의 연합회의 농촌사업과 경기지역

소진광.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성남시 정부의 역할

허창무. 성남과 심양 간 자매도시 결연의 역사적 의의와 21세기를 향한 협력강화 방안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6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0. 2. 29

내 용 : 백남옥. 고려시대의 성남지역에 대한 고찰

김기빈. 병자호란과 분당의 땅이름

천화숙. 1920~30년대의 여성운동과 兪珏卿

한춘섭. 향토 인물의 기초 연구

허창무. 삼학사를 통해 본 성남의 시민공동체적 정체성 문제

장철수. 성남의 마을신앙과 민간신앙

박순임. 성남에 있어서 시민 교양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지교현.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과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의 강화방안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과 성남시 발전방향

전보삼. 산성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하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7호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1. 2. 20

내 용 : 조병로. 조선시대 天臨山烽燧의 연혁과 위치

백남옥. 조선후기 金陵 南公轍의 정치운영론

김기빈. 남한산성의 문루. 누정. 사찰 등의 명칭에 대한 소고

한춘섭. 근현대 성남의 역사 시론(試論)

지교현. 성남 「향토인물연구」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원형

허창무. 가칭 『성남시향토문화전자대전(CD Rom)』의 研究 계획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8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1. 12. 30

내 용 : 조유전, 유적·유물로 본 성남의 고대 역사

백남옥,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성남지역에 관한 고찰

문수진, 성남시의 集姓村 연구

김기빈, 성남시 관내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

지교현, <삼학사전>과 향청의리의 유학적 평가

천화숙, 한국근대 여성운동의 전개와 성남 여성운동 YMCA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춘섭, 학고(鶴臯) 권오선 文士의 한시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9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2. 12. 30

내 용 : 백남옥, '伯濟國'의 성립과 성남지역

문수진, 羅末麗初의 지배세력과 성남

조유전, 발굴조사를 통해 본 남한산성 행궁지

정은경, 19세기 성남지역의 농민항쟁

서승갑, 일제 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한춘섭, 박태현 작곡가의 예술 활동 연구

김기빈, 청계산의 여러 지명에 관한 조사 연구(2)

한동억, 일제에 의해 변경된 성남지역의 지명연구

박종민, 널다리 쌍용줄다리기의 내용과 의미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0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3. 9. 21

내 용 : 김기빈, 성남지역의 「地名偶合」 또는 「豫言性」 지명의 사례연구

박종민, 지역사회 喪葬禮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백남옥, 百濟 초기의 영역 확대와 지방통치

서승갑, 협동전선의 측면에서 본 성남지역의 신간회 운동

전보삼. 성남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찰
정은경. 근대 성남지역의 지방제도 변천과정
한동익. 성남지역 왕실문화의 연구
한춘섭. 성남시 향토문화의 반성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1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내 용

발행일 : 2004. 9. 21

내 용 : 채수명. 탄천문화 창출 방법론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화숙. 조선후기 강위의 개화사상

한동익. 올리마을 구비문화 연구

한춘섭. 龜川君 생애에서 얻어진 시문 연구

허홍식. 낙생지역 延安 李氏의 세거와 중요자료

현영조. 환경과 문화관점에서 본 도시공간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2호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5. 9. 20

내 용 : 조유전. 분당지역의 선사문화 시론

김덕목. 성남의 무속신앙

채수명. 모란시장문화 창출방법에 관한 심층조사 연구

천은복. 성남지역의 불교의례 연구

한동익. 성남지역의 왕실문화의 연구 II

한춘섭. 성남의 충효 인물 조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3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내 용

발행일 : 2006. 9. 20

내 용 :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죽오의 위상과 가치

문수진. 조선 초기 성남의 인물 검토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죽오 신앙에 대하여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윤종준. 조선의 유형 집행과 양녕대군 이제의 광주 안치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4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7. 9. 20

내 용 : 한춘섭. 성남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찾기

손환일. 조선시대 경기도 성남지역 금석문의 서체

문수진. 양란의 극복과 성남지역

이 영. 남한산성의 원형경관 복원에 대하여

윤종준. 한말 성남지역 의병전쟁 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세계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5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8. 9. 20

내 용 : 손환일. 경기도 성남지역 조선시대 석비의 표제양식과 서체고찰

윤종준. 천림산 봉수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와 봉수 운영의 실태

김위성. 성남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개선연구

최명숙. 성남의 문인과 작품연구

조남두. 성남지역 평생교육 실태 조사연구

이수철. 지방화 시대에 문화적 요구의 대응을 위한 성남문화원의 역할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 16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9. 9. 20

내 용 : 문수진. 조선시대 시장의 발달과 성남 모란시장
손환일. 한지(韓紙)의 현대적 실용화 전략
조남두. 성남지역의 취학전 교육 실태조사 연구
윤종준. 탄천(炭川)의 지명 유래와 역사 고찰
권 일. 성남시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일. 성남시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특성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7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0. 9. 20

내 용 : 한동익. 성남지역의 역사와 충절
백종오. 조선시대 봉수유적의 문화자원 활용방안
김주홍.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봉수표기
윤종준. 명선 · 명혜공주에 대한 고찰
강진갑. 성남지역독립운동사적지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이수철. '모란민속5일장'의 성립과 발전의 사회적 의미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8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1. 9. 20

내 용 : 한동익. 城南의 百濟 傳說 · 說話
김주홍. 南漢山城의 先賢墓域(Ⅰ) 淸州韓氏
서종원. 판교 쌍용거(巨) 줄다리기 재고찰
문수진. 성남학 연구의 현주소

최만순. 성남시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연구

조남두. 성남지역 다문화 교육 조사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19호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2. 9. 20

내 용 : 정성권. 남한산성 발굴성과 고찰

전봉구 · 윤종준 · 김주홍 · 송원흠. 城南 天臨山 烽燧整備 · 復原을 爲한 基礎調査研究

한춘섭. 성남 관할의 서원(書院) · 사당 조사 자료

한동억. 성남지역의 선현묘역 II(덕수 이씨)

조남두. 성남지역특수교육 실태 연구

권 일. '성남아리랑'의 가치와 작품성에 관한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0호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3. 9. 20

내 용 : 손환일. 조선 후기 김의신의 해서법

문수진. 한국의 근대화의 성남지역

서평일. 「성남 인물지」에 대한 고찰

윤종준. 조선의 강무장 운영과 성남

이웅재. 성남을 소재로 한 문학 소고

최만순. 성남시 도시성장을 위한 문화여가산업 육성방안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1호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4. 9. 20

내 용 : 홍대한. 망경암 마애불상의 제작시기와 조성배경

최만순. 성남시 지명유래의 유형분석 및 지명유래에 대한 주민인지특성 연구
 김웅호. 조선 전기 군사훈련과 성남
 한동익. 한성백제와 남한산성의 재조명
 정태열.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남
 윤종준. '성남학'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2호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5. 9. 20

내 용 : 김주홍. 조선시대 성남의 봉수 현황

한동익. 성남의 교통 통신 발달사

전봉구·성기용. 남한산성 약사사(藥師寺)에 관한 연구

박민영. 동천 남상목(東泉 南相穆) 의병장의 항일전에 대한 분석적 고찰

조남두. 성남지역 초·중·고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실태

홍대한.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방안 연구

서평일. 광복 70년 한일 역사 인식에 관한 탐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3호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6. 9. 20

내 용 : 김주홍. 성남 천림산 봉수의 학술조사와 정미안

조남두. 성남지역 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방안

최만순. 성남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서평일. 한말 일제 강점기 신채호의 독립운동과 유훈

정태열. 성남시 탄천 서부지역에 대한 풍수지리 고찰

윤종준. 성남 금토동 남원윤씨 묘역 인물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4호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7. 9. 20

내 용 : 홍대한, 조선시대 태실조성 특징과 운영연구

전봉구, 망경암을 중심으로 한 역사고찰 및 기초조사연구

이은희, 성남 모란장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

윤종준, 성남시 무용 예술의 역사

최만순, 삼천병마골 이야기를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방안 연구

조남두, 성남시 문화복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서명 : 『城南文化研究』 제25호

발행인 : 성남문화원장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8. 9. 20

내 용 : 김주홍, 성남 천립산봉수의 정비·복원

정태열, 성남시 음택 문화재에 대한 풍수적 해석과 활용방안

조남두, 문화를 통한 성남 전통장 활성화 방안 연구

최명숙, 문학작품의 공간적 배경, 성남

홍대한, 고려시대 경기제의 도입과 변화

윤종준, 조선통신사와 판교에 대하여

2) 광주문화권협의회(광주,성남,하남문화원) 논문집

◆ 도서명: 『山城論誌』 창간호

발행인 : 이상복 · 한춘섭 · 양인석

발행처 : 광주문화권협의회

발행일 : 2006. 10. 31

내 용 : 문수진, 조선초기 광주이씨의 성장과 문화발전

박광운, 병자호란과 정네경의 충절

손환일, 여이징(呂爾徵)의 전서연구

이종원. 삼봉 이극중의 가계와 생애
 윤중준. 하남시 초이동 진주 정씨 충·효·열 정려(旌閭)인물
 구쿠이상. 조선 삼학사의 존명사대(尊名事大)에 대한 고찰
 이행준. 만주 한국인에 대한 일제식민지 교육의 이모저모
 석경징. 병자호란 때의 네 편의 국서

◆ 도서명: 『山城論誌』 2집

발행인: 한춘섭, 이상복, 양인석

발행처: 광주문화권협의회 (광주, 성남, 하남문화원)

발행일: 2008. 11. 28

내 용: 오순제. 하남시 고골의 한성백제시대 평지도성과 남한산성의 추정 왕궁지에 대한 연구

윤중준. 둔촌 이집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광운. 정조의 여주 능행과 남한산성

* 부록: 한춘섭. 둔촌 이집 선생 관련 자료.

남재호. '광주문화권의 설화를 찾아서'

광주문화권협의회 행사자료

◆ 도서명: 『山城論誌』 제3집

발행인: 한춘섭, 이상복, 양인석

발행처: 광주문화권협의회 (광주, 성남, 하남문화원)

발행일: 2009. 11. 30

내 용: 현영조. 보색성장론(補色成長論)에 의한 도시환경 개발

- 광주문화권의 상징: 남한산성역사공원계획

손환일. 간판(看板)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 성남 모란시장의 간판을 중심으로

박광운. 충렬공 구치관(具致寬) 불천위 제사(不遷位祭祀)

오순제. 이성산성(二聖山城) 신앙유적의 재해석

◆ 도서명: 『山城論誌』 제4집

발행인: 양인석, 남재호, 한춘섭

발행처 : 광주문화원협의회

발행일 : 2011. 8. 5

내 용 : 도수희. 한홀(광주)시대 백제 국호와 온조의 관계

이도학. 百濟漢城都邑期王城에 대한 所在地 認識 檢證

박광운. 쌍령(雙嶺)의 한(恨)

현영조. 남한산성의 전통적 경관과 고건축

3) 학술회의

제1회 국제학술회의

◆ 도서명 :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

발표일 : 1996. 10.10 ~10. 11

발행인 : 이형하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6. 10. 9

장 소 : 시민회관 소강당

내 용 : - 첫째 날(1996. 10. 10)

백남옥. 백제한성시대의 남한산성

조병로. 최근에 발견된 남한산성수축비에 대하여

진 완. 남한산성 전투와 그 영향

전보삼.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張 杰. 병자호란과 조선

박상규. 통해서 본 남한산성에 관한 연구

차용걸. 한국의 산성연구 동향과 과제

小田富士雄. 서일본 고대산성에 관한 최근의 조사 성과

孫玉良. 동북 역대산성의 홍망성쇠 약술

- 둘째 날(1996. 10. 11)

소진광. 남한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종합토론

제2회 국제학술회의

◆ 도서명 : 『남한산성과 삼학사』

발표일 : 1997. 10. 9 ~ 11. 10

발행인 : 오세순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7. 10. 9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내 용 : - 첫째 날

유승국. 남한산성과 삼학사의 절의정신

千文甲. 삼학사의 민족정신과 그의 기념비

전보삼. 한중 사행로 답사 보고

정옥자. 병자호란시 삼학사의 활동과 의의

장철수. 조선 현절사의 건립배경

張玉興. 삼학사와 구의사의 비교 연구

한춘섭. 삼학사의 시문학 고찰

- 둘째 날

姜相順. '삼학사 사상과 인조와의 갈등'

지교현. '상도와 권변의 생존철학'

종합토론

제3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향토인물연구』 둔촌(遁村) 이집(李集)선생

발표일 : 1998. 10. 16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8. 10. 16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내 용 : 둔촌 선생에 대한 자료모음

민병하. 둔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遁村先生の 性理學的 地位)

최영희. 갑자사화와 광이(甲子士禍와 廣李)

한춘섭. 한국여인의 표상(여류문사 강정일당 작품세계)

김미란. 강정일당의 생애와 문학(姜靜一堂의 生涯와 文學)

제4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향토인물 연구』 白軒李景奭과 金陵 南公轍

발표일 : 1998. 10. 14 ~ 10. 1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9. 10. 14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내 용 : - 첫째 날

이성무. 성남문화와 백헌 정신

신원봉. 백헌 이경석의 노겸정신

이은순. 백헌 이경석의 국정운영과 대외인식

강혜선. 백헌 이경석 시세계 연구

부록

- 둘째 날

이장희. 정조 순조연간의 학풍과 남공철의 위상

지교헌. 금릉 남공철의 생애와 학문

박순임. 금릉 남공철의 문학론

부록

제5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향토인물 연구』 문정공 한계희

발표일 : 2000. 10. 30

발행인 : 박은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0. 10. 30

장 소 :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

내 용 : 문수진, 문정공 한계희의 생애와 사상

지교현, 율동 청주 한씨 집성촌의 연원과 애국 독립운동

제6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향토인물연구』 아천군 이증

발표일 : 2001. 12. 1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1. 12. 11

장 소 : 주택전시관 대강당

내 용 : 정은경, 선조조 정치세력의 동향과 이증의 활동

박순임, 이증의 한시 연구

제7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조선시대 청백리정신의 현대적 조명』

발표일 : 2002. 09. 6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2. 09. 6

장 소 : 성남시민회관 소강당

내 용 : 이서행, 공직부패와 청백리 윤리

문수진, 조선시대 청백리제도와 기능

한춘섭, 탄천 이지직의 청백리정신

지교현, 청백리 이병태의 정치철학과 공직윤리

제8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발표일 : 2002. 9. 27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3. 9. 27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내 용 : 유준기.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박민영.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서승갑.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한상도.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제9회 학술회의

◆ 도서명 : 『광주 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발표일 : 2004. 12. 1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4. 12. 1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내 용 : 손정목. 8.10사건의 경위 서울시의 입장에서

하동근.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

박태순. 밑에서부터 본 8.10사건

제10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성남지역에서 천장된 역사인물 연구』

발행일 : 2005. 10. 14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표일 : 2005. 10. 10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내 용 : 박상건, 남이흥(南以興)장군의 생애(生涯)와 충장 정신(忠壯精神)

정성희, 정묘호란 시기 안주성 전투와 남이흥 장군

한춘섭, 삼봉 이극중의 인물 알기

유주희, 이극중의 생애와 정치활동

제11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삼죽오와 성남문화』

발표일 : 2006. 10. 1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6. 10. 14

장 소 : 분당구청 대 회의실

내 용 :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 삼죽오의 위상과 가치

이형구,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삼죽오 신앙에 대하여

(발해 연안 鳥類 숭배 사상과 관련하여)

허홍식, 삼죽오의 동북아시아 기원과 사상의 계승

김주미, 朱雀旗와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변천

제12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판교의 문화와 전통』

발표일 : 2007. 10. 11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7. 10. 11

장 소 : 분당구청 대 회의실

내 용 : 현영조, 판교의 전통적 경관에 관한 연구

서승갑, 조선시대 교통망에서 본 판교

신익철. 판교와 한시

최은수. 복식류에 표현한 금박에 관한 소고

제13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판교 · 도촌지구 발굴문화재의 보존방안』

발표일 : 2008. 10. 17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8. 10. 17

내 용 : 안성민. 판교지역 문화유적의 시대구분과 문화사적 의미

김주홍. 성남지역 문화재 분포현황과 보존의 방향

윤종준. 성남의 역사적 특징과 문화유적 보존방안

제14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성남 모란의 과거와 현재』

발표일 : 2009. 5. 29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9. 5. 29

내 용 : 윤종준. 모란의 과거와 미래

이수철. 모란 민속 5일장의 사회사적 의미

이상열. 모란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손환일. 간판을 통해 본 역사와 문화

제15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발표일 : 2010. 8. 15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0. 8. 15

내 용 : 이만열. 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

김인식.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조성운. 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의 조직과 활동

성주현.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인물들

제16회 학술회의

◆ 도서명 : 『Smart 성남. 도시 만들기』

발표일 : 2011. 10.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1. 10. 20

내 용 : 곽정근. 성남시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최만순. 성남시 도시 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 정책 방향 연구

전봉구. 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현영조. 남한산성의 전통적 경관과 고건축

제17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문화권의 위상』

발표일 : 2012. 7.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2. 7. 4

내 용 : 조유전. 학술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양기석. 백제사 속의 성남

서정석. 위례성. 한산. 한성에 대하여

최맹식. 백제 한성시기 기와에 관한 소고

한동억. 성남지역의 지명유래에 나타난 역사

제18회 학술회의

◆ 도서명 :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발표일 : 2013. 7.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13. 7. 4

내 용 : 최병식. 서울강남 대모산성의 사적 성격

정재윤. 近肖古王代 百濟의 위상

진영욱. 판교 삼국시대 유적발굴의 성과와 특징

제19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방안』

발표일 : 2014. 9. 19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4. 9. 19

내 용 : 한동억. 성남시 문화유산의 발굴과 전승방안

손환일. 성남시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 전승 과제

허미형. 성남시 문화유적의 현주소

서광일. 성남시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과 전승

제20회 학술회의

◆ 도서명 : 『광복 70주년 기념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발표일 : 2015. 10. 14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5. 10. 14

내 용 : 서광일.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연구현황과 기념사업 방향

박민영. 성남지역 항일 의병전쟁의 역사적 의미
한동익. 성남지역 3.1만세운동
서승갑. 신간회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여러 계파
윤종준. 성남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 방안

제21회 학술회의

◆ 도서명 : 『낙생행궁 기록을 통해 본 성남의 역사』

발표일 : 2016. 10. 26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6. 10. 2

내 용 : 서광일. 국왕의 지방행차와 낙생행궁의 문화적 의의
홍대한. 행궁운영 제도와 행행 연구
김선희. 국왕의 지방 행차와 낙생행궁 고찰
허중민. 조선시대 행궁의 입지와 공간 구성

제22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성남 판교의 역사 재조명』

발표일 : 2017. 10. 31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7. 10. 31

내 용 : 조병로. 성남 판교의 역사 재조명
유병상. 1811년 조선통신사 판교참 관련 기록의 가치
홍대한. 역원제도의 운영과 성남 판교
서승갑. 판교 역사 복원과 문화행사 추진방안

제23회 학술회의

◆ 도서명 :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 성남문화원』

발표일 : 2018. 10. 31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발행일 : 2018. 10. 31

내 용 : 조남두, 성남문화원 40년의 성과와 지역문화 창달의 중심

홍대한, 문화원 사업의 교육적 활용과 위상제고 방안

윤종준, 성남학연구소 25년의 연구 성과 분석과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

최명숙, 역사인물 추모사업과 백일장 기념행사의 성과와 발전방안 제언

4) 학술 토론회

제1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송산 조견(松山 趙狷) 인물 연구』

발표일 : 1999. 7. 22

발행인 : 남선우

편집인 : 평양조씨 송산공5파종회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1999. 7. 22

장 소 : 성남삼원부폐

내 용 : 문수진, 고려말기 정세(高麗末期 政勢)

한춘섭, 송산 조견 인물 연구(松山 趙狷 人物 研究)

부록 : 송산 조견 선생의 자료모음

제2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판교지역 연성군 이곤 금석문 연구』

발표일 : 2004. 2. 2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발표일

발행일 : 2004. 2. 25

장 소 : 낙생농업협동조합 강당

내 용 : 허홍식, 향토사와 문중에서의 역할

한춘섭, 연이, 연성군의 가계연구

손환일, 연성군 이곤 묘비의 양식, 문양, 서체에 관하여

이민식, 연성군 문중의 금석문 분포현황과 성격

제3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조선 초기 광주이씨 인물연구』

발표일 : 2005. 11. 25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일 : 2004. 2. 25

장 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내 용 : 김문택 탄천 이지직의 관직생활과 청백리

배 성 이극규의 생애와 정치활동

김학수, 이극기의 가계와 관직활동

박병련, 조선전기 士林(勤舊 葛藤과 士林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政當化

한춘섭, ‘廣李’ 門中 武人 列傳

제4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전주이씨 신종군 이효백 연구』

발표일 : 2008. 02. 27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2. 27

내 용 : 이용규, 신종군 이효백의 가문과 생애

윤종준, 신종군 이효백의 시대적 배경

손환일, 신종균 이효백 묘소의 조성물

제5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동천 남상목 의병장 공훈 재조명』

발표일 : 2008. 4.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4. 4

내 용 : 김상기, 남상목 선열의 의병운동의 역사적 배경

윤종준, 남상목 의병부대의 정미의병과 무장투쟁

서승갑, 동천 남상목 의병장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과 기념사업 추진 방략

제6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청주한씨 청연공파 세장지 석조물 연구』

발표일 : 2008. 10. 1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10. 10

내 용 :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청주한씨의 성장

손환일, 율동 청주한씨 세장지의 석조물

손미숙, 한지원 묘역의 석물 고찰

권영애, 한명욱 묘역의 석조물에 대하여

이재목, 한전 묘역의 석물과 서체고찰

한동억, 율동 청주한씨 가계정리

제7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발표일 : 2009. 8. 15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9. 8. 15

내 용 : 한동익. 성남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윤종준. 성남출신 의병장들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서승갑. 신간회 광주지회의 활동과 성격

강진갑. 성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제8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조선 초기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의 가치』

발표일 : 2009. 11. 18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9. 11. 18

내 용 : 문수진. 조선의 건국과 광산김씨의 성남세거

윤종준. 평양서윤(平壤庶尹) 김순성(金順誠)의 관직이력에 대한 고찰

손미숙. 평양서윤 김순성 묘역 조성물의 중요성과 가치

손환일. 조선 초기 〈金順誠 墓碑〉 서체의 중요성과 가치

제9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한성 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의 위상』

발표일 : 2011. 7.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1. 7. 4

내 용 : 김기섭. 백제의 건국과 영토 확장

백남옥. 백제 한성시대의 남한산성

강나리. 남한산성 역사주제 공원 개발과 세계유산

제10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덕수 이씨 의정공파 세거연구』

발표일 : 2011. 12. 6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1. 12. 6

내 용 : 문수진. 덕수 이씨 문중의 가계와 세거연구

윤종준. 덕수 이씨 의정공파의 국가 공헌

손환일. 조선 중기의 서체

이희순. 조선 초기의 서체

손미숙. 조선 중기 묘역의 석물 고찰

제11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중·한 文學交流의 成果』

발표일 : 2013. 5.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3. 5. 20

내 용 : 리창인. 전통 문화 교류의 참신한 모습

최룡관. 시조 우물을 파주고, 물이 넘치게 한 사람

천림금산. 중·한 문화교류의 의미

김재국. 중·한 시조문학사에 남긴 성과

제12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평양조씨 석실공 연구』

발표일 : 2015. 3. 27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5. 3. 27

내 용 : 문수진, 조선초 평양 조씨 조건, 조철산의 위치
윤종준, 두문동 72현과 평양 조씨 삼세삼충 연구
손환일, 석실 조철산, 그의 생애와 묘역
손미숙, 석실 조철산 묘역 석물의 중요성과 가치

제13회 학술토론회

◆ 도서명 : 『전주이씨 덕양군파 참판공 이순제연구』

발표일 : 2019. 9. 3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9. 9. 3

내 용 : 한동익, 전주이씨의 성남 입향과 참판공의 가계와 정신
손환일, 조선시대 참판공 이순제 묘비의 서체
손미숙, 참판공 이순제 묘역의 석물
윤종준, 참판공 이순제 비문에 담긴 충효 유훈

5) 학술토론회 · 세미나 · 기타 논문집

◆ 도서명 :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한 시민 종합 토론회』

발표일 : 2006. 7. 4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6. 7. 4

장 소 : 성남문화원 3층

내 용 :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인 천림산 봉수지 원형 복원을 위해 타 지역 봉수 터를 답사하
고, 전문가들의 의견 취합과 동시에 시민들의 봉수 원형 복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
후 활용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토론회

◆ 도서명 : 『성남지역 3.1만세운동 기념 학술토론회』

- 성남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발표일 : 2008. 3. 1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일 : 2008. 3. 1

내 용 : 한춘섭. 기조연설 ‘성남3.1운동’ 정신의 계승

서승갑. 성남지역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역사적 의미

한동익. 성남지역3.1운동 지도자들의 가계와 독립정신

◆ 도서명 : 『학술세미나 논문집』 - 천림산 봉화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발표일 : 1999. 10. 1

발행인 : 남선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1999. 10. 1

장 소 : 성남문화원 대강당

내 용 : 남도영. 한국봉화의 기원과 연구현황

이존희. 조선시대 봉수제의 운영과 문제점

조병로. 천림산 봉수의 연혁과 위치비정

이 재. 경기 봉화유적 조사 및 사례연구

김주홍. 천림산 봉화터의 고고학적 실증

방상현. 천림산 봉수군 신분과 생활

◆ 도서명 : 『韓 · 中 文化交流』

발표일 : 2007. 05. 20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7. 5. 20

내 용 : 손환일. 삼족오(三足鳥) 문양의 시대별 변천

김주미. 日旗를 통해 본 日象文의 형성과 展開

정 무. 심양 서탑지역의 유래

이행준. 중국 태양조

5. 기타 도서

◆ 도서명 : 『성남이여, 영원하라!』

(제17회 <성남사랑 글짓기> 수상 작품집)

발행인 : 한춘섭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08. 10. 10

내 용 : 학생들의 글쓰기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와 우리고장

성남에 대한 애郷심을 느껴볼 수 있는 수상한 작품들.

* <성남사랑 글짓기>는 1972년 7.10에 강정일당묘역에서 시행되었고

매년 장소를 글짓기 주제를 달리하면서 성남시의 명소에서 문화원이 주최하고 있다. 제17회 수상 작품집인 『성남이여, 영원하라!』란 도서가 처음 발행되었다. 2018년 까지 매년 수상 작품집이 발행되고 있다.

◆ 도서명 : 『둔촌 중국 백일장』

발행인 : 김대진

발행처 : 성남문화원

발행일 : 2013. 7. 8

내 용 : 중국의 심양에서 성남문화원이 주최한 글짓기에 수상한 작품집.

* 옛 광주를 본향으로 하는 광주이씨 중시조 둔촌 이집의 효행과 충절을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1996년 ‘제1회 둔촌 백일장’이 중·고생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 시행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성남문화원은 ‘둔촌 중국백일장’을 심양에서 주관하고,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 『둔촌 중국 백일장』이란 도서명으로 발행하고 있다.

III. 맺음말

성남문화원은 ‘향토사에 대한 자료집’과 ‘향토사와 문화에 대한 단행본’, ‘『성남 향토문화 총서』 ‘인 마을지, 그리고 ‘학술논문집’·‘학술회의’·‘학술토론회’·‘학술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록한 도서를 발행하였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한 문화행사인 ‘백일장’에서 입선한 작품들을 모아 발행한 도서를 기타 항목에서 소개하였다.

이처럼 성남문화원이 발행한 다양한 성격의 도서들을 개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남문화원은 城南『金石文大觀』(上·下)·國譯『高麗名臣傳』(上·下)·國譯『靜一堂遺稿』(上·下) 등과 같은 향토사연구의 자료집(史料輯)을 발행하였다. 이들 도서들은 향토사연구의 기본 사료이어서 그 분야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향토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성남지역 3·1독립운동 자료집』·『성남지역 여성사 자료집』은 성남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면서 기본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봉수 40선』·『봉수 문헌 자료집』은 목맥산(남산)에 연결되는 마지막 봉수인 천림산 봉수터를 발굴하여 그 실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집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봉수체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료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남문화원에서 발행한 자료집은 성남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향토사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사 연구에도 의미 있는 자료집이라 하겠다.

2. 1998년과 2001년에 발행된 『성남의 역사와 문화』와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성남시의 ‘향토사와 문화’를 개설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이들 도서의 집필진은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역사와 인문학을 전공한 교수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 도서를 바탕으로 성남문화원은 『내 고장 성남』이란 도서의 예처럼 향토사에 관한 다양한 단행본들을 발행하게 되었다. 성남문화원이 향토사에 관한 다양한 도서 발행을 하면서 향토사 연구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2014년에 『성남시 40년사』 발행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성남문화원은 『성남시 40년사』를 단행본으로 개략한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발행하여 성남의 향토사를 총 정리하였다.

3. 성남문화원은 ‘『성남향토문화총서(마을지)』’란 도서명으로 1권~7권까지 마을지를 발행하였다. 『성남향토문화총서(마을지)』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사라져 가는 여러 전통마을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그 곳의 역사와 문화·마을의 전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담은 ‘기록물’ 같은 도서다. 성남문화원이 발행한 ‘마을지’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먼 훗날 과거로 사라진 지역사회의 향토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한 귀중한 도서가 될 것이다. 성남문화원이 소멸되는 개발지역의 옛 마을을 조사하여 발행한 마을지는 개발이 진행 혹은 예정되고 있는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좋은 사례라 하겠다.

4. 성남문화원은 연구논문집과 학술회의·토론회의·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발표한 논문을 모아 다음과 같은 성격의 도서들을 발행하였다.

1)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한 『城南文化研究』란 논문집이 있다.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향토사와 문화에 대하여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연구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논문집은 『城南文化研究』란 도서명으로 1994년(제1호)부터 2018(제25호)까지 매년 학술지로 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성남시의 향토사와 문화에 대어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연구의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2) 현재의 남한산성과 연해져 있는 성남시·송파구·강동구·하남시·강남구·광주시 등은 옛 ‘광주’의 일부 지역이었고, 조선시대까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성남문화원은 이들 지역과 공유하여 왔던 향토사와 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집인 『山城論誌』를 2006부터 2011년까지 4호를 발행하였다. 이는 배타적인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이웃 도시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연구 활동이라고 하겠다.

3) 성남문화원은 1996년에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한·중·일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한 제1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다음 해인 1997년에도 ‘남한산성과 삼학사’란 주제로 한·중·일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성남문화원이 주체한 두 차례의 국제학술회의는 향토사가 한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중국·일본의 역사학자들은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과 ‘남한산성과 삼학사’란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였다는 것은 성남의 향토사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역사에서 의미를 찾고자한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학문적 성과라 하겠다.

이후 학술회의는 국사편찬위원회의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최영희·이성무·정옥자와 더불어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매회 마다 참여하였다. 그들은 기초연설과 주제발표를 하여 성남의 향토사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18년 제25회 학술회의까지 매년 열리고 있다.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아 ‘학술회의’의 주제를 도서명으로 하여 책을 발행하고 있다.

- 4) 성남문화원은 향토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학술토론회·세미나’란 명칭으로 매년 혹은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학술토론회’는 성남시 관내에 있는 묘역의 피장자(被葬者)에 대한 행적과 묘역의 비문과 석물을 그 분야의 전문학자들이 연구하여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9년 제1회 ‘송산 조견(松山 趙涓) 인물 연구’를 시작으로 제13회(2019년) ‘전주이씨 덕양군과 참판공 이순제연구’까지 이어 지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학술토론회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발표주제를 도서명으로 한 책을 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성남시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폭 넓게 할 수 있었다. 이들 묘역은 성남문화원의 청원에 의해 ‘성남시 향토문화유적(제1호~제10호, 제14호)’으로 지정되었다.

성남문화원은 향토사의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세미나’란 명칭으로 학술회의를 열고 그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논문을 발표를 하였다. 예하면 ‘천림산 봉수터’가 발견되자 학술세미나를 열고 천림산 봉수에 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정리하여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천림산 봉수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었고 2019년 9월24일 천림산 봉수지가 원형 복원을 할 수 있었다.

5. 기타 도서로서는 성남문화원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입선작을 모아 『성남이여, 영원하라!』란 도서를 17회(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남문화원은 1996년 중·고생을 중심으로 ‘제1회 둔촌 백일장’을 매년 열었으나, 2012년에 ‘둔촌 중국백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심양에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성남문화원은 ‘둔촌 중국백일장’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모아 『둔촌 중국 백일장』이란 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원에서 발행한 도서들 의미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성남문화원의 향토사 연구현황’의 마침말로 가름하고자 한다.

여 백

부천 향토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양 경 직 (부천문화원 《부천문화》 편집위원)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 부천 향토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III. 나가는 말

집필자

양 경 직

부천문화원 《부천문화》 편집위원

I. 들어가는 말

부천 지역 향토사는 당시 한국예총 부천지부장이었던 최은휴(崔恩休:1931~2002) 선생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수조사(全數調査)하여 1977년 《부천예총(富川藝總)》(예총부천지구회, 1977) 창간호에 게재하면서 초석(礎石)을 놓았다.

따라서 부천의 향토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다만, 여기에서 부천 지역 향토사 전반에 걸쳐서 다루어야 하나, 지면 관계상 향토 지명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부천 지역의 경우에는 지명 유래가 터무니없이 왜곡되거나, 소설적이거나 심지어는 몽환적인 지명 유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가 근 20여 년 동안 각종 문헌을 통하여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질량 미달의 선학(先學)들이 올바르게 해놓았으면 후학인 필자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선학이 해놓은 것에 손을 댈까. 해도 해도 너무해서 하는 말이다.

학자는 인문학적 영역을 확대하여 늘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역량을 쏟아도 시원찮은 판에, 이 무슨 낭비(浪費)란 말인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필자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렇게 짜증나는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다.

지명 유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미상 처리를 해 놓았으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앞선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유래를 말하는 바람에, 일일이 문헌을 통해 밝힌 것을 재차 하나하나 대조해야만 하니, 이래저래 짜증나서 하는 말이다.

이제 거의 다 바로 잡은 것 같다.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천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서 조사 및 연구를 끝내고 발행을 기다리는 A4 용지 300쪽 분량의 두 권의 책과, 그리고 대략 A4 용지 180쪽 분량의 연구를 끝낸 원고만 해도 10편이 넘는다. 사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난 30년 동안 향토 지명을 늘 연구하던 필자로서는 굳이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었다. 되레 새로운 것을 연구할 시간을 빼앗겨서 신경질이 날뿐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부천 지역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고, 또한 훗날 오류에 오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애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아래에서 대략의 과정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II. 부천 향토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부천의 향토사는 당시 한국예총 부천지부장이었던 최은휴(崔恩休:1931~2002) 선생이 1977년 《부천예총》(예총부천지구회, 1977) 창간호에 부천 지역의 향토사를 답사 조사하여 게재하면서 초석(礎石)을 놓았다. 그런데 이 책은 부천문화원에서 발행한 책이 아니고 한국예총 부천지부에서 발행한 책이란 점이다.

창립 초기이다 보니 회원이 몇 명 없어 책 한 권 분량의 문예(文藝) 원고가 되지 않자, 〈부천의 발자취〉란 부제(副題)를 달고 시사(市史) 형식으로 엮어서 낸 것이 부천 향토사의 효시가 된 것이다. 이 중에 17쪽 분량의 〈부천(富川)에 얹힌 이야기〉는 향토사에 있어서 금방울옥방울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겠다. 〈부천(富川)에 얹힌 이야기〉 머리말에서,

“우리들의 주변에는 모든 것들이 차츰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발전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들 자신도 잊어버릴 만큼 현실에 쫓기고 있다. 쫓기는 가운데 잠시 자신을 되찾는 순간 우리들은 허전한 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네 가슴 속에 향수적인 그리움이라는 게, 가득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신세계에서 방향하게 되는 것은 삶이 있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부천이 시로 승격되고 벌써 4년, 그 4년은 몇 십 년 세월과 맞바꿈 할 수 없는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 발전 속에 부천의 옛것은 어디론가 사라져 가고 있다. 지형적 형태는 물론, 지형 그리고 풍물 인맥들의 발상(發祥)된 근원 말이다. 이제 70 고희(古稀)들이 이 세상에서 영면(永眠)하게 되면, 이마저 흐름도 찾을 길 없는 부천의 걸어온 발자취다. 그만큼 부천에는 기록물이 없다…끝으로 어떤 것은 정사(正史)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야사(野史)도 될 수 있다. 먼 훗날 부천을 연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다 비길 데 없는 기쁨을 안고, 이 조사에 애쓰신 예총회원(藝總會員)들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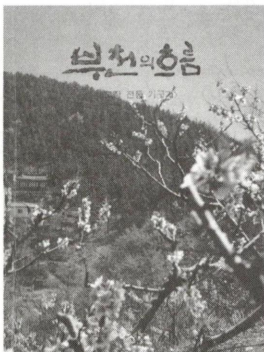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이 책은 곧 예총회원들이 각 마을이나 관공서를 답사하면서 채록했다는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특히 향토 지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기초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후학들은 지금에 와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다만 이 책 65쪽의 〈야사(野史)에 얹힌 소사(素砂)〉는 아무런 문헌 조사 없이 문중의 말만 듣고,

“박씨 성을 갖은 장군이 의병을 모아 이 산에 진을 치고 적의 침공을 대비하여 둔대산(屯垓山)으로 이름 지었다가, 얼마 후 원미산으로 개명했다는 설이 있다.”

라고 잘못된 점은 이 책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훗날 역곡동에 죽산 박씨 박진(朴震)을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라고 추켜세워서, 가짜 비석을 세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몇 가지 오류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는 훗날 재차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록하는 것이다.

- 역곡동을 역원(驛院)과 관련한 지명이라고 잘못된 점.
- 괴안동(槐安洞)을 한자의 뜻에 이끌려 유래를 잘못 말한 점.
- 범박동(範朴洞)은 범씨(范氏)와 박씨(朴氏)로 인하여 유래했다고 잘못된 점.
- 와우산(臥牛山)에 딸린 춘의봉(春意(宜)峰)을 춘의산이라고 잘못된 점.
- 조종리(曹宗里)의 ‘무리 조(曹)’ 자를 ‘성씨 조(曹)’ 자로 잘못 읽어 조씨가 많이 살았다고 하여 유래했다고 잘못된 점.
- 임진왜란 다음 해인 계사년(癸巳年)에 권을 장군의 행주대첩에 이어 무명의 장군이 이곳(원미산)에 진을 치고 왜적을 맞아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잘못된 점.
- 하우고개는 장돌뱅이들이나 소장수들이 때를 지어 넘었었는데 이 때 산길이 너무나 가파르고 험준해 사람이나 소나 모두 숨이 차서 헉헉! 대며 올라가 고개마루턱에 닿으면, 누구나 하우 하우! 하고 숨결이 차, 숨소리에 따른 여음(餘音)을 따 고개 이름을 하우고개 라고 지었다고 전해오고 있다고 잘못된 점.

이상의 유래는 잘못된 것인 만큼 부천의 향토사를 공부할 때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책은 《부천의 흐름》(부천시, 1982)이다. 이 책은 상기한 《부천예총》(1977)을 근거로 하여, 몇 가지 내용을 보충하여 발행한 책이다.



《부천의 흐름》(부천시, 1982)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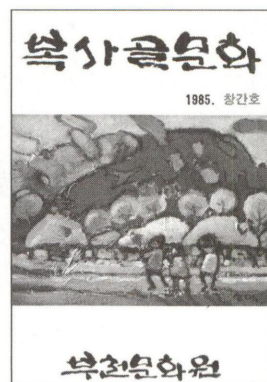
부천에 있었던 공공시설인 경기도농촌진흥원, 중앙연초시험장, 한강수리조합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양공과기술학교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부천 시민의 노래〉 탄생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설화로 〈세도가 서도사의 최후〉, 〈소금왕 최병희〉, 〈배꽃탱이〉, 〈귀신과 바둑 둔 원님〉을 채집하여 기록하였다. 〈소사동 쌍느티나무〉, 〈육각정(六角亭)〉, 〈한다리(大橋)〉, 〈상수도〉, 〈변종인 신도비〉, 〈인간문화재 74호 김장환〉, 〈한향길〉을 비로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책의 잘못된 내용인 줄 모르고, 역시 잘못된 이야기를 조금씩 추가하였다는 점이 다. 오류에 다시 또 오류를 넣고 있는 것이다.

- 원미산(遠美山) -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 부평 관아의 동헌에서 멀리 동쪽으로 바라 보이는 산으로, 아침 해돋이에 그 선영하고 아름다운 운치와 저녁 해질녘의 그 푸르고 단아하고 소사벌을 굽어 감싸는 듯한 정격의 아름다움이 어찌나 좋았던지,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이마다 아름답다는 감탄사가 저절로 울어났다는 것이라고 잘못된 점. 원미산은 계양산 아래 있었던 관아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가깝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유래를 만든 분들이 필자에게 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근 20년 전에 실토를 하였다.
- 잠종장이 있는 있던 '안마을'을 '사래골'이라 불리었는데, 이 마을의 한자 표기는 사래동(士來洞)으로, 선비가 마을에 와서 정착하고서부터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잘못된 점. 사래울은 한자의 뜻하고는 무관한 전형적인 차훈지명(借訓地名)이기 때문이다.
- 당시 어느 때인지 모르나 인간 도륙의 큰 싸움이었다고 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한다. 죽은 사람들의 이 개울을 메웠다. 그야말로 피의 냇물이 되었다고 한다.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해서 비릿내로 어음(語音)이 세월 따라 발전 되었다는 것이라고 잘못된 점. 베리내는 원미산의 별칭인 벼랑산에서 유래하여 처음에는 벼랑내로 부르다가 베리내로 변형된 단순한 지명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잘못된 점은 잘못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이다. 문헌에 의거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전해들은 것을, 다시 또 이야기를 붙여서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다. 문제는 《복사골문화》(부천문화원, 1985) 창간호에서 불거졌다.

이 책은 부천문화원의 소식지라기보다는 상기 《부천예총》(1977) 창간호를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이에 이 책의 저자 최은휴는 맨 뒷장 발행권에 자기 이름을 저자로 넣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본인이 조사한 책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놓고 보니, 자기 책임 양 착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하여 현재 남아 있는 《복사골문화》(부천문화원, 1985) 창간호 발행권에 하얗게 칠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이다. 이 책에서 최은휴는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곧 《부천예총》(1977)에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여기에서는 한층 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



《복사골문화》(1985)창간호 표지

- 작리(鶴里) - 통일신라시대 화랑들이 활쏘기 경연을 벌리고 있을 때다. 까치들이 상공을 날고 있었다. 때마침 김유신이 활시위를 당겼다. 살은 상공을 치솟고 있는데, 그 중 까치 한 마리가 그 화살을 향해 날아와 입으로 덥썩 물고는 북쪽으로 날았다고 한다. 그 까치는 화살을 문채 이곳 까치울까지 날아왔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로부터 이 마을 이름을 까치울로 불리워 왔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한 점이다. 신라 땅에 사는 화랑 김유신이 적국인 백제 땅에 와서 한가롭게 활쏘기 경연대회를 열었을까? 그럴 리도 없지만 펜스레 이런 지명 유래설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훗날 작동에 까치 모형이 진짜로 등장하고야 말았다. 지금도 까치울 구름다리에 까치 모형이 남아 있다. 또한 《복사골문화》(1985) 50~51쪽 〈임진란(壬辰亂)에 얽힌 이야기〉에서,

“최근에 밝혀낸 사실이다...죽산박씨(竹山朴氏) 세계(世系)에 보면 호(號) 계암(桂菴)이 임란(壬亂)을 치른 기록이 있다...즉 노비 1백 명과 이웃 마을에 용기 있고 힘이 있는 장수 10명과 9월 보름 둔대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왜군 부대가 마을에 와 약탈한다는 보고가 와 동격으로 충돌하여 격퇴시켜 3.4리나 왜군이 물러가면서 10개의 사상을 내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이 지역에서도 의병이 꺾기하여 혈전을 벌린 게 틀림이 없어, 이 지역이 임란(壬亂) 때는 격전장(激戰場)이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전편 3장 원미산편을 심증이 갈만한 자료가 되겠다.”

라고 뜬금없이 왜곡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암(桂菴)’은 죽산박씨 22世 박진(朴震)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한 《부천예총》(1977)에서 언급한 지명 오류를 《부천시사》(1988)에서도 계속하여 인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천시사》(1988) 지명 유래에서 박진(朴震)과 관련하여,

“죽산박씨의 세계(世系)에 ‘계암(桂菴)’¹⁾이 임진란 때 둔대산에서 적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두 개의 기록으로 보아 이곳에서도 의병이 꺾기하였다는 추측을 놓고 있다.”²⁾ ...정확한 기록이라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더듬어 보면 벌응절리(伐應節里) 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죽산박씨 계보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³⁾

1) 박진(朴震)의 호(號)

2) 최은휴, 〈3. 원미산(遠美山)〉, 《부천시사》, 부천시사편찬위원회, 1988, pp.1246~1247

3) 최은휴, 〈6. 비릿내〉, 《부천시사》, 부천시사편찬위원회, 1988, pp.1248~1249

라고 그대로 옮겼다는 점이다. 틀림이 없다는 것인지, 틀림이 있다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틀림이 있는 것 같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껏 할 말을 다 해 놓고는,

“정확한 기록이랄 수는 없지만...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는 점이다. 부천의 정사(正史)를 기록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아무런 문헌 고증 없이 정체불명의 인물을 기록한 것은 무조건 잘못이었다. 이후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1992년 최현수에 의해 <의병장박진기념비>⁴⁾와 <의병장박진전승비>⁵⁾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듬해 《부천사연구》 제1집(최현수, 1993)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최현수 개인의 부천 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으로, 책 내용은 전반적으로 훌륭한 책이다. 그러나 그는 이 책에서 박진(朴震) 한 사람을 의병장으로 왜곡하기 위하여 ‘베리내’를 《부천사연구》 1집(1993년)에서,

“둔대란 글자 그대로 군사가 주둔했다는 뜻이다. ‘비릿내’란 명칭의 유래는 큰 망골과 작은 망골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술한 인명 피해로 많은 피가 흘러내려 오래도록 피비린내가 났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그에 대한 고증은 벌응절리(《죽산박씨대동보》)와《진미록》에서 찾을 수 있다.”⁶⁾

라고 왜곡하였고, ‘사래울(士羅日·士里月)’에 대해서는,

“먹골 어귀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은 역곡2동 삼신아파트가 들어섰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휘하에 있던 박철정이 광주군 번송에서 이곳에 와 ‘선비가 왔다’해서 사래리(士來里)라 불렀다고 한다. 1920년에 나온 지도에는 사리월(士里月)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새를’을 한자로 표기 한 것이다.”⁷⁾

라고 왜곡하였다. 박철정이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휘하에서 싸웠다면, 그는 120살 언저리가 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곡하였고, 아울러서 고유지명인 ‘사래울’을 한자 뜻 그대로 풀어서 지명 유래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벌응절리(伐應節里)’에 대해서는,

4) 1992년 11월 9일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에 세움. 비문(碑文)은 최현수가 지었다.

5) 1992년 11월 9일 춘덕산 약수터 앞에 세움. 비문(碑文)은 최현수가 지었다.

6) 최현수, <4. 원미산 일대>, 《부천사연구》 1집, 1993, pp.163~165

7) 최현수, <4. 원미산 일대>, 《부천사연구》 1집, 1993, p.166

“이곳 뒷산인 둔대산(현재는 춘덕산이라 부른다)에서 임진왜란 때 사래리에 사는 박진이 의병 200여명을 거느리고 전투를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신빙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꾸며서 왜곡하였다.



가짜 의병장박진기념비

〈의병장박진기념비(義兵將朴震紀念碑)〉

조선 중기는 국사상 수난기였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피나는 노력이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면해 우리 지방에서 몸소 항거한 이가 계암(桂菴) 박진(朴震)이다. 진(震)은 부천에 정착한 박철정(朴鐵貞)의 이자(二子)이자 김종서(金宗瑞)의 사위인 계공랑(啓功郎) 박금손(朴金孫)의 4세손이다. 철정(鐵貞)은 행동이 공정하고 경서에 밝아 군자라 칭해졌고 마을 이름을 사래리(士來里)라 불리게 되었다. 진(震)은 사래리에 기거한지 삼 년 만에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들었고, 복상하던 왜군이 총 퇴각하여 부천을 재침략하면서 마을을 마구 노략질 하자 노복과 인근 마을 장정 이백 여명을 거느리고 임진년 구월 구일 둔대산(屯垞山)에 주둔하였다. 이날 문서를 우송하던 왜군을 보고 추격하면서 주력 부대와 싸워 십여 명을 죽이고 삼십 리까지 퇴각시켰다. 왜란이 끝나고 사래리에서 힘을 다해 모친을 봉양하던 진(震)은 의병장으로서의 활약이 인정되어 선공감 감역(繕工監 監役)의 감역관(監役官)으로 특채 되었다. 이후 효릉참봉(孝陵參奉)을 거쳐 내섬시 주부(內贍寺 主簿)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

령박씨와의 사이에서 삼남 이녀를 둔 진(震)은 대를 이어 효행을 제일로 삼았고 이는 죽산박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서기 1992년 11월 일단(一檀) 최현수(崔鉉洙) 짓고

정산(靜山) 김세규(金世奎) 쓰고

의병장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삼가 이 사업을 추진함

이라고 그럴듯하게 왜곡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또한 원미산 춘덕약수터 앞에 ‘의병장박진전승비’를 세워놓았다. 제막식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부처시의 회장 등 부천의 명망가(名望家)들이 모두 들어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부천에서 두고두고 불가사의한 사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명예(?)로운 자리에 참석했다가 불명예의 오명(汚名)을 뒤집어 쓴 채 부천 역사에 남게 된 것이다.



의병장박진전승비(義兵將朴震戰勝碑)

〈의병장 박진 전승비〉

이곳 둔대산(屯垔山) 정상은 임진왜란 때 우리 고장 의병들이 힘을 모아 왜군을 물리친 곳이다. 임진년 구월구일 문서를 우송하던 왜군을 발견하면서 전투는 시작되었다. 결국 왜군 십 여 명을 죽이고 주력부대를 삼 십 리까지 퇴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의병을 지휘한 장수는 임진왜란 발발 삼 년 전에 역곡이동 사래리에 정착한 죽산박씨 진(震)이다. 진(震)은 북상하던 왜군이 총 퇴각하여 재침략하자 노복과 인근 마을 장정 이백 여명을 거느리고 둔대산에서 싸워 형인 헌(憲)은 비록 전사했으나 진(震)은 개가를 올린 것이다.

서기 1992년 11월 일단(一檀) 최현수(崔鉉洙) 짓고
정산(靜山) 김세규(金世奎) 쓰고
의병장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삼가 이 사업을 추진함

이라고 새겨 놓았다. 또한 ‘의병장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비’에 새긴 명단을 보면 고문에 박재환, 신능순, 안동선, 박규식, 원혜영, 최기선, 임무웅, 박광성, 이은기, 송승영, 정범영, 한기영, 최은휴, 박노송, 최간열, 심정기, 강희대, 한방교, 이상호이다. 명예위원장으로서는 전창성 부천시장, 위원장은 송철흠 부천시시의회 의장, 부위원장은 박태선 부천시 남구청장과 김홍식 부천시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으로는 최현수 부천역사연구소장과 이하 60여 명의 명단이 돌에 새겨 있다. 이름을 보면 당대 부천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간 듯하다.

한 인물을 왜곡하는데 어떻게 부천시 전체를 속였는지 불가사의하기만 하다. 이 책은 박진을 의병장으로만 왜곡하지 않았으면 부천시 역사에서 불멸의 탑을 쌓은 대단히 훌륭한 책으로 남을 것인데, 단 하나의 실수로 인하여 부천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불행한 책이 되고 말았다.

사실 박진(朴震)의 가짜 의병장 기념비는 그동안 부천에서 불편한 진실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문중과의 마찰 때문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술자리에서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데’ 라는 말만 할 뿐이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12년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이 부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칼을 빼들었다. 칼날이 무디면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로 되레 역풍(逆風)을 맞을 것이기에, 나서기는 해도 은근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곡동의 박진(朴震)은 가짜 의병장임을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부천향토문화연구소, 2012.12.24)를 통하여 기어이 밝혀냈다. 먼저 죽산박씨 창시보인 《죽산박씨족

보》(1771)를 보면 22세 박진(朴震)은,

“승훈랑(承訓郎)이다. 묘는 위(아버지 묘)와 같다. 부인(室)은 고령박씨(高靈朴氏) 대사간(大司諫) 박중간(朴仲幹)의 따님이다.”

라는 기록뿐이었다. 보다시피 별 이야기도 없이 조선시대 문관 정6품의 승훈랑이 전부였다. 그런데 후대에 문중의 누군가가 《죽산박씨족보》(1771)에 박진(朴震)의 경력을 공란(空欄)에 추기(追記)하기를,

22세 박진(朴震)

“按公字而電號桂菴孝行卓異先公奄世居廬三年萬曆壬辰聞倭酋搶掠境內倡卒奴僕百餘人及隣里勇力人數百人九月九日屯於屯垆山見倭部怯掠村廬撥馬突衝擊殺十餘級却倭三四里其兄聞憲中丸而死卽赴積尸如山之中窮覓屍身返葬先塋事母夫人竭誠盡孝事聞初監役又除參奉三除內贍寺主簿終不赴仕前後家牒失傳追跋故今始書之以脩後攷有石物立墓碑於順治八年云承訓郎⁸⁾”

“삼가 살피건대 공(公)의 자(字)는 이전(而電)이고 호(號)는 계암(桂菴)이다.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부친이 돌아가시자 시묘살이 3년을 살았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에 왜추(倭酋)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지역 내의 노복(奴僕) 백 여 명과 인근 마을의 힘 있는 자 수 백 명이 창의(倡義)하여, 9월 9일 둔대산(屯垆山)에 진(陳)을 치고, 왜군의 부대가 마을을 겁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보고 말을 타고 돌격하여 맞싸워서 10여급(十餘級)을 격살(擊殺)하고 왜군을 3~4리 물리쳤다. 형 박헌(朴憲)이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시신(屍身)이 산 같이 쌓여 있는 중에, 온 힘을 기울여 겨우 시신을 찾아 되돌아와서 선영에 장사(葬事) 지내고 어머니를 온 정성을 다해 효도로 섬겼다. 이러한 일이 알려져 처음에 감역(監役)과 다시 참봉(參奉)에 제수(除授)되었고 세 번째 내섬시 주부(內贍寺 主簿)에 제수(除授) 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졸(卒)하였다. 앞뒤의 가첩(家牒)을 실전하여 추발(追跋)한다. 그러므로 지금 비로소 써서 후에 참고가 되도록 대비한다. 석물(石物)이 있다. 순치(順治) 8년(1651년)에 묘비를 세웠는데 승훈랑(承訓郎)이라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꾸며서 넣었다. 이것은 창시보인 《죽산박씨족보》(1771) 박진(朴震)의 경력을 추

8) 《죽산박씨족보》(1771) 3권에 추기(追記)한 복사본 - 부천족보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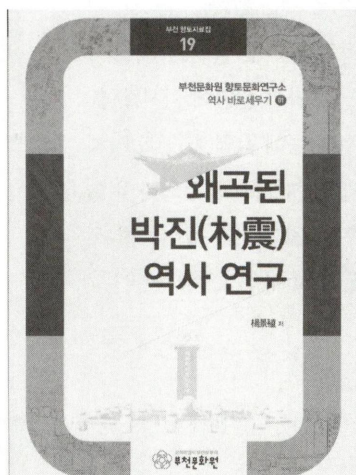
기(追記)한 내용인데, 오로지 역곡동 종손 집에만 있었다. 이에 필자가 추기(追記)한 이 족보를 보기 위해 문중을 찾아가 의병장(?) 박진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족보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았던 바로 그 족보였다.

추기(追記)한 이 족보가 왜 중요하나 하면 《부천사연구》 제1집(최현수, 1993)의 저자가 박진(朴震)을 의병장으로 왜곡했을 때, 근거 자료로 삼은 저본(底本)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추기(追記)한 원본을 책에 공개하지 않고 상기 내용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버렸다. 아닌 게 아니라 원본을 찾아 번역을 해보니 이마저도 다시 또 왜곡을 해버렸다.

그래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 부천시에 미등록 향토유적으로까지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등하불명(燈下不明)이라고 했던가, 그렇게 찾던 족보가 우습게도 부천족보도서관에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남부끄러운 민낯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박진(朴震)은 슬하에 3남4녀를 두었는데, 첫째 사위 임복(林復, 1521~1576)이 1521년생이므로 박진의 딸도 나이가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박진의 출생연도는 자연스럽게 1500년 전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150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이 임진왜란(1592) 때에 왜적과 싸웠다면, 지푸라기를 들지나 말지 한 100살 가까운 노인일뿐더러, 그의 아버지 박철정도 권을 장군 휘하에서 싸웠다고 하고, 더욱이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노모를 위해 효도를 했다면 도대체 박진은 몇 살이 되는 것이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20살 언저리가 되는 것이니 아예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
(2012) 표지

어쨌든 당시 이 문제로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모 국회의원이나 방해를 할 정도로 시끌시끌한 핫이슈였는데, 문중에서는 모 대학교수까지 동원하여 이 책의 저자에게 대항했지만 결국 저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에 문중에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가짜 의병장 비석을 땅에 묻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서 있다.

또 하나의 불행한 책이 있다. 바로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12)이다. 이 책은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이 책의 저자는 특하면 삼한시대까지 유래를 끌고 올라간다. 지극히 몽환적(夢幻的)인 지명 유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 희한한 책이다.

더욱 희한한 일은 이 책이 불과 두 달 뒤에 《부천시사》(백수현, 2002.2)에 실리고 있는데, 저자가 백수현이다. 그리고 디지털부천문화대전(2008)에 고스란히 옮겨다 놓았다. 이래저래 이 책은 희한한 책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어떻게 뭉환적으로 지명 유래를 말하였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12)의 저자는 중동까지 서해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구지리(현, 송내동)까지 세곡선(稅穀船)이 다녔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인용을 했어야 했고, 또한 조수가 들락거렸다면 바닷물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테니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그 넓은 벌판에 물을 댔는지 밝혔어야 했다.

이에 대해서 《새로 쓰는 부천의 지명 유래》(김희태, 2018.12.10)를 발행하기 전에, 부천향토문화연구소 김희태 연구위원이 한도훈에게 소위 서해 조수론(潮水論)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든 공청회를 하든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끝내는 한도훈의 비협조로 이루지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 책으로 말미암아 부천에서 바닷물이 출렁거렸다는 말은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산우물(山井)은 《조선지지자료》(1911)에 “산우물주막(山井酒幕)-구지리(九芝里)”로 기록되어 있다. 산우물은 말 그대로 산자락 근처에 있었던 전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우물이다. 그런데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왜곡하기를,

“산우물은 솔안말 검디의 산자락 아래에 있어 검디와의 연관성으로 풀어야 옳다. 산우물은 삼우물을 삼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삼우물은 시(柿)우물인데 이는 검은 우물로 검은 물이 나오는 우물이라는 뜻이다…이곳의 물은 검은 색을 띠었을 것이고, 이 검우물은 곱으로 삼한시대 이전에는 아주 신성한 족장을 칭하는 말이었다”

라고 운운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지명 유래다. 이 책의 저자는 ‘검대리’의 존재를 까마득히 모른 채 덮어놓고 ‘검다’라고 하였다. 현, 소사경찰서 일대를 ‘검뎡’ 또는 ‘검디’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 이 지역이 ‘부평부 석천면(石川面) 검대리(檢堡里)’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검대리는 1895년 구지리(九芝里), 현재의 송내동에 통폐합되면서 사라진 마을로,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의 저자는 검대리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다는 무지(無知)의 소산이라고 해야겠다.

세 번째로 방아다리들(春橋坪)은 역곡초등학교 뒤편 골짜기인 뱀골들(蛇谷坪)과 마을 앞 벌판이었던 역곡고등학교, 역곡중학교, 역곡시장, 역곡역까지 길게 이어진 장구평(長久坪) 일대의 지

형이 Y 자 형태의 곡식을 찢던 방아다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그런데 《부천의 땅 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감배들(春橋坪) - 감배들은 조선지리지자료에는 춘교평(春橋坪)으로 되어 있다. 감배산 아래에 있는 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이곳을 춘교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 저 감배들로 고쳐 부른 것으로 보여 진다. 감배는 그 어원이 곱배이다. 곱은 삼한시대 이전의 고대에서 지신(地神)의 의미인 족장을 지칭하는 신성한 말이다. 배(倍)는 붉에서 나온 말이다. 붉이란 밝은 것을 의미하고 태양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배산은 고대인의 족장이 태양신에게 제를 올리는 신성한 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아래에 있는 들이라고 해서 감배들이라는 땅이름이 생겨났다.”

라고 어처구니없는 유래를 말하고 말았다. 위에서 말한 용교평(春橋坪, 방아다리들)은 지극히 단순한 지명이다. 그런데 조사자가 ‘방아 찢을 용(春)’ 자를 ‘봄 춘(春)’ 자로 잘못 읽은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춘교평(春橋坪)’이라 해놓고는 삼한시대 족장 운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역시 무지의 소산이다. 이 책의 내용이 대개 이런 식이다.

그리고 책으로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1990년 부천대학교 민충환 교수가 개발 직전의 중동(中洞)과 상동(上洞)의 소지명을 조사하여, 《복사골문화》(부천문화원, 1990년 2월호)에 〈중동 개발지역 내 전답 소지명〉을 발표하였고, 이후 중동의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위치를 대비 조사하여 《부천문화의 재발견》(1996)에 〈중동 개발 지역 내 전답 소지명 그 이후〉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2006년에 역시 민충환 교수가 《복사골문화》(부천문화원, 2006년 75호)에 〈사라져간 이름을 찾아서〉란 제목 하에, 중동과 상동(上洞)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상동(上洞)

“수젯물논(水災畓), 동네방죽논, 배락논, 바퀴논, 쪼갈논, 갈논들, 운동군논, 돌다리논, 동정머리논, 두멍배미논, 쇠밭이논, 물문개논, 새벽구덩이논, 발뚨논, 봉추논, 대리미재, 쇠귀밭논, 덕배미, 도당재, 머리, 벽제논, 들마당, 장승백이논, 개새이논, 방아다리논, 쪽다리논, 앞방죽논, 연지방앗간, 개건너논, 앞자리논, 수렁배미논, 뱀논골, 발뚨논, 장승백이밭, 밤꽃이논, 배뜰, 소나무박이논”

“한배미, 수수군논, 장승백이논, 군논, 재논, 쇠밭이논, 거멀논, 된벌, 장구논(長久畝) 방죽안, 큰도리논, 갈막부리, 특일호논 원종답(原種畓), 적골이, 외송나무벌, 제비군논, 세집매밭논, 풀치군논, 푸르치군논, 고분댕이, 갈논, 부평들(富平坪), 모래, 잉어논, 김묵벌, 새우지논”

등이 당시에 조사된 소지명들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향토 지명들이다. 이때 조사하지 않았으면 대개 사라졌을 것이다. 이상의 지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상기 책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후 문화원에서 본격적으로 마을지 발간에 착수하였다. 주로 개발 예정지를 선정하여 마을의 지형이나 향토지명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계획이었다. 부천에서는 아직까지 마을지를 발간해본 적이 없었지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이 그 동안 각 마을 세거성 씨의 족보와 각종 문헌, 그리고 조선시대와 1895년 지도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발행한 지도를 바탕으로, 많은 지명들을 새로 찾아내거나 바로 잡아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첫 번째 마을지는 양경직 책임 집필 하에 《범박동·역곡3동 마을誌》(부천향토문화연구소, 2011.12.9)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지명들을 새로 찾아냈다. 범박동에서는,

“공세동산(貢稅洞山)·숙공산(肅公山)·삼태봉(三台峰)·망현(望峴)·불당현(佛堂峴)·배모탱이마을·암우들(岩隅野)·서낭댕이고개·두릉배미·건들고개·지석고개(支石峴)·붕구댕이(崩)·세째고개(세치고개)·모래무지밭·물망댕이·황새산·장자물(장젯물)·고자물(고젯물)·새경논·새장터·도당제·웃망골·시온광산(鎭山)·신암촌우물”

등을 새로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 이중에서 ‘배모탱이마을’ 또는 ‘배모탱이 설화’로 잘못 알려진 지명이 본래는 ‘바우모탱이(岩隅)’이었음을 밝혀냈다. 예전에 느티나무 5~6그루가 있었던 곳이 바로 바위모탱이다. 곧 바위모탱이가 음운 변화를 일으켜 배모탱이로 변한 것이다. 또한 옥길동의 함박동에서는,

“함박이/한배기(咸朴洞)·앞논들·건넌말·게레울(일명,계리월(鷄里月)·돌구지골·호랑바위산·원남터·사탯말(沙汰村)·함박이고개(咸朴峴)·장고개(場峴)·터진목·길고개·대동우

물(일명,바가지우물) · 장승백이고개 · 장승백이골 · 웃골 · 부골골 · 범박산”

을 새로 찾아내거나 자료를 보충하였다. 역곡3동 괴안동에서는,

“용무들(龍池坪) · 개뚝배미 · 말배미 · 역곡간이역(驛谷簡易驛) · 청대밭 · 청룡뿌리 · 청등(靑登) · 청등뿌리(靑登) · 매춘논 · 청어방골(靑魚芳谷) · 대머리산 · 채석산(採石山) · 연화봉산(蓮花峰山) · 새장터 · 장구들 · 삼자골과 청등 · 고래길”

을 새로 찾아내거나 자료를 바로 잡았다. 옥길동의 고유지명 옥련동(玉蓮洞)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사가 거의 이루지지 않았던 동네여서 그러지 새로운 지명들을 많이 찾아냈다.

“용못내(龍池川) · 건지산(乾芝山) · 옥녀봉(玉女峰) · 망골 · 홍가들(洪哥野) · 물모통이(물무태/물모테) · 아골(我谷) 일명, 앞골 또는 악골 · 참나무골 · 웃우물(漆井) · 옥길약수(玉吉藥水)일명,웃우물약수(漆井藥水) · 웃연못(漆池) · 연꽃방죽 · 참나무골계곡 · 대동우물 · 느티나무곳”

등을 새로 찾아냈다. 용못내(龍池川)의 경우에는 현재 역곡천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명으로, 원미산 춘덕약수터에서 발원하여 역곡중학교 - 역곡역 굴다리 - 괴안동 삼성홈플러스 앞 - 옛 동부시장 - 향동 벌판 - 옥길동 앞 벌판 - 광명6동에서 목감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들어가는 개울이 ‘용못내’다. 《조선지리지자료》(1911)에도 용못내(龍池川)로 기록되어 있고, 옛 동부시장 일대의 벌판을 마을 원로들은 ‘용무들’로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뜻도 모르고 부르는 ‘용무들’은 곧 ‘용못내(龍池川)’가에 있는 들판이라는 의미이다.

어쨌든 이 중에 현재 지형이 남아 있는 마을은 옥련동 밖에 없다. 나머지 마을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다. 마을지 발행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이후 2015년 양경직 수석연구위원 책임 집필 하에 두 번째 마을지인 《고강동 · 성곡동 마을誌》(부천향토문화연구소, 2015.9.15)를 발행되었다. 고강동, 여월동, 작동 그리고 사라진 오쇠동과 언담리(堰淡里)를 조사한 이 책에는 새로 찾은 지명도 많고, 아울러 앞 선 사람들이 왜곡한 지명 유래에 대해서 각종 문헌을 통해 바로 잡았다.

“흑량리(黑梁里) · 고리울(古里洞) · 느리울(槐里洞,槐里,槐洞) · 강장골(康莊洞) · 간담산(間牆山) · 구름산(雲山) · 곰달내고개(古晉達乃峴) · 셋골(間村) · 셋말(新村) · 샘말(澗村) · 청룡산(靑龍山) · 장개말(長浦谷)”

등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바로 잡았다.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고리울(古里洞)은 고음달리(古音達里)에서 음달(音達)은 빼고 고리만 마을 이름으로 한데서 비롯됐다. 여기서 고음달리(古音達里)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옛 소리에 통달한 마을’이라는 뜻이 된다. 옛 소리를 잘한 마을이었다면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남아 있거나 거기에 따른 역사적 사실 기록이 되어 있을 터인데 그게 없다. 고음(古音)은 곰의 음을 따서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곰은 곰에서 나온 말로 삼한시대 이전 족장을 의미한다. 곰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를 뜻하는 말이다…고리울의 옛 땅이름은 곰달이었다. 이것이 고리울(古里洞)로 편하게 바꾼 것이다.”

라고 지명 유래를 말하고 말았다. 한도훈이 말한 고음달리(古音月里)는 본래 옛 양천군 장군소면(將軍所面) 고음달리(古音月里)였다. 이후 1914년 김포군 양서면(陽西面)이 되었다가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지금의 양천구 신월1동과 신월7동 일부가 되었다.

이런 연유로 고리울에서 고음달리(古音達里)로 넘어가는 고개를 ‘곰달내고개(古音達乃峴)’⁹⁾¹⁰⁾라고 부천 쪽에서 지칭한 고개이름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안타깝게도 고리울(古里洞)의 바로 뒷동네였던 ‘고음달리(古音達里:현,신월1동)’에서 ‘음달(音達)’을 빼고 ‘고리’만 마을 이름으로 한데서 비롯됐다고 지명 유래를 말한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지명 유래를 사용하기 않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간대미’ 또는 ‘간데미’로 부르는 본래의 지명이 ‘간담산(間牆山)’이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간데미(肝膽山)는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감담뢰라고 해서 한자로는 간담산(肝膽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간과 쓸개의 산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감담뢰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간데미가 맞다. 간데미를 어원적으로 풀이하면 ‘데미’는 둠에서 왔다. 둠이란 둥근, 둘러싸인, 뭉침, 덩이의 의미로 쓰였다…간은 간(干)으로 예전에는 한(韓,漢,翰), 환(丸,桓), 감(邯)과 더불어 ‘크다’는 의미로 쓰였다…그러므로 간데미는 크고 둥근 언덕이라는 말이다. 간데미는 예부터 산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언덕으로 여겼다. 또한 이 언덕은 덩치가 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신성한 무엇이 있어서 크다는 의미를 나타냈을 것으로 보인다. 삼한시대에 족장이 기거했다든지 하는 곳

9)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4년, 김정호)

10) 《대동지지(大東地志)》(1864년, 김정호) 《程里考》(西至江華六大路)

이어서 간데미라는 땅이름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라고 얼토당토않은 지명 유래를 말하였다. 1864년, 1906년에 발행한 《밀양면씨족보》를 보면 고강리와 원종리 사이에 마치 담처럼 길게 늘어진 산을 ‘사이 간(間)’자와 담을 뜻하는 ‘담 장(牆)’자를 써서 ‘간담산(間牆山)’으로 기록하였다.

곧 처음에는 ‘간담피’로 부르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한자는 전해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다 보니 현재 ‘간대미’ 또는 ‘간데미’로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족보를 보았다면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의 저자는 과연 저렇게 삼한시대까지 지명 유래를 끌고 갔을까? 또한 고강동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舊수도선로(水道線路)·新수도선로·식골(息谷)·은행단지(銀行團地)·안산골(案山谷)·명골(明谷)·사루지(士樓支)·도당외(都堂山)·지루지(支樓支)·보농산(保農山)·대가리고개(大佳里峴)·응골(應谷)·내머리(소두머리골)·삼태골·무덤골·뒷보둑·가루지골·장개말(長浦谷)·장안사산·오룻가리(五隴柯里)”

등을 새로 찾아내거나 바로잡았다. 특히 옛 대장3리였던 사라진 한다리마을(大橋)과 오쇠동을 특집으로 실었다. 이 책에서 한다리와 오쇠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 각종 문헌을 자료를 통하여, 사라진 마을의 아쉬움을 그나마 문헌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 오쇠동의 지명 유래를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그냥 오쇠리(五釧里)로만 해석해도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라고 지명 유래를 말하고 말았다. 지명 연구의 필수인 지리서 또는 각종 읍지를 이 책의 저자는 아예 모르는 듯하다. 오쇠리는 《호구총수》(1789)에 보면 ‘오금리(五金里)’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1911)에 보면 ‘금생골(金生谷)’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쇠/금(金)’과 관련한 지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895년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오쇠리’를 발음 나는 그대로 ‘오쇠리(五釧里)’로 잘못 기록하였다. ‘쇠 금(金)’자는 고유 지명으로 ‘쇠’로 읽는다. 곧 ‘五金里’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 ‘오쇠리’다. 아마도 조사를 나갔던 관리가 마을 사람들이 자꾸 ‘오쇠리’라고 부르니까, 그도 얼떨결에 발음 나는 대로 기록한다는 것이 ‘쇠’에 합당한 한자가 별로 없다보니 ‘쇠 쇠(釧)’자를 끌어다가 적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기도지지조서(京畿道地誌調書)》(1915)에도 ‘오금리(五金里)’에 대하여

“도(道)에 보고한 것에는 오금리(五金里)를 오쇠리(五釵里)라고 주기(注記)함”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오기(誤記)한 ‘五釵里’의 본래 지명이 ‘五金里’인줄을 꿈에도 모르고 다섯 사람 운운 하고만 것이다.

여월동의 경우에는 거칠고개(荒峴)에 있었던 오정신사(吾丁神社)에 직접 참배를 하였던 김태현 씨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실려 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의 후손들이 자생하기 위해 조성한 여월동의 3.1농원(農園)을 새로 발굴하여 실었다. 또한 사라진 원종동 일부인 언담리(堰淡里) 지명 연혁을 특집으로 실었다.

언담리(堰淡里)는 현재 ‘은데미’로 변형되어 부르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부천 사람들은 왜 ‘은데미’로 부르는지 모른다. 언담리(堰淡里)가 1895년 원종리로 개칭되면서 사라진 이후, 한자는 전해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다 보니 오늘날 ‘은데미’가 된 것이다. 작동(鵲洞)의 경우에는,

“까치울(鵲洞)·범바위산(虎岩山)·지골(泥谷)·서름이골·봉천골(鳳泉谷)”

의 지명유래에 대해서 바로 잡았다. 이 중에 ‘범바위산(虎岩山)’을 ‘봉배산’이라고 왜곡한 것을 각종 문헌을 통해 바로잡았다.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한도훈, 2001)에서,

“봉배산(鳳倍山)은 조선지지자료에는 범바위라고 적혀 있고 한자로는 호암산(虎岩山)이라고 표기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땅이름이 예전 땅이름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도에 새롭게 지어졌다는 사실은 바위에서 알 수 있다. 14세기 후기 중세국어 시기만 해도 바위는 바회였다. 바회라고 했기 때문에 바위라고 표기한 것은 현대적인 어법에 맞게 고친 것에 불과하다. 봉은 고구려 시대 이전 삼한시대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영물로서 중요한 상상의 새이다. 족장이 제사터나 산에 올라 천신제를 지낼 때 그 기원을 신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봉이 했던 것이다. 그래서 봉이라는 땅이름이 들어간 곳은 신성한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족장이 천신제를 지낸 곳이라는 의미이다. 봉배산은 봉배(鳳倍)로 봉은 봉(鳳)을 그대로 썼고, 배는 붉이란 말로 태양신을 일컫는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봉배달(鳳倍達)이나 봉배미로 쓰여진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봉배산으로 바뀐 것일 것이다...(중략) 그러므로 봉배산은 고리울, 까치울 지역에 살던 세력들이 천신제를 지내던 산으로 여겨진다. 고대인들은 산에 봉이 살고 있다고 여겨 봉배라는 땅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소설적 지명 유래를 말하였다. 그러나 각종 문헌을 조사한 결과 ‘범바위산(虎岩山)’이었음을 밝혀냈다. 먼저 《고령박씨대동보(高靈朴氏大同譜)》(1987)를 보면 성종 때 청백리에 녹선된 박 처륜(1445~1502)과 그의 아버지 박사란(朴思蘭)의 묘소가 있는 작동(鵲洞) 산 7·3번지 일대의 산을 ‘범바위(虎岩)’¹¹⁾로 기록하였고, 조선지리지자료》(1911년)에도 “범바위산(虎岩山)-부평군 하오정면(下吾丁面) 작동(鵲洞)”¹²⁾으로 기록하였다. 아울러 《의령남씨족보》(1758)를 통해 범바위산 아래 골짜기가 ‘범골(虎洞.虎谷)’이었음도 또한 밝혀냈다.

“시루되들 · 범골(虎洞/虎谷) · 범골(虎谷 · 화전(花田) · 시르되고개(龜峴) · 새말/새마을(新村) · 윗고개(上峴) · 탑골(榻谷) · 삼막골(三幕谷) · 점골(店谷) · 달님산 · 화줄골 · 잣나무골(栢谷) · 작미골 · 바람모퉁이 · 길마재(鞍山) · 당너머 · 응달말(陰月村) · 새말고개(新村峴) · 활터고개 · 과녁터사거리”

등이 새로 찾은 지명들이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상기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6년에는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이 《다시 쓰는 부천의 향토지명》 제1편 舊 원미구(遠美區)(2016.12)를 통해, 舊 원미구 관내 심곡동(深谷洞) · 소사동(素砂洞) · 역곡동(驛谷洞) · 춘의동(春衣洞) · 원미동(遠美洞) · 도당동(陶唐洞) · 약대동(若大洞) · 중동(中洞) · 상동(上洞) 총 9개동에 대한 지명 유래에 대해서 새로 찾아내거나 바로 잡았다.

이 중에 도당동과 춘의동 그리고 여월동에 걸쳐 있는 ‘우산(牛山)’ 또는 ‘와우산(臥牛山)’을 현재 도당산으로 잘못 부르고 있는 점을 바로 잡았다. 이 산의 정상을 ‘매봉(鷹峰)’이라 부르고 머리에 해당하는 봉우리를 ‘춘의봉(春意(宜)峰)’이라고 불렀다. 불과 40~50여 년 전에도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이 산을 도당산이라 부르고 춘의봉을 춘의산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 《전주이씨 효령대군정효공파세보》(1957)를 보면 16세 이근영(1831~1873) 등의 묘소를 ‘와우산(臥牛山)’으로 기록하였고, 19세 이강국(1915~1934) 등의 묘소를 ‘와우산(臥牛山) 매봉(鷹峰)’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청주한씨 이양공파보(淸州韓氏族夷襄公派譜)》(1960)를 보면 25세 한진규(1761~1858) 등의 묘소를 ‘춘의봉(春宜峰)’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역곡동을 역원(驛院)과 관련한 지명이라고 잘못된 점이다. 역곡동은 본래 벌웅절리(伐應節里)였는데 1973년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발음상 어렵다고 하여, 자연촌락이었던 ‘역골(驛谷)’의

11) 《고령박씨대동보(高靈朴氏大同譜)》(고령박씨대중회, 1987)

12) 《조선지리지자료》(조선총독부, 1911)

명칭을 취하여 역곡동으로 하였다. 그런데 ‘역곡(驛谷)’은 1895년 《구한말한반도지형도》를 보면 ‘독동(獨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본 마을에서 떨어져 한두 집이 살았다고 해서 유래한 ‘외판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18년 측량하여 1919년에 제판 발행한 1:50,000 지도를 보면 ‘독동(獨洞)’ 위치에 ‘역곡(驛谷)’이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 역원과 관련된 지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추정하건대 ‘외판말’이 ‘역곡(驛谷)’이 된 데는 1899년 경인철도와 관련된 지명으로 여겨진다.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상기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7년에는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양경직 수석연구위원의 책임 집필 하에, 마을지로는 세 번째로 《대장동·원종동 마을지》(부천향토문화연구소, 2017.12.20)가 발행되었다. 대장동이 개발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마을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2018)과 2019년 올해 대장동 개발이 발표되었다. 개발되기 직전에 적시에 조사하여 책으로 묶어서 다행인 지역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대장동(大壯洞)은,

“대장동(大壯洞), 섬말(島村), 은행재(銀杏峴), 도당재(禱堂峴), 도당산(禱堂山), 대장석교(大壯石橋)와 석교리(石橋里), 세보뚝(新狀), 방오리보(方五里洲), 성넘말(城村), 군논, 마채이논, 대장리 고개, 솔이재(率魚山), 세느강변가든, 대장리 서당(書堂), 대장리정미소, 대장리 강습소, 대장리 야학(夜學), 이발소 자리와 구멍가게, 떡방앗간, 큰말 대동우물, 섬말 대동우물, 대장1리 종대(鐘臺), 천부교(天父敎) 대장전도관”

등의 지명을 새로 찾아내거나 잘못된 지명 유래에 대해서 바로 잡았다. 이 중에서 말로만 전해오던 ‘섬말(島村)’의 존재를 문헌을 통해서 밝혀냈다. 《반남박씨세양공파세보(潘南朴氏世襄公派世譜)》(1960)에 보면 11세 박희수의 부인 경주최씨의 묘소와, 그의 아들 12세 박제우(1858~1872)와 그의 손자인 13세 박선양(1879~?)의 묘소를 “섬말 뒤 은행나무고개(島村後銀杏峙)”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대장동도당제에서 ‘도당할아버지나무’ 역할을 했던 나무가 전문가의 소견서에 의하여 ‘들메나무’로 밝혀낸 사실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지난 2011년에 양경직이 발굴한 〈대장동 말무덤 설화〉를 수록하였다. 원종동(遠宗洞)의 경우에는,

“덧마루(竹宗里·竹軒里), 수역리(壽域里), 화력리(禾力里), 수역이보(壽域里洲), 계산(鷄山), 오

정면사무소터(吾丁面事務所址), 오정면주재소터(吾丁面駐在所址), 새덧말(新墟里), 대장간, 성지동사무소 자리, 성터골(城址谷), 주막거리, 방아다리길, 동네 정미소, 사첨마당터(射廳場址), 건만니들(乾滿野), 도정공장(摺精工場), 방오리들(方五里坪), 방오리(方五里), 멧마루뒷보(遠宗里後淤), 멧마루보(遠宗里淤), 옹구리, 웅덩이, 빨간다리, 동신제약 자리, 안군논, 상여집, 원종양수장, 탄메산, 웅덩이 앞보(沼淤), 멧마루 신촌(新村)”

등의 향토 지명을 새로 찾아내거나 바로 잡았다. 이 중에서 원종리의 고유지명인 ‘멧마루’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지명을 발굴하였다.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를 보면 ‘대모루(竹隅)¹³⁾¹⁴⁾, 대마루(竹宗里)¹⁵⁾, 대마루(竹軒里)¹⁶⁾가 기록되어 있다. 잘 보시면 지명마다 ‘마루’를 의미하는 ‘종(宗)’자와 ‘헌(軒)’자를 한결같이 쓰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죽종리(竹宗里), 죽헌리(竹軒里) 지명들은 현재 사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유지명으로 ‘마루’는 현재도 부르고 있다. 앞으로 문헌 고찰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또한 필자를 오랫동안 애를 먹인 ‘화력리(禾力里)’의 어원과 위치를 찾아냈다. ‘화력리(禾力里)’는 《호구총수》(1789)에는 분명 있었던 마을인데, 1895년에 행정 구역을 개편할 때 어느 마을로 통합되었는지 불분명했다. 그렇다면 옛 오정면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지명이 채집되어야 하는데, 채집된 사례도 없고 필자가 조사를 해보아도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오리무중의 지명이었다.

그런데 문헌 조사 결과 이 동네에서 부르는 ‘수역리(壽域里)’ 또는 ‘새기’라고 부르는 지명이 바로 ‘화력리(禾力里)’의 후신(後身)임을 밝혀냈다. 곧 《유합(類合)》(미상)이나 《신증유합》(1576)에 보면 ‘화(禾)’자를 ‘쉬’라 기록하였고, 이규정은 《오주연문장전산고》(19세기) 〈동국토속자변증설〉에서 “화음수(禾音水:화의 음은 수이다)”라 하였고, 최남선의 《신자전(新字典)》(1915)에는 “화(禾)는 슈로 읽는다.”고 했다.

곧 ‘화(禾)’를 중세어에서는 ‘쉬’로 읽혔고, 1910년대까지만 해도 ‘쉬’ 또는 ‘슈’로 읽혔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 마을에서 수백 년 세거하고 있는 《의령남씨족보》(1758)에 보면 남징(1645~1685)과 남규수(1795~1850)의 묘소 위치를 수역리(壽域里)로 기록한 것이었다. ‘수역리(壽域)’는 곧 ‘수역리(禾力里)’를 발음 나는 대로 의미를 좋게 하기 위하여 변형된 이두식 지명임을 이로써 알게 되었다.

또한 멧마루도당우물대동제(遠宗洞都堂井大同祭)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도당우물 미나리밭과

13)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1758) - 16세 남휘(1671~1732)의 묘소

14)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1809) - 17세 남익주(1723~1774)의 묘소

15)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1870) - 19세 남조(1778~?)의 묘소

16) 《의령남씨족보(宜寧南氏族譜)》(1900) - 18세 남숙(1786~1867)의 묘소

본래의 도당우물 자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멧마루 백연당(白蓮塘) 설화(說話)>를 새로 발굴하였다.

2012년에는 향토문화연구소 양정직 수석연구위원이 <웃소사대동산신제 고찰>과 <고리울 선사 시대 제천의례>를 고찰하여 《富川地域 祭天儀禮 考察》 1편(부천문화원, 2012.12.26)을 발행하였다. 이후 계속 양정직에 의해 <깊은구지도당제 고찰>을 조사하여 《富川地域 祭天儀禮 考察》 2편(부천문화원 2014.6.26)을 발행하였고, <멧마루도당우물대동제>를 조사하여 《富川地域 祭天儀禮 考察》 3편(부천문화원 2016.6.26)을 발행하면서 모든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이 책들은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부천 지역의 전통 행사를 조사하여, 훗날 행사의 맥이 끊기더라도 이 책을 보면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책이다. 훗날 복원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2013년에는 《다시 찾은 부천 인물》(부천향토문화연구소, 2013.10.30)을 발행하였다. 묻혀 있던 인물을 발굴하여 부천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이 공동으로 역은 책인데, 이 책에 양정직이 발굴한 <백성옥(白性郁)의 생애>가 실려 있다.

백성옥(白性郁, 1895~1981)은 동국대학교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에 1917년 입학하여 학생 신분으로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곧이어 상해(上海)로 탈출하여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하다가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떠나 철학박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불교학 1호 박사였다.

이후 귀국하여 불교 청년운동 겸 독립운동과 불교수행을 겸하다가, 1945년 광복 후에는 건국운동에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제4대 내무부장관과 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직을 맡고 있는 도중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동국대학교 총장을 사임하고, 1962년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리 윗소새 산 66번지에 ‘백성목장(白性牧場)’¹⁷⁾ 간판을 내걸고, 아울러 ‘소사본당(素砂本堂)’¹⁸⁾을 지어놓고 《금강경》을 강화(講話)하면서 후학(後學) 양성에 힘쓰면서, 20년 가까이 부천에 거주하다가 1981년 서울 이촌동에서 졸(卒)하였다.

그런데 백성옥은 부천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인물이었다. 백성옥 연구에 일말의 도움이 되는 연구 고찰이다. 이후 백성옥은 소재마을역사관에 상설 전시되어 일반인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하여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17) 증언 - 백성옥 박사의 제자 김동규(金東圭, 78세: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대표)

18) 증언 - 백성옥 박사의 제자 김동규(金東圭, 78세: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대표)

Ⅲ. 나가는 말

부천 지역 향토지명을 연구하려면 《부천예총》(1977)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책 내용은 보면 《부천예총》(1977) = 《부천의 흐름》(1982) = 《복사골문화》(1985) = 《부천시사》(1988)가 하나의 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같음(=)의 등식이 성립된다. 곧 인용에 재인용 그리고 다시 또 인용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앞선 책의 오류를 뒤에 다시 인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중동과 상동이 개발되기 직전에 향토 지명을 조사한 <중동 개발지역 내 전답 소지명>(1990)과 <중동 개발 지역 내 전답 소지명 그 이후>(1996)는 비록 책으로 발간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소임을 다한 지명 조사라 하겠다. 이 자료를 간과하고서는 부천 지역 전체 향토 지명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자료의 가치이다.

이후 무엇보다도 보아야 할 책은 《부천사연구》 제1집(1993)이다. 이 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이기는 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 인물인 박진(朴震)을 의병장으로 왜곡한 오점(汚點)으로 인하여, 불세출의 명작이 부천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단 하나의 오점을 빼고는 좋은 향토사 자료가 많은 책이다.

그리고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2001)는 마치 아기가 잠을 자면서 웅알거리는 수준의 소설적 지명 유래설이어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참으로 이상한 책이 탄생하고 말았다. 더 희한한 일은 이 책이 《부천시사》(2002)와 <디지털부천문화대전>(2008)에 고스란히 실리는 참으로 남부끄럽고 남부끄러운 촌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두 책은 부천 지역 향토사적으로 보면 중간적 위치에서 전자 《부천사연구》(1993)는 제 역할을 충분히 다하였지만, 하나의 오점으로 인하여 연구한 공로까지 상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 후자 《부천의 땅이름 이야기》(2001) 역시도 비전문가가 전문가 흉내를 내다가 갯난이 웅알이로 남게 되는 남부끄러운 책이 되고 말았다.

이후 부천 지역의 향토 지명은 2011년부터 비로소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시작하였다. 2011년 부천시 최초로 발행한 《범박동 · 역곡3동 마을誌》를 필두로 하여 2015년에는 《고강동 · 성곡동 마을誌》, 2016년에는 《다시 쓰는 부천의 향토지명》 제1편 舊 원미구(遠美區), 2017년에는 《대장동 · 원종동 마을지》를 발행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명과, 아울러 잘못된 지명을 비로소 바로 잡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2012년 발행한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는 이 책의 저자가 오직 홀로 부천시와 문중, 그리고 모 국회의원과 싸우면서 끝끝내 물러서지 않고 이룩한 성과란 점에서 높이 사야 할 책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책들이 부천 지역 향토지명 연구의 개요이다. 상기 책들을 연대순서 대로 읽어 보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로 잡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무쪼록 부천 향토사 연구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부천 지역 향토지명 연구의 개요를 마친다.

여 백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현재와 미래

황 수 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연구동향
 - 1. 평택지역의 변화와 의미
 - 2.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인프라
 - 3. 평택문화원 연구활동
 - 1) 향토지 발간
 - 2) 학술행사 개최
 - 3) 연구조사활동
 - 4. 기타 기관·단체의 연구활동
- III. 나가는 말 :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미래

집필자

황 수 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I. 들어가는 말

학계에서는 향토사¹⁾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였으며,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이다. 이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전에도 『평택군지』(1984),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1992), 『송탄시사』(1994) 등을 발간하면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는 미진한 수준이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에는 평택지역의 향토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시사, 읍면지를 비롯해 각종 향토사 관련된 향토지가 발간되는 등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연구는 향토지 발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학술대회, 연구 등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택지역 향토사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에서의 향토사연구는 주로 지방문화원, 박물관, 대학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확대된다. 하지만 평택지역에서는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으며, 대학에서는 향토사를 연구할 수 있는 관련학과가 부재한 사항이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 향토사연구는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실적과 그 외의 각종기관과 개인이 연구한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연구동향

1. 평택지역의 변화와 의미

평택지역은 국토 공간상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경기도의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고 구릉과 평야가 발달하였다. 평야지대에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으며 지명도 하천과 연관된 것이 많다.

1) 본고에서는 용어문제의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토사'라 지칭하는 용어는 지방사, 지역사, 지역문화사, 지역학 등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조선후기 평택지역의 변화에는 간척사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 하천변에 남아 있는 궁리, 평궁리, 신궁리, 삼궁원, 궁논들, 수어청들과 같은 지명들은 국가나 왕실이 주도한 간척사업의 흔적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고 평택역, 서정리역 주변에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미개간지의 간척사업도 변화를 촉진했다.

6·25 한국전쟁 중에는 신장동과 팽성읍 일대에 미군기지가 주둔하자 월남한 피난민들이 평택 곳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이북 월남민이 유입되고 1·4후퇴 시 이북 피난민의 집단 정착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군부대 주변에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유동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졌다.

행정구역의 변화로는 조선시대 진위현과 평택현을 비롯해 수원부, 양성현, 직산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1905년과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진위군이 형성되었다. 1936년 진위군은 평택군으로 이름은 개칭하였고, 해방후 도시지역에서의 인구증가로 1981년 7월 1일 송탄읍이 송탄시로 분리 승격, 1986년 1월 1일 평택읍이 평택시로 분리 승격됐다. 이후 1995년 다시 통합되어 현재의 평택시의 모습이 되었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으며, 변화의 속도는 매우 급격하였다. 이러한 지역은 하나의 고정된 '지역'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을 '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역 내에서의 다른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평택지역이라는 개념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중심으로 공간적인 구조가 현재까지 있으며 일정 부분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지역의 향토사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2.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인프라

지역에서 향토사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구 인프라가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인적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연구기관과 연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인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향토사연구는 지속성과 성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없다.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이해는 초기단계에 머물러있으며 향토사연구를 활용하고자하는 수준 역시 미진하다. 중·장기적인 연구의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역시 계획되지 않았다.

평택지역에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단체로는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향토사연구소, (사)민세안재 흥선생기념사업회, (사)평택지역문화연구소, 지역언론사 등이 있지만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연구 성과들을 제외한다면 지역의 각종 기관, 개인들의 연구 성과들은 미비한 부분이다.

향토사연구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문화원을 비롯하여, 박물관, 대학의 관련학과, 각종연구소 등에서 함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평택지역에서는 현재 연구할 수 있는 박물관이 존재하지 않으며²⁾³⁾, 대학에도 역사·민속·인류학과 등 관련학과⁴⁾가 전무하다.

3. 평택문화원 연구활동

평택지역 향토사연구가 미진한 가운데서도 평택문화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쌓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평택문화원은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1992), 『송탄시사』(1994), 『평택향토사』(1998), 『진위면지』(1999), 『평택시사』(2001) 등을 발간하였다.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각종 향토지를 발간하였으며, 각종 연구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연속적이고 지속성을 가지고 발간과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이를 향토지 발간, 학술행사 개최, 연구조사활동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향토지 발간

평택문화원에서 향토지 발간은 1990년대 중반에 비연속적으로 발간되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읍면지, 평택인물지 등 연속성있는 성과가 함께 도출하였다. 이중 읍면지의 발간은 다음과 같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비고
1	진위면지	1999	
2	고덕면지	2007	
3	팽성읍지	2010	
4	안중읍지	2011	
5	청북읍지	2017	
6	포승읍지	2019	발간예정

〈표1〉 평택지역 읍면지 발간 현황

2) 현재 평택시에서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박물관이 있으나 시설만 있을 뿐 연구기능은 없다.

3) 평택시는 2023년에 평택시립박물관 건립을 계획하였다. 『평택박물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2016) 참고.

4) 평택지역에는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교 등 3개교가 있지만 관련학과는 전무하다.

〈표1〉과 같이 1999년 『진위면지』를 시작으로 발간된 읍면지는 비록 비정기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에는 6번째 읍면지인 『포승읍지』가 발간될 예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처럼 읍면지는 시군지에 담지 못한 지역의 자료를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읍면단위의 역사·문화·경제·사회·정치 등과 미군·간척과 같은 특성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읍면지 외에도 평택인물지도 연속성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비고
1	평택인물지1-충렬공 이대원	2011	
2	평택인물지2-지영희 평전	2013	
3	평택인물지3-원균평전	2014	
4	평택인물지4-평택의 전통예인	2016	
5	평택인물지5-원심창의사	2018	
6	평택인물지6-삼학사	2019	발간예정

〈표2〉 평택인물지 발간 현황

〈표2〉에서처럼 2011년 『평택인물지1-충렬공 이대원』를 시작으로 발간된 평택인물지는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6번째 평택인물지인 『평택인물지6-삼학사』가 발간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의 인물을 발굴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평택인물지는 각 인물의 활동상과 행적을 담는 것뿐 아니라 지역적 배경과 그 영향을 담음으로써 향토사 연구의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현재는 종료되었지만 연속으로 발간되었던 향토지는 다음과 같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비고
1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1	2005	
2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2	2007	
3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3	2008	
4	평택민속지(상)	2009	
5	평택민속지(하)	2010	
6	평택의 토종1	2014	
7	평택의 토종2	2015	

〈표3〉 평택문화원에서 연속으로 발간된 향토지 현황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1~3은 평택의 전지역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지명을 확인 하였다.

『평택민속지』 상, 하는 마을의 형성과 변화, 의례와 신앙, 세시풍속과 놀이, 민속예술, 구비전승, 의식주, 생업, 평택사람들의 하루와 일생 등 평택지역의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평택의 토종』 1~2는 지리·자연, 산업, 생활, 교육, 문화·예술·체육, 음식, 단체/기타 등 평택지역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주제별로 묶어서 부각시켰다.

평택문화원에서는 이처럼 연속적인 향토지 외에도 비연속적으로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연번	도서명	발행연도	비고
1	평택군지	1984	
2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1992	
3	송탄시사	1994	
4	평택향토사	1998	
5	평택의 금석문	2001	
6	평택시사	2001	
7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2003	
8	평택시향일독립운동사	2004	
9	평택시통합사	2006	
10	평택항 개항20년사	2007	
11	문학의 향기-평택의 한시와 기문	2012	
12	평택시사	2014	
13	근현대 평택을 걷다	2015	

〈표4〉 평택문화원에서 비연속으로 발간된 향토지 현황

〈표4〉와 같이 비연속적으로 발간한 향토지는 『평택군지』, 『송탄시사』, 『평택시사』, 『평택시통합사』, 『평택항 개항20년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향토지를 비연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송탄의 민속과 설화』, 『평택향토사』, 『평택의 금석문』, 『평택의 사우재실정문』, 『평택시향일독립운동사』, 『문학의 향기-평택의 한시와 기문』, 『근현대 평택을 걷다』 등은 주제별로 향토자료를 정리하였다.

이처럼 평택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5종을 발간하였

으나 2000년 중반부터는 지속 향토사연구 단행본을 발간하여 매년 평균 1~3종의 향토지를 발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사진집⁵⁾과 자료집⁶⁾등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인 소사별⁷⁾ 발간하며 향토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2) 학술행사개최

평택문화원에서는 학술행사를 2000년대 후반부터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평택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선 비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학술행사명	개최년도	비고
1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2008	
2	국제화 시대의 평택의 정체성 확립 세미나	2009	
3	제1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2009	
4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	2009	
5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	2010	
6	제2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	2011	
7	새로쓰는 평택3.1운동 학술회의	2012	
8	평택 100년 대토론회	2013	
9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회 토론회	2017	

〈표5〉 평택문화원에서 개최한 학술행사 현황

〈표5〉에서 처럼 2008년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를 시작으로 학술행사를 진행해왔다.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2008)에서는 평택지방 3.1독립만세운동, 식민지시기 안재홍의 민족주의와 신간회 운동, 기념시설을 통한 역사의 기억과 평택의 항일운동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국제화 시대의 평택의 정체성 확립 세미나’(2009)에서는 문명교류와 평택의 미래, 조선의 새로운 통치 원리를 확립한 삼봉사상, 민족에서 세계로 개방적 민족주의를 주창한 민세정신 등 3가지

5) 『사진 속 평택의 자화상』 (2005), 『사진으로보는 평택의 근현대사』 (2011), 『2012년 평택정월대보름축제 사진집』 (2012) 등

6) 『제1회 평택향토자료전시회 도록』 (2011), 『평택관련 기사자료집』 (2017) 등

7) 1981년 제1호를 발간하여 2019년 제32호를 발간하였다.

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제1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2009)에서는 ‘지영희 선생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기초발표를 하였고 지영희의 삶과 예술, 지영희의 음악세계 - 지영희의 대풍류와 영산회상의 선율비교, 지영희와 한국사회 - 지영희 선생이 전통음악교육에 끼친 업적, 평택의 역사문화 - 평택의 무속 등 4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2009)에서는 평택지방 3.1운동과 천도교, 3.1운동과 안재홍 신민족주의 등 2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학 정립 학술대회’(2010)에서는 지역학의 대두와 평택학, 안재홍과 민세 · 민세주의 · 신민족주의, 평택학과 평택지역(향토)사, 문화유적을 통해 본 평택의 역사, 평택지역의 전통음악과 명인명창, 문화도시 평택과 그 미래 등 6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제2회 지영희전국학술대회’(2011)에서는 ‘지영희와 한국음악계’라는 주제로 기초발표를 하였고 지영희의 국악관현악, 지영희의 삶과 예술 II, 지영희 음악의 근대성 등 3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새로쓰는 평택3.1운동 학술회의’(2012)에서는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평택지역 3.1운동 재검토와 전개양상, 안재홍의 ‘기미운동’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 100년 대토론회’(2013)에서는 ‘1914년 평택 행정구역개편 그 의미’라는 기초발제와 평택 100년의 정체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 토론회’(2017)에서는 근대 평택지역 행정구역의 변화와 평택의 정체성 모색, 일제강점기 평택 경제인의 지역별 실태, 농민적 환경 지식의 혼종성과 지역성, 평택의 난민 정착사업과 농지소유 변동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2015년부터는 평택학 학술대회라는 이름을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진행했다. 평택학 학술대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주제	개최연도	비고
1	평택민족운동가 재조명	2015	
2	평택의 근대 바라보기	2015	
3	지속가능한 평택마을만들기	2016	평택대학교 공동주관
4	평택학 길을 묻다	2016	용인문화원, 천안연구원 공동주관
5	박석수의 삶과 문학	2017	박석수기념사업회 공동주관

연번	주제	개최연도	비고
6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2017	
7	새롭게 밝히는 경기도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평택지역의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201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공동주최
8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역희	2018	지역희기념사업회 공동주관
9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과제	2019	기남문화재연구원 공동주관
10	이석영 · 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	2019	개최예정, 우당기념사업회 공동주관

〈표6〉 평택학 학술대회 개최 현황

〈표6〉에서처럼 평택문화원에서는 근대사 · 고고학 · 인물 · 민속 ·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평택민족운동가 재조명’(2015)에서는 민세 안재홍의 민족의식 형성과 변화, 원심창의 일본에서의 의열 항일투쟁, 남상환의 활동으로 본 수진농민조합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의 근대 바라보기’(2015)에서는 평택지역의 식민지배와 일제협력, 근대 평택 경제의 진로, 평택역 부설과 근대 평택의 형성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지속가능한 평택마을만들기’(2016)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제언,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 만들기 사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학 길을 묻다’(2016)에서는 수원학이 걸어온 길, 소통으로서의 용인학 운영실태와 과제, 천안학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이라는 3가지 주제발표와 평택학의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박석수의 삶과 문학’(2017)에서는 박석수의 전기적 사실과 문학적 행보, 박석수 시 속의 수원과 연무동의 서정, 박석수 인물 콘텐츠화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제’(2017)에서는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평택은 국가 안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휼,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생산 기반의 구축, 1920년대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평택교육의 다면적 전망 등 5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새롭게 밝히는 경기도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평택지역의 독립운동의 중심으로’(2018)에서는 평택지역 3·1운동의 특징, 평택지역 3·1운동의 시·공간적 구조,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학생운동,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청년운동, 민족대표 48인 김세환의 생애와 민족운동, 권태희의 생애와 민족운동 등 6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경기천년음악의 맥을 잇는 지영회’(2018)에서는 ‘내가 본 민속예술의 선각자 지영회’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경제 삼현육각의 전승계보와 문화재적 가치, 경기호적풍류의 가치와 계보 형성에 관한 고찰, 경기시나위의 본향 평택 등 3가지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하였다.

‘평택의 문화유적 발굴현황과 과제’(2019)에서는 평택지역의 선사시대·역사시대·성곽유적 등 각 분야에서 문화유적 발굴 현황과 과제에 대해 3가지의 주제발표 및 토론하였다.

이에 이어 ‘이석영·이회영 육형제의 민족운동과 평택’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평택문화원에서 개최한 학술행사는 2000년 후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그 주제가 독립운동이나 인물 등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평택학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문학, 마을, 고고학, 민속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각종 기관, 단체, 학회, 사업회 등과 협력하였다.

3) 연구조사활동

평택문화원에서는 각종 연구조사를 2010년부터 수행해왔으며, 일부 연속적으로 진행한 연구조사가 있으나 대부분 비연속적인 연구되었다. 연속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연구대상	연구연도	비고
1	희곡리, 신영리, 동령마을, 은실마을	2014	
2	소사동, 합정동, 용이동, 동삭동, 칠원동, 운정리, 화양리, 현화리	2015	
3	가곡리, 마산리,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2016	
4	장수리, 내기리, 도곡리, 석정리, 원정리, 흥원리	2017	
5	덕목리, 도대리, 방축리, 인광리, 황산리, 적봉리	2018	
6	봉남리, 객사리, 원평동	2019	

〈표7〉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연구 현황

〈표7〉처럼 평택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자연마을을 역사지리,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정 및 친족생활, 교육과 종교 등을 중심으로 연구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엮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다음과 같다.

연번	연구명	연구연도	비고
1	단오게잡이 연구조사	2005	
2	평택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	2010	
3	평택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전략	2011	
4	고문헌 평택기록 발췌보존 사업	2011	
5	평택문화유산 연구조사	2014	

〈표8〉 비정기적 연구조사 현황

〈표8〉처럼 비정기적 연구조사는 어떠한 하나의 주제나 연속성 없이 민속·문화유산·고문헌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해 왔다.

이처럼 평택문화원의 연구조사는 마을조사와 같은 연구조사를 제외하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사업이 수행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기타 기관·단체의 연구활동

평택문화원 외에도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는 각종 기관과 단체 등에서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에서는 꾸준히 학술행사⁸⁾ 진행하고 각종 향토지를 발간하였으며, 안재흥연구를 비롯해 평택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중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주제	개최연도	비고
1	평택보훈학술대회 기억과 전승	2011	학술행사
2	민세안재흥 자료집성과 민세역사공원 조성방향	2015	
3	고덕국제신도시 민세안재흥 유적의 재조명	2017	
4	안재흥과 평택의 항일운동 심층연구	2014	단행본

〈표9〉 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성과현황

8) 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에서는 민세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13회 민세학술대회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연구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연구명	연도	비고
1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평택시·경기도박물관
2	평택역사산책	2013	평택시민신문
3	평택박물관설립연구	2014	평택박물관연구소
4	평택항 개항 30년사	2016	평택시·평택대학교
5	평택지역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사업	2018	평택시·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6	오성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4	2015 ~2018	평택시립장당도서관
7	평택문인 박석수 문학작평가	2018	평택시·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8	경기남부 3·1운동과 평택 3·1운동 조명'에 대한 토론회	2018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표10〉 각종 기관 단체에서 실행한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성과현황

〈표9〉와 〈표10〉에서처럼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외에도 개인이 발표한 각종 논문 등의 연구성과도 있다.

Ⅲ. 나가는 말 : 평택지역 향토사연구의 미래

지금까지의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평택지역 향토사연구는 평택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지발간, 학술행사 개최, 연구조사활동 등으로 연구를 해왔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차츰 연속성과 지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평택지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는 대부분 현장조사, 사료조사와 향토지 편찬, 향토사와 관련된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참여 연구자들의 구성 면에서도 역사학에 치우쳐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다. 이 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학문연구자의 교류나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 장애가 된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각 지역에서는 향토사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평택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중심으로 역량을 쏟았으며, 이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에 따라 평택의 인문학적·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박물관이나 연구소 등 지역을 연구하는 기관, 단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가 활성화될 것인가.

우선 박물관을 건립이 시급하다. 박물관은 향토사 연구뿐만 아니라 전시·교육·활용 등이 이루어지는 향토사와 지역문화연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적절한 물적 지원과 인력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지원이 이뤄져야한다. 단기, 중장기 연구계획을 세우고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연구 인력이 확보될 것이다.

결국 평택지역의 향토사연구의 활성화는 시스템과 물적지원, 인적 인프라 확대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의 의식적 공감대 형성하여야 한다.

여 백

의정부지역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나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I. 머리말

II. 의정부지역 향토문화연구

1. 문화원 홍보지 『회룡문화』에 기록된 향토문화에 관한 자료목록

- 1) 1990년대
- 2) 2000년대
- 3) 2010년대
- 4) 경기도메모리 의정부문화원 자료목록

2. 과거 향토문화연구 점검

III. 고산동 마을 특성화연구

1. 고산동 능안말 신숙주와 후손묘

- 1) 훈민정음 반포 으뜸 공로자 보한재 신숙주 선생
- 2) 봉래공 신주
- 3) 소안공 신준

2. 고산동 구성말 효령대군 후손묘

- 1) 이경록
- 2) 이서
- 3) 이기축

3. 고산동 마을 전시관 설립 - 특화사업

IV. 맺음말

집필자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의정부 문화원은 지난 10여 년간 향토문화연구를 운영할 만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였다. 해마다 지역 향토문화연구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도 관계청과의 무언가 코드가 맞지 않은 탓이다. 다행히도 금년(2019)부터 조금씩 풀리어 향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단계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점차 사라져 가는 마을의 역사적, 민속적, 기초문화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지(誌)를 발간할 예정이다. 향토문화연구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올 봄에 시민 마을기록 기초 교육생 제1기 25명을 수료시키고, 심화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올해에는 중점사업으로 의정부 고산동(뺏벌마을)집중조사 책 발간 및 의정부 마을 기초조사 책 발간 예정이다. 마을개관(역사, 지명유래, 공간변화 등), 토박이 조사(생업변화, 마을 기억, 세시 풍속, 혼례와 장례, 신앙, 놀이 등), 사진 (과거의 사진, 앨범 속 과거 기록) 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자료집을 만들 생각이다. 이러한 제반 항목들을 수집하기 위해 의정부 시민대상으로 모집한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방법을 가르치고 심화교육을 거쳐 마을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시민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일의 속도도 진행되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리라 확신한다.



〈시민 마을기록자 양성과정 수료식〉

그러나 올해는 첫해인 만큼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공동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민교육생들은 그들을 도와서 실습을 겸한 참관교육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시민 교육자들이 향토문화 전문가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기고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데 열심일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의정부의 지난 향토문화 연구 성과를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정부를 위한 향토문화연구와 콘텐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II. 의정부지역 향토문화연구

매년 발행되는 문화원홍보지 『회룡문화』를 통한 관내의 향토문화소개 내용을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았다.

1. 문화원 홍보지 『회룡문화』에 기록한 향토문화에 관한 자료목록

1) 1990년대

문화원내에 창간호는 분실되고 2호에는 초대 문화원장 故 이귀용 원장이 의정부 문화원이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의정부를 애향의 도시, 교육의 도시, 정서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문화원 홍보지 『회룡문화』를 통해 의정부문화원의 발자취를 살펴보자.



〈 회룡문화 2,5,6호 〉

1993, 제2호	1993년(회룡문화 제2호)에는 문화활동 화보에 〈회룡사〉 모습 2p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1994, 제4호	1994년(제4호)에는 향토문화재 탐방에 〈정려각, 10p〉 사진과 글을 소개하고 있다.
1995, 제5호	1995년(제5호)에는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인물에 - 〈충의공 정문부의병장, 9p〉, - 〈서계 박세당을 위한 개론적 고찰, 17p〉 - 〈민락동 구석기 유적의 이해, 9p〉 기록
1996-1997	1996년과 1997년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홍보지가 발간되지 않았다.
1998, 제6호	1998년(제6호)에는 故 안국승 선생이 - 〈칠지도의 명문(銘文)을 통해본 백제의 대외관계, 16p〉 - 〈녹양(綠楊) 연구, 53p〉 - 〈의정부지역 소지명(小地名)에 대한 소고(小考), 19p〉 - 〈경기북부 향토문화 발전방향, 6p〉 기록
1999, 제7호	1999년(제7호)에는 의정부 역사인물 - 〈실학의 선구자 서계 박세당 선생, 6p〉 - 〈임란 의병장 농포 정문부 장군, 11p〉 - 향토사 연구로 〈의정부 지역의 성곽과 고분연구, 10p〉 - 〈태상왕 이성계 연구, 29p〉 기록
2000, 제8호	2000년(제8호)에는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우리고장 〈태조의 양주유람, 2p〉 - 우리고장 문화유산 〈서계박세당 고택, 2p〉 - 의정부의 산악인 '작은 탱크' 〈엄홍길, 2p〉 - 추석 즈음의 〈우리고장 놀이〉 기록 - 회룡문화 9호는 보이지 않고 다음해에는 10호로 건너뛴다.

2) 2000년대

2001 제10호 ~ 제13호	2001년(회룡문화 제10호, 春)에는 - 자연부락을 찾아서 자금동 〈귀락마을, 6p〉 - 우리고장 문화유산을 찾아서 〈송산사지, 1p〉 - 전통사찰 순례에 〈망월사를 찾아서, 3p〉 - 미인도의 대가 〈숙당 배정례, 3p〉 - 우리고장 민속놀이 〈봄놀이①, 2p〉 기록 - 동년 제11호(夏)에는 - 〈서계박세당 증가소장 고문서와 그 사료적 가치, 8p〉 - 우리고장 민속놀이 〈봄 놀이②, 2p〉 기록 - 동년 제12호(秋)에는 - 〈서계 박세당과 수락산, 7p〉 - 우리고장 문화유산 〈의정부2동성당, 1p〉 - 조선실록에 나타난 우리고장 〈범골, 4p〉 - 전통사찰순례 〈미륵암을 찾아서, 2p〉 - 우리고장 민속놀이 〈타작마당 놀이마당③, 2p〉 - 동년 제13호(冬)에는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우리고장 〈축석령에서 발견되었던 은광, 3p〉 - 전통사찰순례 〈원호를 찾아서, 6p〉 기록
---------------------------	--

2002 제14호 ~ 제15호	• 2002년(上, 14호)에는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우리고장 <전좌마을과 강무(講武), 5p> - 전통사찰순례 <석림사를 찾아서, 6p> - <의정부역의 어제와 오늘, 3p> 기록 • 2002년(下, 15호)에는 -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우리고장 <태종의 사냥과 양주, 5p> - 의정부 <제일시장의 어제와 오늘, 3p> - <제례에 대한 소고(小考), 7p> - 경기 으뜸이 <대장기능 보유자 안영선, 3p> - 도심속의 작은 암자 <약수선원, 7p> 기록
2003 제16호	• 2003년(16호)에는 - <서계 박세당선생 학술대회및 고문서 지상전시회, 13p> - <의정부 찌개에 대한 소고(小考), 3p> - <옛 지도에서 본 의정부, 28p> - 노포소개 <소강한약방 신조현, 4p> - <경기소리명창 황석자, 8p> 기록
2004 제17호 ~ 제18호	• 2004년(上, 17호)에는 - 지역문화재 소개 <노강서원, 8p> - 노포소개(지동관 김육안, 6p) -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 대책과 의정부, 22p> 기록 • 2004년(下, 18호)에는 - 우리고장 문화재 <정문부 무덤을 찾아서, 20p> - <의순공주에 관한 재고찰, 24p> - 노포소개 <최미용실, 최동순, 6p> - 지역예술인 소개 <극단 무연시대표 연극인 김도후, 8p> 기록
2005 제19호 ~ 제20호	• 2005년(上, 19호)에는 - 우리고장 문화재 <신숙주선생 무덤을 찾아서, 10p> - 노포소개 <신신이발관 차재윤, 4p> - 지역예술인 <해암 임흥재 화백, 2p> 기록 • 2005년(下, 20호)에는 - <100년만에 반환된 북관대첩비, 15p>, - <서계박세당의 색경(穢經), 20p> - <의순공주 현창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6p> - 노포소개 <송산상회 윤옥성, 2p> - 지역예술인 소개 <황희정의 음악세계, 5p> 기록
2006 제21호 ~ 제22호	• 2006년(제21, 22호 합본)에는 - <우리고장 문화재 바르게 이해하기, 21p> - <박세당의 사변록(思辯錄)해설, 23p> - 노포소개 <만우양복점 최종석, 4p> 기록
2007 제23호	• 2007년(제23호)에는 단행본으로 - < 의정부 문화유산, 226p >
2008 제24호	• 2008년(제24호)에는 - <의정부향토문화재소개, 28p> - 경기무형문화재 제18호 <옥석장 김영희, 22p> - 지역예술인 <초은서에 이병식, 6p> - <사찰에서 만나는 토속신앙이야기, 20p> 기록

3) 2010년대

2010 제26호	· 2010년(제26호)에는 - 지정항토문화재 <전철 류세구묘역, 8p> - 테마발굴 프로젝트 <뮤지컬 의순공주, 6p> 기록
2011 제27호	· 2011년(제27호)에는 - 박세당 <서계유묵 보물로 지정되다, 4p> - 과거와 현재 <경원선 이야기, 14p> 기록
2012 제28호	· 2012년(제28호)에는 - <의정부주요하천 지명유래, 12p> - 의정부 관내 주둔했던 <미군캠프 전시관 세워야, 30p> 기록
2013 제29호	· 2013년(제29호)에는 - 의정부 인물 발굴 <영재 유득공 선생, 20p> - 전통사찰 순례 <회룡사를 찾아서, 25p> 기록
2014 제30호	· 2014년(제30호)에는 - <정문부묘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28p> - <의정부현대연극사략, 8p> 기록
2015 제31호	· 2015년(제31호)에는 - 의정부 인물발굴 <구성마을과 월봉 이서, 30p> - 망월사 신규 지정문화재 소개 <유형문화재 5점, 8p> 기록
2016 제32호	· 2016년(제32호)에는 - <호원동 다락원이야기, 30p> - 편화로 소개하는 ① <우리동네 이야기, 4p> - <금오리 꽃동네 산치성, 12p> - <의정부 지명이야기, 35p> 기록
2017 제33호	· 2017년(제33호)에는 - <의정부 마을조사의 필요성, 18p> - <의정부영산재의 지역 문화적 의미, 6p> - 편화로 소개하는 ② <재래시장 이야기, 6p> - 수락산 석림사 저세상이야기, 18p> - 인물 발굴 <한기(韓起)선생, 6p> 기록
2018 제34호	· 2018년(제34호)에는 - 격동기 의정부에서 여성의 삶 <어머니 합창단장 이경임여사, 20p> - <해원군 이건에 대한 소고(小考), 32p> - <신곡동 새말이야기, 12p> - 의정부 시민 중심의 <구술생애사 조사의 필요성과 가치, 26p> - 의정부 <마을민속 및 전통생활사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방식, 24p> 기록

4) 경기도메모리(<https://memory.library.kr/>) 의정부문화원 자료목록(43책)

※총 43권중 같은 내용은 생략 함.

1998	의정부 유적기 탐방, 12p : 유적지 순례 의정부시 지명유래의 재검토, 93p : 함흥차사, 태조환궁설화
2000	양주사료총서1, 370p : 광해군-경종, 조선왕조실록 발췌본
2001	양주사료총서2, 399p : 연산군-선조, 조선왕조실록 발췌본 의정부역사여행, 85p : 의정부전역
2002	양주사료총서3, 435p : 태조-성종, 조선왕조실록 발췌본 임진왜란 의병대장 충의공 정문부장군, 16p : 정문부 일생
2004	의정부 40년사 : 8권 총서, 총류
2005	내고장 역사문화탐구, 111p : 의정부전지역 향토문화예술작품개발 사업결과보고서 : 향토문화 콘텐츠, 희곡선정 의순공주 현장을 위한 학술대회, 74p : 정주당유적
2006	우리고장의 문화재, 30p : 향토유적, 지명유래 자료집
2007	내고장 역사문화탐구, 111p : 의정부 전지역, 우리고장 문화유산이야기(최영희), 226p : 의정부 전지역
2008	명심보감(이병식), 96p : 고서적 임진강 한탄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성곽과 백제 적석총에 대한 고찰(안국승), 59p : 경기북부지역 정주당놀이의 역사성연구 2008, 84p : 의순공주관련 이야기
2010	이흥주생애와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 묘역의 역사. 66p : 인물유적
2014	의정부시사(50) 8권 총서, 총류 우리고장바로알기, 35p : 의정부전지역
2015	우리고장 바로알기, 33p : 의정부 전지역 내고장 의정부역사·문화탐구, 111p 내고장의정부 역사·문화탐구 : 의정부전역
2016	우리고장바로알기, 35p : 의정부전지역

2. 과거 향토문화연구 점검

위에서 소개한 대로 우리문화원의 과거 연구실적은 몇몇 사람 위주의 글로 지역문화재(향토)와 의정부지역에 잠들고 계신 인물(지정문화재)을 소개하는 정도로 미미한 향토문화연구가 겨우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년(2019)도에 문화원장이 바뀌고 전부터 기획하고 있던 새로운 마을 연구가 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마을기초조사 사업>은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민속 등 문화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지(村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 주민을 만나기에 앞서서 기록을 정리하고,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론을 중심으로 시민기록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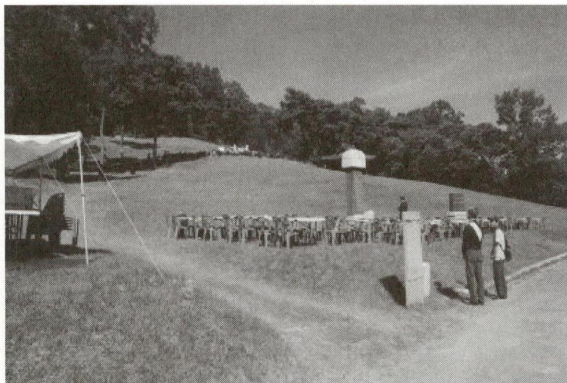
첫째,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마을과 주민 간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겠다. 마을지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여 마을지를 만드는 일의 의미와 가치,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이 그동안 살아온 마을의 내력과 유래, 현재 마을에서 고민하는 문제 등 시민기록자에게 마을 현황을 브리핑하는 자리를 갖는다. 주민들이 마을지 사업의 대상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주민과 기록자 간에 구체적인 할 일과 역할을 찾는 작업을 논의한다.

둘째, 마을에서의 조사, 취재, 채록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해야 한다. 마을기록자 양성과정을 통해 실천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편집회의부터 마을조사, 취재, 원고작성, 자료수집, 출판까지의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또한 실제 마을 기록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과정중심의 실천수업이 필요하다. 시민기록자의 욕구수준에 맞추어 밀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의정부에서 지속적인 마을기록 활동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산동의 능안골과 이웃한 구성말의 역사·문화자료를 이용한 정체성을 살려 <고산동 마을의 특성화 연구>로 전시관설립의 기획해 보았다.

Ⅲ. 고산동 마을 특성화연구

1. 고산동 능안말 신숙주와 후손묘(문관출신)

1) 훈민정음 반포 으뜸 공로자 보한재 신숙주 선생



〈한글날추모제 신숙주묘역(2019)〉

의정부 고산동 능안말에 있는 ‘신숙주 선생묘역’에는 1971년에 한글학회에서 세운 ‘문충공고령신숙주선생 한글창제사적비’가 있다. 보한재 선생이 나신 554돌을 맞이하여 당시 한글학회 허웅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앞장서서 세운 사적비다.

신숙주는 훈민정음 반포와 보급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요 관리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운회 번역》,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직해동자습》 등 훈민정음 보급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 모든 책에 그의 이름만이 빠짐없이 올라간 것만 보아도 그 업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글 혜택을 누리는 후손으로서 세종의 뜻을 이어 남긴 그의 큰 한글 업적을 기려야 할 책무가 있고, 한글을 쓰는 남북한 온 겨레가 세워야 할 사적비였다.

그런데도 우리 후손들은 그의 업적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세조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폄하하고 있다. 사육신, 생육신의 삶은 고결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사육신이나 생육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가 세조 편에 선 것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맥락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살아 남아 이룩한 업적은 참으로 크고 고귀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신숙주 평가는 매우 정확하고 균형을 잡고 있다.

신숙주는 분명히 우리 역사에 큰 문화적 업적을 남겼다. 신숙주는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 갔을 뿐, 그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는 않았다. 또 그는 비난받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깨끗한 벼슬 아치였다. 그의 행적은 보통 사람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정도의 것이었지만, 그가 뛰어난 학자요, 세종·문종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기에 따르는 유명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생육신처럼 초야에 묻혀 지냈더라면 역사에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

그가 변절해서 그의 부인 무송 윤씨가 죽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한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단종 복위를 위한 사육신 사건은 1456년(세조 2년) 6월이었는데 그의 부인은 5개월쯤 전인 1456년 1월에 죽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같은 연도에 두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 이야기 만들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이화 선생의 말처럼 “그의 변절을 미워하는 자들이 날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 시대에 나온 여러 문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내내 입에 오르내

렸던 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박종화는 《목매는 여인》에서 이광수는 《단종애사》에서 받아쓰으로써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 모든 왜곡이 ‘녹두나물’을 ‘숙주나물’로 바뀌 부르는 데까지 이른 듯하다. 이는 그의 직계손이 아니더라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의 업적과 우리 후손들의 태도를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숙주는 스물두 살 때인 1438년(세종 20)에는 과거 시험에 붙어 생원과 진사가 되었고 훈민정음 창제 전인 스물다섯 살 때인 1441년에는 집현전부수찬을 역임하고 창제하던 해 27살 때인 1443년에는 일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 변효문 선생의 서장관에 뽑혀 일본에 갔다.



〈고산영당, 신숙주 영정〉

훈민정음 반포 직전인 1445년에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같은 집현전 학사인 성삼문, 동시 통역사인 손수산과 함께 중국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고자 요동반도에 유배를 와 있던 명나라 황찬(黃贊)의 도움을 얻으러 요동에 다녀왔다는 얘기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신도비문 등에 무려 13번을 다녀왔다 고까지 기록해 놓았다. 그때의 고달픈 여정

속에서 성삼문과 주고받은 시가 《보한재집(保閑齋集)》에 남아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신숙주는 1447(세종 29)년 31살 때에는 중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 응교가 되었고 《동국정운》·《사성통고》 편찬의 핵심 역할을 했다. 1445년 2월 집현전 최만리 등 원로학자들이 훈민정음 보급을 반대하자 세종은 “그대들은 운서를 아시오”라고 호통을 쳤다. 중국 한자와 한자음 사전인 운서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연구의 바탕이었고 운서에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기록한 책은 훈민정음의 놀라운 기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숙주의 최고 한글 업적은 1449년 펴낸 우리식 표준 운서인 《동국정운》 대표집필이다.

《동국정운》 머리말에서 신숙주는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하나의 소리라도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정음이 음을 전하는 중심 줄이 되었다.(自正音作而萬古一聲，毫釐不差，實傳音之樞紐也)”라고 하면서 “아아, 소리를 살피서 음을 알고, 음을 살피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피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로다(吁! 審聲以知音，審音以知樂，審樂以知政，後之觀者，其必有所得矣)”라고 감동을 적고 있다.

신숙주는 《동국정운》이란 책을 펴낸 것만으로도 훈민정음 연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다. 중국 황제와 지식인들이 중국 한자음을 적기 위한 고뇌가 담겨 있는 책이 운서이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천 년 넘게 적지 못한 발음을 적을 수 있게 된 기쁨을 신숙주는 《홍무정운역훈》 서문에서 “우리 동방에서 천백 여년이나 알지 못하던 것을 열흘이 못 가서 배울 수 있으며, 진실로 깊어 생각하고 되풀이하여 이를 해득하면 성운학이 어찌 자세히 밝히기 어렵겠는가(東方千百載所未知者, 可不浹旬而學, 苟能沉潛反復, 有得乎是, 則聲韻之學, 豈難精哉.)”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신숙주는 36살 때인 1452(문종 2)년에는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 대표로 갈 때 서장관¹⁾으로 함께 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37살 때인 1453(단종 1)년에는 수양대군이 이른바 계유정란(癸酉靖難)²⁾을 일으켰을 때 출장 중이었으나 신숙주를 측근으로 끌어들이고자 공신록에 올렸고 곧이어 도승지로 삼았다. 이러한 사실로 변절자의 굴레를 씌웠으나 진정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그런 평가는 옳지 않다.

44살 때인 1460년(세조 6)에는 강원·함길도의 도체찰사³⁾에 임명되어 야인정벌을 위하여 출정하여 국방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5살 때인 1471년(성종 2)에는 성종의 명으로 세종 때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던 경험을 살려 《해동제국기》를 지어 조선 시대 내내 지침서가 되는 일본과의 외교 지혜를 남겼다.

56살 때인 1472년(성종 3)에는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이어 세조 때부터 작업을 해온 《동국통감》 편찬을 성종의 명에 의하여 그가 총괄하였다. 또 세조 때 편찬하도록 명을 받은 《국조오례의》의 개찬·산정(刪定)을 위임받아 완성시켰고 여러 나라의 음운에 밝았던 그는 여러 번역 관련 책을 펴냈으며, 또 일본·여진의 중요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언어생활뿐 아니라 국방, 외교 등 중요 분야에서 그가 남긴 업적은 매우 넓다.

세종실록은 신숙주와 성삼문이 황찬을 만나러 간 사건을 간단하게만 기록해 놓았는데 《성종실록》에는 이창신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남겨 놓았다. 성종 때인 1487년에는 이창신이 “세종조에 신숙주·성삼문 등을 보내어 요동에 가서 황찬에게 어음(語音)과 자훈(字訓)을 묻게 하여 《홍무정운》과 《사성통고》 등의 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서 한자 훈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⁴⁾

1) 서장관(書狀官) : 조선시대 외국에 보내는 사행직(使行職)의 하나. 정사·부사와 함께 삼사(三使)로 불리던 주로 사행중의 사건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함.

2) 계유정란(癸酉靖難) :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력이자 원로대신인 황보인·김종서 등 수십 인을 살해,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

3) 도체찰사(都體察使) : 조선시대 의정(議政)이 맡은 임시관직. 왕의 명을 받아서 할당된 지역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여 다스렸다. 보통 1개 이상의 도(道)를 관할하였고, 종사관이 휘하에 있었다. 예) 비상계엄사령관.

4) 김슬옹, 「보한재 신숙주 선생 나신 600돌 의미」, 《한글새소식》 541호, 한글학회, 2017.

2) 신주(申澍, 1435-1456)



〈신주 묘역〉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통례원 봉래(정4품) 신주의 묘소이다. 부친은 한글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영의정 문충공 보한재 신숙주, 조부는 뛰어난 학자로 공조참판을 역임한 암헌 신장, 증조부는 공조참의를 지낸 신포시이다. 신주는 고려조 예의판서를 지낸 순은 신덕린의 현손이고 시조 신성용의 8대손이다. 어머니는 무송윤씨로 사재감 부정을 지낸 윤경린의 딸이고 대제학을

지낸 문도공 청향당 윤희의 손녀이다. 신주는 8남 1녀 중 장남으로 함경도 관찰사 신면, 황해도 관찰사 신찬, 이조참판 신정, 이조판서 신준 등과 동기간이다. 부인은 청주한씨로 수양대군을 보위에 올렸던 영의정 충성공 압구정 한명회의 딸이고 예문관 대학사를 지낸 문열공 죽소 한상질의 증손녀이다.

신주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3남을 두었으며 장남은 천정 신종흙, 차남은 목사 신종옥, 그리고 막내는 이조참판 삼괴당 신종호다. 특히 막내 신종호는 조선조 최초로 사마시와 식년문과 그리고 문과중시 3번의 과거에서 모두 장원급제했던 수재이다. 또한 장인 한명회의 딸들이 예종비 장순왕후와 성종비 공혜왕후이므로 8대 임금 예종과 9대 임금 성종은 사사로이는 신주의 손아래 동서들이 된다.

신주는 신숙주의 맏아들로 태어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부친 밑에서 학문을 수학하며 자랐다. 그는 부친의 음덕으로 관직에 나가 어린 나이에 정4품 통례원 봉래를 지내기도 했고, 수양대군을 보위에 올린 당시에 실세 압구정 한명회의 사위가 되면서 미래를 보장받는 듯했다. 하지만 21세에 부친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자 함께 동행하여 부친을 수행하던 중 어머니의 부음을 접하고 크게 상심하였고, 장례를 위해 급히 귀국하였다.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은 더욱 커졌고, 그로 인해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누워있다 22세의 젊은 나이로 그만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장래 유망한 인재였으나 어린 나이에 요절하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효성이 지극했던 신주는 살아생전 다 이루지 못했던 효(孝)를 죽어서라도 다하기 위해서인지 어머니 무송윤씨 바로 옆자리에 묻히길 원했던 인물이다.

신주의 묘소는 고산동의 선영 좌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부인과의 합장묘가 아닌 혼자 안장된 무

덤이다. 한명회의 딸인 부인 묘소는 그녀의 동생인 양호공 한보와 손자인 성종의 부마 고원위 문효공 신향의 묘소가 있는 의정부시 신곡동에 따로 조성되어 있다. 신숙주의 묘역에 함께 있어서 인지 묘소는 잘 관리되어 있고 문인석을 제외한 석물들은 최근에 후손들이 새롭게 만든 것이다. 12지신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돌레석을 한 봉분 앞쪽으로 혼유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차례로 놓여 있다. 묘표는 1985년에 건립된 것으로, 앞면에는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고령군 행통례원봉례 신공휘주지묘 라는 비제가 기록되어 있어, 신숙주의 장남으로 봉군을 세습하여 고령군에 추증된 신주의 묘소임을 알 수 있다. 신곡동에 있는 부인 묘소도 대대적으로 정비한 모습이며 묘표와 문인석은 조성될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3) 소안공 신준(申浚, 1444~1509)

조선 중기 성종~중종 때의 문신으로 이조 판서를 지냈으며 봉작은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이고, 시호는 소안(昭安)이다. 자는 언시(彦施)이고, 호는 나헌(懶軒)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 신숙주(申叔舟)는 영의정(領議政)이고, 어머니 무송 윤씨(茂松尹氏)는 경상도 수사(慶尙道水使) 윤경연(尹景淵)의 딸이고,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윤희(尹淮)의 손녀이다. 신숙주의 8남 1녀 중에서 다섯째 아들이다. 도승지(都承旨) 신정(申澮)의 동생이고, 좌의정(左議政) 신용개(申用溉)의 숙부이다.

1470년(성종 1) 나이 27세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갑과(甲科) 1등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였다. 『방목』 정3품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품(陞品)되고 병조 참지(參知)가 되었다. 1471년(성종 2) 성종의 즉위에 공훈이 많다고 하여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책훈(策勳)되었는데, 『이요정집(二樂亭集)』 권11 「고양부원군 신공 묘지명(高陽府院君申公墓誌銘)」에 아버지 신숙주가 원상(院相)으로서 세조의 왕비 자성대비(慈聖大妃: 정희왕후)와 상의하여 성종을 세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1472년(성종 3)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는데, 성종이 글을 내려서 조운(漕運)할 때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하였다. 1475년(성종 6) 아버지 신숙주의 상을 당하여 양주(楊州)의 선영(先塋)에 모시고 송산리(松山里)의 무덤 곁에 여막(旅幕)을 짓고 형제들과 함께 여묘살이를 3년 동안 하였다.

1477년(성종 8)3년 상례를 마치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고, 우승지(右承旨)·좌승지(左承旨)를 거쳐 마침내 도승지(都承旨)에 영전되었다. 『이요정집』 권11 「고양부원군 신공 묘지명」에 아버지 신숙주가 영의정으로 있을 때 둘째형 신면(申澍)과 넷째 형 신정(申澮)이 도승지를 지냈는데, 신준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도승지가 되었다. 조선조 5백



〈고양부원군 신준 묘〉

여 년 동안에 3형제 도승지도 없었을 뿐더러 아버지 영상과 아들 도승지도 매우 드물었다.

1478년(성종 9) 호조 참판(參判)에 임명되었고, 종2품하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품되고 고양군(高陽君)에 봉해졌다. 1480년(성종 11) 이조 참판으로 옮기고, 의금부(義禁府) 동지사(同知事)를 겸임하였다. 「고양부원군 신공 묘지명」에 천추사

(千秋使)에 임명되어, 중국 명(明)나라 북경(北京)에 가서 태자(太子)의 생신을 하례하고 돌아왔다. 1481년(성종 12) 의주(義州)의 선위사(宣慰使)에 임명되어 의주에 가서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아서 접대하였다.

1482년(성종 13) 종2품상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승품되고,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1483년(성종 14) 예조 참판에 임명되고, 정2품하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로 특진되어 고양군에 봉해지고,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도총관(都總管)이 되었다. 1484년(성종 15)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에 임명되었는데, 영흥부윤(永興府尹)을 겸임하였다. 임기가 만료되자, 1486년(성종 17)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임명되었다가,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를 거쳐, 이조 판서가 되었다.

1487년(성종 18) 공조 판서로 옮겼다. 1492년(성종 23)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에 임명되어, 경연(經筵) 지사(知事)를 겸임하였다. 「고양부원군 신공 묘지명」에 평안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몸에 병이 있어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성종에게 아뢰어 사직을 청하니, 성종이 허락하였다. 1494년(성종 25) 사은사(謝恩使)에 임명되어, 부사(副使) 중추부 첨지사(僉知事) 왕종신(王宗信)과 함께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받들고 중국 명나라 북경에 가서 명나라에서 본국(本國)의 표류인(漂流人)을 돌려보내 준 것을 사례하였다.

1495년(연산군 1) 신준은 다시 사은사⁵⁾로 중국을 다녀오면서 면창(面瘡)을 치료하는 약(藥)을 구하여 가지고 와서 방문(方文)까지 아울러 바쳤다. 연산군이 이 약을 우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징험해 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20세의 연산군이 얼굴에 부스럼을 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공조 판서로 있다가 1497년(연산군 3) 형조 판서로 옮겨서, 경연의 지사를 겸임하였다. 1498년(연산군 4) 여름에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세 번째로 공조 판서가 되었다가, 한성부

5) 사은사(謝恩使) :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이를 보답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 또는 그 사신.

판윤으로 자리를 옮겼다.

1499년(연산군 5) 의정부 우참찬으로 있으면서, 좌의정 한치형(韓致亨), 우의정(右議政)성준(成俊), 좌찬성(左贊成) 이극균(李克均), 우찬성(右贊成)박건(朴健) 등과 함께 언론의 개방, 공정한 상벌 등을 주장한 시무(時務) 10조를 연산군에게 진언하였다. 1501년(연산군 7)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1506년(연산군 12) 좌찬성(左贊成)으로 승진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나,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훈되고, 정1품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승품되고, 고양 부원군(高陽府院君)에 봉해졌다. 1509년(중종 4) 7월 11일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이 66세였다.

그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외(內外)가 문벌(門閥)이었으나 젊어서부터 교만한 습속이 없었고, 성품은 포용력이 있었으며 원대한 기개가 있었다. 성품이 관후(寬厚)하고 순수하며 성실하였다. 남과 대할 때는 천진스러워 교만한 꾸밈이 없었으므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결백한 것을 현명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귀하고 현달하여 중외(中外)의 직책을 두루 거쳤고, 중임(重任)을 여러 차례 맡기도 하였지만 재난(災難)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 신숙주가 일찍이 네 번이나 공신이 되었는데, 아들 신준도 능히 그 유업(遺業)을 계승하여 두 번이나 공신이 되면서 관직이 정1품 찬성에 올랐으니, 능히 그 가문을 이었다고 이를 만하다.

시호는 소안(昭安)인데, 소희(昭僖)라고도 한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 송산리의 선영(先塋)에 있는데, 조카 신용개(申用溉)가 지은 행장(行狀)과 묘지명(墓誌銘)이 남아 있다.

2. 고산동 구성말 효령대군 후손묘 (무관출신)



〈운림도정 이팝 묘역〉

의정부시 고산동 구성말은 조선 3대왕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 보(補)의 손자, 운림도정(雲林都正) 이팝의 후손들이 마을에 살면서 불리는 마을 이름이다.

이곳에는 효령대군의 손자인 운림도정(雲林都正) 이팝(李幅, 3세)과 그 후손들의 무덤과 신도비가 제법 많이 있다.

대충 열거하자면,

증손인 파성군(把城君) 철동(哲叅, 4세)묘, 고손인 풍덕군수(豐德郡守) 병판(兵判) 광윤(光胤, 5세)묘, 그 후손인 오위장(五衛將) 병판(兵判) 이간(李幹, 6세)묘, 완녕부원군(完寧附院君) 제주목사(濟州牧使) 경록(慶祿, 7세)묘, 봉사(奉事) 경복(慶福, 7세)묘, 완원군(完原君) 병판(兵判) 경유(慶裕, 7세)묘,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 8세)묘, 완계군(完溪君) 한성판윤(漢城判尹) 기축(起築, 8세)묘 등 윤림도정의 후손들이 이곳, 의정부 고산동 구성말에 잠들어 있다.

효령대군 후손 중에서 무관출신인 이경록(李慶祿), 이서(李曙), 이기축(李起築)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이경록(李慶祿, 1543~1599.1.5.)



〈이경록묘〉

조선 중기의 왕족 출신 무신이자 군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중경 또는 자홍(子弘), 백수(伯綏). 효령대군(孝寧大君)의 6대손이다.

충의위(忠義衛)로 있다가 1576년(선조 9년) 무과에 급제,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변방에서 야인들을 격퇴하였으며 단성현감(丹城縣監), 호조좌랑, 하동현감, 1584년(선조 17년) 3월 고성현령(固城縣令)을 역

임했다. 고성현령 재직 중 지방관 근무성적에서 우수성적을 거둬 특별히 정3품으로 승진하였다. 1587년 4월 경흥부사(慶興府使)가 되고, 오랑캐가 녹둔도(鹿屯島)를 침공하자 조산만호(造山萬戶) 이순신과 함께 이를 격퇴했으나 11명이 전사하고 160명의 병력이 여진족의 포로가 되는 등 피해가 많아 이일의 탄핵으로 파면, 백의종군하였다. 1588년 다시 오랑캐가 침입하자 선봉으로 물리쳐 그 공으로 복권되고, 1591년 나주목사로 추천됐다가 대간의 반대로 김해부사(金海府使)로 부임하였다.

1591년 부장(部將), 오위도총부 경력을 거쳐 1591년(선조 24년) 3월 20일 나주목사에 임명되었다. 1592년(선조 25년) 나주목사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터지자 중위장으로 임진왜란에 참전, 전라도관찰사 이광을 도왔으나 용인 전투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나, 곧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을 도와 전공을 세워 통정대부로 승진했다. 1593년 제주목사(濟州牧使) 겸 제주진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동안 7년여를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왜적의 침입에 방비를 하여 선조가 비망기를

내 품계를 가자시켰다. 절도에서 7년간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가선대부로 승진했고, 제주도 임지에서 부친상을 당하였다. 한편 정병 3백명을 선발하여 임금을 지키겠다는 장계에 임금이 감동했고, 제주도 토산물을 해로를 통해 안전하게 의주행재소까지 진상하였다. 제주목사 재임 중 부친상을 당했지만 기복행공(起復行公)의 명을 받고 현직에 근무했으며, 매일 관아의 일이 끝나면 상복으로 갈아입고 상례를 치렀다. 그러나 상례를 치르다 몸을 상하고, 성산 외성을 쌓다가 과로와 풍토병 등으로 병세가 악화돼 1599년(선조 32) 1월 5일에 제주도 임지에서 과로와 풍토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제주목사로 재직 중에는 명월진성(明月鎭城)을 다시 쌓았다. 사후 아들 이서의 인조반정 참여 공로로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에 추증되고 증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추증되고 완령부원군(完寧府院君)에 추봉되었다.

2) 이서(李曙)



〈완풍부원군 이서 묘역〉

조선시대 정국공신 1등에 책록된 공신이
며 무신출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임숙(任叔), 호는 월봉(月峰). 효령대군(孝
寧大君)의 7대손이며, 풍덕군수 이광윤(李
光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위장(衛將)
이간(李幹)이다. 아버지는 목사 완령부원
군(完寧府院君) 이경록(李慶祿)이며, 어머
니는 감찰 이학증(李學曾)의 딸이다.

1603년(선조 36)무과에 급제해 행사용(行司勇)·진도군수 등을 지냈다. 1618년(광해군 10) 대북파에서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무인으로서 이서(李曙, 1580~1637)만이 정청(政廳)에 불참하였다. 그 뒤 장단부사로 경기방어사를 겸했고, 1623년 인조반정 때 김류(金瑬)·이귀(李貴) 등과 함께 공을 세워 호조판서에 승진되고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책록되었으며, 완풍군(完豐君)에 봉해졌다.

이어 경기관찰사로 전임했는데,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자 관찰사로 부원수(副元帥)를 겸해 적을 추격, 송도(松都)에 이르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요해처에 웅거한 채 출전하지 못해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곧 다시 서용되어 완풍군에 봉해졌다.

이어 총융사(摠戎使)로서 왕에게 건의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삼혈총

(三穴銃)과 조총(鳥銃)을 많이 제조해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인조는 이서의 공을 높이 평가해, 경연(經筵) 특진관(特進官)으로 삼아 국방 문제를 항상 상의했다 한다. 1628년 형조판서를 거쳐 1632년에는 특명으로 공조판서가 되어 각처에 산성을 수축해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634년 판의금부사를 겸했고, 1636년 병으로 일시 사직했다가 곧 훈련도감제조를 거쳐 병조판서로 기용되어 군비를 갖추는 데 힘썼다. 이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영제조(御營提調)로 왕을 호종하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키다가, 이듬 해 정월에 적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가운데 과로로 순직하였다.

이서는 무신으로는 최초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독서를 좋아했고 효성이 지극했다 한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또한 이서는 남한산(南漢山)의 형세를 살핀 후,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투시에 이곳을 도읍으로 삼은 뜻을 읽고 인조에게 건의해 산성을 수축케 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남한산성의 온조왕묘(溫祚王廟)와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와 『마경언해(馬經諺解)』가 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3) 이기축(李起築, 1589~1645)



〈완계군 이기축묘〉

이기축(李起築)은 조선시대 후기의 왕족 출신 무신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초명은 기축(己丑), 자(字)는 희설(希說) 또는 희열(希說), 기축(己丑), 시호는 양의(襄毅)이다. 효령대군 이보의 8대손으로 왕족 출신이었으나, 그는 서자였다. 무과에 급제한 후 사촌 형 이서(李曙)가 1622년(광해군 14) 장단부사(長湍府使)로 부임할 때 함께 내려가 반정을 모의하고 능양군의 집에 자

주 출입하며 모의하였다.

그는 일자 출신이며, 젊어서 한때 가난하여 타인의 집 머슴으로도 생활하였다. 아버지 이경유에게 정실 아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어, 성서탈적되었다. 이후 무과에 급제, 선전관, 충좌위부사과 등을 거쳐 그 뒤 이서, 이귀 등과 반정에 가담, 1623년(광해군 14) 장단에서 군사를 이끌고 선봉장이 되어 입성했고, 반정이 성공하자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로로 정사공신 3등(靖社功臣三等)에 책록되고 완계군(完溪君)에 봉군되었으며 금군장(禁軍將)이 되었다. 이후 수별장, 호위별장, 오위장

(五衛將), 군문천총별장(軍門千總別將) 등을 역임했다. 1627년(인조 5년) 정묘호란 때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수행하고,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역시 인조를 남한산성에 호종했으며, 어영별장(御營別將)으로 활약하였다. 이듬해 완성군(完成君)에 봉군되고 다시 완계군으로 개봉되었다. 정축하성 후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가는 소현세자 내외의 배종신이 되자 처음에는 거절당했고, 뒤에 배종신으로 다시 선양(瀋陽)에 갔다가 3년 뒤 병으로 귀국하였다. 1642년(인조 20) 장단 부사가 되었으나 모친의 병으로 사퇴했다. 증한성부 판윤에 추증되었으며, 경종 때 양의(襄毅)의 시호가 추증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기축의 묘비석은 보이지 않아 찾는데 고생을 하였다. 오랫동안 상석 앞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무덤의 주인공 이름이 '정사공신 완계군 이기축, 정부인 단양 우씨' 라고 새겨져 있으며, 향로석이 상석 앞을 가리고 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 그의 출생과 관계된 것이라 짐작된다.

3. 고산동 마을 전시관설립 - 특성화 사업

고령신씨 종중에서 대지부분을, 의정부시와 경기도에서 건물부분을, 문화원에서 해설사 교육을 담당하여 진행하려고 기획중이다. 마을 건너편에 이미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마을 앞쪽으로 큰길(문충로)이 건설되고, 용지(用地)가 확보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진행 중이다.

전부터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기획한 경기문화대학 3년간 교육을 받으며, 마을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를 생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전시관 전시내용을 미리 생각해보자.

1) 문인전시관의 내용은 신숙주의 업적만으로도 넘쳐난다.

- ① 훈민정음 해례본 요약본 복사본 전시
- ② 북정록(北征錄) 내용의 야전부시도 그림 복사본과 해설문 전시
- ③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얹힌 이야기 영인본이나 복사본 전시
- ④ 보한재집(신숙주문집) 영인본이나 복사본 전시

위 내용의 그림 복사본과 도표를 곁들이고 가능하면 시청각자료를 준비해서 전시하고자 한다.

2) 무관출신들은 먼저 의정부 향토문화재로 지정한 다음 전시관에는

- ① 완령부원군 이경록의 활동내역
- ② 무신최초로 병조판서가 된 완풍부원군 이서의 행장 등, 보완 해설문 전시
- ③ 남한산성 온조왕묘인 승렬전 모습 사진과 내용 해설문 전시
- ④ 이서의 저서로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와 마경언해(馬經諺解) 소개와 해설 내용을 시청각자료를 이용해 전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기타 등등.

IV. 맺음말

향토사(鄉土史) 연구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을 연구하는 토박이 연구자들에게 부합하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출신자가 아닌 연구자(고향이 아닌)가 연구를 한다면 ‘향토사’가 아니다. 최근 연구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라는 용어가 그나마 객관적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문화원에서는 그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계발(啓發)하고 발전시켜 그 지역에서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시켜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연구위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연구와 축적된 자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정부문화원의 지난 향토연구는 겨우 지역 문화재 소개나 묘역 지정문화재 인물소개 정도 기록하는 정도이지 향토문화연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미미한 기록으로 연명하는 정도였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의정부 마을 기초조사사업〉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지역 향토문화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의정부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마을에 전승되어온 이야기, 노래, 민속 등 고유의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 삶의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위주의 의정부 시지(議政府 市誌)편찬보다는 마을 단위의 기록사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성을 관계기관에서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외형이 크게 바뀌어가는 의정부의 전통 문화 조사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지혜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 과정이다. 곧 살아져 가는 의정부의 전통마을, 토박이 거주 마을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80대 이상의 의정부 토박이의 삶을 긴급 조사(간이구술 생애사)하고 토박이들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학으로써 '의정부학'의 정립을 위한 1단계 기초조사 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기초연구의 기대효과는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문화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지(誌)를 만들도록 하는데 있다. 마을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개성있는 마을지 제작으로 마을의 문화 정체성 확보하고자 한다.

문화학교 강좌수를 줄이고,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문화강좌를 단계별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 가운데 경기민요장구, 서도민요장구, 다례(전통 차수업), 가야금 병창, 음악난타, 한국무용, 취타대, 규방공예, 전통생활자수, 한글·한문서예, 문인화, 한국화, 채색민화, 닥종이인형, 캘리그라피와 수제도장, 펜과 수채화 등으로 한정하면 좋을 것 같다.

한편 본 문화원에서는 예산 관계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던 향토문화연구소 활동을 금년부터 활동하려는 기지개를 폈다. 의정부 시민 마을 조사단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올봄과 여름에 걸쳐 마을채록 기록자1기 25명을 교육시키고 수료한 상태다. 마을 기록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마을의 자치의식을 갖게 하며, 마을 문화자원의 새로운 발굴과 콘텐츠화 작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고령신씨대종회, 『후손교양교재(後孫敎養敎材)』 3판, 2006년증보판, 비매품.

김우림,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이야기』, 민속원, 2016.

김슬옹, 『보한재 신숙주 선생 나신 600돌 기념학술대회』, 「훈민정음, 동국정운과 음운학자 신숙주」, 한글학회, 국립한글박물관, 2017.

이해준,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 세창출판사, 2015.

최영희, 의정부 문화유산 이야기, 도서출판 동심원, 2007.

경기도사이버도서관(<https://memory.library.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시흥 향토문화 연구 현황 및 과제

- 시흥문화원 활동을 중심으로 -

정 원 철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前시흥문화원장)

目 次

I. 시흥문화원 향토문화 연구 현황

1. 단행본 발간
 - 1)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단행본
 - 2) 지역문화 세미나, 인문학 강연 자료집 외
 - 3) 자연마을 주민 생애 구술사 및 자연마을 자료집
 - 4) 시흥역사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 활동 자료집
2. 잡지 간행
3. 영상 및 음반 자료 발간

II. 시흥 향토문화 연구 어디까지 왔나

1. 지명 유래 및 민속, 자연마을 연구
2. 유형 문화재 지정 및 보호
3. 무형 문화재 전승 현황
4. 지역 문화 연구 분석
 - 1) 자료집과 영상물로 본 지역 문화 연구 현황
 - 2) 시흥 지역 문화 연구 특징

III. 향후 시흥 향토 문화 연구 과제

1. 비지정 (유·무형)문화 유산 발굴 및 보호
 - 1) 시흥 향토유적 지정 확대
 - 2) 시흥 지역에서 발굴한 문화재 전시
2. 지역민의 구술사 채록
 - 1)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사람들 기록
 - 2) 외지에서 유입한 이들의 삶의 기록 및 다문화 기록
3. 도시 지역문화 (아파트 문화) 계발 및 기록
4. 문화 예술로 승화하는 지역문화 (지역 축제, 전시회, 공연 등)
5. 향토 문화의 콘텐츠화

집필자

정 원 철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前시흥문화원장

시흥시의 향토문화연구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피는 일은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향토문화연구는 오늘날에는 지역 문화 연구라는 말과 같이 쓰는데, 지역 문화연구는 중앙과 당해 지역과의 변별점을 찾아서 지역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가치있는 지역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목적이다.

세계의 나라는 일률적으로 몇 국가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세계 지도에는 238개국이 있으나, 국제법상으로는 242개국이며, UN회원국은 193개이다. 그 중 한국 통계청에서 집계한 수출하는 나라는 224개국이다. 각 나라는 그들 나름의 문화가 있다. 대륙별 문화와 민족별 문화, 그리고 국가별 문화가 다르다. 오늘날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으려는 세계화의 노력이 있으나, 각 국가별, 지역별 독특한 문화를 특화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병존한다. 지방자치를 주요한 시스템으로 하는 국가들은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특화시키는 노력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시 한중일의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 대한민국만의 지역문화를 지칭하는 한국학을 특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내에서도 광역 지자체와 시군 단위 지자체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시흥시를 포함하는 경기도 역시, 경기학이라고 이름 붙인 지역학의 발전에 노력하며, 시흥시 역시 시흥학이라는 이름과 시흥향토문화연구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통시대에도 지방자치 제도가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이 그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문화를 일으켜 전통시대를 구가하였었다. 조선 시대 중엽에는 향약을 제정하여 향촌 자치를 하였다. 동과 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산을 소유, 관리하기도 하여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자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타 지역과 다른 지역문화를 발달시켰다. 기록에 남은 한국의 지자체 역사는 꽤 깊다. 1895년 대한제국 시절에 ‘향회조규’ 및 ‘향회관무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의 참정권 발언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1960년 개정법으로 서울시 및 도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을 직선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하였다가, 1991년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다시 부활시켰다. 시장 군수를 임명에서 지역민의 선출로 바뀐 후 점차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았고, 동시에 지역문화 창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그 때 부터다.

지역학이라 함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타 지역과의 역사·문화적 변별성을 찾아서,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일이다. 가치있는 지역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학문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경기학은 경기 향토문화연구에서 출발하여 사학, 고고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등의 여러 학문이 어우러져 긍정적 미래를 지향한다. 시흥시 역시 그러하다. 시흥문화원은 연구 노력에 동참하여 주도적으로 시흥시의 향토문화연구를 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 전승하면서, 타 지역과

변별성있는 지역의 특성을 찾아내려 노력한다.

시흥문화원은 창립한지 22년이 된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14년에 광역 시흥군이 만들어진 이래 여타 시군을 독립시키고 1989년에 마지막으로 승격하다보니, 문화원 개설 역시 늦었다. 시흥문화원은 1996년에 창립하여, 시흥군 시절부터 있던 향토사료실과 함께 시흥시 지역 문화 창달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다양하게 지역향토문화연구 및 행사를 주도하였다. 본 연구는 시흥시에서 시흥문화원이 감당하여 온 향토문화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문화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I. 시흥문화원 향토문화 연구 현황

시흥문화원은 1996년 개설 이래, 향토문화연구 및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였다. 1999년에 마을지(신현동지)를 발간한 이래, 지속하여 향토문화연구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으며, 시민에게 지역문화를 알리는 『시흥문화』 연간지를 발간하였다. 『시흥문화』는 1999년에 창간호를 발간하여, 2018년에 21호를 발간하였다. 시흥문화원은 시흥 지역문화 기록의 소임을 중단없이 지속하여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 영상을 발매하였다.

1. 단행본 발간

1)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단행본

시흥문화원의 첫 사업은 마을지 발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99년에 『신현동지』(방산동, 포동, 미산동 주민들의 삶과 문화)¹⁾를 발간하였다. 신현동은 농업과 어업을 겸한 지역으로, 전통문화가 번성하던 곳이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동은 방산동, 포동, 미산동을 포함하는 행정동으로서, 조기잡이 포구가 있는 포동과, 호조벌의 미곡을 쌓아놓던 미산동,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청자와 백자 요지를 관할하는 방산동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당시 발간한 『신현동지』의 기록은 2010년, 시흥시에서 발간한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1) 신현동지는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 삶의 터전과 환경, 마을을 지킨 이들, 민속생활과 그 모습, 오래 간직해 온 고장유산, 어제와 오늘을 묶어주는 이야기, 함께 살아온 현대 생활로서 20명의 학자들이 집필하였다.

지명 유래 및 시사 편찬

시흥문화원은 지역의 무형문화를 발굴, 전승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에는 세종 때 발간한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이 나타나는 민속, 군자봉 성황제를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시흥 군자봉 성황제』를 발간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2015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6년에는 『시흥시 지명유래』를 발간하여, 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시흥시 지명유래는 2014년 ‘시흥100년기념사업회’의 『시흥 땅 이름에 남아 있는 향기』를 발간하는 기초가 되었다.²⁾ 2007년 2월에는 전 10권의 『시흥시사』³⁾를 발간하였다. 시흥시의 지원 하에 시흥문화원장을 중심으로 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과 공간을 다룬 시사(市史)를 펴냈는데,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2015년에는 서해안 바닷가와 연결하여 염전과 어로, 조개잡이 문화를 지닌 월곶동의 마을지 『달월 열두마을 이야기』를 발간하였는데, 경기문화재단의 협조로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높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시흥문화원장의 지역문화 수상록 『고향만들기』를 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지금은 육지의 일부가 된 오이도가 섬이었을 때의 문화를 발굴하여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을 발간하였다.⁴⁾

발굴 조사 보고서

시흥문화원은 2003년에 시흥역사자료 전시관을 개설하면서, 『시흥문화원 소장 유물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04년에는 시흥의 향토문화연구를 오래토록 전담하다가 영면하신 이한기 선생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 보고한 『故이한기 수집자료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시흥 지역 무형문화재 발굴 및 전승 관련 자료집으로는 2004년에 『시흥 군자봉 성황제 발표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⁵⁾, 2008년에는 연성문화제 개최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선의 호조에서 간척에

2) 시흥시는 2016년, 〈시흥땅, 이름에 남아 있는 향기〉 2집,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를 발간하여, 시흥 문화아카이브 구축에 노력하였다.

3) 시흥시사 발간에는, 시흥군 시절인 1988년에 발간한 『시흥군지』 발행 당시의 상임위원이었으며,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의 저자 이승언(이한기)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전 10권으로,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의 전통시대와 근·현대사, 시흥의 출범과 성장,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화 공단과 노동자들, 시흥의 도시공간, 시흥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흥이 남긴 기록, 기록에 담긴 시흥으로 되어 있다.

4) 시흥문화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내 여러 단체에서도 마을지 발간에 노력하였다. 지역의 전통문화 발굴 노력으로 시흥시 향토사료실에서는 시흥의 향토유적을 소개하는 『시흥문화유산』을 발간하였고, 공보실에서는 『시흥시 활터역사』를 간행하였으며, 시흥역사문화연구회는 『군자염전 이야기』 발간하였다. 시흥 에코뮤지엄연구회에서 『염부, 소금밭에 돌아오다』를 간행하였다.

5) 지역의 무형문화재에 관한 연구 노력은 시흥문화원과 함께 시흥시 향토사료실에서도 보조를 맞추었다. 2009년에 시흥시 주최로 『시흥 새우개 당제 학술조사 발표회』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시흥시 향토사료실은 그를 근간으로

나서 오늘날 생태도시 시흥의 상징이 된 호조벌의 역사를 알리는 『호조벌 강연회 자료집』⁶⁾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능곡택지지구 지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기증한 생활유물을 한데 모아 『시흥의 생활유물자료집』을 발간하고, 2011년에 시흥 상여소리와 들노래, 바닷가 노래를 채록하여 실은 『시흥 향토민요 가사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월미두레풍물놀이 고증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⁷⁾

지역 정신 문화 자료집

한편 전통 인물을 통하여 지역 정신문화를 밝히는 자료집 발간은, 2016년 『추곡서원』⁸⁾, 2017년 『시흥시민과 함께 하는 양명학 공부』⁹⁾, 2018년 『시흥 시민과 함께 하는 양명학 공부, 속편』¹⁰⁾을 발간하였다. 추곡 정제두 선생의 한국양명학을 널리 알리고, 오늘날에 어울리는 현대 철학으로 재탄생을 기원하는 노력이었다.

2) 지역문화 세미나, 인문학 강연 자료집 외

시흥 지역문화 세미나

시흥문화원은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 내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정체성 발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8차에 이르는 「시흥 지역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지역문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민과 외부의 전문가

2010년에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를 발간하였다.

6) 이후 호조벌의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흥시에서는 2017년, 『호조벌 생태자원화 지역자원 바로 알기』 자료집 발간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7) 시흥월미두레 풍물놀이에 관한 시흥문화원의 고증 자료집 등을 기초로 하여, 2016년에 시흥시 주최로 『시흥월미두레풍물의 전통과 미래』 세미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8) 『추곡서원』 자료집은 정인재 교수의 양명학 강연 녹취록을 실었으며, 강연 후 시민 수강생들이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발표한 내용과 박종용 교수의 강연 교재, 그리고 시흥문화원장 정원철의 「추곡서원의 비전」이라는 글로 구성되었다.

9) 『시흥시민과 함께 하는 양명학공부』 자료집은 한국양명학회 역대 회장 5명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녹취록을 정리한 자료집으로서, 정인재 교수의 중국철학사 7강이 실려 있으며, 시흥문화원장이 중국 귀주성의 양명학 지행합일 논단에 발표한 『지역 내 양명학 연구 및 실천』 현황 보고를 실었다.

10) 『시흥시민과 함께 하는 양명학 공부, 속편』 자료집은 한국의 10대 사상가로 일컫는 정제두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한 학자, 김교빈, 김용재의 강연 녹취록을 실고, 정제두의 양명학을 인성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연구를 한 정준교의 『청소년 인성교육 하곡에게 묻다』를 실었다. 철학하는 도시 시흥을 위한 『더 좋은 시흥을 위한 철학적 제언』을 실었다. 그리고 말미에 시흥문화원장의 『시흥 유학의 회고와 전망』, 중국 귀주성 귀양학원 지행합일 논단에서 발표한 『지역문화 창달과 양명학』을 실었다.

들이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제문과 토론문이 실린 자료집을 발간하여 지역 문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 제1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을 발간하였고, 2014년 제2차 세미나에서는 1부에 「시흥의 인물과 정신문화」, 2부 「시흥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5년 3차 세미나 1부 「청소년이 본 시흥의 인물과 정신문화」, 2부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를 발간하였다. 시흥지역문화 제4차 세미나는 1부에 「시흥지역과 양명학」, 2부 「시흥향토민요의 전승현황과 가치」를 발간하였다. 2016년 제5차 세미나는 『추곡 정제두와 양명학』, 2016년 제6차 세미나에서는 첫째 날,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 둘째 날에는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7년 제7차 세미나에서는 『양명학과 인성교육』 자료집 발간을 하고, 2018년 제8차 세미나에서는 『3·1 독립 정신의 계승』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아래에 회차별 세미나의 주제에 따른 발제를 구분하여 연구 현황을 정리하였다.

* 시흥 지역문화 세미나 1회~8회

연도 및 회차	주 제	발제문
2013, 1차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	-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 -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 예술로 바라본 시흥의 정신
2014, 2차	시흥의 인물과 정신 문화	- 애국지사 윤동욱의 생애와 시흥 지역의 3·1운동 - 시흥의 교육자 최금렬 선생의 정신 유산 고찰 - 제정구,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흥의 무형문화 유산	- 군자봉 성황제의 오늘 - 새우개 도당제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배경 - 시흥 월미두레 풍물놀이의 현황과 과제 - 시흥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민요
2015, 3차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	- 안산 거주 시기 하곡 정제두의 삶과 학문 - 과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 광명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향토문화자원 - 허백당 정난중 - 지역 문화자원을 이용한 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 - 문화예술과 역사가 어우러진 안양 - 의왕시 모락산 손짓, 몸짓으로 시민을 품다
2015, 4차	시흥 지역과 양명학	- 시흥의 문화를 이끌어 갈 정신적 지주는? - 하곡학의 효제윤리와 인성교육
	시흥 향토민요의 전승 현황과 가치	- 경기도 시흥시 민요의 실재와 의의 - 서해안 갯소리 중 배치기 소리에 대한 연구 - 소리꾼 박일엽과 시흥향토민요

연도 및 회차	주 제	발제문
2015, 5차	추곡 정제두와 양명학	- 추곡 정제두 - 주자학과 양명학의 비교 - 양명학 입문 - 정제두의 한국양명학
2016, 6차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 하곡 정제두의 생태수양론 - 하곡 정제두의 교육사상 - 하곡 정제두의 경제사상
	옛 시흥군의 역사와 문화	- 옛 시흥군 권역의 고고학적 연구현황과 과제 - 시흥행궁의 역사와 문화적인 환경조성 - 관악의 역사 - 추곡 정제두와 한국양명학 - 1919.3.1. 의왕면사무소 앞 독립만세운동 - 양재의 역사와 운명 - 과천 향토사 산책 - 인덕원 봉천마을 이야기 - 안산 동원 청수당과 성재 허전 - 사과나무의 역사 - 가학 광산의 역사
2017, 7차	양명학과 인성교육	- 시흥의 하곡학·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전통을 선도하다 - 도덕적 주체성 함양을 위한 양명학적 접근 - 양명학과 인성 교육·인성의 지향점, 민주주의
2018, 8차	3·1 독립 정신의 계승	- 시흥시 3.1 운동의 역사적 배경 - 권희 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 독립만세운동 - 시흥지역 3·1 운동 선양사업 살펴보기

하곡학 국제 학술대회

시흥문화원은 지역문화세미나와 별도로, 3회에 걸친 양명학을 기조로 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양명학의 현황과 미래』¹¹⁾ 주제로, 2018년에는 『철학하는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¹²⁾, 2019년에는 『정제두의 하곡학 시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¹³⁾의 주제로 시행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시흥시민에게 조선 시대에 발생한 한국양명학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지역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를 고찰하였다.

11) 제1회 하곡학 국제 학술 대회는 중국 귀주성 귀양시에 소재한 양명학 및 김학연구원과 공동 개최하였는데, 1부에서는 지역문화와 양명학을 소주제로 하여 조평락 원장과 육영승 부원장의 발제와 토론을 하였으며, 2부에서는 하곡학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국양명학회 김용재, 김윤경, 정준교의 발제 후 토론을 하였다.

12) 제2회 하곡학 국제 학술대회는 중국 귀양시 양명학 연구원과, 산둥성사회과학원과 공동 개최하였다. 1분과는 유학과 현대사회, 1분과는 추곡 정제두의 지행합일, 3분과는 추곡 논단으로 하였으며, 3분과는 시민들이 직접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3) 제3회 학술대회는 추곡 시민 논단과 하곡학의 어제와 오늘 분과로 나누어 발제 토론한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하곡학 국제 학술대회 1~3회

연도, 회차	분과 주제	발제문
2016, 1회 『한국 양명학의 현황과 미래』	지역문화와 양명학	- 검증왕학연구의 회고와 전망 - 생활 정신 실천 - 일상생활 속 양명학
	하곡학의 현황과 미래	- 하곡학 연구 현황과 방향성 - 후기 하곡학파의 사상교유 - 청소년 인성교육, 하곡에게 묻다
2017, 2회 『철학하는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유학과 현대사회	- 4차 산업혁명과 유학, 그리고 양명학 - 디지털 시대의 인성교육: 신독 관점의 재음미 - 심,경,학: 왕양명의 경학관 연구 - 산동성의 유학 생활화 사례
	추곡 정제두의 지행합일	- 하곡 정제두 공부론의 인성교육적 고찰 - 하곡 정제두의 자녀교육 - 정제두와 그 친구들의 지행논변 - 심외무물과 심외무경의 지향점 분석
	추곡 논단	- 자율성을 바탕으로 엮어가는 나의 꿈 - 더 좋은 시흥을 위한 철학적 제언 : 양명학을 중심으로 - 양명 좌파의 이념이 이옥의 삶과문학에 끼친 영향
2018, 3회 『정제두의 하곡학 시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곡학의 어제와 오늘	- 계곡 장유의 학문과 경세론 - 정제두, 안산 거주 20년의 역사적 의의 - 하곡학, 시흥과 강화도에서의 차이와 전망 - 하곡학 진흥을 통한 지역통합 방법 검토

인문학 강연 및 지역 문화유산 해설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교육자료』를 발간하였다. 시흥문화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민에게 「인문학 산책」 프로그램을 공동하여 지역민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 교재와 녹취록으로 7권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3년에는 금요 인문정신문화 강좌 『전통의 향기』에 8명 강연자의 교재를 실었으며, 『1797년8월 정조 대왕 행행』이라는 별도의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전통의 향기』에 10명의 강사를 초청하고 강연 교재를 실었으며, 2016년에는 『전통의 향기』에 9명의 초청 강연 교재를 실었다. 2017년에는 시인 6명의 초청 강연 후 녹취록 및 교재를 『시인이 말하는 글쓰기』를 발간하였고, 2018년에는 시인 3명의 초청 강연 및 녹취록을 『시인이 말하는 시쓰기』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3) 주민 생애 구술사 및 자연마을 자료집

시흥문화원은 시흥시민의 생애 구술사 채록에 나섰다. 시흥시 토박이로 근현대사를 겪은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사와 자연마을 조사 작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속하여 『사람으로 보는 마을 이야기』를 간행하였다. 2014년에 지역 원로 이형수, 김규성, 이영득, 전남훈, 양요환, 이진규의 생애사를 기록하고, 과림동과 정왕동 자연마을을 소개하였으며, 2015년에는 군자지역의 염전 이야기를 이종철, 성주안, 천장호의 인터뷰 기록을 실고, 군자면의 역사에 관하여 이형수, 이강수, 정한일, 한상국을 인터뷰 기록을 실었다. 그리고, 군자봉 성황제를 이어 온 구지정 마을의 고덕영, 황정학, 한정현, 당행복의 인터뷰 녹취록을 발간하였다. 2016년에는 전통시장인 군자동 도일시장을 지켜 온 김태봉, 김학수, 이영수를 인터뷰하였으며, 신현동 새우개마을의 안병권, 이만규, 김윤경의 녹취록과, 월곶포구과 주변의 어로에 관한 송선일의 녹취록을 책으로 발간하였다. 총 3권의 『사람으로 보는 우리 마을』을 발간하였다.¹⁴⁾

자연마을 조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흥문화원과 시흥시향토사료실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하상동, 하중동, 광석동, 능곡동, 화정동 등의 노인 구술사를 채록하였는데, 2015년에는 연성동, 능곡동 일원을 조사하여 『2015 자연마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⁵⁾

4) 시흥역사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 문화 활동 자료집

시흥문화원은 「시흥역사문화학교」를 개설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6회에 걸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면서, 『시흥역사문화학교』교재를 발간하였는데, 2014년에 시흥시사에서 전통시대에 관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여, 『시흥의 역사와 문화』와, 한국의 일반적 역사와 문화, 음악, 미술, 서예에 관한 글을 지역 내 예술인에게 집필 의뢰하여 만든, 『한국의 역사와 문화』 두 권을 발간하여 교육 교재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큐레이터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2014년에 『청소년 큐레이터』교재를 만들어 교육시켰다.

시흥 지역 내 문화활동을 펼친 결과물이 있다. 시흥문화원은 오랜 전통을 지닌 시흥 지역문화 축제인 ‘연성문화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2회부터 27회까지의 연성문화제를 6년간 6회에 걸쳐 『연성문화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6년에는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지

14) 지역 인물의 조명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노력은 시흥문화원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함께 하고 있다. 2015년에 주간 시흥에서 『시흥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발간하였으며, 시흥시 효도회에서는 지역 인물의 삶을 인터뷰를 통하여 『당신은 희망입니다』를 2019년 현재 6집을 발간하였다.

15) 시흥시는 시흥문화원과 협조하여 동별로 마을지 편찬에 노력하여, 2014년 『과림동 史』, 2016년 『시흥시 군자동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역 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회의를 하며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시흥문화원이 향토 문화 진작을 위한 행사를 집행하며 발간한 자료집으로는 2008년에 『민화특별전』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2010년에 『단오제 성년의례』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2011년에 『전통문화와 만나는 날 성년의례』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3년간 시흥문화원에서 강의하는 전통문화교실 강사 및 수강생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연성음품 전시회』 도록을 3년간 3회에 걸쳐 발간하였다. 그리고 시흥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인 『시흥역사자료관』 소개 브로쇼를 2000, 2003, 2005년에 발간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매년 발간하였다. 2010년에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하며, 『UCC 타고 시흥 속으로』를 발간하기도 했다.

2. 잡지 간행

시흥문화원은 창립 이래 2018년까지 연간지 『시흥문화』를 21년간 21회 발간하였다. 그 중 1,2,4,6호 4권이 실전되었고, 현재 17권이 보존되어 있는데 『시흥문화』에 실은 지역문화 기록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시흥문화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향토문화연구 현황의 다른 한 축을 이해할 수 있다. 실린 모든 내용이 지역문화 창달의 밑거름이지만, 그 중에서 시흥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 소개 글이나 연구 기사를 발췌하였다. 현재의 시흥에서 일어나는 문화 현상과 활동 인물, 활동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타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향토문화연구 기록도 올리지 않았다.

호수 (발행년도)	시흥 향토문화 관련 글
3(2000)	보물 1324호로 지정되어 있는 소래산 마애불 국가 지정문화재 신청 자료를 실었으며, 시흥 사람 소개, 거무개 마을지 발간 소식, 시흥의 설화(하연 설화) 소개, 오이도 사람들 탐방기, 매화동 사람들, 정승 하연을 소개하였다.
5(2002)	특집 '향토사가 이한기를 생각한다'에서 시흥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큰 업적을 남긴 향토 사학자가 생전에 어떤 연구를 하였으며, 의미와 가치에 관한 집중연구를 실었다. 이해준의 『향토사가와 근·현대 지방 기록자료』에 관한 연구 논문과, 주혁의 『이한기(이승언)의 삶과 소장 자료의 분석』, 주강현의 『이한기 소장 근현대 사진 자료의 성격』, 이기만의 『이한기 소장 자료의 정리, 보존, 활용 방안』, 지역 전설(생금집), 지역 신흥 개발 지역 정왕동 답사, 옥구 공원, 염전 소개, 월곶항 시를 담았다.

호수 (발행년도)	시흥 향토문화 관련 글
7(2004)	군자봉 성황제에 관한 리포트를 실었다. 최진아의 『군자성황제 역사, 의례와 의미』, 김락기의 『시흥 군자봉의 역사 지리』를 소개하였다. 시흥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의 하나인 연꽃 재배 단지와 구지정 마을 고인돌을 소개하였다.
8(2005)	테마, 시흥의 축제 온길과 갈길에서 시흥문화원이 주최하는 전통문화 축제 '연성문화제의 방향을 고민하며, 시흥의 축제 온길과 갈길, 타지역 축제의 성공기를 연구하였다. 리포트, 시흥9경을 소개하였다. 전통시대부터 경승지로 알려지고, 타지역인에게 시흥시를 뽐낼 수 있는 자연 풍광 9군데를 선정 집중 조명하였다.
9(2006)	르포 기사로 시흥 군자봉 성황제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시흥의 전통주 삼해주를 소개하였다. 특집으로 '시흥 문화 예술의 현주소' 칼럼을 실었다. 리포트로 연꽃테마파크를 소개하였다. 월미두레풍물놀이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10(2007)	군자봉 성황제와 삼해주 관련 기사를 실었다. 근대 지역문화유산의 하나인 소금창고의 훼손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실었으며, 간척으로 농경문화를 선도한 호조벌에 대한 소개와 시흥시사 편찬에 기사에서 시흥시사 편찬의 의미를 짚었다.
11(2008)	향토유적 관곡지를 소재로 한 3편의 글짓기대회 수상작이 올려져 있고, 정월대보름 행사와, 호조벌 소개, 생활유물 수집활동, 월미두레 풍물놀이 보존회 전승에 관한 인터뷰 기사, 계수초 전승을 기사화 하였다. 시흥시에 연꽃을 시배한 강희맹과 관곡지를 소개하였으며, 선비문화 시조창을 소개하였다.
12(2009)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소개, 시흥의 인물 윤동욱 소개, 강희맹의 독조도 찾기, 효자 하우명 글짓기, 소래산 마애상 글짓기 2편, 새우개장승놀이 글짓기 1편, 소래산 글짓기 1편,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장유 글짓기 1편을 실었다. 방짜유기, 군자봉 성황제 민속 보존회 소개, 잊혀져 가는 소리, 시흥향토민요 발굴 및 전승 현황 인터뷰를 실었다. 옛 뱀내장터 소시장과 수인선 협계열차 기사를 실었다.
13(2010)	시흥 상여소리 발굴 및 전승 관련 기사, 소산서원 소개, 월곶포구, 전통의 도일시장, 오이도 탐방기를 실다. 시화호 리포트를 실었다.
14(2011)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한 시흥 상여소리 출전기, 군자봉 성황제의 유가행렬 동행 취재기, 새우개마을 민속극 공연 후기, 시흥의 참교육자 최궁렬 소개,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을 소재로 한 글짓기 1편이 실렸다.
15(2012)	특별 기획,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기사, 전통 시장(삼미, 도일) 탐방기, 시흥의 인물, 최궁렬 소개
16(2013)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논문 수록, 정조 대왕과 시흥-1797년 행행- 연구 논문 수록,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후기, 시흥시 전통문화 보존방안 투고문, 정왕산 봉수대 투고, 능곡동의 숨덕비 연구, 군자봉 성황제,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 현황 보고, 시흥의 인물 제정구 소개, 소산서원 체험 소감문 글짓기 수록
17(2014)	지역문화를 돌이켜 생각하게 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탐구하는 '우리에게 공동체란 무엇인가?' 글 게재, 호문화의 현대적 재조명, 강희맹의 금양잡록, 능곡동 선사유적, 한국양명학의 태생지 시흥에 관한 글을 실었다. 시흥향토유적 류자신 묘에 얹힌 이야기를 실었으며, 소래정 편사놀이 소개 글을 실었다.
18(2015)	시흥군자봉성황제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기사, 전통의 지역 문화를 되살리는 연성음풍 전시회 참관기, 연성문화제 고유제 참관기, 도시 공동체와 청소년에 관한 문화칼럼을 실었다. 장유, 정제두를 중심으로 '시흥의 문화를 이끌어갈 정신적 지주'를 실었으며, 시흥시의 구전설화에 관한 연구 논문, 소리꾼 박일엽과 시흥 향토민요에 관한 논문을 실었다. 장곡노루마루축제의 의미 투고문을 실었으며, 청소년들이 시흥의 인물, 윤동욱, 최궁렬, 제정구에 관한 세미나에서의 발제와 토론문 6편을 실었다.

호수 (발행년도)	시흥 향토문화 관련 글
19(2016)	'한국양명학에서 본 시흥양명학연구회의 위상'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 게재, 전통예술 전시회 도슨트 활동기, 문화원간의 지역문화원장 토론회 참관기, 추곡서원의 비전 연구 논문, 시흥시와 한국양명학 연구 논문을 실었다.
20(2017)	연성음풍 사회 개최, 중국 귀주성 문화 탐방기, 제1회 하곡학 국제 학술대회 -한국 양명학의 현황과 미래- 조명, 추곡 정제두 선생 유허비 제막 참관기, 하곡 정제두 선생의 시흥 생활 20년과 학술, 청소년 인성 교육 하곡에게 묻다 연구논문, 하곡학 연구의 본질적 문제와 방향성 연구 논문 게재, 시흥의 인물 3명 소개.
21(2018)	중국 산둥성 유가 문화 답사, 제2회 연성음풍 사회 개최,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 개최, 제8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3.1 독립 정신의 계승 참관기, 경기향토문화연구소 학술 심포지엄-경기유학과 양명학, 경기지역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화 방안 모색, 추곡서원 정제두 추모 제향, 인성교육 양명학에 길을 묻다 연구 논문 게재,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흥의 인물 3명 소개

3. 영상 및 음반 자료 발간

시흥 지역문화 관련한 영상 제작은 시흥문화원에서 제작한 것보다 시흥시에서 직접 제작한 경우가 많다. 시흥시는 시흥9경, 호조별 등의 지역문화 홍보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시민에게 홍보에 나섰으며, 경기 지역 방송인 한빛방송도 우리 마을 산책 프로그램에서 관곡지, 류자신묘, 강희맹묘역, 시흥역사자료관 등을 제작하여 방영하였는데, 시흥문화원이 그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고에서는 시흥문화원이 제작하여 지역문화재 및 활동 현황을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작한 영상물을 아래에 나열하였다.

연도	내 용	상영 시간
2007	시흥 역사자료전시관 시흥의 문화재	13분
2007	전통혼례 재현	44분
2007	월미두레 풍물놀이_경기도 민속예술제	27분
2010	시흥시의 역사적 인물 강희맹과 향토유적(독조도)	11분
2012	시흥의 교육자 최금렬	7분
2011	경기도 민속예술제 시흥 상여놀이	10분
2016	군자봉 성황제	4분
2017	시흥문화원 창립 20주년 기념-시흥문화원 성년의 발자취	30분
2018	한국 철학의 오래된 미래, 추곡 정제두	23분

II. 시흥 향토문화 연구 어디까지 왔나

지역문화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의해 시군 지자체의 역량 평가가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 향토문화연구의 중요성 역시 따라서 부상하였다. 시흥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한 시흥 향토문화연구가 어디까지 진행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시흥시의 지역 향토문화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를 파악한다. 그러한 분석은 도시화가 급격한 시흥시의 자연마을 연구와 지역민 생애 구술사의 시급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 현황을 살피고, 비지정 민속 및 문화유산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1. 지명 유래 및 민속, 자연마을 연구

2006년에 발간한 『시흥시 지명 유래』는 10개 행정동과 30개 법정동의 지명유래를 실었다. 『시흥시 지명 유래』를 기초로 하여, 2014년에 「시흥 100년 기념사업조직위원회」가 『시흥 땅 이름에 남아 있는 향기』를 발간하였다. 『시흥 땅 이름에 남아 있는 향기』책자는 한국 지명총람, 시흥군지 등의 선행 연구 자료를 보충하고, 지역 주민의 구술자료를 추가하여, 시흥시 법정동 내 지명유래 연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발간하였다. 시흥시가 완전 도시화하여 지명에 관하여 기억하는 이들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지명 유래 연구를 가일층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시흥의 지역 마을지는 시흥문화원이나 동주민센터 주관으로 발간하였는데, 현재 시흥시는 18개 행정동 중에서 신현동, 과림동, 군자동, 월곶동 4개 동이 동지를 발간하였다. 시흥문화원은 그 중 신현동지와 월곶동지 두 권을 발간하였다. 마을지 발간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2. 유형 문화재 지정 및 보호

시흥시의 유형문화재 지정 주체는 시흥시다. 한동안 시흥문화원이 관리를 하였으나 현재는 시흥시에서 관리한다. 현재 시흥시 내 문화유산으로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정한 보물 1점과 사적 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3개가 있다. 그리고 시흥시 자체에서 지정한 시흥향토문

화유적은 총 18개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아래에 현황을 정리하였다.

국가, 경기도 지정 문화재			
번 호	명 칭	소재지	지정일자
보물 제1324호	시흥소래산마애보살입상	대야동 산140-3	2001.9.21
사적 제413호	시흥방산동청자와백자요지	방산동 370-3	1999.6.11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정왕동 914 외	2002.4.1
경기도기념물 제87호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하상동 산2	1985.9.20
경기도기념물 제103호	조남리 지석묘	조남동 480-8	1988.3.21
경기도기념물 제163호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거모동 산 62-4	1997.5.16

시흥향토유적			
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호	김치인 선생 묘	안현동 360-6	1986.3.3
2호	장유 선생 묘 및 신도비	조남동 산1-5	1986.3.3
3호	하연 선생 묘	신천동 산12	1986.3.3
4호	류자신 선생 묘 및 신도비	능골길 26	2000.1.31
6호	시흥 무지내동 태봉	무지내동 산16	1990.5.4
7호	생금집	죽율로 45-32	1994.10.20
8호	관곡지	하중동 208	1986.3.3
9호	영응대군 묘 및 신도비	군자동 산70	1988.5.31
11호	하우명 효자정각	신천동 422	1988.5.31
12호	박동량 선생 묘 및 신도비	군자동 산22-2	1988.5.31
13호	김준룡 장군 묘 및 신도비	산현동 산138-1	1988.5.31
14호	군자성황사지	군자동 산22-3	2002.3.15
15호	시흥조남사직단지	조남동 산121-29	2002.3.15
16호	윤민헌 선생 묘	산현동 산53	2002.3.15
17호	신안주씨 삼세적선비	과림동 355	2005.7.14
18호	이숙번 묘	산현동 산71	2006.12.5
19호	시흥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	능곡동 산40-1	2006.12.5
20호	시흥 능곡동 선사유적	능곡동 479	2011.11.2

3. 무형 문화재 전승 현황

시흥 지역의 역사가 오래다보니 무형문화재로 전승할 만한 민속은 꽤 많았을 것이다. 오이도 선사유적으로부터 시작한 시흥시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었다. 사적지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를 보아도 지역문화가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시흥문화원이 주목하여 관리에 나선 무형문화재는 4개뿐이다. 먼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된 시흥군자봉성황제가 있다. 시흥문화원과 지역민이 오랜 시간 고증하고, 전승 노력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월미풍물놀이가 있다. 목감동 월미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풍물놀이로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출전하면서 대외적으로 시흥시의 향토문화를 알려왔다. 시흥시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흥향토민요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래하였을텐데, 근대화 물결 이후로 사라져 가고 있다. 들노래는 1970년대 이양기와 콤파인의 도입이래로 두레 풍습이 사라지고 있어 들노래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또한 바닷가노래는 1960년대에 포동의 새우개마을의 어업이 중단되면서 어업요 또한 사라지고 있다. 한편 상여 소리 역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풍속이 바뀌면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시흥시가 도시화 물살이 빨라지면서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악인 박일엽이 1990년대부터 향토민요를 채록 보존하여, 2011년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시흥 상여소리』로 출전하여 민속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시흥향토민요를 전승의 틀을 갖추었다. 시흥문화원은 지역민에게 2012년부터 9년째 시흥향토민요를 전승하고 있다. 시흥들노래 중의 실모소리는 여타 지역과 다른 시흥시만의 독특한 소리로 알려져 있다. 지역민이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갖는 데는 지역 무형문화재의 역할이 크다. 추후 시흥지역의 민속을 꾸준히 발굴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흥시에서 아직껏 주목하지는 않고 있지만, 편사놀이가 있다. 시흥시는 활터가 8곳이나 되며 오래전부터 궁사들의 편사놀이를 즐겼다. 2014년 『시흥문화』 17호에 ‘편사놀이 참관기’를 실었는데, 향후 시흥향토민요와 함께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시도할 수 있는 유망한 민속이다.

4. 지역 문화 연구 분석

1) 잡지 및 자료집과 영상물로 본 지역 문화 연구 현황

시흥문화원의 지역 문화 연구 분석은 시흥문화원이 주최·주관한 시흥지역문화 세미나에서 토론한 주제 및 보고서와 시흥문화원이 발간하는 연간지 『시흥문화』에 게재한 논문 및 칼럼, 수필

등의 기록과 제작 영상을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분류 기준은 시흥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임의로 분류하였다. 아래의 표는 시흥향토문화연구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향후에 정책에 반영하려면 각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분류 항목에 관한 가중치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분류1	분류2	분류3	『시흥문화』 게재 글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논문	영상
시흥의 경승지	시흥구경	호조벌,오이도,월곶포구 군자봉,소래산 물왕저수지,관곡지 옛염전,옥구공원	15	-	2
		연꽃테마파크	2	-	-
	기타	전통시장	3	-	-
		정왕산 봉수대	1	-	-
시흥의 정신	근·현대 인물	윤동육	6	2	-
		권희	-	1	-
		제정구	5	1	-
		최금렬	7	1	1
	전통 인물	강희맹,장유,하연	5	1	1
	전통 사상	양명학(정제두)	12	12	1
	시흥 사람	생애 구술사	2	1	-
시흥의 민속	신앙	군자봉성황제	8	1	1
		새우개 도당제	2	1	-
	전통예술	월미풍물놀이	3	1	1
		시흥향토민요	5	3	1
	기타	혼례	1	-	1
		편사놀이	1	-	-
		구전설화	1	-	-
시흥의 유형 문화 유산	보물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	-	-
	사적	오이도선사유적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	-	-
	기념물	조남리 지석묘,강희맹 묘역,청 주한씨문헌공파 묘역	-	-	-
	향토유적	시흥시 지정 향토유적	3	-	-
		기타(송덕비)	1	-	-

2) 시흥 지역 문화 연구 특징

시흥시는 근·현대 인물 중에서 연차적으로 근·현대에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을 발굴하여 3명의 시흥의 인물을 선양하여왔다. 3·1 운동 때 만세 운동에서 본보기가 되었던 독립운동가 윤동옥, 3·1 독립 운동을 계기로 시흥 지역을 찾아와서 계몽운동을 펼쳐온 참교육자 최궁렬, 그리고 빈민운동가 제정구 선생을 선양하는 노력을 여러 갈래로 하여왔다. 세미나 및 자료집 발간, 영상 제작, 연년이 선양 행사 등을 하여왔다. 여타 지역과 다른 시흥 지역문화의 특징으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시흥의 인물을 선정하여 지역의 정신문화를 일구어 온 시흥문화원은 최근 4년간 지역 정신문화에 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의 성리학을 혁신하려 한 양명학의 대가 정제두 선생이 시흥시에서 20년간 거주하며 학문을 연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예문동양사상연구원에서는 정제두 선생을 한국의 사상을 발전 시켜온 10대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시흥문화원은 정제두 선생의 양명학 정신을 발굴하고 그를 계기로 철학하는 도시 시흥으로의 비약을 꿈꿨다. 5회에 걸친 지역문화세미나와, 3회의 국제 학술대회, 그리고 정제두 선생 유허비 건립 및 추모제향을 통하여, 주체와 자율, 실천의 정신을 시흥의 전통 정신문화를 선양하였다. 바라지 문화를 선양하는 시흥시의 정책과 서로 상통한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 정신면에서 같다. 이러한 지역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시흥문화원은 2017년에 시흥문화비전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Ⅲ. 향후 시흥 향토문화 연구 과제

1. 비지정(유·무형) 문화 유산 발굴 및 보호

1) 시흥향토유적 지정 확대

시흥시 향토유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지역 내 문화유산으로서 시흥시장이 보존·보호·연구의 가치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유·무형의 비지정문화재를 말한다. 즉 시흥향토유적은 국가나 광역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를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본 고에서의 앞서 이야기 한 <비

지정 문화재)가 아닌 시흥시장이 아직 향토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시흥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흥문화원이나 지역의 향토사학자는 그러한 문화유산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비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는 문중에서 발간한 문집 중에 아직 대외적으로 내놓지 않은 문집을 번역 출판하고 시흥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시흥문화원에서 자체 번역작업 중인 오헌집같은 경우를 말하며, 향후에도 다른 중요한 문화유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흥시는 유형문화유산은 시흥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전통의 무형문화 유산은 지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 내 무형문화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만을 추진한다. <시흥 군자봉 성황제>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9호로 등록되어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시흥월미 풍물놀이나 시흥향토민요의 경우, 시흥시에서 예산 지원은 하지만,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하지 않았다. 고양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시흥시는 시흥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심의를 않으며, 관련 조례 규정이 없다. 시흥문화원은 기존의 세 무형문화유산 외에 국궁 편사놀이, 새우개마을 당제, 방산동 당제 등을 지역무형유산으로 지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타 전통의 유 무형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지정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역의 문화활동가 역시 전통의 민속이나 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하여 지역에 의견을 묻고, 시흥시장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 시흥 지역에서 발굴한 문화재 전시

시흥 지역에서 발굴하였으나 국가로 귀속한 각종 문화재를 시흥시로 가져와 시민에게 전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은 시흥시에 박물관이 없었으나 오이도 박물관이 생긴 것을 기회로 원본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 유물의 원본을 반입할 수 없다면 사본이나 모조품이라도 전시하여 지역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인 박물관을 보다 확충하면서 그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나마 오이도 선사유적은 오이도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지만, 능곡, 장현, 은계지구 개발 지역에서 출토한 각종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모형을 제작 전시하여야 한다.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굴한 문화재가 적지 않으나, 시흥 지역으로는 발굴 보고서만 날아들고, 발굴한 문화재들은 모두 다른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으로 가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지역민의 구술사 채록

1)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사람들 기록

수도권에 위치한 시흥시는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시흥시 인구는 시 승격 당시에 10만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39만 명이 되었다. 2019년 8월 현재 46만 명인데,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자연마을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자연마을과 자연마을 주민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 사회의 가치관과 민속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마을에서 한 생을 살아온 주민의 구술 생애사를 채록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시흥으로 돌아온 이들의 생애사 역시 자연스럽게 기록해야 한다.

2) 외지에서 유입한 이들의 삶의 기록 및 다문화 기록

시대별, 지역별로 이런 저런 문화를 창출한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한다는 것은 지난 시기와 지난 지역의 사건과 미래의 누군가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의미다. 시흥시는 1920년대에 군자염전을 축조하기 위한 평안도민의 이주가 있었으며, 한국전쟁 후인 1950년대의 황해도, 평안도민의 이주가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 시화공단 개설 당시의 충청도민, 전라도민의 이주 역사가 있었으며, 2000년부터는 외국인의 다문화가 시흥시 정왕동에 등지를 틀었다. 타 지역민이 시흥시를 새로운 고향으로 여기며, 등지를 튼 것이다. 그들의 삶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이 세세한 기록의 힘으로 시대상을 상세하게 전하여 조선 시대에 관한 지식이 넓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따라서 커졌듯이, 지역문화에서 외지인의 구술 생애사 역시 향후 영향이 클 것이다. 시흥의 다문화에 관한 기록, 외국인이 자국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기록, 또한 중요하다. 다문화가 한국문화를 만나 어떻게 변화하고 정착하였는가의 문화사적 기록을 시흥의 문화활동가가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들의 구술 생애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언어 문제부터 상대 문화의 이해 등 선행 조건을 해결해야 하니, 쉽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도시 지역문화 (아파트 문화) 개발 및 기록

향토문화는 전통 시대의 지역문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시점의 지역 문화 역시

향토문화다. 오늘날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가면서 도시 지역문화는 전통시대와 크게 달라졌다. 도시화하면 바로 아파트 입주를 연상하기 마련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그나마 기존의 전통 시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아파트 거주 문화는 서로가 서로를 격리하고 관리자를 선정하여 삶의 많은 부분을 맡기므로, 전통시대의 문화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한 아파트 문화도 기록해야 한다. 그 역시 시흥시의 향토문화다. 현대인은 어떻게 아파트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가. 시흥시 지역민은 아파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기록해야 한다.

시흥시에서 마을지를 발간한 행정동은 4개 동뿐이다. 아파트가 발달한 지역은 마을지를 발행하지 않았다. 아파트 문화와 외지인의 구술 생애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아파트 단지의 마을지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빌딩의 숲속에서,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부녀회, 동호회는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입주민들의 나홀로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을 찾아서 기록해야 한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바뀌어가는 지역문화를 향토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4. 문화 예술로 승화하는 지역문화(지역 축제, 전시회, 공연 등)

지역에는 지역 정치와 지역경제, 지역 사회생활이 있으며, 그러한 활동에 상응하는 문화의 생성과 함께 지역민의 평범한 생활을 반영하는 생활문화가 숨는다. 생활문화는 오랜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문화다. 그러한 문화 중의 긍정적 문화를 확장시켜 밝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선에 문화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예술가들이라고 하여 지역의 특성을 창작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예술 작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을 소재로 하는 예술은 그 지역의 품격을 한층 높여 주는 때문이다. 예술가에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터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하여 창작의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만, 적극적 사랑이 아니라도, 오랜 시간 거주하면 익숙해지는 풍경과 정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마음의 발로가 지역예술을 구성하며, 지역 문화에 영향을 주며, 지역 정체성을 일군다. 지역의 명소와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시, 그 시(詩)를 가사로 한 가곡(歌曲) 창작, 지역의 아름다움과 일상을 수채화로 그리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지역사랑의 표현이며, 그럼으로써 지역은 발전한다. 시흥문화원이 주관하는 전통 축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예술을 적극적으로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5. 향토 문화의 콘텐츠화

지역의 문화활동가나 예술가들은 그들의 소신대로 활동하고 그 결과로 지역문화를 창출한다. 나름대로의 문화 기획은 민관을 연계시켜 생활문화를 진작시키며, 창작품은 지역 문화를 고양시킨다. 개개의 문화활동가나 예술가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 단체 역시 지역문화의 콘텐츠화에 힘써야 한다. 그간 시흥시가 발굴하고 전승하는 각종 유무형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여, 문화 기획에 적극적으로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흥시에는 1920년대 시흥시에 군자염전을 축조하고, 1930년대에 소래염전을 축조한 이래 만들어진 지역문화가 있다. 시흥시가 갯벌을 매립하여 시화공단을 만들고, 환경오염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허브라 칭하고, 외국인의 다문화가 꽃피우는 현재를 콘텐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거나, 탈놀이를 창작하여 발표하고, 수정하면서 키우는 일이 바로 지역문화콘텐츠 창출이다. 지역문화 콘텐츠를 축제화하여 관광객의 출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시흥지역정신문화에 시흥의 전통인물 정제두 선생의 양명학 정신이 있는데, 양명학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하는 도시, 시흥>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학 축제를 열어,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정신세계에 주체, 자율 실천을 통한 삶의 아름다움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한 연극, 뮤지컬, 영화 등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 백

파주시 향토문화재연구의 방향성과 활용에 관한 고찰

차 문 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 I. 머리말
- II. 파주지역 연구문화 개황과 제문제점
 - 1. 파주지역 연구현황
 - 2. 파주시 문화재의 현황과 개발의 제문제점
- III. 연구분야의 성과와 지역문화 확장 과제
 - 1. 연구분야의 성과
 - 2. 지역문화 확장 과제
 - 1) 이서장군 선정비 조사현황
 - 2) 정자리 胎室 현황조사
 - 3) 발견된 허경선정비 현황
 - 4) 백학산 계류 석각 현황조사
- IV. 경기 지역 역사·문화 연계와 릴레이답사
 - 1.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 1) 진정성과 완전성
 - 2) 일본 오타루의 사례
 - 2. 릴레이 문화탐방 제시
- V. 맺음말

집필자

차 문 성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과주 지역은 그간 지역 연구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문화 발굴과 유교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는 지역의 유력인사와 연구자, 유림이 참여해 연구의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역 문화재연구가 과거 연구의 답습과 인물중심의 연구에 치중하면서 연구가 보존, 교육, 시민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가 노출되기도 한다. 즉 연구자의 연구는 매년 발간되는 연구지에 한정되며 이를 활용하는 해설사나 관계자들은 기존 자료집과 답사코스에 치중해 새로운 역사문화 발굴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흐름에 있어 본고는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제시와 지역 간 협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연구의 활성화는 ① 문화원과 시군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히 해 문화연구의 질을 높여야한다. ② 지역 문화의 새로운 발굴과 확장성을 추구해 연구의 폭을 넓혀야 한다. 과주 지역의 특성에 있어 군사지역, 제한지역 등 한정된 문화관광지역의 확대를 꾀한다. ③ 이이, 성혼, 황희 등 핵심코어 연구에 질을 높여 향토사에서 문화재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간 협업과 공유를 위해서는 ① 연구발표를 문화원 회원 중심에서 확대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원해설사, 시도문화관광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 연구와 해설의 협업이 필요하다. ② 문화재란 한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지역 간 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릴레이답사’를 통해 국내문화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토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의 연구 실태와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한 지역의 국한된 관내문화재가 아닌 경기도의 전체의 문화재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파주지역 연구문화 개황과 제문제점

1. 파주지역 연구현황

파주문화원 발간 서적(2010년 이후)	발간연도	분류	저작자
파주문화	1987년 이후 제 32호 간행	연속간행물	파주문화원
파주연구	2003년 이후 제12호 간행	연속간행물	향토연구소
파주의 흥기집	2010	단행본	교하향교
파주 금산리 농사소리	2011		파주문화원
방촌항회 유적의 문화적 가치(학술대회)	2015		파주문화원
파주농악	2016		파주문화원
파주임진강 누정문화	2013	단행본	향토연구소
우계성훈과 파산의 학자들	2013	단행본	파주문화원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2014	단행본	파주문화원
파주시 마을기록화사업 보고서	2016년 이후 1-3		파주문화원

파주의 도서간행물과 연구서 발간의 형태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로 나뉘진다. 2010년 이전에는 『파주금석문대관』이나 읍곡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등 도전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 왔지만 이후 『파주문화』와 『파주연구』 등 연속간행물이나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는 안정적인 방식을 취해왔다. 이 같은 형태는 문화재 관련 연구가 정체되거나 방식의 안정성에 기인한 일이다. 이 중 『파주금석문대관』은 「신도비편」과 「묘갈편」으로 나뉘지는 데 이것의 체제는 ①개요, ②인물정보, ③현황 및 보존상태, ④사진, ⑤타본으로 이뤄져 있다. 현황 보존 상태는 정면도와 측면도가 포함되어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역주가 없어 기초연구에 있어 보완할 점이 보인다. 1998년 발간한 『고양금석문대관』과 2014년 『연천금석문대관』의 발행에 역주가 포함된 것과는 대조되는 일이다. 더구나 2010년 이후 발행된 서적이 연속간행물을 제외하고 지역연구자가 참여한 사업은 저조한 편이다.

한편 2016년부터 『경기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시 관내 마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의 문화재, 전통, 민속, 전설, 구술기록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재 상태에서 보존하고 잊혀진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는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마을의 다양한 역사를 보여주기에 불충분하다. 더구나 파주시는 운정신도비, 금촌, 문산을 중심

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내문화재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현황 자료 확보가 시급한 편이다.

다만 그 동안 파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파주 임진강 누정문화』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반구정, 덕진당터, 내소정터, 임벽루터, 임진정터, 화석정, 수월정터, 몽구정터, 칠송정터, 창랑정터, 강선정터에 대한 역사자료를 조사하고, 임진강 지류에 있는 청계정터, 청은정터, 이사정터, 만성정터, 은행전터, 노정터에 관한 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추후 임진강 개방과 복원에 대비한 기초조사가 되었다.¹⁾ 현재 남아 있는 정자는 반구정과 화석정 밖에 없지만 이 역시 복원 건물로 추후 원형복원에 대한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우계성흔과 파산의 학자들』, 『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이야기』 등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지만 추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학자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옛 선인들의 비문을 보면 그의 학문출처와 학행 그리고 가문의 내력은 있지만 고향에 대한 언급은 소략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율곡 이이나 우계 성흔, 방촌 황희, 파곡 이성중 등은 고향 땅을 호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는 예외인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지역을 뛰어넘는 장소성과 학문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파주시 문화재의 현황과 개발의 제문제점

신도비, 묘갈의 역주를 단 문화재대관을 발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확보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추후 시립박물관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파주시에 산재한 각 문중의 문화재 조사는 추후 정리되어야 할 사업이다.



〈윤정신도시 3지구 조선시대 유구(토지주택박물관 사진)〉

1) 2013년 박재홍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 재직 시 『파주 임진강 누정문화』(파주문화원)가 발간되었다.



〈파주운정신도시 새암공원내 구석기 유물 발굴현장사진(본인 촬영)〉

파주시는 도시화로 인해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가 진행되어 기존 마을의 정체성이 빠르게 해체, 대체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가옥이나 전승기술 등도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태는 비단 파주만의 문제는 아니라 시흥, 안산, 광명, 용인 등 도시화가 확장되어 가는 시, 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첫째 도시화의 확장은 기존마을의 역사성을 송두리째 삼켜버린다. 현재 파주에는 오래된 한옥이 별로 없다. 6.25까지 전해지던 임진강변 화석정과 진서문, 파산서원이 불에 전소되어 버리고 민간 살림집 역시 그 전통을 살리고 있는 가옥이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남아 있는 전통살림집을 발굴해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시립박물관 건립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일례로 파주 운정신도시의 개발시 수천 점의 구석기 유물의 발굴이 있었지만 현재 소재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토지박물관에 그 일부가 소개되고 있지만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으로 운정 3지구 개발에서 토광묘가 발견되고 선사유적이 발굴된 경우가 소개되는데 그친다.²⁾

「파주운정1지구 7-1 구석기 유적의 조사개보」³⁾에 의하면 운정신도시는 2002년 시굴조사가 요구되는 47개 지점의 유물산포지를 확인한 바 있다. 시굴조사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45개 전지점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진행했다. 그 시굴조사 결과 45개 지점 가운데 32개 지점에서 구석기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한빛마을1-6단지에 많은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새암공원 일대에는 약 250점의 구석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출토유물은 주먹도끼, 여러면 석기, 찌개, 격지 등인데 현재 파주시에 남아 있는 유물은 없이

2) 토지주택박물관 사이트(<http://museum.lh.or.kr/>)

3) 김성진, 「파주운정1지구 7-1 구석기 유적의 조사개보」, 『전통문화연구』 7호, 2008, pp.67-89.

토지공사 및 해당 발굴기관에 유물이 위탁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재는 제자리에”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결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애초 운정지구 개발 시 토지주택공사의 공약처럼 박물관의 건립이 선행되어야 했음은 물론이다. 셋째, 핵심 코어의 육성이 부족하다. 파주시 문화재의 성격은 크게 울곡, 우계, 구봉의 유교문화권과 능원, 문중묘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울곡의 문화재를 예로 들면, 자운서원과 화석정이 있고 매년 울곡문화제가 개최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자운서원의 중심에는 울곡의 무덤이 있고 우계묘역 역시 기념관을 뒤편 묘역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울곡 문화재의 코어인 화석정의 복원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져 그 전말을 알기조차 어렵다. 우계 문화재에 관해서도 파산서원과 우계묘역 그리고 성씨일문의 묘역이 향양리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념관에 하루 소수의 관람객만 모이는 실정이다. 우계 학문의 산실인 우계서실 앞에는 급기야 화물주차장의 허용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되는 사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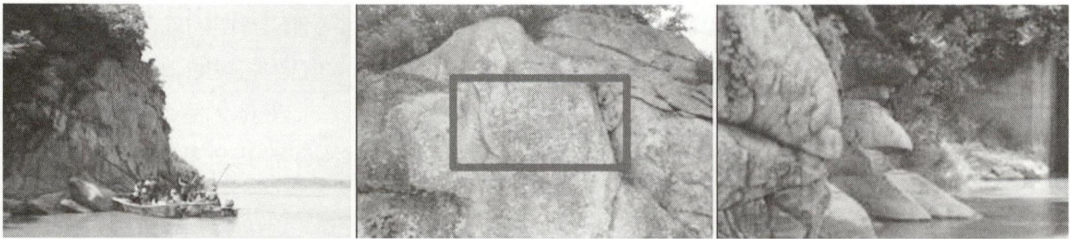
넷째, 미조사지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파주는 한강과 임진강을 낀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임진강으로 인해 민통선이 펼쳐져 있어 문화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파주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2019년 파주시의회 지원으로 민통선지역의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연구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현재 임진강 너머 장단지역에 있는 문화재 접근에 소극적이다. 그 일례로 2019년 백학산석각의 발견이 보도된 후 미확인지뢰지역이란 이유로 장단향교 등에 대한 조사를 군부대에서 보류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문제점은 파주 문화재와 관광지 연구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즉 ① 지역박물관의 건립 ② 핵심코어에 집중하는 방식 ③ 미조사지역에 대한 연구 확장은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Ⅲ. 연구분야 성과와 지역 문화확장 과제

지역문화재의 확장성과 연구분야에 대한 성과는 그간 연구자의 개인적인 연구와 문화원, 시의 관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확장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연구분야의 성과



〈① 임진강 적벽 조사(향토문화연구소)/② 조상우의 『후계집』 8자: “九疊廬屏 半面徐粧”/③ 적벽석각 아래 개바위〉

그간 많은 연구가 연속간행물 『과주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개인별로 논문을 제출해 매년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를 현장에서 공동으로 협업을 진행하지는 못해 공동연구와 공유에는 분명한 한계를 노출했다. 그러나 2018년 〈임진강 적벽조사〉와 2019년 과주시 의회의 지원으로 실시한 〈과주 민통선 역사·문화·생태 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선례가 되어 연구의욕을 고무시킨다(2019조사에서는 생태조사는 제외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논문을 학술지에 등재를 했는데, 능원과 묘역, 서원, 정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된다. 그 주요 논문으로는 ① 「조선 중기 우계 성혼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기념관 개선 방향」⁴⁾으로 파산서원과 우계 성혼 연구의 결실은 현재 파산서원의 발굴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현재 파산서원종합정비계획의 참고논문으로 되어 있다. ② 「화석정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⁵⁾는 투시도와 활용계획도를 첨부해 복원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③ 「인조 舊 長陵의 위치비정과 석물에 관한 고찰」⁶⁾은 장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여 와침상석의 사용을 처음으로 밝혔고 장릉 하마석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④ 「昭寧園 조성 과정으로 본 祭廳의 활용방안」⁷⁾은 효제문화에 기반을 둔 영조시대의 석물과 제청의 연구로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⑤ 교하노씨묘역에 관한 논문으로 일제강점기때 문중묘역의 강제 이장을 학술적으로 논증하였다.(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대상), [이상 차문성 소장 학술논문] 정현성 연구위원은 ⑥조선 초기에 조성된 「과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을 연구하여 용미리석불의 조선 초기설을 설득력있게 기술했고 (31회 공모전 최우수상), 탄현지역 양요당 팔경에 대한 고찰 (32회 특별상)을 소개하여 유무형문화재를 다루고 있다.

4) 차문성, 『박물관학보』 32권, 「조선 중기 우계 성혼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기념관 개선 방향」 한국박물관학회, 2017.

5) 차문성, 『박물관학보』, 「화석정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한국박물관학회, 2018.

6) 차문성, 『민족문화』 44권, 「인조 舊 長陵의 위치비정과 석물에 관한 고찰」, 고전번역원, 2014.

7) 차문성, 『박물관학보』 25권, 「昭寧園 조성 과정으로 본 祭廳의 활용 방안」, 2013.

발표자	발표문제목	요약내용
이동륜	임진강 場巖의 석각문 조사	임진강 장암의 위치비정
오순희	임진강의 역사와 전설	임진강의 역사와 정자
이진숙	임진강 그림	임진강과 관련한 그림모음
성지오	임진강 푸른 물에	임진강 시문 소개
차문성	화석정 원림의 역사문화 가치	화석정 투시도와 활용방안 제시

파주문화원과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⑦ 임진강 적벽 석각조사와 초평도 일대의 생태조사를 3차례 실시하여 〈임진강적벽석각조사 연구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2018년 11월) 당시 임진나루 인근 9개 석벽 중 제1석벽에서 조상우의 글씨(東岡叔父題“九疊廬屏 半面徐粧”八字於第一峯壁面)를 확인하고 5석벽에 있는 박태보 글씨를 추가 조사한 바 있었다. 이것은 추후 임진강 문화재 복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파주시에서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임진강의 진서문을 발굴하고 조선초기의 거북선 재현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문화 확장 과제

파주의 임진강 너머 장단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2018년 임진강 적벽조사 이후 민통선 지역인 장단조사의 열기가 뜨거워 2018년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파주문화원을 통해 ‘파주 민통선 지역 역사문화 사업기획서’를 제출하여 파주시의회로부터 일정 예산을 배정받아 장단지역을 조사하였다. 기존 장단 조사는 파주시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종합적인 조사는 이뤄진 바 없었다. 그런 이유로 과거 육군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2000)에서 조사한 내용이 제대로 문화관광과 연계가 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조사의 부수적인 성과는 백학산석각, 이서선정비, 허경신도비 발견, 조선 초기 태봉 확인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결과가 있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 2018년 10월 민통선 역사문화조사 기획서 제출. 파주시 의회 예산수여
- 2019년 2월 파주향토문화연구소 민통선 사업 회의때 장단지역 문화재 목록 완성
- 2019년 2월 이진숙 위원이 백학산석각 조사 제안
- 353년 왕희지의 난정수계와 장단도호부, 향교에 관한 의견 제시
- 諸문제로 인해 조사 지연되어 기타지역 우선 조사

- 2019년 4월 민태승 고문의 안내로 정자리대봉 확인(국립문화재연구소보고서에서 미확인)
- 2019년 6-7월 장단 영농인 최견수 부부와 차문성 소장, 조진석 감사, 오순희 연구위원이 이서선정비 위치확인 및 백학산 석각 확인하여 문화원 보고
- 2019년 6-7월 장단지역 허경선정비 확인보고 및 의견서 제출
- 2019년 8월 7일 민통선지역 문화재조사 성과보고 및 전체 답사 실시
- 2019년 11월 중 <파주 민통선 지역 역사문화보고서> 발간회 개최예정

이상으로 조사지역이 제한된 민통선 지역의 답사가 일정 성과를 내었다. 특히 ① 백학산 석각은 총 23개의 석각이 백학산 계곡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석각에 새겨진 명단은 모두 118명이다. 이 곳이 관아와 부속건물이 있었던 곳임은 인근에서 찾은 주초석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② 태봉은 2000년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민통선 제한지역으로 정자리지역은 태봉이 있는 사실만 명기하고 실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④ 이서선정비는 위의 책에 “정자리 96.3m 고지 산 서북쪽 옛 국도변에 아카시아와 참나무 잡목이 무성한 곳에 위치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 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다. ④ 허경선정비는 2019년 4월 정형성 위원이 밭에서 발굴된 것을 문화원에 보고하고, 7월초 마을주민 최견수 영농인이 향토문화연구소에 조사내용을 의뢰하여 의견을 문화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7월말 장마 때 포크레인으로 누군가 길을 내자 흙더미에 파묻혀 유실의 우려가 제기된 바 8월초 장단출장소 망향비 인근에 가져두었다(후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파주민통선지역 역사·문화보고서』는 모두 part 5로 나뉜다. <조사보

□ 파주 민통선 문화재 현황표와 전체지도	
□ 조사보고 I: 파주 장단의 선사와 고려시대 유적	
○ 파주 匠師總族 內 先史文化에 관한 고고학적 일고찰 (박선식)	
○ 고려의 儒風 變遷에 대한 고찰 (김정희)	
○ 공민왕대 지제의 사건과 민통선 석굴의 벽화묘	
- 석굴의 벽화묘의 묘주가 바뀐 경위를 중심으로 - (김진곤)	
□ 조사보고 II: 임진강과 뚝진산성	
○ 동파역 위치비정 및 주변지역 조사 소고(小考) (조진석)	
○ 뚝진산성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조사 (김진희)	
○ 이서정군과 임진강 연구 (부제: 이서선정비와 뚝진성) (오순희)	
□ 조사보고 III: 장단의 역사적 인물	
○ 위준에 관한 역사적 고찰 (정경일)	
○ 시조제자의 소승, 윤순과 이종성의 삶과 일화에 관한 고찰 (이동훈)	
○ 영수원에서의 홍석주 軒主 家門의 삶 이야기 고찰 (정경오)	
○ 사계 김정국의 교육관 연구 (이진숙)	
□ 조사보고 IV: 장단의 역사문화의 근현대 문화재	
○ DMZ 민통선 지역의 근대문화재 현황에 대한 연구 (권혁일)	
○ 장단 匠師總族 內의 匠師文化와 匠師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정문선)	
□ 조사보고 V: 민통선 지역 조사 성과 (협업조사)	
○ 장단 匠師總族 內의 匠師文化에 관한 소고 [파향초 조사결과]	
○ 백학산 석각조사현황	
○ 허경 선정비 조사현황	
○ 이서정군 선정비 조사현황	

고 I: 파주 장단의 선사와 고려시대 유적」에는 3개의 논문이 탑재된다. 「파주 장단의 선사와 고려시대 유적」(박선식)은 장단의 선사유적을 기존 발굴내용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재 조명한 것이다. 「고려의 유신 한수묘에 대한 고찰」(김정희)은 실사를 통해 한수묘 석물의 조사와 한수집안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 「공민왕대 자제위 사건과 민통선 서곡리 벽화묘」(김진곤)는 한상질의 집안과 권준 묘역의 주인 공이 바뀐 경위를 양가 집안의 얽힌 실타래를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서선정비〉

〈조사보고 II: 임진강과 덕진산성〉의 「동파역, 위치비정 및 주변지역 조사소고」(조진석)는 동파역에 관련된 방대한 내용을 기초로 기술되어 추후 동파역 위치비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덕진산성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조사」(김선희)는 기존 발굴과 역사성에 대해 하나씩 검증하고 실사를 통한 조사자의 의견이 들어있다. 「이서장군과 인조반정 연구」(오순희)는 인조반정에 기여한 이서장군에 대한 자료와 이번에 찾은 이서선정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 향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보고 III:

장단의 역사적 인물〉은 「허준에 관한 역사적 고찰」(정경일)이다. 이는 그 동안 허준의 고향과 관직 등에 대한 논란을 연구자의 조사로 쓴 논문이다. 「사도세자의 스승, 윤순과 이종성의 삶과 일화에 관한 고찰」(이동륜)은 현장을 조사한 저자가 장단의 대표적 인물인 윤순과 이종성에 대한 일화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영수암에서의 홍석주·현주 家門의 차 이야기 고찰」(성지오)은 영수암과 홍석주 형제의 차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로 홍석주의 묘소는 찾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군부대 안에 있는 홍상한의 묘를 찾게 된다. 「사재 김정국의 교육관 연구」(이진숙)는 모재 김안국의 묘, 사재 김정국의 묘가 장단에 있어 이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조사보고 IV: 장단의 역사·문화와 근·현대 문화재〉는 「DMZ·민통선 지역의 근대문화재 현황에 대한 연구」(권혁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역사란 일정한 시기의 과거만이 아니라 연속성에 있는 근대의 문화재를 다룬 것이다. 「장단 백학산 石刻의 雅會文化와 蘭亭修禊와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차문성)은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백학산 석각의 가치에 대해 총체적인 조명을 한 것이다. 〈조사보고 V: 민통선 지역 조사 성과〉는 앞서 언급한 조사 중 발견, 확인한 민통선조사 성과로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부기한다.

1) 이서장군 선정비 조사현황

① 이서장군선정비에 관한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록(2000)⁸⁾:

“이서장군 선정비의 위치는 정자리 96.3m 고지 산 서북쪽 옛 국도변에 아카시아와 참나무 잡목이 무성한 곳에 위치한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93cm, 너비 70cm, 두께 22cm 대석은 대부분 땅속에 묻혀 있다. 비신 전면에는 ‘兼防禦使李公 曙善政碑, 德被萬民 功滿一國’ 뒷면에는 ‘天啓4年 3月

8) 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0.

日 立'으로 적혀 있어 이 선정비는 이서가 장단부사 겸 경기 방어사를 지낸 후인 1624년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

② 발견 및 확인경위

- 이서장군선정비는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민통선지역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이전 육군박물관 조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위치지점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흑백사진으로만 남아 있어 이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 민통선 1, 2차 조사과정에서도 문화재연구소의 자료만으로 찾지 못했지만 2019-06-26일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 감사 및 연구위원인 조진석, 연구위원 오순희 3명이 최견수 영농인을 만나 이서선정비를 현 위치에서 찾게 되었다.
- 소재지: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산57-2 서남향끝자락(개울건너 길가 숲 5m 안쪽)

③ 선정비주: 李曙

- 생몰연대 : 1580-1637. 완풍부원군이며 자는 寅叔, 호는 月峰, 시호는 忠定이다.
- 선정비 입비 : 天啓4年 3月 인조2년 (1624년)
- 무과 급제하여 장단부사 겸 경기방어사 : 1623년 장단부사로 반정한 이후 호조판서가 됨.
- 효종 2년 1651년 시호를 내림. (효종실록 1651년 6월 29일)
- 연려실기술에 인조의 훈신으로 기록되어 있다.“이서의 자는 인숙(寅叔)이며, 효령대군(孝寧大君)의 7대손이다. 경진년에 났으며 제주 목사 정록(慶祿)의 아들이다. 계묘년에 문과에 올라 가선대부 · 장단 부사(長端府使)로서, 1등 정사공신이 되어 단계를 뛰어넘어 호조 판서를 제수하였으며,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 경기 감사가 되었다. 정축년 1월, 남한산성에서 죽었는데 나이가 58세였다. 남한산성에 있는 백제 시조 온조(溫祚)의 사당(송렬전)에 배(配)하였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며 인조묘정에 배향되었다.” 고 되어 있다.
- 인조실록 줄기
완풍 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군중(軍中)에서 죽었다. 상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였는데 곡성이 밖에까지 들렸다. 의복과 명주를 하사하여 염습하게 하고 7일 동안 소선(素膳)하였으며, 도성에 돌아온 뒤에는 빈소를 그 집안에 들이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이서는 효령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후손이다. 무과로 진출하였는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지조가 있었다. 광해군 때 인목 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는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반정(反正) 때에는 장단 부사(長端府使)로서 관군을 규합 통솔하여 상을 받들어 내란을 평정함으로써 상

훈(上勳)에 기록되었다. 경기 감사·판의금부사·호조 판서·병조 판서·형조 판서·공조 판서를 역임하면서 강명(剛明)하고 부지런하게 마음을 다해 봉직하였는데, 까다롭고 잔단 결함이 있어 이익을 늘이려 하다가 원망을 샀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 산성의 역사를 감독하여 완성시키고 군자(軍資)와 기계(器械)를 구비하지 않음이 없어 마침내는 대가가 머물면서 의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였다. 영의정에 추증하고 특별히 온왕묘(溫王廟)를 세워 이서를 배향(配享)하도록 명하였다.

④ 선정비 내용

- 전면: ‘兼防禦使李公曙善政碑, 德被萬民 功滿一國’

장단부사 겸 방어사 이서선정비, “덕은 만민을 덮고 공은 일국에 가득찬다.”

- 후면: ‘天啓4年 3月 日 立’ (1624년 입비됨·반정 다음 해 입비)
- 입비사유: 입비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1623년 초 장단부사로서 인조반정때 1등 정사공신의 반열에 오른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또한 1623년 3월 장단부사(종3품)에서 정2품인 호조판서로 고속 영전하자 선정비 논의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영서역에서 김류, 이귀, 이괄의 부대에 이서가 합류하지 않았다면 거사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웠다. 실록에서는 거사 후 “김류 이귀와 함께 의거를 공모할 때 장단의 임지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군사들이 크게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靖社의 공로에 크게 기여하였다.”⁹⁾고 되어 있다. 당시 덕진산성을 수축한다는 명분아래 이서의 군사조련은 다른 부대보다 남달라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던 이유도 있었다. 선정비에 새겨진 “덕피만민, 공만일국”이란 명문은 이런 이유 외 붙이기 힘든 문구다.

아래 사례1)에서는 장단부사(종3품) 이서가 반정 후 1등 정사공신으로 호조판서(정2품)가 되고 사례2)에서는 그 해 말 특진관이 되어 장단을 주요한 도호부로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례3)에서는 인조2년 (1624) 1월 경기감사가 되어 그 해 말 실질적인 경기 군권을 장악하는 총융사가 된다.

따라서 1624년 2월 건립한 선정비는 위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사공신이자 경기감사로의 영전을 축하하는 공덕비의 성격이 강하다.

9) 『인조실록』, 인조1년 3월 17일.

· 사례1 :

상이 친병(親兵)을 거느리고 나아가 연서역(延曙驛)에 이르러서 이서(李曙)의 군사를 맞았는데, 사람들은 연서를 기이한 참지(識地)로 여겼다. 장단의 군사가 7백여 명이며 김류·이귀·심기원·최명길·김자점·송영망(宋英望)·신경유(申景裕) 등이 거느린 군사가 또한 6~7백여 명이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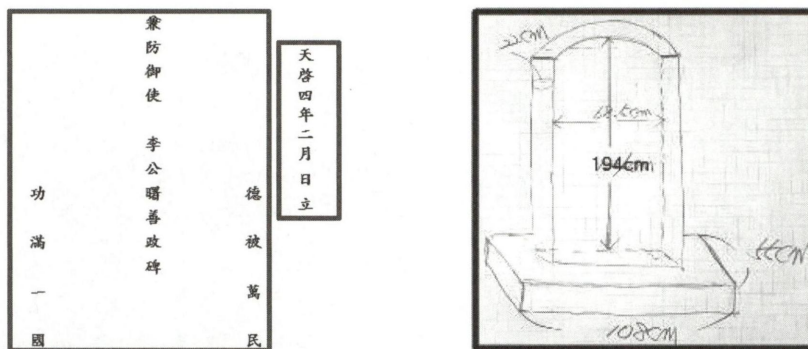
· 사례2 :

장연 특진관으로 임명되어 군사관련한 조언을 한다. 특히 장단의 군사를 조련하여 위급할 때 사용토록 건의하고 요역을 면제시킬 것을 요청하나 인조는 왕도를 들어 시급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다.¹¹⁾

· 사례3 :

인조2년 11월 9일: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가 경기 군사를 점열(點閱)한 뒤에 복명하였다. “장단(長湍)에 소속된 6개 고을은 정군(正軍)이 5백 65명, 속오(東伍)가 1천 5백 41명, 별대 마군(別隊馬軍)이 3백 15명이고, 양주(楊州)에 소속된 7개 고을은 정군이 3백 8명, 속오가 1천 2백 92명, 별대 마군이 1백 84명인데, 나누어 4부(部)로 만든 뒤 각부의 천총(千摠)·파총(把摠) 이하에게 대기수(大旗手)와 취고수(吹鼓手)를 일일이 차출하여 보충시켰습니다.”¹²⁾

⑤ 이서 선정비의 현황



〈이서선정비 전, 후면(1624년 2월 입비)/이서선정비 도면(조진석 감사 작성)〉

10) 앞의 책, 인조1년 3월13일.

11) 앞의 책, 인조1년 7월12일.

12) 앞의 책, 인조2년 11월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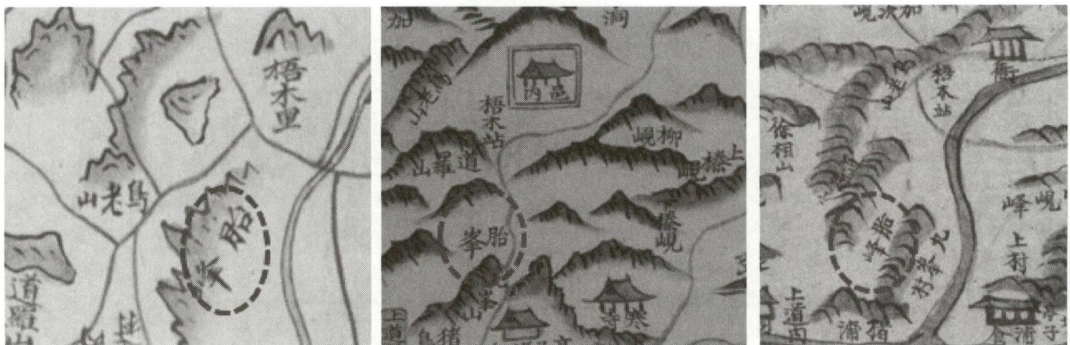
- 형태상으로는 원수방부의 형태로 17-18세기의 일반적인 선정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碑身高가 193cm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하다. 파주에 있는 신도비 중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 당시 유행하던 ‘淸德’, ‘愛民’의 추기명문보다 ‘善政碑’란 간단한 비제를 쓰고, ‘德被萬民, 功滿一國’이란 명문을 넣어 1등 정사공신의 공덕비임을 나타낸다. 명문 및 입비일자를 고려할 때 입비내용은 정사공신과 경기감사 영전을 축하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비문의 글자 훼손이 없이 보존상태가 극히 좋다.
- 이 길은 의주로의 옛길로 비석의 위치는 대로상의 원래 위치로 보인다.
- 선정비에 ‘德被萬民 功滿一國’을 기재하여 “덕은 만민을 덮고 공은 일국에 가득하다”고 적어 최고의 상찬에 해당되는 글이다.

2) 정자리 胎室 현황조사

① 정자리태실에 관한 문화재연구소의 기록

“정자리 태봉은 옛날부터 태봉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해동지도〉(장단부)에 백련촌, 현재 군 내면 백련리에 태봉을 표시하였는데 정자리태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시 이곳은 민 통선 이북으로서 태실과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찾지 못했다.”¹³⁾

② 정자리태실에 대한 고지도



〈① 〈해동지도〉 ② 〈광여도〉 ③ 〈지승〉의 장단부에 표시된 胎室〉

13)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000, p.260.



〈정자리태실비 ① 전면, ② 후면, ③ 측면 (대석은 토사에 묻혀 있으나 高 120cm 전후)〉

〈해동지도〉(1750년 경)에는 오목리와 백련촌 사이에 태봉이 위치하고 그 앞에는 수내천이 임진강과 연결된다. 〈광여도〉(1800년 전후) 역시 수내천을 따라 도라산과 구봉촌 사이에 태봉이 위치하고 〈地乘〉(1776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된다. 즉 표시된 위치는 3지도 모두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918년 〈대정7년지도〉에서도 정자리가 아닌 백연리로 표시가 되어 당시 이곳의 지명은 백연리로 판단되지만 현재는 정자리다. 따라서 18세기 제작된 지도에서 이미 태봉이 표기되었다면 태봉의 조성 시기는 적어도 영조 이전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발견 및 확인경위

- 2019-03-02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의 민통선 본 조사 때 민태승고문님의 안내로 정자리태봉과 이종성 제택에 감. 당시 민태승 고문님도 당시 확인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 할 정도로 이곳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곳임. 2000년 문화재연구소에서도 당시 정자리태봉이 군사지역이라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원경으로 태봉산만 찍었던 곳임.
- 소재지: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 67번지 정상부

④ 태비의 상태 및 내용

- 태비의 상태가 좋지않아 완전한 판독은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일부 글자는 판독가능하다.
- 전면에는, “□□王子玉良? 阿只氏 胎室”
- 후면에는, “□治(?)六(?)年 □□初八日 立”
- □과 (?) 표시에 있어, ‘□’ 육안 판독불가. ‘(?)’ 정확한 판독은 어려움을 나타낸다.
- 태비의 규모와 형태를 볼 때 규수방부형으로 조선전기로 추정함.
- 이는 조선 영조 때의 고지도에 태봉이 기재되어 있지만 태주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조선전기의 왕자가 유력함.

- 전면글자 ①에서 □□ 다음 글자는 '王' 혹은 '主'로 보였으나 2019-07-09 재조사 때 '王子'로 확인됨. 다음 글은 '王良', '主良', '玉良'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독은 어렵다. ②에서 '阿'는 불분명하나 '只'가 보이고, ③에서 '室'이 확인되어 '阿只氏胎室'이 분명하다. 후면은 더욱 불분명하다.
- 태비의 장태지가 폭 꺼진 상태라 도굴이 된 것으로 보이거나 추후 정확한 발굴을 통해 남아있는 태실구조와 유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⑤ 태비 현황 및 의의

- 정자리태실의 태주는 조선전기의 왕자라는 점이다.
- 태실의 원형 및 태실구조를 알 수 있는 점이다. 태비는 지상에 노출되었으나 현재 태비 안쪽의 태실구조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발굴을 통해 胎誌와 태향아리 확인이 요구된다. 일제강점기에 태실의 이안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도굴이 성행한 바 태실구조 외에 유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그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기에 유물의 잔존여부가 기대되는 바다. 현재 장태지가 폭 꺼진 상태로 있어 도굴이 의심된다.

3) 발견된 허경선정비 현황



〈허경의 '청덕애민선정비'의 전·후면〉

① 발견 및 확인경위

- 최초발견 및 제보 : 군내면 읍내리에서 영농인 조득하씨가 밭을 일구다 이를 발견하여 정현호 위원에 제보.(신문기사에 의하면 조득하씨는 밭을 일구다 발견하여, 현재 위치에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발견지가 과거 장단경찰서 부지였던 것으로 말한다.)
- 이후 문화원에 본건 제보
- 영농인 최건수(2019-6-28)가 본 건 관련하여 향토문화연구소에 제보했으며 문화재 연대 및 관독요청 함.
-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본 건 논의 중 정현호 위원이 양천허씨 족보 자료 제공

② 선정비주: 허경(許穎) / 호 경오(耿悟), 빙호(氷湖)

- 생몰연대 : 효종 1년 1650(경인년) - 숙종 46년 1720(경자년)
- 선정비 입비 : 갑오년 3월 입비(1714년)
- 허경 장단부사 근무기간 : 1707-1708
- 승정원일기 숙종 33년(1707) 7월 11일 기사를 볼 때 1707년 장단부사로 되었다가 1708년 물러났다.
“以許穎爲長湍府使, 劉大義爲彥陽縣監, 行副護軍柳漢明今加嘉義”。吏曹謄錄
-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8월 2일 下直, 長湍府使許穎, 加平郡守李堦, 英陽縣監李宜相, 盈德縣令曹夏奇. 따라서 1707년 8월 2일 하직을 고하고 장단으로 내려감.

③ 선정비 내용

- 전면 : 行府使許公穎 淸德愛民善政碑
- 후면 : 甲午三月 日 立 (갑오년 1714)
- 입비사유 : 당초 세금감면 등의 이유로 비석을 입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707-1708년에 허경이 부사로 근무시 장단에서 세금감면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비변사등록』 <숙종34년 10월(1708) 1일> 기록에 총융청 소속 수원, 남양, 장단은 흉년으로 인해 거진인 수원만 훈련을 하고 장단과 남양은 이미 중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당시 장단부사가 흉년과 관련한 군역의 예외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조2년 11월 9일, 총융사(摠戎使) 이서(李曙)가 복명한 기록에 의하면, 長湍에 소속된 6개 고을은 정군(正軍)이 5백 65명, 속오(束伍)가 1천 5백 41명, 별대 마군(別隊馬軍)이 3백 15명으

로 적지 않은 인원이 있었다.)¹⁴⁾

· 사례1 :

기보(畿輔)의 삼진(三鎭)은 수원(水原)·남양(南陽)·장단(長湍)인데 수원은 본래부터 독진(獨鎭)이라서 취합(聚合)이 본 고을 백성에 불과하고, 남양과 장단은 관하에 몇 고을이 있기는 하지만 멀다 해야 60~70리에 지나지 아니하니 하루는 조련하고 하루는 시사(試射)·시방(試放)을 하기로 하면 오고 가는 날까지 합하여 4일에 불과하고 4일의 식량은 1두(斗)면 족합니다. 병사(兵使)가 순회하면서 조련시킨다면 열읍에서 접대해야 하고 군병이 여러 날을 대기해야 하니 폐가 되겠지마는 각 영장으로 하여금 군병을 취합하고 점열과 조련을 시키게 한다면 그리 큰 폐단에는 이르지 않고 군정에 도움 됨은 큰 것입니다. 근년의 일로 말하자면 흥년이 겹쳐 군정을 항상 폐하다시피 하였으니 군병을 조련시킬 날이 없어 앞으로 쓸모없는 군사가 될 것입니다. 병사가 순회하면서 조련시키는 일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 영장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한다면 이는 며칠 사이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변사등록 숙종 34년 1708년 09월20일(음))

· 사례2 :

“지난번 경기감사 이언강(李彦綱)이 총융청(摠戎廳)의 3영(營 : 남양·수원·장단) 군병의 점열(點閱)을 중지하기를 장청(狀請)하여 비국의 복계에서 이미 중지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총융사 김중기(金重器)가 탐전에서 진달하여 다시 품처하라는 명이 계셨습니다. 감사는 흥년에 점열(點閱)하는 폐단을 염려하여 이렇듯 장계가 있었고, 총융사는 군정(軍政)이 폐추(廢墜)할까봐 기어코 점열을 하려 하여 피차간에 진청(陳請)이 있게 된 것이니 모두 소견이 있다 하겠습니다. 신이 지난번 수원부사(水原府使) 나홍좌(羅弘佐)의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이 전(前) 부사(府使) 윤취상(尹就商)이 재직시에 도고(逃故)를 보충하고 일제히 단속(團束 : 편대구성)하였으니 한번의 점열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렇듯 흥년이 들었으니 다 모이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원만은 점열을 하여 군병의 조잔하고 건실함을 보고 향오(行伍)의 배열(排列)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전연 폐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옵니다.” (비변사등록 : 숙종 34년 1708년 10월01일(음))

14) 『인조실록』, 인조2년 11월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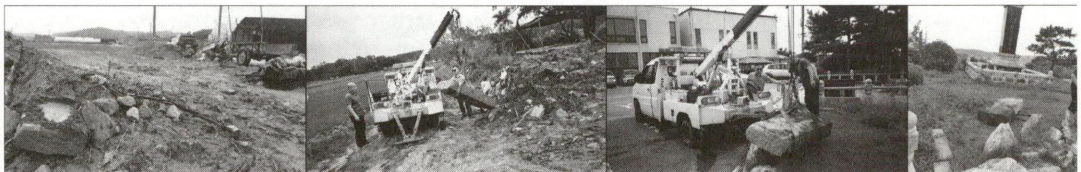
· 사례3 :

備邊司啓曰, 上年還上捧未捧各道狀啓, 今纔畢到, 而海西·關東兩道, 則依事目準捧, 今無可論, 還上居末, 仁川府使鄭來祥, 軍餉居末, 長湍前府使許頴, 俱經從二品職, 依例罷職,(승정원일기: 숙종35년 6월 29일)

“비변사 계, 해서 관동 양도는 사목규정에 의거했으니 논할 바 없다. 환상거말 인천부사 정래상, 군향거말 장단전부사 허경은 종2품직을 거쳤는데 전례에 의거 파직”하는 논의.

(이 내용으로 봐서 흥년으로 인한 군향, 군정의 실정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1709년의 승정원 일기에 장단前부사로 거명된 바 1708년에 체직한 것으로 보인다. 1712년에는 창성부사에서 개차되었다.)

④ 양천허씨 족보 해설 요약



〈발견 후 넘어진 것을 문화원에서 임시조치하여 장단출장소로 이전(사진 문화원 및 연구위원 제공)〉

허경의 호는 경오, 빙호며 효종 경인년 1650년 생, 1720년 경자년 졸이다. 을묘 생원 筮仕奉事 했으며, 신유년 문과 급제하여 삼사를 거쳐 동벽에 이름(홍문관 응교)을 올린다. 동경윤(경주 부윤)을 거쳐 무자년(1708)에 장단부사가 된다. 허경이 장단부사로 있을 때 문경공(허공/ 판문점 인근)묘를 개사(사초)하면서 지석을 발견하여 표석을 세우게 된다. 읍에 허경의 愛碑(선정비)가 남아 있으며 기해년에 가선대부가 되고 경자년(1720) 정월 14일 졸한다. 유고가 있다. 부인은 광주이씨로 경인년(1650년) 출생, 경술년 졸(1670/혹은 1730)했으며 자식이 없어 형제 허의의 아들을 양자로 입적함. (양자) 병신년 1718 생 허우.

⑤ 허경 선정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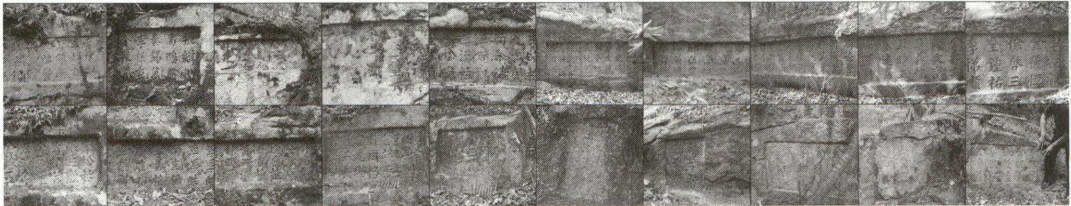
- 형태상으로는 원수방부의 형태로 18세기의 일반적인 선정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청덕애민선정비”로 되어 있는 바 당시 유행한 비제로 본다.
- 측면이 마멸되고 약간씩 부서진 흔적이 있지만 비석의 전면과 후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태가 양호하다.
- 비석이 애초 넘어질 때 앞으로 넘어져 전면은 흙이 묻어 있는 상태며 후면은 원형의 석재 재

질이 잘 나타나 있다.

- 선정비의 경우 비석을 세운 원인을 기재하곤 하지만 이 선정비에는 입비의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4) 백학산 계류 석각 현황조사

장단 백학산 계류 석각 23개(2019-07-09 본인 촬영)



〈23곳 백학산 계류 석각 중 20곳 명단(18개에 113명의 성명이 있으며, 이중 2개 석각은 沒字임)〉



〈23개 백학산 계류 석각 중 3곳 장소명 석각(구유암, 영회대, 아양대)〉

백학산 계류석각은 추념 및 장구지소(杖屨之所) 문화의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람이 갈 수 없었던 인적이 드문 민통선 내의 백학산 계곡에 이 같은 조선 사대부들의 계모임(契會)이 있었던 사실은 알려진 바 없다. 110여명의 이름이 총 23개의 석각에 새겨진 것은 유례가 없는 상태다. 이것을 최초 발견한 사람은 류명삼 대표다. 몇몇 문화 활동가에게 본 사실을 알렸지만 고증을 이뤄지지 않아 석각의 목적이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는 2019년 파주시의회의 지원으로 민통선 지역의 문화재와 생태를 연구하면서 이진숙 위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곳을 조사하게 되었다. 왕희지의 난정수계 재현지임을 확인했지만 이후 사정상 조사가 중단되었다. 2019년 7월 9일 최견수 영농인과 함께 차문성 소장, 조진석 감사가 석각의 위치와 전모를 확인한 바 파주문화원에 알리게 되었다.

백학산 계류석각은 『경기읍지』(1871년 간행)의 원문에서 유람문화(이제현 팔영시)를 확인한 바 있지만 조선후기 지역계, 동관계 등 많은 계회가 주도된 바 이 역시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장단도 호부와 향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백학산은 장단부의 주산으로 계류 석각과는 불과 1-2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53년(추정) 삼월삼일에 있었던 이 행사는 삼월

삼진날의 세시풍속에서 기원했지만 석각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353년 동진 왕희지의 난정기와 고려말 익재 이제현의 송도팔경에서 석각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현은 안향과 더불어 조선에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전수한 인물이며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삼월 삼진날의 세시풍속에서 석각을 한 것은 일반적 세시풍속을 넘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23곳의 석각이 4개의 장소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가 바로 구유암(龜遊岩)지역인데 맨 위에 있다. 횡으로 써진 구유암의 좌측 편에는 ‘癸丑暮春’이 있어 바로 난정을 시사한다. 이 일대에는 구유암이란 명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석각이 새겨져 있다. 두 번째 지역은 여러 이름이 보다 넓게 새겨져 있는데 이 역시 양쪽에 있다. 세 번째 영회대(永會臺)는 세로로 써져 있고 측면에는 ‘歲在 癸丑’이 쓰여 있다. 아래 글씨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맨 아래 아양대(峨洋臺)에는 간지가 적혀 있지 않다. 이 석각이 새겨진 장소에 해답이 있다. 여기서의 ‘癸丑 暮春’은 1853년 혹은 1793년 3월3일을 말함이다. 바로 왕희지가 353년에서 난정서를 적은 바로 그 날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 최영성 교수는 아직 연구의 단계지만 무려 1,500년이 지난 뒤 이 날을 추념하기 위해 유생들이 모인 것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구유암 외 영회대는 글자의 의미대로 영원히 모임을 지속하자는 뜻도 있지만, 353년 계축년 즉 ‘영화구년지회’의 줄임말로 바로 난정서의 추념에 본뜻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① 발견경위 및 확인

- 파주향토문화연구소의 2019년 2월 민통선 사업 회의때 이진숙 위원이 제안
- 최초 발견자 류명삼 대표 접촉 및 류병기 위원 사진제공
- 353년 왕희지의 난정수계와 장단도호부, 향교에 관한 의견 제시
- 경기일보 기사 이후 추가 확인 중단
- 2019년 7월 9일 장단 영농인 최견수님과 함께 차문성 소장, 조진석 감사가 백학산 석각 확인하여 문화원에 동 사항 보고
- 2019년 8월 6일 파주문화원 관계자 및 향토문화연구소 위원의 조사 성과 답사실시

② 백학산 석각 위치

- 군내면 읍내리 산 142-3 (서문중묘 주차 : 읍내리 산 141)

③ 석각 내용

- 계류주변의 석각은 모두 4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총 23개의 석각이 있다.

- 확인된 석각 중 〈구유암〉, 〈영회대〉, 〈아양대〉는 시회 및 계회를 시사하고 있다. 〈龜遊巖〉과 〈永會臺〉에는 “癸丑 暮春”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왕회지의 난정서 재현을 보다 직접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계축년은 아주 특별한 해로 1793년 계축 모춘 상조회가 정조의 주관 하에 발족된 해라 〈구유암〉의 각석도 1793년/1853년 경에 새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구유암과 영회대는 1793년과 1853년 각각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재검토)
- 석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이 준비 중에 있지만 장단향교와 장단도호부 관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난정회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유행한 모임으로 시회를 넘어 계회의 관계를 맺어주며 당파 간 속난정회로 까지 번지게 된다.

· 사례1 :

“고려에서는 당 나라의 법을 본받아 3월 3일, 9월 9일을 영절로 정하고 문무 대소 관원들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대로 즐기게 했는데, 3월 3일은 들판에서 놀아 이를 답청이라 했고, 9월 9일은 산에 올라登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태평성 세의 모습이 당송보다 뛰어나고 태평을 즐겨 하기에 알맞은 때이니 엮드려 바라건 대, 성상께서 밝게 살피소서..”¹⁵⁾

· 사례2 :

정조는 계축년 모춘을 맞아 왕회지의 난정수계를 본 따 봄맞이 놀이를 했는데 이 때인 1793년 계축년 3월(모춘: 3월3일)은 왕회지의 난정수계가 열린지 1,400여년이 되는 계축년이라 그 의미가 남달랐다. 내원의 옥류천이 굽이도는 곳에 술과 음식을 내리고 물가에 앉아 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게 했는데 이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는 ‘유상곡수’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옥류천 주변에 앉아 시부와 사언, 오언을 짓는 계회였다.

④ 의의

- 장소성 : 이것의 기원은 진나라 왕회지가 난정서에 적은 내용과 같이 계축년 모춘에 모임을 가진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월삼짇날로 세시풍속이 이어지다가 익재 이제현의 송도팔경에게 장소적 유래가 시작된다. 익재 이제현의 송도팔경 중 백악청천(장단지, 경기읍지), 웅천계음이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장단향교와 관아가 인근에 있다.
- 이유1 : 왕회지의 난정기가 353년 계축년 모춘에 이뤄졌는데 석각 역시 “계축모춘” 즉 1793년

15) 『세종실록』 11년.

혹은 1853년으로 추정된다. 바로 난정서가 만들어진 1500년 기념일이 바로 1853년 모춘이다. 이 날은 추념과 세시풍속으로 뭔가가 필요한데 유자들의 이름을 석각에 기록했을 것이다. 영화대는 동진 영화 9년으로 추정한다. 즉 영화대는 ‘영화 9년지회’를 줄인 말로 판단된다. 이는 영화9년이란 연도적 의미 외에 축석루의 금란지계와 같이 영원히 모임을 지속하자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 이유2 : 축석루에서 금란계를 만들 때 난정지회를 본 따 그 수와 인물, 목적을 만든 바 있다. 당시 난정에서는 42명이나 꼭 숫자가 부합되지는 않는다. 모임의 목적은 난정서에 나오는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또한 모임의 계원은 관직의 높고 낮음, 나이가 젊고 많음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난정모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장단을 기준으로 볼 때, 장단을 낙양으로 누정을 난정으로 간주하면서 모임의 당위성과 목적을 나타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은 이 계류가 바로 난정수계와 같이 장단향교와 관아와 인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선 초부터 난정수계의 모임은 그 본연의 뜻 보다는 하나의 아집과 아회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IV. 경기 지역 역사·문화 연계와 릴레이답사

1. 지역문화재 활용방안

지방문화원의 사업영역은 향토사료 조사 및 보존사업, 축제, 문화예술행사,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향토사료수집 및 향토문화 발굴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들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설립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 문화, 민속 등 향토문화 전반에 걸쳐 자료조사, 수집, 기록 및 자료관리 등 향토문화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향토문화발굴과 보존, 개발에 기여한 바가 크다.¹⁶⁾

향토문화 활동의 형태는 크게 역사사료 조사와 연구, 그리고 수집과 보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연구는 활용과 공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향토유적을 조사하고 정비할 때 연구자의 의견과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체계적인 발굴과 정비에 도움이 되

16) 장중현, 「지방문화원활성화 방안」, 호남대학교, 2001, pp.44-45.

지만 이러한 연계는 거의 없다. 파산서원 옆인 우계서실비 앞에 화물주차지가 들어서서 것조차 연구논문이 도외시 되었다.¹⁷⁾

물론 연구자는 보존의식에 충만하고, 정비보수주체는 복원과 활용에 주안점이 있는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와 이를 활용하는 보수정비와의 연계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발굴과 종합정비계획에 직간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외부의 지도위원과 다르지 않다. 전문적인 의견외에도 지속적인 연구, 보존, 활용하는 주체가 지역민이란 점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한데, 첫째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향토자료실을 운영하거나 향토자료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연구의 오프라인장소가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자료의 발표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해설사와의 공유를 통해 이를 알리고 언론을 통해 중요 사례가 시민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진정성과 완전성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¹⁸⁾ 이는 문화재의 물리적 상태유지 외 주변공간, 의미를 형성시키는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재해석된다. 작금에 진행되는 문화재보존, 유지정책은 유지라는 명목아래 ‘진정성’과 ‘완전성’은 서서히 해체되는 지경에 이른다. 관내 문화재를 예를 들면, 파주장릉의 경우 여러 차례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안향청의 보수시 그 원형은 짐작조차 못하게 변형되었고, 정자각 아래 판위는 박석을 전돌로 대체한 잘못된 보수를 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는 연구자의 민원으로 원형조치) 파주 보광사의 경우, 전면 보수작업이 진행되면서 400년 된 24개의 명문망와 중 현재는 8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웅전에 보관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문화재의 보존이라기보다 소극적인 문화재 보전¹⁹⁾으로 적어도 이러한 해체과정을 소개해 문화재 보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유산등재기준에서 제시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진정성과 완전성”이란 요건은 문화재 복원과 활용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17) 김요섭, 《‘파산서원’ 옆 화물트럭 차고지 허용 논란》, 경기일보(2019년 8월 7일).

18)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9) 『문화재표준시방서』(문화재청, 2014)에서 제시하는 교체, 대체보강은 3가지의 경우인데,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중 현재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다. 적어도 문화관광이란 측면에서는 모든 유산이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관람객과 유물, 유적이 공감하는 장치는 바로 스토리텔링의 유무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향토문화연구자들은 추구해야 할 일인 것이다.

2) 일본 오타루의 사례

일본의 경제규제 이전 삿포로는 가장 매력적인 해외 관광지중 하나였다. 몇 해 전 가족과 이곳 여행을 다녀온 후 오타루의 운하는 사라질 위기에서 새롭게 공감을 이끈 장소란 걸 알게 되었다. 오타루의 경우, 인구는 불과 15만 명 안팎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왜 일까. 오타루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오타루운하와 오르골성당인데 애초 오타루 운하는 어선의 하역을 위해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시설이며 부수적으로 당시 만들어진 창고가 많다. 오타루의 창고는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뒤로 펼쳐져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다. 오타루가 19세기 말부터 운하시설의 전성기를 지나 도시의 연결이 철도 중심으로 바뀌자 그 활로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산업의 쇠퇴,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이 진행되자 운하를 매립해 도로화 하자는 논의가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1970년대 ‘오타루 운하를 지키는 모임’이란 시민운동을 기초하여 운하와 석조창고군을 재생시키기 위한 각종 플랜이 만들어지며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 결국 1980년대 창고주와의 타협이 타결되면서 일부 지역의 매립만 이뤄지면서 지금의 오타루가 탄생된다.²⁰⁾

오타루운하 주변에 가스등을 만들면서 문화도시의 재정비가 이뤄진다. 오르골성당과 유리공예는 원래 이 지역의 특산물이나 고유기술이 아니다. 문화관광을 상업화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지금은 낭만적인 근대도시의 풍경과 적절히 이뤄져 관광유발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러브레터’란 영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사랑하는 이즈키의 죽음을 찾아가는 히로코의 순례의 길은 스키장 텐구야마(天狗山)에서의 “오겐키데스카”라는 말과 함께 오타루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관광에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이란 것은 문화자원의 양과 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진정성과 완전성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자하는 것을 상상한다. ‘녹슨 철도와 기차’, 갓길 눈더미에 ‘촛불’이 있는 설국, 영화가 녹아 있는 ‘스키장’, ‘바다’, ‘가스등’, ‘운하’ 그리고 변형된 ‘근대역사건물’, 고풍스런 ‘식당’, ‘오르골성당’, 그리고 ‘르타오’ 치즈케익 이러한 것은 바로 오타루의 일루전을 만들게 되고 유한한 문화유

20) 문휘운, 「도시관광과 명소화 전략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획기준 및 우선순위 연구」, 광운대 박사, pp.70-71.

산을 활용하여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만든다.

따라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유산이나 프로로마노, 이스탄불의 보스포로스 같은 세계적인 유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실제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드라마 <도깨비>와 <호텔 델로나>같은 경우 한국의 설화와 귀신의 사례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든 성공적인 예이다. 바로 문화관광에서도 기존의 관광콘텐츠를 분석하고 활용하면 도시재생을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광명 동굴>과 같은 것에서 엿 볼 수 있다.

2. 릴레이 문화탐방 제시

옛날 선인들은 자신의 고향보다는 문중과 학연을 더욱 중시했다. 태어난 고향을 자신의 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가문과 공적이 있는 신도비 등에는 학연과 가문에 대한 언급이 더욱 많다. 이런 점에서 형제간에도 본가의 선산에 선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처가와외의 인연으로 선영이 조성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학연으로 인해 신도비 영역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 문화재는 한 지역만의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지역이 어우러져 스토리텔링이 연계된다.

- ① 남한산성을 축성한 이서묘역이 남한산성 영내에 있지만 그의 선정비는 파주 장단지역에 있다. 이서의 인물을 논할 때 그의 장단부사시절 인조반정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남한산성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다.
- ② 파주 우계성혼과 울곡의 묘역을 다룰 때 김장생, 김상헌, 김상용을 뺄 수 없으며, 퇴계 이황과의 인연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퇴계 이황의 묘갈은 찬서를 한 경우가 집안과 문인 외에는 별로 없지만 파주에 있는 청송 성수침 묘갈에 대규모의 비석이 세워진 것은 특별한 일이다. 당시 노소론의 거유들이 참석한 것만 보더라도 퇴계와 청송, 우계, 울곡이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이러한 것은 한 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끈끈히 이어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간 관내의 문화재에만 집중하던 것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조사,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 ③ 파주의 민통선 조사를 예로 들었지만 연천, 강화, 김포, 포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고성 역시 민통선이 있다. 그러므로 관내가 아니라 스토리를 따라 사업이 연계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적하는 ‘릴레이 탐방’은 보다 복합적이며 계획적이어야 한다. 첫째, 경기

도의 역사문화권역을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본다. “허목의 주술기행과 감악산”(연천/파주), “인조반정과 남한산성”(파주/서울/광주/포천(김상헌)/청주(최명길)), 효제 문화와 석물(파주소령원/수길원/수원용건릉) 등 큰 주제를 가지고 다시 소주제로 분류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접경지역에서 접경지역으로 인계하여 해당 시군과 문화원해설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안내, 설명, 해설할 수 있는 인문학강사(해당 연구자)의 동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에서 진일보한 총체적인 역사, 문화를 설명해야 릴레이 답사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무형문화재를 적극 활용하여 2박 3일 답사에 농요 등 교육프로그램을 삽입해 행사와 전수에서 답사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방학 때 청소년, 노년, 외국인 등 특별한 타깃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답사를 구성한다. 이러한 것은 문화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시도와 문화재청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릴레이문화탐방’은 앞서 말한바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대상자들의 국내탐방에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역사문화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있으며 무엇보다 관내를 뛰어넘는 도내의 복합 문화 활용에 기반을 뒀다.

V. 맺음말

지역의 향토문화연구와 수집, 보존의 기능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조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이 이어진다.

첫째, 향토자료관의 건립과 시립박물관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연구자들의 연구 폭이 집중, 확장되어야 한다. 일부 문화원에는 향토연구위원들의 연구 활동이 보장되는 사무실과 서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화원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논의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원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원과 시에서는 발굴과 정비계획을 공유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향토사 연구자들은 점점 향토사학자에서 전문연구자들로 확충되고 있다. 과거 일부 향토사가가 지역연구를 관장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전문가로서 공유하고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도 ‘릴레이 답사프로그램’ 육성이다. 현재 시군의 해설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고정적인 해설에만 집중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물론 시티투어 등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것은 관내 문화관광지역을 소개하는 것이지 새로운 개념의 릴레이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릴레이답사는 몇 개의 주제를 정해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민통선문화재답사. 인조반정과 남한산성, 효제문화, 임진강답사 등은 대표적인 예며 여기에 유교문화, 불교문화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방학을 이용한 투어로 시, 군의 경계지에서 버스가 인계되어 지역의 무형문화재 활용을 곁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내와 관외로 이어지는 답사는 자칫하면 흥미위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문학강사의 동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기도 향토문화연구의 방향성과 활용에 관한 고찰을 파주시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 연구의 폭을 넓히려 했지만 아직은 미진한 점이 너무 많다. 얼마 전 일본의 수출규제와 일본 여행 등 불매운동과 관련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관광이 소도시 각 지역까지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의 ‘디스커버 재팬’ 운동이 주효했다고 말하고 있다.²¹⁾

우리의 경우, 각 지역의 문화재 활용으로 큰 효과를 거뒀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해당된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릴레이답사. 호남릴레이답사, 영남릴레이답사. 호서릴레이 답사의 구체적인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과 향토사연구가 심화되면 ‘디스커버 경기’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며, 나아가 ‘디스커버 코리아’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 믿는다. 진정성과 완전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의 원천콘텐츠는 한정되어 있으나, 이의 활용콘텐츠는 오타루의 사례와 같이 공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21) 서종갑, 《서울경제신문》(2019년 8월 9일).

참고문헌

〈지승〉.

〈해동지도〉.

『세종실록』.

『인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00.

김성진, 「파주운정1지구 7-1 구석기 유적의 조사개보」, 『전통문화연구』 7호, 2008, pp.67-89.

김요섭, 《경기일보》, 2019.08.07.

라홍선, 〈광여도〉.

문화재청, 『문화재표준시방서』

문휘운, 「도시관광과 명소화 전략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획기준 및 우선순위 연구」, 광운대 박사학위논문.

서종갑, 《서울경제신문》, 2019.08.04.

『양천허씨 족보』.

장중현, 「지방문화원활성화 방안」, 호남대학교, 2001.

차문성, 「昭寧園 조성 과정으로 본 祭廳의 활용 방안」, 『박물관학보』 25권, 2013.

차문성, 「인조 舊 長陵의 위치비정과 석물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 44권, 고전번역원, 2014.

차문성, 『박물관학보』 32권, 「조선 중기 우계 성혼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기념관 개선 방향」 한국박물관학회, 2017.

차문성, 『박물관학보』, 「화석정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한국박물관학회, 2018.

파주향토문화연구소, 『파주 임진강 누정문화』, 파주문화원, 2013.

한국문화원연합회, 『제33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집』, 2018.

토지주택박물관 사이트 (<http://museum.lh.or.kr/>)

여 백

양주 향토문화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 창 래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I. 서론

II. 문화원의 태동과 문화원 활성화 시책

III. 양주학 형성과 발전과정

1. 양주군지 편찬과 양주문화원사 신축을 통한 연구 기반구축
2. 양주문화원십년사 발간과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3. 향토문화연구소 설치와 양주향토자료총서의 발간 추진
4. 국내 유일의 역사문화대학 설치
5. 양주학의 태동과 문화원 비전 선포
6. 국가·경기도 지정 4대 무형문화재와 상시 공연체제 구비
7. 문화인식의 저변확대와 양주문화원의 위상 제고
8. 디지털양주문화대전 구축과 양주역사문화 집대성
9. 대모산성의 사적지 지정과 향토문화 복원사업 전개
10. 학술심포지움 개최와 시민 역사의식 고양

IV. 맺는말

집필자

정 창 래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서론

어제의 흔적들은 오늘을 만드는 토양이 되고, 있는 그대로 오늘로 이어져 역사적 산물로 남는다. 역사적 산물이 오늘과 연결 또는 결합되어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

지역학은 지역의 역사와 인물, 지리,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과거를 연구 대상으로 지역의 뿌리를 찾아내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토대위에 지역의 정체성, 미래지향적인 발전비전이나 발전전략을 찾아가는 종합적인 학문이라 하겠다. 미흡하나마 지역학으로서 양주학이 자리 잡기에는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동안 한계 된 영역에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양주학로서의 보편성은 물론 특수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중심에서 종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온 탓으로 독자적인 인식의 한계, 연구 인력의 부족, 방대한 연구과제, 연구자료 수집의 미흡, 연구예산 문제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의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순차적으로 보완, 해결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양주학의 현재적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 지향점을 찾아가는 시도에서 본고는 출발한다.

II. 문화원의 태동과 문화원 활성화 시책

양주학이 정착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문화원이 있었다. 문화원은 1950년대 초에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활동 및 상록수활동을 위한 사설기관으로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초기에는 문화관·공보관·유엔(UN)관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양주문화원도 1961년 3월 5일 기지촌의 외래문화와 향락성 지역 환경을 정화하고 민족정신의 함양, 전통문화의 발굴·보존 및 계승을 목적으로 이담면(현 동두천시)에서 개원하였다. 1962년 1월에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사설기관에서 정부공인기관이 되었다. 1965년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다시 특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1972년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양주문화원은 유명무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987년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¹⁾

1960년대에는 정부시책의 홍보, 향토문화원의 계발, 국제문화교류로 한정되었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통문화의 강조와 함께 향토문화육성을 위하여 문화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1982년에 문화원활성화정책이 다시 펴기 시작되었다.

이때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홍보사업 : 홍보물의 배포, 전시·계도활동, 홍보영화의 상영, 시국강연·강좌 등의 개최.
- ② 문예진흥사업 : 향토문화제의 주관, 문예진흥 일반활동(문학 : 백일장·문학강연·발표회/미술 : 실기대회·강좌·전시회/음악 : 경창대회·경연회/전통예능 : 농악·고전무용·경연회·각종문예서클지도)
- ③ 전통문화선양사업 : 향토전통문화의 발굴·정리·보존, 향토생활 문화자료의 조사·보존, 향토애 및 향토문예진흥의 소식지 발간, 향토사지(郷土史誌)의 편간 또는 편찬대행.
- ④ 도서관사업 : 자체도서관 운영, 공동도서관의 관리대행.
- ⑤ 사회교육활동 : 노인교실 개설, 부녀교실(가족계획·식생활개선 등) 개설, 청소년문화강좌, 문예교습소(서도·미술·음악) 개설, 마을문고 및 독서지도.
- ⑥ 문화복지활동 : 시설의 복지활용(복지오락실), 불우자 직업보도, 이웃돕기 계도.
- ⑦ 국제문화교류활동 : 일본의 사회교육단체 및 공민관과의 교류, 주한 외국문화기관과의 교류 등이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문화원의 사업은 지역별 특색이 강조되면서 문화차별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독특한 지역 문화재가 각 지역별로 발굴, 홍보되었으며, 1980년대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업이 실시되어 각 개인의 자아개발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1) 양주문화원 연혁

1961년 3월 5일 양주군 이담면에 양주문화원으로 개원(초대원장 박춘수)
1981년 6월 30일 이후 유명무실(동두천문화원으로 동두천에서 1985년 명칭변경 동기)
1987년 4월 25일 재창립총회(재창립 초대원장 최병선)
1988년 2월 17일 문화공보부 설립허가
1988년 12월 15일 문화원사 준공식
1996년 7월 9일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2001년 3월 부설 역사문화대학 개설
2002년 1월 16일 양주군 평생학습관(경기도교육감)
2010년 8월 디지털양주문화대전연구소 설치

- ① 홍보사업 : 향토문화홍보물 배부, 문화영화 상영, 전시에 의한 계도, 홍보활동.
- ② 문예진흥사업 : 향토문화제의 주관, 문화교실운영(시조·서예·사군자·수묵화·가정원예·어린이 국악·어린이 서예·한문 등), 작품전시회, 초·중·고생 독후감 공모, 경로효친 사상 선양 글짓기 대회, 위인전기 독후감공모, 걸스카웃트 백일장 대회 등.
- ③ 지역향토문화보존전승 : 세시풍속 재현 및 보존전승, 전통무예재현, 농악기구 보급, 여성농악대 육성, 지명지발간, 민속놀이 재현, 민속예술개발보존전승, 향토문화재 교류출연, 전통혼례재현, 어가행렬 재현, 각종 굿 재현, 팔도풍물놀이 한마당, 향토민속놀이 개발, 향토음식 재현 등.
- ④ 지역전통문화 선양 사업 : 지역문화 발간, 지역생활사 발간, 문학 동인지 발간, 문화유적지 탐방, 지역전통문화 행사 지원, 향토의 유적·사적·마을사·인물 등 발굴조사, 지역의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출간,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파악, 문화원 지원단체로 육성, 애국지사 유목전, 애국지사도록 발간, 향토문화 연구논문공모, 향토 사료집 발간, 전통민속보존(전수훈련), 향토사료 수집(지역향토사료 조사연구), 고문서 및 고물품 수집, 향토인물지 발간, 내고장 민요조사, 향토사 연구소 운영 등.
- ⑤ 지역문화 행사 개최 : 각종 예술제, 청소년·주부 백일장, 시낭송회, 각종 전시회(미술전 : 서양화·동양화·서예·사군자·도예전), 사진전, 음악회(청소년음악회·청소년가요제·동요합창대회·건전가요경연대회·초청합창단 공연), 고전무용, 국악공연(풍물농악 경연대회·시조경창대회·판소리), 전통놀이(윷놀이·사물놀이·그네뛰기·씨름·줄다리기·널뛰기·제기차기·연날리기), 택견, 연극, 각종 추모제, 지역주민 바둑대회, 지역주민 한마음 축제, 포크기타 연주 및 경진대회, 패션쇼, 디스코 경연, 레크리에이션, 협동화 그리기, 수석전, 문화가족 영상음악감상회, 휘호대회, 충효사상선양 웅변대회, 충효사상 선양 및 내고장 사랑 글짓기 공모, 영상음악 감상 등.
- ⑥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 환경학교 운영, 향토문화강좌, 문화학교운영(지명 유래, 역사), 청소년을 위한 문화강좌(한문·예절교육·다도·수채화교실·인형극·독서토론·논술연구), 청소년 향토역사 교육, 효 사상 고취, 청소년 상담소 운영, 청소년 선도, 문화유적지 순례교육 등이 있고, 여성을 위한 여성교육 강좌(문학·서예·자수·무용·꽃꽂이·한국화·문예창작·음악·토우·사진·비디오·판소리·풍물·단소·노래부르기·유적지 탐방·가야금·차명반·민요·수지침·사군자·수묵화·미술·기타·크로마하프·한지공예·펜글씨·스텐실·지점도·매듭·생활체조 등), 노인을 위한 노인교육(건강 관리·취미교실·전통·생활문화·국악교실(단소·민요), 지역문화 탐방 및 공연 등이 있다.

- ⑦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교류 : 문화예술인 상호교환 방문 및 초청공연, 문화가족 초청 문화강좌, 외국인 초청강좌, 출학인사 초청 강연회, 그 지역 출신 음악인과 중앙저명음악인 초청공연, 향토작가 초대전(지역 출신 및 지역거주 작가전, 동·서양화, 서예, 낙화, 도예, 공예, 조각, 사진).
- ⑧ 장학사업 : 초·중·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 ⑨ 기타 : 합동결혼식 주최, 합창단 구성, 학술세미나, 착한 어린이·모범 학생·효자효부 발굴 시상, 문화가족 수련대회, 불우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의 사업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지방사라는 새로운 연구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²⁾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자체장들이 시·군지편찬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사연구에 획기적인 발판이 되었고 한국사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에는 지방사를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탄생하였고 지역역사 문화탐방 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화 활동이 중앙 집중화 되어 지방문화육성이 시급한 시기에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방의 특수한 문화자료를 발굴, 조사, 정리, 보존, 보급한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를 발굴, 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 축제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원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지자체로부터의 예산에 의존하는 한편, 인사 및 운영도 종속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사연구가 서울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벗어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단의 지방소재 대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역사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집필이 이루어졌으며, 지방단체장에 대한 선심성, 혹은 홍보성 기능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2) 김동욱 외, 『향토사란 무엇인가?』, 『향토사와 지역문화』, 문화체육부, 1990.

이해준, 「역사기록과 생활문화 자료」, 『향토사와 지역문화』, 문화체육부, 1990.

박광용, 「지방사의 개념과 연구현황」,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고석규, 「지방사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역사문화학회 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1998.

Ⅲ. 양주학 형성과 발전과정

1. 양주군지 편찬과 양주문화원사 신축을 통한 연구 기반구축

양주지역에서도 정부시책의 변화와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향토문화 발전이 촉진되었다. 1978년 <양주군지>가 편찬된 이후 1992년에 재차 <양주군지>가 만들어졌고, 연이어서 <의정부시지정30년사>, <구리시지>, <동두천시>, <남양주시> 등이 편찬되어 양주지방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시분리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시군지는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양주지방의 역사가 각각의 시군에 맞추어 기술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주지방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서울에서 활동하던 전문 역사가자 중심으로 연구, 편찬됨으로써, 지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편사적인 방향으로 서술이 이루어져 왔고, 역사자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실관계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중앙과 지방, 중심과 변방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종속적인 관계일 때 지역차별이 발생한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수도권과 삼남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오히려 지역차별의 문제점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양주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다. 과거나 현재나 수도권은 권리와 의무, 혜택과 수탈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지방은 한계된 바탕에서 각각의 역사와 문화적 틀을 유지 계승 발전되어 왔다. 중심의 문화는 지배정도가 주변으로 갈수록 약해지게 된다. 직접적인 지배가 미치는 지방, 간접적 지배가 미치는 지방, 영향력이 미미하게 미치는 지방으로 지배와 영향력의 강약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양주지역이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나마 양주는 일정하게 개별적인 연구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연구범위를 확대해 가며 양주의 본모습을 복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1978년 <양주군지>가 처음으로 편찬되었는바, 집필자는 역사학계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고, 일부 향토사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이현종 편사실장이 감수를 맡았다.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양주군의 역사적인 유래와 유적, 충효행장, 전설, 풍속 등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기술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도 기술하였다. 당시 행정적으로 분리된 의정부시도 포함되었다. 지정문화재가 여타지역 보다 많아 별도로 문화재편이 다루어졌다.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중앙 중심의 시각으로 편찬되어 세부적인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체계적인 연구와 집필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측면에서 양주군의 모

습이 처음으로 집대성된 것은 향토사 연구기반 조성과 함께 커다란 의미를 남게 되었다.

1988년에는 양주시청 사무실을 전전하다가 문화원사가 건립되면서 실질적인 연구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문화원 창립과정에서 최초의 사업으로 유품전시회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관한 지역인사들의 도움으로 원사가 건립될 수 있었고, 이는 곧바로 우리 고장의 역사를 그동안의 변화상을 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양주군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78년 처음 만들어진 <양주군지>를 바탕으로 다수 향토사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학계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1992년 <양주군지> 상하2권이 편찬 발간되었다. 편찬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자체 전문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상하 2권 중 상권은 양주군의 연혁, 자연환경, 역사, 정치, 행정, 산업, 사회, 문화 등, 하권은 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성씨, 인물, 금석문, 읍지 등으로 이루어졌다. 국한문혼용체로 기술되었으며, 당시 서울대 변태섭 교수의 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많은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기존 전국의 여타 시군지에 비하여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양주문화원십년사 발간과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양주군지 편찬에 힘입어 1993년 『양주의 지명유래』를 발간하였으며, 양주관내 마을, 산, 하천, 고개, 골짜기, 들, 바위, 터 등 지역주민 등의 고증을 거쳐 상세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에는 문화원 원사 낙성시, 문화축제시 한시백일장에 참여하였던 양주 유림들의 한시 작품들을 모아 『향토한시명감』을 편찬하였다.

1995년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향토작가인 한국화부문 김호성, 서양화부문 김광소, 김영덕, 김영희, 이종분, 조성우, 공예부문 유한수, 이영수, 조각부문 이규동 등 작가 초대전을 양주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1996년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문화원의 활동결과를 회고하여 『문화원십년사』를 편찬·발간하였다. 개원이후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문화원의 위치와 실체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롭게 펼쳐나가야 할 방안과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향토문화연구소 설치와 양주향토자료총서의 발간 추진

1996년에 <향토문화연구소>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양주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정리하는 양주향토자료총서의 지속적인 발간계획이 논의되었다. 한편으로는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양주군 전반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1998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학술조사총서 제1집으로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주최가 되어 양주의 역사, 민속, 고고유적 및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등을 포함, 모든 부동산문화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집대성한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이 편찬 발간됨으로써, 양주사 연구의 초석이 만들어지는 한단계 급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양주군의 역사, 민속, 고고유적 및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문화재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즉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광복이전)이며,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 등의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부동산문화재, 미발견 매장문화재로 현 양주군 전역에 소재하는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록된 유적의 명칭은 고유명칭이 남아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명칭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외는 군명+리명+일반명칭의 원칙으로 유적명이 부여되었다. 다만 유적의 성격상 지형지명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에는 명칭에 지형명과 유적종류에 따른 일반명칭을 사용하였다.

양주향토자료에 대한 논의 끝에 세부적인 중장기 연구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사업의 첫 단계로 1998년 양주향토자료총서 제1집으로 『비문으로 본 양주역사 I, II』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양주군 소재 송덕비, 신도비, 암각문, 묘지석, 묘갈, 묘표 등 양주소재의 비문의 탁본에 참여하여,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기 전에 문화재 실체를 구현해 연구한 결과물을 편찬, 발간하게 되었다.³⁾

1998년에는 도시화와 사회 환경의 급변이 진행되면서 양주시민의 생활의례에 대한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예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오늘의 현실에서는 예법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예절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 편집하여 기본예절, 생활예절, 가정의례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으로 구성하는 『생활의례전서』를 편집 발행하였다.

1998년 대외적인 화보집형태의 양주 소개서로서 『역사와 전통 문화의 고장 양주 문화관광』이 발간되었다. 양주군 연혁, 심볼, 군기, 마스코트, 캐릭터, 상징물을 소개하고 간단한 설명과 사진을 곁들인 문화유적 43점, 문화체험 4곳, 전통사찰 3곳, 관광지 4곳, 명산(등산로) 4곳, 저수지 5

3) 1998년 <비문으로 본 양주역사 I, II> 발간 시 누락된 부분과 추천분, 그리고 해방이후 유명인의 비문 등을 추가하여 2012년 <비문으로 본 양주역사 III>을 발간하였다.

곳, 공연관람시설 5곳, 연수숙박시설 6곳, 여행정보 6항 등을 수록하였다.

1999년 양주문화원은 양주 바로 알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양주인으로서 우수한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찾아가는 문화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는 유형문화재 48건과 무형문화재 6건 등 총 54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시군보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화유적 탐방을 내실 있게 추진할 목적으로 『양주문화재』 책자를 발간하였다. 수록한 자료는 『양주디지털문화대전』과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문화재청자료를 참고하였다.

〈양주향토자료총서〉 제2집으로 1999년 『양주의 옛소리』가 발간되었다. 양주지역에서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는 옛소리로 의식풍속요, 노동요, 농요, 민요 등을 채록, 수집하여 편찬한 옛소리 가사집이다. 양주별산대놀이의 소리로 백구타령, 염불타령(중 허튼타령), 염불덕담, 등장가, 조기잡이, 야할타령, 취발이가사, 통통타령, 시조①, 시조②, 시조③, 냇타령, 양주소놀이굿의 소리로 마부타령, 원미부 곁마부, 소지명, 절내력, 은자보물, 빛내력, 머리내력, 뿔내력, 귀내력, 눈내력, 코내력, 양주 상여와 회다지의 소리, 양주 노동의 소리, 경기민요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양주향토자료총서〉 제3집으로 『임격정.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가 임격정 김병연(김삿갓) 태생지 고증 학술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었다. 2000년 11월 양주시청 대강당에서 ‘양주에서 본 조선시대 사회사 - 임격정, 김병연(김삿갓)의 출생과 관련하여’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도남 양주문화원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이범직(건대)의 ‘임격정과 김병연의 행적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백운화(경민대)의 ‘임격정 태생지에 대한 일고찰’, 한희숙(숙명대)의 ‘임격정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정대구(영산대)의 ‘김삿갓의 태생지와 발자취를 찾아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김기홍(건대) 사회로 발제자와 이상태(국편위), 신해진(전남대), 이정수(동서대), 한상웅(영월군향토사연구소)간의 토론이 펼쳐졌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김병연의 태생지는 회천읍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임격정의 태생지는 불곡산 밑 유양리로 추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으며, 충분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형편임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주향토자료총서의 연구작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2001년 제4집으로 『양주 땅이름의 역사』가 발간되었다. 양주관내 마을, 산, 하천, 고개, 골짜기, 들, 바위, 터를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가나다순 배열하였으며, 부록으로 양주목 수령들을 발췌 기록하고 있고, 지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여 양주지명을 집대성하였다.

2002년에는 양주향토자료총서 제5집으로 『양주항일민족운동사』를 발간하여 조선말, 일제하에서 진행되었던 항일운동 전반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내고 연구한 결과물을 망라하여 편찬하였다.

4. 국내 유일의 역사문화대학 설치

2001년 3월에는 우리나라 문화원 중 최초로 <역사문화대학>을 설치하여 내 주민들에게 인문학 분위기를 저변확대와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제1기 수강생 45명으로 시작된 역사문화대학은 3년의 교육과정 동안 총 22회 강의와 22회 답사를 통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양주를 사랑하는 문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양주시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본과정의 졸업생들은 문화원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재해설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년 30여명 전후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3년제 커리큘럼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⁴⁾

양주문화원 부설 역사문화대학 교재로 사용하던 단편적인 자료들을 엮어 2012년 『양주역사문화탐구』가 발간되었다.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역사와 양주의 상세한 연구결과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역사문화대학 학생들에게 유용한 체계적인 양주역사 교재가 되고 있으며, 양주시민들의 우리나라 양주역사 이해와 저변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주문화원이 운영하는 역사문화대학의 학생들은 매년 1년간 공부하며 전국 각지를 답사한 보고서를 한편의 책으로 편찬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역사문화대학 제2회 졸업생들이 강의와 답사 등을 통해 느꼈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감을 기행문 형태로 만들어 출간한 작품집이 『아름다운 산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2018년도 발간한 책이 『거처온 길마다 옷소매에 묻은 향기』이다. 답사지역은 다음과 같다.

1학년	2학년
1차답사: 양주 역사문화 탐방	1차답사: 조선시대 궁궐을 찾아서
2차답사: 예산의 문화유적을 찾아서	2차답사: 남원, 구례지역의 문화유산
3차답사: 보은의 문화유적	3차답사: 남양주의 왕릉을 찾아서
4차답사: 경주의 문화유적	4차답사: 평창의 문화유적
5차답사: 파주의 역사문화유적	5차답사: 공주와 부여에 남은 백제유적
6차답사: 수원의 문화유적	6차답사: 남양주지역의 역사문화

4) 교육과정은 1학년 6회 수업, 6회 답사(1박2일 1회 포함). 2학년 6회 수업, 6회 답사(1박2일 1회 포함). 3학년 10회 수업, 10회 답사(1박2일 2회 포함). 수료현황은 2003년 제1기 30명, 2004년 제2기 28명, 2005년 제3기 33명, 2006년 제4기 25명, 2007년 제5기 33명, 2008년 제6기 18명, 2009년 제7기 22명, 2010년 제8기 21명, 2011년 제9기 29명, 2012년 제10기 26명, 2013년 제11기 24명, 2014년 제12기 38명, 2015년 제13기 14명, 2016년 제14기 26명, 2017년 제15기 26명, 2018년 제16기 29명, 2019년 제19기 45명 입학.

3학년	연구반
1차답사: 의정부의 문화유적	1차답사: 논산지역의 문화유적
2차답사: 한강 남쪽의 유적들	2차답사: 여주지역의 문화유적
3차답사: 전북의 문화유산	3차답사: 충주지역의 문화유적
4차답사: 영월지역의 문화유적	4차답사: 담양지역의 문화유적
5차답사: 강릉의 문화유적	5차답사: 영주지역의 문화유적
6차답사: 연천의 문화유적	6차답사: 고양지역의 문화유적
7차답사: 서산의 문화유적	
8차답사: 강화도의 문화유적	
9차답사: 전남의 역사탐방	
10차답사: 안동의 문화유적	

5. 양주학의 태동과 문화원 비전 선포

양주군 지역사 연구를 주도하면서 양주문화원 부설 역사문화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이도남 교수가 건대박사학위 논문 『조선시대 양주지방사 연구』를 발표하였다. 양주를 과거 변방사나 보조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지방사 관점에서 시도한 연구논문으로 양주를 중심에 놓고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제문제들을 분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주학이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양주향토자료총서〉 연구작업은 계속 이어져 2004년에는 제6집으로 『양주근대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양주시의 근대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단행본이다. 양주에서 일어난 의병 항쟁과 3·1 운동 등 민족 운동의 역사 및 양주의 근대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대한 제국 시기 양주 관련 연보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고종시대사』 중 양주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제2편 『대한매일신보』 양주 의병 관련 기사에서는 『대한매일신보』 한글판 기사 중 1907년 8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양주와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였다. 제3편 「폭도에 관한 편책」 양주 관련 기록에는 1907~1910년 일본군 수비대 및 경찰서에서 수집한 의병에 관한 정보, 전투 상황 보고서 또는 의병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일본 상인 등의 피해 보상 요구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4편 송춘근 관련 재판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에서 양주 출신 독립 운동가 송춘근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 신문 조서이다. 마지막으로 제5편 석천 안경근(安敬根) 관련 증언은 독립 운동가인 안경근을 평생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 김준식의 증언 녹취록이다. 양주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 제

국 시기 의병 전쟁과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에 관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양주의 역사성과 항일 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책자이다.

같은 해 〈양주향토자료총서〉 제7집으로 『양주의 산간신앙』을 편찬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경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산을 신성시하고 산신의 존재를 믿고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풍습을 이어왔다. 제1편 ‘산으로 둘러싸인 땅 양주’에서는 34개에 이르는 산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이는 감악산과 홍복산의 관련자료를 수록하고, 제2편 ‘산제사의 땅 양주’에서는 민간신앙의 역사와 산악신앙에 대해 고찰하고, 양주시 각 지역의 산간신앙 실태와 기타 민간신앙을 조사 기록하고 있으며, 산제축문들을 모아 채록하고 있다.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산간신앙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흔적조차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양주향토자료총서〉 제9집으로 2005년 『양주를 빛낸 충효인물』을 편찬하였다. 양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충신과 효자들의 이야기를 엮었다. 충과 효는 우리 조상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당시의 시대적 가치였다. 본서는 자료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남을진의 행적을 복원하고, 정절사 사액운동과정과 대원군 서원철폐령 때 훼손되었던 정절사가 내시의 무덤 때문에 폐허되었다가 근자에 복원된 과정도 밝히고 있다. 생육신으로 추앙받는 권철의 정문이 이전된 사연도 기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확인조차 되지 않았던 신각장군의 행적과 해유령전투의 실상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또한 정묘호란 때 33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전사한 여영원, 병자호란 때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순절한 홍명형 등의 충신에 대한 행적도 처음으로 발굴 소개하고 있다.

2007년 10월 10일 지방문화원의 문화비전이 선포되었다. 지방문화원이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 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문화원의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실천사항으로 다음을 선언하였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되며,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치고, 일회적, 단기적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문화 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양주문화원은 제반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여건에서 새로운 변화 터전을 마련하기는 쉽

지가 않았다. 지역문화원 비전 제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인 2014년에 이르러 <문화원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가 급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문화원 스스로가 새로운 비전 수립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되었다. 발제 및 좌장으로 성낙길 경민대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조태화 양주시청문화관광과장, 김종길 양주시의회부의장, 이월례 양주문화원부원장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문화원 스스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의 재수립과 공유가 필요하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젊은 문화원 구축이 필요하며,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조직 구축의 필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기초적인 성찰과 자성의 작은 계기가 마련되고, 양주문화원 스스로 재도약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6. 국가·경기도 지정 4대 무형문화재와 상시 공연체제 구비

2007년에는 <양주농악> 제1회 정기공연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첫 정기공연이었다. 이로써 양주에는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양주상여화다지소리, 양주농악의 4대 무형문화재가 구축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정기공연 등을 통해 문화적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경기도의 농악은 경기 북부 평야지대의 두레풍물굿과 안성·평택으로 대별되는 걸립농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레풍물굿은 두레 조직이 사라지면서 놀이가 강조되는 민속놀이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양주농악은 두레풍물굿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원이름은 양주고전농악이다. 그 이유는 고종 광무 7년(1903년) 농업 장려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농악대회에 참가한 양주의 두레패가 절기마다 농사짓는 과정을 율동과 춤으로 승화시켜 우승기인 농기를 하사받으면서 널리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옛날부터 내려오던 농악이라 하여 고전농악이라고 불렸다. 이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를 중심으로 풍물굿보존회가 조직되어 옛 두레풍물굿 형태를 재현하면서 효촌농악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6년 3월 20일 양주농악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양주는 국가지정 양주별산대놀이, 국가지정 양주소놀이굿, 경기도 지정 양주상여화다지소리에 이어 경기도지정 양주농악의 4대 무형문화재의 보고가 되었으며, 매년 정기공연과 수시로 공연이 진행되고 있어서 양주시민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함께 즐기고 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현재의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로 중부지방, 특히 경기도 양주를 중심으로 행해진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이다. 초기에는 연희자들에 의해 행해졌지만 이후 재능 있는 서민층들에 의해서도 행해졌다. 앞놀이·본놀이·뒷놀이로 구성되며 대사, 춤과 몸짓, 무언극을 포함하고 있다. 산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나 산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선 후기에 산대의 전통을 이어서 연행된다는 의미에서 산대놀이 또는 별산대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요즈음은 주로 경기도지역에서 하는 탈놀이를 산대놀이로 지칭한다. 대보름·삼짇날·초파일·단오·유두·백중·추석·단풍놀이 등의 여러 명절 때와 가뭄이 들 때 기우제로 연희되었다. 관아의 이속과 연희자, 마을의 책임자들이 의논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주민들이 공동 추렴하며 일부 재원은 놀이판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내는 자리세로 충당했다. 전통적인 놀이판은 사직골(방언으로 새젓골)이었는데, 그곳에는 사직당이 있었고 그 당집 앞 넓은 마당이 공연장소, 주변의 비스듬한 산비탈이 관중석으로 활용되었다. 공연 시기 및 공연장소가 농경생활과 신앙생활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가면이나 공연 내용도 이러한 측면과 연관되어 있었다.

〈양주 소놀이굿〉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마송배와 농경의례인 소맥이놀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한 농경의례나 무속에서 벗어나 만신과 원마부·결마부 사이의 대화와 타령(가사)으로 진행되는 등 연희의 성격을 갖춘 놀이문화이자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소놀이굿은 주로 기호와 해서 지방에서 연희되어 왔는데, 해서 지방의 사정은 알 길이 없으며, 기호 지방에서도 양주시 일대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양주소놀이굿을 양주에 퍼지게 한 무부(巫夫) 팽수천(彭壽天)(1901~1937)은 노해면 출신으로 1937년에 작고했다. 그는 이 놀이를 양주 일대에 퍼지게 했는데, 어디에서 전수받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수회관이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민족 예술의 한 부류로 연희적 측면과 민속 의례에서 민족 예술로 승화시켰다. 양주소놀이굿의 원형 보존과 전승 발전을 위하여 양주소놀이굿 보존회가 창립되었다. 소놀이굿은 1967년 12월과 1975년 12월에 지정을 위한 심의가 있었으며, 1980년 11월 17일 국가 무형 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다. 그때 원마부 김인기(金仁起), 악사 고희정(高熙貞)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소놀이굿의 예능 보유자는 김병옥(金炳玉)이며, 전수 조교는 김봉순, 신성남 등 2명이다. 이수자는 어유관, 신재범, 김재종, 허영이, 이호식, 오정석, 지시택, 백창현, 박민준 등 9명이다. 또 전수자를 보면 심임순, 백화현, 신용호, 조민호, 김혜진, 김필옥, 서세진 등 7명이다. 그리고 전수 교육생은 정재웅을 포함해 16명이다.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7호로 양주시 백석읍 일대에서 전승되고 있

는 장례의식요이다. 그 가운데 고룻말(고능말) 소리가 현재 상여와 회다지 소리의 근간이 되었다. 양주에서 상여와 회다지 소리가 발달한 이유로 한양이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왕릉이 조성될 경우 부역 갔던 사람들에 의해 장례절차나 소리의 전통이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전한다. 장례의 절차에 따른 소리의 다양성, 상두꾼들의 노동의 강도에 따른 소리의 분화는 선인들의 슬기를 돋보이게 하며 회다지의 동작은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예술적 감각을 뛰어나다. 상여소리는 장례식 때 상여를 메고 가는 향도꾼 혹은 상두꾼으로 불리는 상여꾼들이 부르는 장례의식요이다. 일명 만가, 향도가, 향두가, 행상소리, 회심곡, 옥설개, 설소리 등 지역에 따라 가창자마다 다양한 이칭으로 불린다. 발인제가 끝나고 상여행렬이 장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부르는 소리이다. 회다지 소리는 장지에 도착한 상여 행렬이 관을 내리고 봉분을 다지는 과정에서 흙을 덮고 땅을 다지기 위해 달구질을 하며 부르는 소리이다. 회다지소리는 지역에 따라 달고소리, 달구소리, 달구질소리, 달귀소리, 달구노래, 달구질노래, 지지미노래 등 여러 이칭으로 쓰이는데 양주지역에서는 회다지소리 또는 달구소리라고 한다. 장지에 도착하여 시신을 매장할 때 유해를 광중에 안치하고 흙과 헛가루를 섞어 분묘를 다지는데 이를 달구질이라고 한다. 특히 회다지 소리는 사자를 장례하는 풍습 중 수장이나 풍장, 화장 등에서는 볼 수 없는 매장을 중시하는 우리 고유의 장례 풍습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의식요이다. 양주상여회다지소리에는 긴상여소리, 자진상여소리, 오호소리가 있으며, 긴상여소리는 발인제 후 상여가 출발하면서 선소리꾼이 느린 굿거리 장단으로 사설을 메기며 간다. 자진상여소리는 묘지가 멀 경우에 갈 길을 재촉해 빨리 가면서 부르는 소리이고 오호소리는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부르는 소리다. 회다지 소리는 하관 후 흙을 메우고 봉분을 쌓는 과정에서 흙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긴달고 소리, 자진달고 소리, 꽃방아 소리, 어러러 소리, 상사소리, 새날리는 소리 등이 있다.

7. 문화인식의 저변확대와 양주문화원의 위상 제고

2008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알기쉬운 양주이야기』를 교재형태로 발간하였다. 관내 초교 교장이 참여하여, ‘고개 따라 넘어가는 양주역사’, ‘양주의 문화재와 유적지’, ‘양주시의 가볼만한 곳’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양주시 그대로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시각으로 접근하여 사진으로 보여주는 『天.知.人』을 발간하였다.⁵⁾

5) 2집은 10년 후인 2018년 『천지인2. 감동양주』를 발간하였다. 내용은 양주시를 품고 있는 수려한 자연,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 택지개발을 거쳐 변화가 진행 중인 양주시의 모습을 통해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도약, 발전하고 있는 양주의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한 사진에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화보집이다. 택지개발을 하기 전과 진행 과정, 수려한 양주의 강산(天), 찬란한 문화 역사(知), 정겹고 아름다운 양주시민의 삶(人)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살아 숨 쉬듯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는 청소년들의 고민 해결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청소년지원센터>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보고서』 발간하였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양주의 청소년을 위한 전략수립의 지침이 되는 연구였다.

2008년 양주문화원이 참여하여 단경왕후 제452주기를 맞아 온릉기신제향을 거행하였다. 온릉(溫陵)은 조선시대 중종의 원비인 단경왕후 신씨의 능으로,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 1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 5월 26일 사적 제210호로 지정되었다. 묘역의 크기는 약 6만 6천여 평이다. 단경왕후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진성대군(중종)이 왕위에 추대되자 왕비에 책봉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인 신수근이 연산군 부인의 오빠인데다가 중종반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7일 만에 폐비되어 사가에 머물다 1557년(명종 12) 71세로 소생 없이 승하하여 친정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후 1698년(숙종 24년)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1739년(영조 15)에는 복위되어 시호를 단경, 능호를 온릉으로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온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이 없는 원형무덤으로 무덤 주위에 석양(石羊)과 석호(石虎) 1쌍을 배치하였다. 석양과 석호를 반으로 줄인 것은 비릉(妃陵)으로 봉해진 무덤의 예에 따른 것이다. 능 아래에는 재실이 있었으나 1970년 도로확장 때 없어졌다.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다.

2009년 양주향토자료총서 제10집으로 『양주 인물지』를 발간하였다. 양주 출신, 양주관련 인물로서 고인이 된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거 양주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도 포함되었다. 본관이 양주나 양천인 인물뿐만 아니라 관내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도 대상으로 삼았다. 양주군지,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두산동아백과사전 등을 중심으로 양주 관련 인물들을 추적하여 가급적 많은 인물들을 수록하고 있다. 출생년을 기준으로 고려조선편, 근현대편으로 나누어 실었으며, 근현대편은 1900년 이후 출생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권말에 부록으로 역대 양주시장(군수), 양주부시장(부군수), 실국장, 실과소장 명단도 실었다.

2010년 양주향토자료총서 제11집으로 『사마방목과 양주』가 발간되었다. 사마방목은 조선시대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부로 사마시는 생원진사시의 별칭이다. 문과급제자의 경우는 <국조방목>과 같은 조선 전 기간의 문과 급제자를 수록한 종합방목이 편찬되었으나, 생원·진사시의 경

보여주고 있다.

우 〈사마방목〉이라고 하는 단과 방목밖에 편찬되지 않았다. 대개 예문관에서 간행하여 관계자·합격자들에게 반포했다. 현존하는 판본은 활자본·목판본·목활자본·필사본 등 다양하다. 책머리에는 은문이라 하여 시관의 이름을 적었다. 방목을 간행할 때 사마시에 합격한 지 1주갑 된 사람들의 명단과 관직을 함께 수록하기도 하였다. 명단의 기재방식은 문과방목과 똑같은 방식으로 편찬, 간행되었으며, 그 양식과 내용도 〈문과방목〉의 내용과 같다. 합격자를 합격순서에 따라 열거하고 합격자마다 1행에는 이름·자(字)·생년간지·본관·거주지 등을, 2행에는 아버지의 관위와 이름, 3행에는 부모의 생존여부와 형제의 인적사항을 적었다. 책 끝에는 시험장소·시험제목·시험일시 등 시험과 관련된 기록을 부기했다. 조선시대 실시된 생원·진사시가 229회 실시되어, 사마방목은 각종 방목 중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어 현재 알려진 것만도 170여 종 이상이다. 조선시대 과거급제자의 성분분석·인물기록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16세기부터 1894년 과거제도 폐지 때까지의 방목이 연속하여 전하므로 인쇄방식·지질 등의 변화를 살필 수 있어 서지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중요하다. 사마방목 중에서 양주 출신들만을 발췌 정리하여 편찬하였다.

2011년에는 『양주세거성씨의 유래』가 전문회원장 조태훈을 중심으로 수년간의 자료수집과 연구, 노력 끝에 출간되었다. 양주는 오랜 기간 역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성씨가 입향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권문세가의 입향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고장으로 현재도 집성촌 형태로 많이 남아 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입향한 기간이 300년이 경과한 성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개 세거성씨들로 편찬 발간되었다.

8. 디지털양주문화대전 구축과 양주역사문화 집대성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발전상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양주문화대전」 구축이 추진되었다. 양주시 관내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양주시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추진됨으로써, 그동안 연구결과물의 재검토는 물론 그동안 미흡하거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연구과제들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생활문화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발굴·연구·집대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양주시 향토문화 콘텐츠를 각계각층의 이용자가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었다.

2010년 5월 양주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편찬 연구 협약 체결(연구

예산은 한국학중앙연구원 3억 원과 양주시 3억 원 합계 총 6억 원)하고, 2010년 8월~2011년 1월까지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가 양주문화원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2010년 11월에는 항목검토위원회 개최, 2010년 12월~2011년 9월까지 「디지털양주문화대전」 편찬을 위한 원고 집필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 5월~12월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원고 윤문·교열 사업이 (주)휴머니타스에 의해 진행되었고, 2011년 8월~2012년 6월까지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이 (주)한국기록문화연구소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2011년 12월~2012년 4월에는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대표 콘텐츠 입체 영상 제작 사업이 (주)위프코, 2012년 4월~6월에는 「디지털양주문화대전」 XML 데이터 제작 사업을 (주)지식공학이 수행하고, 2012년 8월~9월에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서비스 시스템 개발 사업은 (주)초록넷이 맡았으며, 2012년 9월 「디지털양주문화대전」 콘텐츠 감수가 양주시 추천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업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하였다. 마침내 2012년 10월 테스트를 거쳐 웹서비스가 제공되고 2012년 11월에 「디지털양주문화대전」 구축이 완료되었다.

● 콘텐츠(정보)

- 항목수 : 1,970항목
- 원고(TEXT) : 11,409매(200자 원고지)
- 멀티미디어 자료 : 사진 4,267종, 가상현실 384종, 동영상 30종, 도면 149종, 음향 26종, 테마
 뷰 40종
- 서비스 시스템(웹 사이트) 구축

● 조사 연구 사업

기초조사 연구사업은 양주시의 향토문화 자원을 조사·분석·연구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자료 조사, 항목 추출 및 구성, 집필자 후보 선정 작업 등을 포함하여, 조사 연구 사업은 양주문화원이 주관하고, 연구책임자로 이도남 교수가 맡았다. 정학수, 한정수, 서동일, 염일열, 김종혁, 김용국, 김남용, 조태훈, 송명석, 정창래, 김성수, 민영신, 박종태, 이진구 등이 참여하였다.

● 콘텐츠 제작사업

콘텐츠제작사업은 양주시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내용 체계를 구성하여 유형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원고 집필, 멀티미디어 원자료 수집, 멀티미디어 콘텐츠 가공·제작,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연계하는 하이퍼미디어 제작 업무로 이루어졌다.

원고 집필 사업은 양주문화원 주관으로 기초조사에서 추출된 항목을 대상으로 집필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고, 적절한 집필자를 선정하여 집필을 의뢰하고, 수합된 원고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방침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다. 이도남(한국예술종합학교)을 연구책임자로, 한정수(전북대학교)는 원고 의뢰/수합, 오계화(건국대학교)는 원고 의뢰/수합, 김유리(건국대학교)는 원고 의뢰/수합, 김정호(양주문화원)는 사무행정관리로 추진팀이 구성되어 수행하였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은 (주)한국기록문화연구소가 수행, 양주시의 향토문화자원을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촬영 및 제작, 멀티미디어 원자료 수집 및 가공, 멀티미디어 콘텐츠 메타데이터 작성 업무로 이루어졌다.

사업책임자 조상민, 총괄실무 구자희,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성지영,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가공 이상윤, 박정수, 주현식, 박이슬, 고한나, 박금숙이 맡았고, 자문위원은 이도남, 현지, 코디네이터는 송명석, 대표 콘텐츠 입체 영상 제작사업은 (주)위프코에서 김은화, 김비오, 김기영, 황호현, 조성우, 오정은이 참여하였고, 전자 텍스트(XML DATA)제작 사업에 있어서 텍스트 윤문 및 교열은 (주)휴머니타스의 김용인, 한옥화, 고유명사 대강 및 파일통합작업은(주)지식공학 임병수, 이승후, 오현정, 이상순, 나유경, 이상천 등이 참여하였다.

● 시스템 개발 사업

시스템 개발사업은 (주)초록넷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참여하여 구축된 콘텐츠를 토대로 향토문화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여 다양한 디렉토리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 시스템 개발사업(검색엔진 개발과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 포함)을 수행하였다. 서비스시스템 개발은 (주)초록넷 김형준, 김창수, 홍석봉, 이유리, 검색엔진(KRISTAL) 개발 및 기술 지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정현, 최윤수, 김진숙, 최성필, 진두석, 김광영 등이 참여하였다.

● 원고집필자(가나다 순)는 양주문화원 및 양주시 관내를 망라하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 바, 권만용(부천대학교), 김남용(신흥대학교), 김동규(양주시청), 김명환(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김전주 (다산학술문화재단), 김영준(양주시청), 김재규(양주시청), 김정은(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혁(고려대학교), 김혜선(건국대학교), 민영신(양주문화원), 박성복(양주문화원), 박의동(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백운화(의정부예술의전당), 서동일(국가보훈처), 서영각(국립공원관리공단), 서지민(양주시청), 손광순(양주문화원), 송명석(향토문화연구소), 안상경(필룩스조명박물관), 안용현(양주문화원), 염일열(서정대학교), 위상배(서정대학교), 이도남(한국예술종합학교), 이상구(한국학중앙연구원), 이우석(건국대학교), 이원영(건국대학교), 이

월례(양주문화원), 전정해(선문대학교), 정창래(국사편찬위원회), 정학수(숙명여자대학교), 조성희(건국대학교), 조영주(건국대학교), 조웅래(양주문화원), 조태훈(양주문화원), 주상호(양주시청), 최미선(양주시청), 한순자(양주문화원), 한정수(건국대학교), 현영렬(서정대학교), 홍정덕(한북대학교) 등이 참여하였고, 자료 협조처로 경기북부신문, 광송초등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나루터공동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둔초등학교, 동화원, 맵글 정보화마을, 베들레헴 기쁨의 집, 삼송초등학교, 상명대학교박물관, 서형관(부여 서씨 29세손), 송명석 국사편찬위원, 송암스페이스센터, 송추 CC, 양주덕현초등학교, 양주문화원, 양주백석중학교, 양주별산대놀이전수회관, 양주소놀이굿전수회관,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양주시 생활체육회, 양주시청, 양주신문, 양주향교, 유양초등학교, 은봉초등학교, 이도남(한국예술종합학교), 장홍수요산악회, 조명박물관, 주원초등학교, 천생연분 정보화마을, 초록지기 정보화마을, 칠봉초등학교, 트로이목마,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회암사지박물관, 회천중학교, 효미원 전통체험장 등이다.

- 항목 검토 위원은 민영신(양주문화원), 정창래(국사편찬위원회), 김영준(양주시청), 송명석(향토문화연구소), 이덕원(양주기업인협의회), 김재규(양주시청), 홍정덕(한북대학교), 오정미(건국대학교)

- 콘텐츠 검토 위원은 김성수(향토문화연구소), 송명석(향토문화연구소), 이도남(한국예술종합학교), 한정수(건국대학교), 조성희(건국대학교) 등이 수행하였다.

9. 대모산성의 사적지 지정과 향토문화 복원사업 전개

2012년에는 양주소재 대모산성 연구결과에 따른 〈양주대모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자료〉, 〈대모산성 국가지정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자료〉가 발간되었다. 양주 대모산성(楊州 大母山城)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6~7세기에 축조된 고대 산성이다. 2013년 6월 21일 대한민국 사적 제526호로 지정되었다. 양주 대모산성은 6~7세기에 축조된 고대 산성으로 성벽 및 현문 등의 시설이 초축(初築) 당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임진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는 등 당대 산성의 특성, 축성기법 등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양주 대모산성은 『삼국사

기(三國史記)』,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매초성(買肖城)의 기사를 근거로 매초성(買肖城)으로 비정(比定) 되기도 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만기요람(萬機要覽)』, 『(경기지도(京畿誌0』, 『경기읍지(京畿邑誌)』, 『여도비망(輿圖備志)』,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 양주 대모성산(大母城山), 대모산성(大母山城)의 기록이 남아 있다.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한 대모산성은 주변의 산성 중 주 교통로에 위치하여 단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라, 행정 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복합적 성격의 유적으로, 양주지역의 전술적 요충지 또는 치소로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방형으로 가공한 화성암계 변성암으로 높이 약 7.5m 내외의 외벽을 쌓아 올린 다음 그 외부에 삼각형 모양의 단면형태를 띤 4~5m 높이의 보축을 덧대어 축조한 우수한 축성술과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현문식(懸門式) 성문구조, 축조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성벽 등 6~7세기의 고대 축성기술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980년부터 1998년까지 7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로 635점의 금속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최고 관리 계층이 소유할 수 있었던 청동 팔찌, 청동도장 등은 대모산성의 위상을 보여주며, 각종 농구류, 공구류 등을 통해 대모산성을 중심으로 그 관할지의 농업·수공업 생산력이 높았고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많은 농산물과 수공업품이 대모산성으로 집중·관리되어 물류거점의 역할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잊혀졌던 전통 발굴을 통해 재현된 <양주겨르매기 두레놀이>가 경기도 민속대회 수상을 계기로 재조명 받게 되었다. 양주 백석읍 겨르매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두레와 소리에 근거하여 조성된 놀이문화다. 겨르매기는 1700년경 숙종 시대에 단양 우씨들이 거주하면서 생겨났다. 이곳은 분지형태여서 오가는데 배를 이용하였으며, 배를 걸어 매던 곳이 ‘걸어매기’라는 말이 변화되어 겨르매기가 되었다. 양주 홍죽리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전해지는데,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인 사도소리, 꽃방아 타령 등이 구성요소다. 겨르매기 두레놀이 속에 재현되었다. 또한 2016년 <큰오미 집터 다지는 소리>가 발굴 재조명되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큰오미에서 전승되는 집터를 다지는 노동요를 근간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창조적 내용을 덧붙인 민요다. 백석읍을 중심으로 하면서 광적면 효촌리, 남면 경신리 등지에도 전승되었다. 현재 온전하게 전승을 잇는 가창자는 김환익, 최장환, 황상복 등이 있다. 지경단기는 지경돌(바위덩어리)을 가마니로 감고 그것에다 줄을 10~15 가닥 꼬아서 10~20명이 나눠 쥐고서 잡아당긴다. 그러면 지경을 닫는 바위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땅바닥을 튼실하게 닦게 된다. 보통 햇불을 밝히고 저녁에 많이 다졌다. 경기도 전역에서는 “지경이요”라는 후렴구가 공통적으로 쓰였다. 음식은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팔죽과 수수팔떡을 해먹었다.

2014년에는 『비문으로 본 양주역사Ⅲ』에 광산김씨 8분이 실리면서 광산김씨 종중에서 양주 입향 500년을 맞아, 사라져가는 향토유적을 역사자료로 남기기 위한 목적에서 판결사공파와 평정공파의 양파종중 역사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비문으로 본 양주 마전동 광산김씨가(상, 하)』가 편찬 발행되었다.

2015년에 『광적팔경』이 세간에 알려졌다. 지역 고서발굴의 결과 내석 이방림의 『내석만필』에서 언급한 광적면의 여덟가지 아름다운 풍경에 관한 한시를 번역하여 편집하고, 광적면사무소 앞에 기념게시판을 세웠다. 또한 양주팔경과 양주삼은(감악산 남을진, 송산 조건, 장흥 서산 가마골 성부) 및 남면팔경도 함께 실어 발간했다.

2016년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나도야 전통주 빛는 장인>이란 주제로 전통주 재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농산물과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전통주를 활성화하고 향토음식을 전승하며 전통주의 육성 및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여함은 물론, 세계화에 걸맞는 격조 높은 우리 음식 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전통주 가공기술을 습득하는 1년여에 걸친 체험교육행사를 추진했다.

2016년 『말뚝기와 떠나는 양주시문화 탐방기』가 출간되었다. 말뚝기는 양주별산대 놀이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캐릭터다. 말뚝이가 체험해 나가는 양주시 역사문화 탐방을 흥미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표현한 홍보용 책자이다.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0. 학술심포지움 개최와 시민 역사의식 고양

2016년에는 매년 양주의 대표적 역사인물 중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여 역사적 자리매김과 재조명을 통해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회 인물로 월정 윤근수 선생이 선정되었다. 양주문화원 주관으로 월정 윤근수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월정 서거 400년을 맞아 후손과 양주시민 그리고 후학들이 모여 선생을 기리는 사업회를 출범시켰다. 선생의 업적현장은 물론 양주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그들의 뜻을 기리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17년에는 지난해 월정 윤근수에 이어 두 번째로 휴암 백인걸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휴암은 조광조, 김안국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 중종 대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명종, 선조 초기까지 40여 년간 직제학, 대사헌, 대사간, 양주목사, 의정부우참찬 등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71세에 양주목사가 되었을 때 공납의 폐단을 개혁하는 치적을 쌓아 공덕비가 세워졌으며, 동서분당의 폐단을 지적하고 군비확장을 강조하고,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양성하

고 청백리에 뽑히는 등 나라사랑 정신과 선비로써 청렴하고 맑은 기품을 가진 우리 고장의 소중한 역사적 인물이다. 2016년에 월정 윤근수, 2017년 휴암 백인걸에 이어 2018년도 세 번째로 선정된 인물은 약창 박엽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약창 박엽은 조선 광해군 때의 문신으로, 반남박씨의 대부분이 서인인데 반해 그는 친광해군파였다. 문과급제 이후 이런저런 관직을 지내다, 광해군 9년 이후 6년 간 평안감사로 재직하며 서북변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이이첨을 탄핵하 고서도 무사할만큼 광해군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나, 인조반정 이후 처형된 인물이다. 11월 30 일 건대 박찬수 교수의 ‘광해군과 명청관계’, 역사문화대학 홍정덕의 ‘박엽의 재평가를 위한 관점 의 정리’, 한양대 이승수 교수의 ‘약창 박엽전-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등의 학술토론이 진행되었 다. 학술토론회 개최를 통해 재평가하여 올바른 역사적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그동안 조 명되지 않았던 양주의 인물들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16년 양주시는 전국적으로 양주 대표축제 공모제안을 받았다. 나리공원 꽃 관련, 무형문화재 관련, 회암사지 관련, 장흥관광지 관련, 농축특산물 관련, 기타에서 ‘천만송이 천일홍축제’가 선정 되어 매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에는 양주시 관내 대학인 경동대학, 서정대학의 교양학부 양주시 학습 교재로 양주시 교 육진흥원 주관 하에 양주문화원, 양주시 교육진흥원, 양주시 평생학습팀장, 서정대학, 경동대학 등이 참여해서 최초의 양주학이란 용어를 사용, 『양주학』을 편찬 발간하였다. 『양주학』은 양 주지역의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의 독 자성과 일반성을 찾아내어 양주지역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학문으로서 정의하였다. 또한 양주지 역 구성원의 시간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연구하는 종합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양주서예대전이 문화원 주최 로 열렸다. 서예의 저변확대와 신인작가 발굴 육성을 목표로 서예와 문인화 부문에 총 150점이 접 수되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특선작과 입선작을 선발하였다.

2017년 발간한 『알기쉬운 양주이야기』는 양주역사문화에 대한 선생님들의 지침서, 부모님들 의 안내서, 어린이들의 참고서를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양주시의 주요문화재인 양주회암사지와 부근의 무화유적,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격퇴시킨 해유령전첩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된 온릉, 그리고 여섯 개의 무형문화재와 양주향교, 그리고 유명한 산과 주요사찰들을 수록하여 양주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2017년 양주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학 강의’를 추진하였다.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철학, 역사, 문학, 언어, 심리, 사회, 기호, 종교분야의 학문) 강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과 평생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자신의 존재가치와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한층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인문학에서 삶의 지혜를 찾다’ 주제로 강연이 실시되었다. 배우 이원종의 ‘이원종의 연기와 인생’, 작가 김영숙의 ‘그림에 말을 걸다’, 이석 강사의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서은미 교수의 ‘차와 커피의 역사와 문화’, 황시원 교수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노년’, 박종혜 강사의 ‘노년기의 행복한 인생’, 홍정덕 교수의 ‘독도, 한국영유의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2017년 그동안 분기별로 발행해 오던 소식지 성격의 양주문화를 확대 발전시켜 종합 매거진 형식의 ‘양주문화’를 창간하였다. 양주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소식과 더불어 양주의 구석구석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실어 생동하는 양주시민의 모습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 양주의 진면목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018년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양주관련 기사만 발췌하여 번역한 <조선왕조실록 4권 및 부록>이 출간되었다. 본 자료집은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조선왕조실록』과 『고순종실록』 중에서 양주와 관련된 사료를 발췌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엮은 양주역사 자료집이다. 원 사료의 저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작업한 『태백산본』을 영인하여 인쇄한 『조선왕조실록』과 『고순종실록』으로 하였다. 번역문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번역하여 만든 『국역조선왕조실록』을 기본자료로 참고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순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여 시민들의 조선시대의 역사적 중요성과 정체성을 일깨우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록으로 『조선시대의 제도와 문화』라는 단행본도 함께 발간하였다.

양주의 향토사가 양주학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지역의 지역사 연구에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신 분들과 중앙의 연구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종합적인 부분이나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각의 도입이 요구되고,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과거연구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행정적으로 여러 조직으로 분리된 양주지역의 실정에서는 양주역사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미흡한 부문으로 남아있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계획이다. 즉 대모산성과 관련한 삼국시대 양주의 역사적 자리매김, 삼국시대 쟁투지역 내의 백성들의 생생한 삶, 의병활동 및 항일운동의 지속적인 자료발굴과 연구, 각 문중의 족보 및 고문서 수집연구와 영인본 간행, 환관관련 연구, 일제하에서 양주군민의 삶, 해방후 좌우대립 공간 속의 양주시민의 삶, 외국

군주둔과 양공주관련 연구, 6.25한국전쟁기간 양주시민의 삶, 마을이야기(현재 남면지, 양주동지 발간), 군부대주둔관련 등이 사료수집 및 연구 자체가 미흡한 상태이다.

두 번째는 사라져 가는 자연마을, 변해가는 사람들의 기록 등 실체에 대한 자료수집, 지역민의 구술과 외지인들과 다문화가족들의 삶에 대한 구술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분리된 양주지역의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이다. 대상은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이다.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이나, 문화원간 공동연구 분위기 조성, 일정한 기금출연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번째는 연구인력의 확충으로 관심있거나 능력있는 분들의 유인을 위한 방안마련이다. 장기적으로 학생교육을 통한 향토사관심을 고취시키고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적극 참여할 수 기회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관내 향토사관관련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내로 유입되는 역사문화관련 종사자나 은퇴하신 분들을 영입시킬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안정적 연구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책중 문제다. 지방자치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유동적인 현재 운영방식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지역 대기업의 협조 또는 지자체예산의 일정부분이 법제화 되거나 시의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역사 문화관련 단체들이 문화원과 유기적인 결합 또는 소통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원 임직원의 전향적인 노력을 통해 자문위원 등 문화원 조직에 동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로 역사문화 가치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축제로 승화시켜 상시적으로 전시민이 즐기며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제문제들이 시급히 추진되고 개선되어야만 양주학은 더욱 발전하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의 핵심으로서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지역사랑으로 이어지고, 지역민의 자부심 고양은 물론 양주시의 미래창조에 지대한 기여가 되리라 판단된다.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노력 없이 열리는 미래는 없다. 역사적 문화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비전이나 발전전략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문화는 꽃피우고 행복한 시민문화생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지역학의 역할과 발전은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다.

여 백

포천의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최 창 근 (포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I. 개설(역사적 고찰)

II. 수려한 경관이 배출한 포천의 인물

III. 그간의 향토문화 연구 실적

IV. 수려한 경관이 인물을 모이게 하고 명작을 남기었다

V. 앞으로의 발전 방향

집필자

최 창 근

포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I. 개설(역사적 고찰)

포천의 향토문화 연구를 논하기 전에 먼저 포천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인물들의 변천과 그 과정을 알아보고, 후대 인들이 얼마나 기록하고 보존하고 물려받은 것을 연구 발전하였는가를 논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듯하다.



포천은 삼국시대 이전은 수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도 10여개소의 고인들이 남아 있으나 형태가 온전히 보존된 것은 4개소에 불과하다. 그 중에도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포천금현리 지석묘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자료 47호로 지정될 만큼 규모도 웅장하고 보존상태도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금현리 마을 주민들의 지극한 관심 속에 안내 하는 유도 솟대도 세우고, 금현4리 노인정 회원이 1일 1인 당번제로 조기 청소를 하며 여름철은 마을 청년

들에 의하여 주 1회 예초 작업을 하여 항상 정갈하여 찾는 이들을 상쾌하게 한다. 또한 노인회장 리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은 마을의 대소사(총회 경로잔치 마을 관광 보름 척사대회 등)를 고유하는 장소로 신성시 하고 있다. 일부의 향토학자들은 강력한 국가가 이곳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포천 지역은 한탄강을 따라 서북 지역 또는 한강 하류 지역과 연결되고, 추가령 지구대를 따라 동북쪽으로 주민의 이동로가 펼쳐져 있다. 사방으로 교차적인 위치에 있어서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것이 선사 시대의 문화상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포천의 선사 문화는 한강의 하류 지역과 서해의 도서 지역, 동해안의 선사 문화들과 공통되는 점이 있다.

포천 지역은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구석기 시대 유적은 주로 한탄강·영평천·포천천 유역을 따라 분포하는데, 선사 시대 사람들이 수량이 풍부하고 평야 및 구릉지가 교차하는 곳에 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탄강 유역의 포천시 관인면 중리 문배들 유적, 중리 늘거리 유적, 중리 아래 심재 유적을 비롯하여 사정리 화적연 유적, 자일리 팔호 유적, 운천리 오호 유적 등은 임진강 유역의 전기 구석기와는 달리 후기 구석기 시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구려 시대에는 마홀군(馬忽郡)으로 지방의 관서가 있었다. 포천의 중심지 안에 청성산(靑城



山-일명 半月山 283m)이 있다. 이 곳에 반월산성이 있는데 성곽 둘레 길이가 1080m 이고 퇴폐식 산성이다 현재 국가 사적 403호로 지정되었는데 1986년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지표에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이라 새겨진 기와 조각이 출토되어 포천의 옛 고구려 때 지명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신라에 속하였을 때는 동음현

(洞陰縣) 양골현(梁骨縣). 진흥왕 때 견성군(堅城郡)으로 불려오다가 35대 경덕왕 때는 청성군(靑城郡)으로 되었으며 고려조에서는 포주(抱州)로 되었다가 조선조 태종 13년(1415년) 포천현으로 변경되었으며, 1895년 포천군으로 승격이 되고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영평군이 포천군으로 편입하였으며 2003년 10월 19일 포천시로 승격되어 1읍 11면 2동체제로 행정이 수행되고 있다.

포천의 지형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긴 가운데 중앙이라 하여 영중면(永中面)이란 면 이름이 지어졌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더 중앙이라는 영평리(永平里)가 있기도 하다. 포천과 영평은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하여 서로 인접해 있으며 전부터 교육과 문화 예술이 교환되고 상거래가 형성되었으며, 지방관의 임기가 끝나고 공석중인 현감의 대리권을 서로 위임 받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지형적으로 포천은 낮은 구릉지에 평야가 많고 영평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포천에는 인물이 나고 영평에는 경치가 좋다” 라고 선현들이 표현하였다.

II. 수려한 경관이 배출한 포천의 인물

명당(明堂-山勢 水勢가 합하는 곳)에서 인물이 나고 인물이 고장을 드러낸다. 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고려조의 정승 두 분이 묻히시었고, 조선조 상신이 10여분이 배출된 가운데 영상의 묘가 20기가 넘어 지방문화재 또는 향토유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포천은 또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전에 신의왕후 한씨가 가산면 금현리(자연부락명 궁말)에서 농장을 일구며 살았고 2부인 신덕왕후 강씨는 해룡산 아래 선단동에서 태종 방원을 보호하며 왕권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하였다. 지금도 용정이니 망대니 도피굴 이니 하는 유적이 남아 있어 전주이씨 종약원 포천지원장 이주석(전 도의원 2선) 회장이 유적지에 표석을 세우고

자 하였으나 그 자리는 타인의 소유라 세울 수가 없어서 설운동에 위치한 차의과대학교 경내에 세우기로 합의가 되었으며, 금현리 궁말의 신의왕후 유적지는 부근에 있는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35호 포천메나리 연습장 내에 세우기로 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잠저 시에 살던 곳과 곳곳에 기도하였다는 기도터, 군사훈련을 시키었다는 곳, 밤에 잘 때 군사들이 호위하였다하여 마을 이름이 호병골(護兵골 신읍4통)로도 내려오며 포천문화원에서 발간한 [포천의 지명 유래집]에도 30 여 곳 이상이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성계와는 의형제 간으로 형제보다 가깝고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운 청해백 이지란(툰두란)도 30리 거리에 거주하면서 항상 군사훈련과 출전을 같이 하였다. 청해 이씨 시조인 이지란은 후손 정사공신 이증로(1577-1624)에 의하여 더욱 그 이름이 빛나고 있다. 이증로는 경기 강원 양도 방어사로 이괄의 난 때 예성강 상류 마탄에서 1624년 전사하였다. 그 전해인 1623년 김류 이귀 등과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로로 정사공신 2등에 녹훈되고 청흥군(淸興君)에 봉하여졌으며, 정사공신 교서는 국가 보물 11741호로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도 조선이 개국되며 태조가 강무와 사냥을 겸하여 12회(재위 7년)를 포천을 찾았고 태종도 아버지의 기상을 따르고 영평의 경관을 즐기려 18회(재위 18년)를 방문하였고, 세종 또한 36회(재위 32년)를 포천을 방문하여 훈련과 사냥, 군신간의 화합을 다지는 행차를 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여러 차례 지명이 바뀌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영평현 관아에서 숙식을 하고 지금의 미 8군 사격 훈련장에서 훈련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조선 중기의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오성대감 이항복 한음대감 이덕형도 포천인으로 위기에 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고 시간을 내어 포천의 경관을 시문으로 남기었다. 사학자 마다 평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포천과 관련된 사학자들은 조선의 삼충신을 유응부 조득남 최익현을 꼽는다. 이 삼충신 또한 포천에서 출생하여 학문을 익히어 환로(宦路)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이 밖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사명을 바치시며 문명(文名)을 날리신 분이 봉래 양사언, 약봉 서성, 척재 이서구, 용주 조정, 줄탄 김권, 삼연 김창흡, 촌로 김성대, 우복 류전, 창주 이성길, 대곡 김석문, 중암 김평묵, 면암 최익현, 용서 유기일, 동농 이해조 …… 수도 없이 많은 문사들이 포천에서 출생하여 영평의 경관을 시문으로 남기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여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고 태평성대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왕을 지극히 섬기는 애국 충정의 길을 가게 한 데에는 지역적 특성이 뒷받침 하였다고 생각한다.

포천에 인물, 영평의 산수(山水)라고 전해 내려오는 말이 사실임이 입증된다. 위에서 열거한 인물이 10에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포천에 연고도 없이 벼슬살이에서 잠시 물러나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며 포천에 은거하며 경관을 즐기고 정치적 동지와 문인을 초청 시회(詩會)를 열고 살다보

니 그 정취에 묻혀 포천에서 세상을 뒤로하고 묻히신 분이 부지기수이며, 포천의 명승을 구경 왔다가 그 근처에 주거를 마련하고 아주 눌러 사신 분도 또한 헤아리지 못할 정도이다. 그 무엇이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학식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포천의 어느 곳에 반하였는지 살펴보고 포천의 향토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시었는지 살펴보고 현재의 향토사 연구의 성과는 어디까지 왔으며 그 대책은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그간의 향토문화 연구 실적

향토문화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시 군 단위에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시작 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역에 사시는 학자들에 의하여 수집 편찬한 군 읍지, 문집 등이 내려오기는 하였다. 포천문화원은 1986년 지역사회의 개발과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7년 1월 5일 포천문화원의 부설로 향토사연구소가 설립되고 그 사업과 목표가 더욱 확실해 졌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예술의 계발진흥에 관한사항
3. 향토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행사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향토지 및 지방문화 사업자료 등의 편간에 관한 사항
6. 향토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7. 국내의 문화단체와의 제휴,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원만하고 수준 있게 수행하고자 한시(漢詩) 작가이며 교육자이시고 국사 편찬위원으로 활약하시는 이효종 선생님이 초대 소장으로 추대(推戴)되시었다.

그 간의 향토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보면 초대 소장께서는 자신의 문집으로 6순에 「포천의 선비 문화」, 7순에 「한국인의 선비 정신」, 8순에 「청성 한시집」, 9순에 「포천을 빛낸 인물 50인」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였으며 2019년까지 세 번째 향토사연구소장이 바뀌면서 향토문화 연구에 노력한 결과 귀중한 자료들이 책자로 간행되었다. 『포천금석문대관』, 『포천의 설

화』, 『향토문화 유적 사료집 제1집 1991』, 『향토문화 유적사료집 제2집』 (1993), 『포천문화원의 10년사 1986~1996』, 『포천향토사료총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상(上)』, 『향토문화자료집 3집』, 『포천의 서원 향토문화자료집 5집』, 『포천의 사.단.정려(抱川의 祠.壇.旌閭)』, 『포천역사문화 개관』, 『포천의 문화유산』, 『포천의 인물지』, 『포천 향토사료 총람 하(下)』, 『포천의 지명유래집』, 『포천의 민속』, 『포천의 독립운동사』, 『향토문화자료집 제7집』, 『포천의 설화』, 『포천의 옛사진』 『연혁집(沿革集 관내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 『포천전통문화마을』 을 비롯하여 『포천문화』 25년간 간행, 『반월』 31년간 간행, 계간 『포천문화사랑』 을 30년간 간행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포천의 대표인물 중 3-4인을 선정하여 학술발표회를 하고 그 중 한분을 문중의 협조를 받아 전국 한시(漢詩) 백일장을 2019년 19회째 개최하였다. 그 중 입선작 100여 편을 책자로 500권씩 19회를 간행하여 백일장 참가자와 전국 한시 협회와 회원 등 관계요처에 배부하여 왔다. 포천문화원의 30년사를 총 정리한 「2016 포천문화원 30년사」 를 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천을 빛낸 인물 학술 발표회라 할 것이다. 2018년 13년차로 포천을 빛낸 인물 3-4명을 선정하여 대학교의 전공 교수에게 의뢰하여 학술발표를 하는 것으로써 많은 시민과 문중에 호응을 받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약술하고자 한다.

①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집 2006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문정공 성여왕(1)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90-120명
충목공 유응부	대진대 교수 권인호	유림회관	"
백사 이항복	한국학중앙회 안장리	유림회관	"

②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2집 2007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한음 이덕형	대진대 교수 박경자	유림회관	90-120명
고운 최치원	국민대 교수 지두환	유림회관	"
봉래 양사언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

③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3집 2008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독곡 성석린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90-120명
문곡 김수항	국민대 교수 지두환	유림회관	"
충민공 권증	대진대 교수 권인호	유림회관	"
청흥군 이중로	한북대 교수 홍정덕	유림회관	"

④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4집 2009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농암 김창협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90-120명
강산 이서구	한국학중앙회 안장리	유림회관	"
광암 이 벽	한림대HK교수이경구	유림회관	"

⑤ 포천을 빛낸 인문 연구 제5집 2010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문정공 성여완(II)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90-120명
백강 이경여	문학박사 성당제	유림회관	"
중암 김평묵	대진대 교수 박경자	유림회관	"

⑥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6집 2011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지천 황정욱	성균관대 김중서	유림회관	90-120명
동은 이익건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
삼연 김창흠	대진대 교수 박경자	유림회관	"

⑦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7집 2012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노포당 유 순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90-120명
졸탄 김석문	경기도박물관 김성환	유림회관	"
점재 백동수	한국병학소장 김영호	유림회관	"

⑧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8집 2013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우복당 유 전	강남대 교수 홍순석	유림회관	90-120명
과재 정만석	대진대 교수 박진태	유림회관	"
면암 최익현	대진대 교수 박경자	유림회관	"

⑨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9집 2014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영재 유득공	대진대 교수 박진태	포천문화원강당	90-120명
초정 박제가	대진대 교수 박경자	포천문화원강당	"
연경재 성해응	강남대 교수 홍순석	포천문화원강당	"

⑩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0집 2015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토정 이지함	대진대 교수 박윤선	포천문화원강당	90-120명
창주 이성길	대진대 교수 박진태	포천문화원강당	"
감호 양만고	강남대 교수 홍순석	포천문화원강당	"

⑪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1집 2016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청주양씨의 정착	강남대 교수 홍순석	포천문화원강당	90-120명
촌로 김성대	향토사학자 이증훈	포천문화원강당	"
독수리 유격대	육군대 교수 김창주	포천문화원강당	"

⑫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2집 2017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척약재 김구용	강남대 교수 홍순석	포천문화원강당	90-120명
소총 홍유손	대진대 교수 박진태	포천문화원강당	"
만사 서경우	대진대 교수 박윤선	포천문화원강당	"

⑬ 포천을 빛낸 인물 연구 제13집 2018 학술 연구 발표회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감호 양반고	강남대 교수 홍순석	포천문화원강당	90-120명
민주투사 장준하	한신대 교수 장호권	포천문화원강당	"

⑭ 포천전통문화마을 학술연구발표회 특별

대상인물	발표자	발표장소	참석인원
포천메나리	기능보유자 김영오	포천문화원강당	90-120명
틀무시 동해	향토사 소장 최창근	포천문화원강당	"
가노농악	서강대 교수 강진모	포천문화원강당	"

IV. 수려한 경관이 인물을 모이게 하고 명작을 남기었다

조선 시대를 살던 사대부들은 정신수양과 학문정진에 대상이 되었던 산수에 제명(題名)하여 팔경을 가려 뽑았다. 상당부분 과장된 경승지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미치지 못하는 경승지를 올려 정하기도 하였을 것이며 팔경이 넘는 곳은 빼어난 경관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불공정한 현상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귀에 익숙한 관동팔경 단양팔경 송도팔경 등은 어느 곳 하나 빠지고 부족함이 없는 경승지 이지만 포천의 영평팔경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선조(宣祖) 대에 14년간 정승의 위에 있다가 포천 창옥병 근처로 퇴은한 사암(思庵) 박순(朴淳) 선생은 오동산수는 차현이 최명(吾東山水는 此縣이 最名-우리 나라의 자연 경관은 영평현이 최고) 하다고 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학자 소암(所菴) 이병원(李秉遠)은 「영평 산수 가운데 노닐만한 곳을 쓰다.」라는 장문의 기행문을 남기었으며, 숙종 대 상신으로 남인의 영수였던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영평의 산수를 극찬하며 많은 시문을 남기고 용주(龍洲) 조경과 백운산을 답사하고 백운계기(白雲溪記)를 남기고 경기지역의 경승 가운데 영평팔경을 으뜸으로 꼽았다. 다음은 그 팔경을 일일이 소개하고 어떠한 문인이 어떠한 시를 남기었고 후세인들은 그 시(詩)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기술코자 한다.

① 화적연(禾積淵)은 산정호수가 있는 영북면 자일리에 있다. 글자대로 풀이해도 벼단을 쌓아 놓은 형상을 한 바위와 연못이다. 미수(眉叟) 허목은 영평 지역 경관을 두루 유람한 후 화적연의 형상과 풍경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이곳을 흐르는 물은 청화산(靑華山)에서 발원하여 화강(花江)의 물과 합류하여 육창(陸



창 철원의 옛 이름)을 지나 칠담 팔만암(七潭八萬巖)이 되고, 영평 북쪽에 이르러 화적연이 된다. 동쪽 기슭은 긴 벼랑과 소나무 숲이며, 그 아래는 석장(石場)으로 모두 흰 바위돌이다. 북쪽은 석봉(石峰)으로 수중에 백척 높이로 서 있다. 위에는 지극히 고요한 감료(甘潦-물이 고이게 움푹한 곳)가 있는데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 준다. 옆에는 용혈석(龍穴石)이 있는데 아래에 끝이 안 보이는 구멍이 있다. 시냇물은 굽이굽이 흘러 남쪽 기슭에 이르면 푸른 절벽이 화적연에 잠

겨 있다. 바위 주위에는 소나무며 철쭉이 많다。」라고 하였는데 미수 허목이 가신 지 삼백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 당시의 글과 비교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지도 모른다. 주변에 소나무는 보이지 않으며 끝이 안 보이는 용혈은 찾은 사람이 없다. 화적연의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선조 대 재상인 사암(思庵) 박순(朴淳)영



상이 1586년 영평에 은거한 후 화적연의 경치에 탄복해 시를 남기면서부터 전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 전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유석향(乳石鄉)이라고 하여 마을 단위의 이름일 것으로 사료된다. 화적연은 그 당시가 농경사회임을 표현하기도 한다. 풍요를 상징하는 벼가리와 조선 중기에는 가뭄이 극심할 때 조정에서 재상을 파견하여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송도(松都)를 포함한 교(郊) 지역에서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유명한 기우제 터였다. 특히 화적연은 용과 관련된 전설과 형상을 하고 있어 기우제 중 용신제(龍神祭- 1628년 5월 중신을 파견하여 기우제를 지낸 제문(祭文)이 백헌문집에 수록)를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암 박순 이민구 허목 등 문인이 서계집, 사암집, 기언, 화서집 등에 23편이 실려 있을 정도로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명승지이다. 또한 정선, 정수영, 이윤영 등 18세기 유명 진경산수 화가들이 화적연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도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지정되어 전해오고 있다.

옛 선비들이 남기신 시문을 2004년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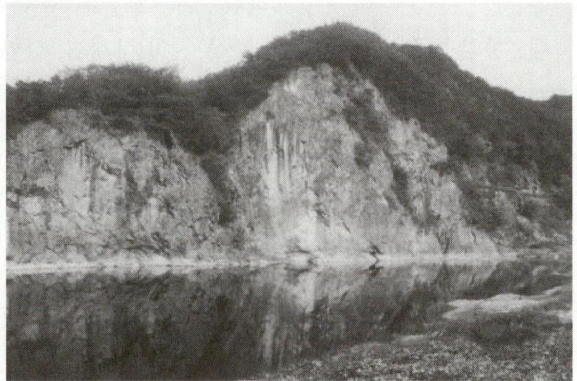
화 적 연(禾積淵)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나
 세월에 한을 실어 흐르다 고였더냐
 벼짚단 싸놓고 머리를 틀었나
 비둘기 모양인가 용머리 형상인가
 일어날듯 말듯이 주저앉았네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나.

마당 바위 화적에서 멈췄다 가는 물이
 모퉁이 휘돌면서 백사장을 펼쳤구나
 하늘이여 비를 주소서 기우제 올리던
 농부의 그 음성이 귓가에 아련한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냐.

억수 같은 장대비 용솟음 오르고
 그 물살 화적연에 소용돌이 지나면
 선비들 둘러 앉아 문장을 읊었다네
 화적연 빼어남을 그 누가 시샘하랴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드냐.

② 창옥병(蒼玉屏)은 창수면 주원리에 있다. 창옥병은 앞서에도 언급하였지만 사암(思庵) 박순(朴淳)과 너무나도 관련이 많다. 연려실기술(鍊藜室記述이공익 저 아사총서)에는 「박순이 1586년 벼슬길에서 물러나 영평에 살았는데 거처에 배견와(拜鵠窩), 이양정(二養亭), 백운계(白雲溪), 청랭담(淸冷潭), 토운상(吐雲床), 창옥병(蒼玉屏), 산금대(散衿臺), 청학대(靑鶴臺), 백운대(白雲臺) 등이 있었다.」 라고 해 사암이 지은 배견와와 이양정 주변에는 창옥병과 함께 많은 경승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순은 이양정기를 지어 창옥병 부근에 있는 11개의 명소를 이양정 절벽에 새겼다. 창옥병에는 박순을 비롯하여 영평의 경승에 대한 석문(石文)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선조(宣祖)가 박순의 지조와 절개를 높이 내린 윤음인 송균절조 수월정신(松均節操 水月精神)을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써 영평천가 지금의 옥병서원(玉屏書院) 앞 암벽에 새긴 것이 450년이 다된 지금에도 선명히 남아 있다. 그 옆으로 박순이 짓고 김수증(金守澄)이 쓴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의 시문이 각자(刻字)되어 있다. 박순은 창옥병의 풍광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지은 박순의 신도비 명에는 「영평에는 백운산이 있어 시내와 못이 절승하





였으므로, 공이 이내 집을 짓고 살았는데, 깨끗이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매일 촌민 야로(野老)와 함께 자리를 다투며 한가로이 세월을 보냈으며, 배우러 오는 이가 있으면 서로 토론하여 지칠 줄을 몰랐다. 거기에는 유명한 배견와·이양정·토운대가 있고 백운계 금수담 창옥병이 둘러 있는데

.....상(上-임금)이 공에게 영원히 떠나 버릴 뜻이 있음을 알고 어의(御醫)를 보내어 문병하고 세 차례나 소명을 내렸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 창옥병과 영평에 은거해 남은 여생을 산수유람과 작시(作詩)에 취해 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후학들은 박순의 안빈낙도(安貧樂道)한 삶을 본받고자 사암이 거쳐했던 배견와 뒤편에 옥병서원(玉屏書院)을 지어 그 뜻을 헌양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 볼 때 창옥병과 일대의 경승들은 박순의 향저(鄉邸)와 정원(庭園) 명소로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창옥병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문서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으로 생각된다. ①화적연(禾積淵)에서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창옥병(蒼玉屏)

나무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바위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병풍을 둘러친 듯 부채를 펼친 듯이 들쭉날쭉 울퉁불퉁
나래 편 봉황이 박힌 바위 점점이 떠서 백로와 노닌다오.
산 그림자 절벽 아래로 낙락장송 고고한데
불빛을 안주하여 놓고 간들 어떨고
그것이 싫증나면 신발 벗고 뛰어들어
발 담그고 드러누워 신선흥내 내리라
발 담그고 드러누워 신선흥내 내리라.

③ 금수정(金水亭)은 창수면 오가리(五佳里)에 있다. 지은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으나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조선 중기 현재의 장소에 김명리라는 사람이 우두정이라는 정

자를 지었는데 얼마 후 이 정자를 조선시대 시인이자 서예가로 널리 알려진 양사언(楊士彦)에게 주었으며, 이름을 금수정으로 고쳤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로 보면 금수정은 먼저의 이름이 지형에 따라 지은 우두정(牛頭亭)임을 알 수 있고 현재의 금수정은 안동 김씨 문은공파 후손들의 소유로 되어 있다. 여유당



전서(與猶堂全書)에는 「금수정이 우두연가에 있으며 그 연(淵)위에 또 봉래의 시를 새긴 것이 있는데 그 글자체가 역시 기이하다.」라고 해 금수정에 당대의 문장가 명필가가 머물던 곳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금수정이 지상의 낙원이라는 뜻의 경도(瓊島)는 큰 글씨를 잘 썼던 양사언의 필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석문(石文)으로 이덕형 한호 이서구 등 당대 유명한 문인들이 이 곳을 찾아 양사언의 뜻을 잇고자 했다. 현재의 금수정은 6.25전쟁 때 완전히 소실된 것을 1980년대 포천시에서 복원한 것이다.

- ① 화적연(禾積淵) ②창옥병(蒼玉屏)에서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금수정(金水亭)

금수정 발 아래로 물결 휘감아 들고
 쪽빛 하늘에 석양이 지누나
 지친 나그네야 쉬어나 가자
 백로 왜가리는 돌섬에서 고개 빼들고
 물 속을 노리며 저녁거리 더듬는다.
 먹고 먹히는 천리가 여기에도 있는 것을
 세월 넘는 풍류소리 귓가에 스치는데
 멋없이 혼자이니 그 뉘가 들어주라
 쉬임 없고 태고를 잇는 냇물은 말이 없고
 붉은 노을은 시름의 한을 싣고 서산을 넘는다.

- ④ 낙귀정(樂歸亭)은 영중면 거사리(居士里)에 있는 정자로 선조 대 대신을 지낸 황정욱 대신

이 벼슬에서 물러나와 이 곳에다 낙귀정(樂歸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냇가에 낚시대 드리우고 월천(越川)하는过客(過客)을 도와주며 낙을 즐기던 황정욱 대신이 임진왜란 때 임해군과 의병을 모집하며 활동하던 중 가동청정에게 잡히어 구금되었다. 기지로 임화군 순화군 두 왕자를 구출하고 벼슬길에서 나왔으나 구금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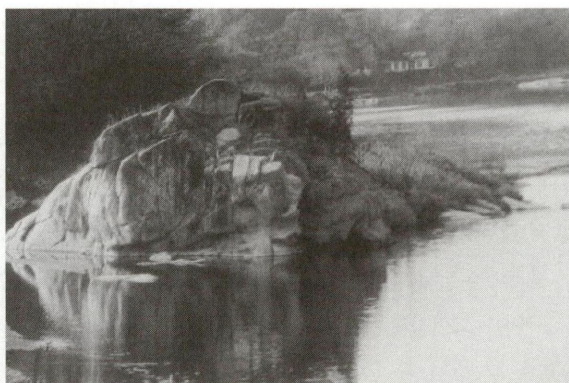
었을 때 항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관직이 삭탈되고 약사발을 받게 되었다. 황정욱 대신은 세종 대 명 재상 황희(黃喜) 정승의 6대손으로 외교관으로도 큰 공을 세운 대신이다. 명나라의 조선사 기록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된 것을 환조의 아들이라고 바로 잡아 정리한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 1등에 장계부원군의 봉호를 받기도 하였다. 사후(死後)에 신원(伸冤)이 됨.

사암 박순의 시와 지천 황정욱의 시문이 전해오는 것을 ①화적연(禾積淵) ②창옥병(蒼玉屏) ③금수정(金水亭)에서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낙 귀 정(樂歸亭)

내 돌아가 즐겁게 살으리라
정자 짓고 살던 사람 사약 받고 죽었다네
전설의 고향에선 허를 물고 피를 토해 불귀객이 되었다니
천만년 살면서도 건너지 못하는 바위섬에
낚시 드리우고 고기잡는 어부되어 벗님 부르고
지나는 길손도 잡아 앉히고 풍류 즐기는 인생으로 살고 파라
낙귀는 불귀(不歸)되고 텅 빈 집터에는
주춧돌만 뒹구는데 세상 향해 무슨 욕심 배를 채우려오
배불리 먹었다고 존경할 이 없고
배 끓고 끓는 것이 자랑도 아니라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으면 하오.

⑤ 백로주(白鷺洲)는 영중면 금주리 43번 국도변에 위치하는 바위섬으로 사암 박순. 우암 송시열. 미수 허목. 용주 조정 등 많은 문인 명필가들이 석문을 남기었다. 옛날에도 경흥로(북관대로)라 하여 정치 행정 수행의 도로. 군사 외교상의 도로. 물자 유통의 도로. 산자수명한 자연 경관의 유람과 금강산으로 가는 직로



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문사들이 모여 시작을 바위에 새긴 것이다. 포천의 관문 축석령. 남양주 경계의 죽엽산. 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천보산에서 발원한 물이 모여 한내천을 이루고 북으로 향해 흐르다가 화현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거대한 바위섬과 만나고 금주산 자락이 끝나는 지점에 형성된 바위 절벽으로 찾는 이들이 모두 감탄하며 저절로 시흥(詩興)이 살아난다고 한다.

①화적연(禾積淵) ②창옥병(蒼玉屏) ③금수정(金水亭) ④낙귀정(樂歸亭)에서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백로주(白鷺洲)

바위산 북으로 꺾어 역수하는 물길이
영평천 쉼터에서 발길 멈춘다.
백로는 떼지어 노닐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곳
저기 터 잡고 선 조각은 백로의 고향인양 우뚝하구나
같이 한 번 놀아보세 백로 함께 놀아보세
이 아니 좋을 손가 이 아니 좋을 손가
건하게 취하거든 깨우지 말고 자게 하오
선비의 하루가 이만하면 족한 것
인생무상(人生無常) 남가일몽(南柯一夢)
이보다 큰 낙(樂)이 어디 있으리오.

⑥ 청학동(靑鶴洞)은 영중면 금주리에 있다. 금주산에서 남쪽으로 내달리던 한 지맥이 화현천을 만나며 우뚝한 절벽을 만 들고 내려 바위 위로는 옥류가 흘러 선비 들이 시회(詩會)와 천렵(川獵)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이다. 숙종 대 문신 운계(雲溪)유창(兪暢)의 유청학동(遊靑鶴洞) 시 가 전해오고 있으며, 내려오는 전설로는



한 효자 아들이 아버지의 묘를 쓰려고 땅을 파니 청학이 끼득 대며 울고 날아가 파던 흙을 다시 메우고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어 발복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①화적연(禾積淵) ②창옥병(蒼玉屏) ③금수정(金水亭) ④낙귀정(樂歸亭) ⑤백로주(白鷺洲)에서 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청 학 동(靑鶴洞)

청학이 울었다는 청학동의 이야기는
하늘의 뜻 알아챈 효자 아들이
팠던 흙 되덮고 돌아서려니
청학도 한 바퀴 돌고 돌아다네
푸른 학의 날개 짓은 신선의 자태였고
끼득거리는 그 목소리는 파랑새의 슬픔이었네
어쩌면 이곳은 요순시대 백성들만
드나들어야 될 곳 같은
속되지 않은 정경이
찾아든 이들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아무리 오랜 세월 흘러도 세월 흘러도
퇴색할 것 같지 않은 청학동의 사연은
언제고 하늘 뜻 같이 의연하고 품위 있게
우리의 강산임을 우리의 강산임을 말하리라.

⑦ 와룡암(臥龍巖)은 일동면 수입리에 있다. 백운산에서 발원한 영평천이 일동 청계산에서 발원한 수입천과 합류되는 지점으로 협곡을 이루며 많은 물이 흐르고 있어 하천 바닥에 용기한 암반이 흐르는 물과 부딪치어 용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와룡암이라 이름 지어진 경승지이다. 하천의 양쪽 절벽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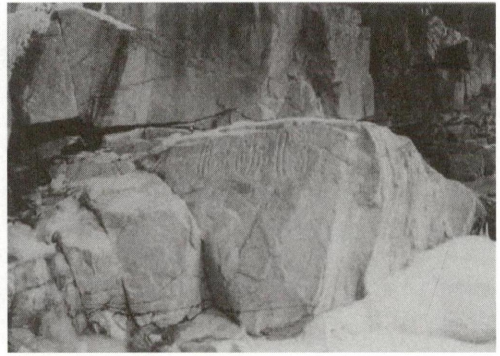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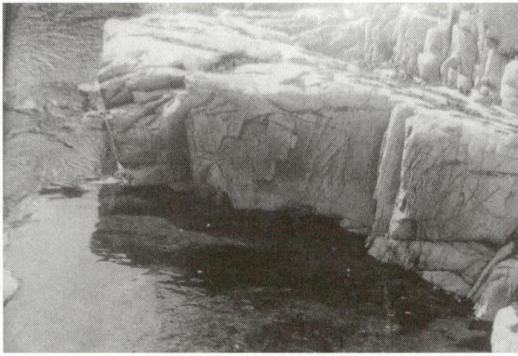
물 철쭉이 군락하여 꽃피는 5월에는 시선(詩仙)들이 집중으로 모여 시회를 하던 곳으로 선조의 왕자 인홍군의 6대손인 척재(楊齋) 李書九 대신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38도 선이 하천 중앙을 지나고 있어 6.25 동란 전부터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으며 전쟁 후에는 군사요충지로 하천이 범람하여 통행이 단절되어 군 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유수(流水)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와룡암을 파괴하여 유수가 급류로 변하여 현재는 철쭉도 대부분 떠내려가고 작은 와룡들이 물에 잠기고 드러내기를 반복한다.

①화적연(禾積淵) ②창옥병(蒼玉屏) ③금수정(金水亭) ④낙귀정(樂歸亭) ⑤백로주(白鷺洲) ⑥청학동(靑鶴洞) 에서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와룡암(臥龍巖)

수억년을 닳고 닳아 기암이 되었구나
문지르고 부딪혀서 용바위 되었단고
철쭉꽃 5월에는 빨간 물 되었다가
장마철 7월에는 황토빛으로 흐르네
이무기 수천년에 용으로 환생해서
누워서도 용트림하는구나
괴괴한 두 눈 부릅떠 꼬리를 쳐라
하늘과 땅이 울고 만상을 울게 하여라.

⑧ 선유담(仙遊潭)은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 입구에 있다. 백운산에서 발원한 백운천과 광덕산에서 발원한 광덕천이 만나며 수량이 많아지고 암반 위를 흐르며 절경을 만들어 낸다. 상류



홍룡사 계곡에는 국가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제기소(祭基沼)가 있어 천년 고찰 홍룡사와 조화를 이루어 여름철 피서지로 최고로 꼽을 정도이니 옛날 수목이 우거진 상태에서 선비들이 와서 보고 시흥(詩興)이 절로 났으리라. 선유담은 선녀가 하강하여 놀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고는 포천 출신으로 조선조의 최고 명필인 봉래 양사언이 특이한 체로 [선유담(仙遊潭)]이라고 각자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홍룡사에서 2km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 봉래가 무슨 난을 피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다가 간성 이씨 부인은 선유담 근처에 움막을 짓고 난을 피하게 하고 봉래는 이 굴에 은거하였다하는 봉래굴이 있는데 지금도 훈련 나온 병사들이 10여 명씩 자고 가는 훈련장으로 쓰인다. 선유담 근처 움막에서 살던 이씨 부인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조금 남은 콩을 모래 속에 층층이 심어 놓고 콩나물이 나오는 순서대로 뽑아서 식량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지금도 모래사장에는 들 콩이 나오는데 그 때에 심은 콩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선유담은 양사언을 비롯한 용주 조정, 미수 허목 등이 백운산을 유람하고 장문의 [백운산수기(白雲山水記)]를 지은 것이 용주 유고와 미수 기문에 올려 있다.

①화적연(禾積淵) ②창옥병(蒼玉屏) ③금수정(金水亭) ④낙귀정(樂歸亭) ⑤백로주(白鷺洲) ⑥청학동(靑鶴洞) ⑦와룡암(臥龍巖)에서와 같이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등에 의하여 우리말로 가사를 압축하여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었다.

선 유 담(仙遊潭)

선녀가 놀았으니 선비도 놀았으리
선유담 골짜기는 한 여름도 서늘코나
바위 그릇에 물 담아 아래로만 흘린다
몸 담아 마음 씻고 한 잔 술에 부일배하면
신선놀음 별것인가

세월 따라 함께 늙는 소나무 울창하고 보일듯 말 듯
 나뭇잎 사이로 황금 햇살이 물결 위에 일렁인다.
 건너편 바위에는 '선유담(仙遊潭)'세 글자가
 아련한 천년세월 옛 이끼를 깔았구나
 무심한 세월이 여기에도 비껴가지 않았으니

오랜 시간의 각고 끝에 영평팔경의 가사를 완료한 그 당시의 향토사 연구소장과 예총회장은 포천문화원장 포천향교 전교 포천교육장 향토사학자 이효종 등을 오찬장으로 초청하여 작시한 시를 낭송하며 지문을 구했다. 고시문과 역사적 자료를 고증으로 작사한 시에 대하여는 무엇인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사암 박순 선생께서 지으셨다고 포천군지에 실려 있는 영평 팔경가를 서시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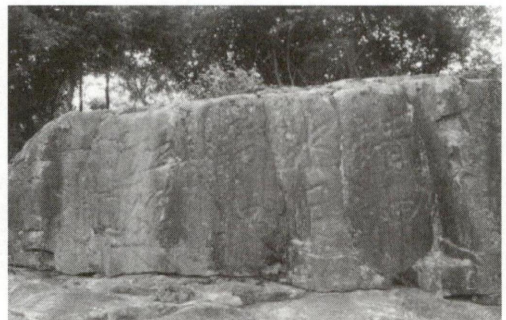
영 평 팔 경 가(永平八景歌)

화적연(禾積淵)-화적에서 벼를 털어
 금수정(金水亭)-금수로 술을 빚어
 창옥병(蒼玉屏)-창옥병에 넣어 들고
 와룡암(臥龍巖)-와룡을 빚겨 타고
 낙귀정(樂歸亭)-낙귀정 돌아드니
 백로주(白鷺洲)-백로는 횡강하고
 청학동(靑鶴洞)-청학이 날아드니
 선유담(仙遊潭)-선유담이 예아니나.

를 서곡에 넣기로 하고 선조 임금께서 내리신 윤음인 송균절조 수월정신에 바탕하여 팔경과 관련이 있는 시문을 남기신 정승과 판서의 이름을 가사에 넣어 생동감을 더하게 하였다.

수 월 정 신(水月精神)

수월정신 박순 선생 영평팔경 시 남기고
 시조명인 봉래 선생 곳곳에 이름났네
 오성대감 이항복 한음대감 이덕형
 양문대신 이서구 서성선생 약봉대감



포천의 정승 판서 풍류판이 벌어졌네
시 짓고 풍류 읊고 장구치고 피리불고
이 땅의 태평성대 이만하면 어떠리오.

위의 10편의 가사가 완성되게 된 이유는 박영실(朴英實)명창이 포천에 정착하여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박영실 명창은 공중과 방송과 수차 언론에 소개되었지만 경기민요 중요 무형문화재 57호로 지정된 목계월 명인의 후계자로 1995년에 이수하였다. 포천의 중심지 유림회관 3층 50평을 임대하여 2004



년 3월 16일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 지부를 결성하여 그 지부장(대표이사)의 자리에 앉아 후학을 모집하여 처음으로 포천에 경기소리라는 것이 보급되고 불려 지기 시작하였다. 평소 예능에 타고난 끼가 있던 포천의 후학인 들은 1년여 만에 발표회를 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포천명륜대학 강사와 포천문화원 임원을 겸하고 있으면서 포천문화원의 문화인의 밤 송년회와 포천시 관내 대소 경로잔치에 무료로 봉사 공연을 하므로 그 진가가 더욱 발휘하게 되었다. 어느 날 기관장 모임에서 박영실은 “포천에 영평팔경 이라는 경승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팔경을 노래로 부르고 싶다.”고 하니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포천향사연구소장 이석구, 포천예총회장 김진동, 향토사학자 이종훈 등에게 작사를 위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0편의 가사가 완성되자 자축의 축하를 들고 작곡가를 물색하였다. 서울의 저명한 전통 민요 작곡 교수에게 문의하니 1억 원을 송금하여야 작곡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에게 애향 곡으로 불리게 하려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심하던 이들은 인맥을 동원하고 지방에 있는 민요 작곡가를 찾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기를 수개월. 드디어 당시 포천시 의원이던 분이 본과 파가 같고 이름 또한 동명인 먼 일가분이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지방의 사립 대학교에 교수로 있다고 하여 작사가 두 명과 향토사학자 등 4명이 선문대학교의 이병욱 교수를 찾아간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 교수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술판을 벌리게 되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간 뒤 가사를 심독(深讀)하고는 즉석에서 젓가락 장단으로 흥얼흥얼 운곡을 맞추더니 가사에 심취되어 “참 좋은 가사를 만나 기쁨



니다. 6개월 내에 작곡을 완성하여 학교 내 국악 합주단 반주에 의하여 내가 창을 하고 녹음을 하여 악보와 함께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이들은 금의환향이라도 하듯 포천에 돌아와 뜻을 같이 하는 기관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작곡비를 마련하는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

였다. 당시에 지역에서 덕행이 있고 인품이 고결한 포천향교의 최종규 전교를 후원회장으로 하고 실무총책에 이종훈 사학자, 위원에 시 단위 단체장이 모두 동의하여 동참하였고, 기관장과 정치인들은 자문위원직을 쾌히 승낙하여 탄탄대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작곡을 의뢰 받은 이병욱 교수는 6개월을 1개월 앞당긴 2004년 11월에 녹음 파일과 악보와 부인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교수가 창을 하기 위하여 포천을 방문한 것이다. 포천 유림회관 3층은 수강생과 후원회 자문위원 회원 등으로 입주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작곡한 영평팔경가의 창작 곡 봉헌 발표가 있었다. 이 교수 부부의 협연으로 영평팔경가가 발표되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으며, 당시에 임석하였던 포천시장도 “이 영평팔경가를 경기소리를 수강하는 단원들에게 연습을 시켜 내년에 정기 발표회를 하면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언약을 하였다.

경기소리 보존회 단원들은 포천시장이 1회 정기 발표회에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에 고무되어 연습에 정진하였다. 10절이나 되는 긴 가사를 25명의 전 단원이 1개월 만에 다 외우고, 각 절마다 노랫가락 곡. 굿거리 장단 곡. 세마치 곡. 자진모리 곡. 엇 모리 장단 곡 등으로 모두 달라도 명 스승에게서 1년여 수업을 받은 단원들은 쉽게 완창



에 들어갔다. 박영실 명창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도하였고, 단원들은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연습을 할 정도로 1년 여 만에 공연장에서 대중에게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였다. 영평팔경가의 창작 발표회 날이 2005년 12월 15일 16시 아트홀 대극장으로 결정되었다. 후원회에서도 긴장을 하였다. 첫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여 시민의 애창곡, 애향 곡으로 올려놓는 다는 목표아래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이무성 감독에게 총감독의 지위를 주

어 연습 때부터 감독을 하게 하였고, 김성운 편곡가. 한동엽 안무가에게 의뢰하여 연습을 실천과 같이 하였다. 드디어 대망의 영평팔경가가 탄생하는 날이 되었다. 1천석의 의자를 가득 메우고도 중앙 통로나 옆의 계단에도 입주의 여지가 없이 만장하였다. 포천시의 인원동원 협조에 관객동원은 성공하였다. 드디어 영평팔경가 10절의 창이 시작되었다. 기존에 있던 곡에 경쾌한 리듬을 더한 곡이라 낮 설지 않게 시민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영평팔경가 10절 중 1절이 끝날 때마다 간명한 해설이 곁들여 지고 건드령타령 양류가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풍년가 오돌독 선소리 산타령 등이 불러 졌으며 안무가 중간에 공연때, 언제 두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첫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날레 곡으로 뱃노래 자진뱃노래가 출연진 전원이 나와 합창을 할 때는 관객이 모두 일어나 율동을 하며 같이 합창을 하였다. 이렇게 박영실 명창과 후원회에서 소원 하던 창작 발표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공연자와 후원회 회원 모두는 서로 부둥켜안고 원무를 추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었다.

다음해 2회 정기 공연은 2006년 11월 3일 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오후 5시에 있었다. 「선녀가 놀았으니 선비도 놀았어라 몸담아 마음 씻고 한잔 술에 부 일 배 하면 그것이 신선놀이 · 아니런가」 좀 더 완숙된 모습을 보인 공연이 었다. “연극과 무용과 소리의 만남으로 우리의 소리와 무용의 아름다움을 더해 경기민요 음악극에서 탈피한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라고 언론에서도 극찬하였다.

3회 정기공연은 2007년 11월 3일 오후 5시부터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있었다. 큰 주제를 수월



정신(水月精神)에 두고 1막은 봄철에 맞추어 백로주와 선유담. 2막은 여름 와룡암과 청학동. 3막은 가을 화적연 기우제 이야기와 금수정. 4막은 겨울 낙귀정지 수월정신 창옥병 등 4막으로 나누어 공연을 하여 한층 전문가의 공연을 방불케 하는 공연이었다.

4회 정기공연은 2008년 11월 15일 오후 4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있었다. 포천별곡 부제를 붙여 「화적에서 벼를 털어」를 주제목으로 4막으로 나누어 성공적인 공연을 하였다.

5회 공연은 전문가 적인 공연이었다. 2009년 11월 5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포천예총 산하의 연극 무용 음악협회에서 적극 협조와 참여로 풍성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6회 정기공연은 밖으로 뛰어 나가는 공연을 하였다. 2010년 10월 11일 오후 7시 포천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마당놀이 풍류 감사라는 부제로 관객과 하나 되는 공연으로 첫째마당 여는 거리-수월정신 화적에서 벼를 털어 첫째거리-선유담 와룡암 청춘가 둘째거리-노랫가락 금수정 셋째거리-경복궁타령 오돌독 양류가 창부타령 넷째거리-잡은 방아타령. 둘째마당은 첫째거리-한오백년 둘째거리-정선아리랑 셋째거리- 뱃노래 넷째거리-창옥병 백로주 잡은 뱃노래 신고산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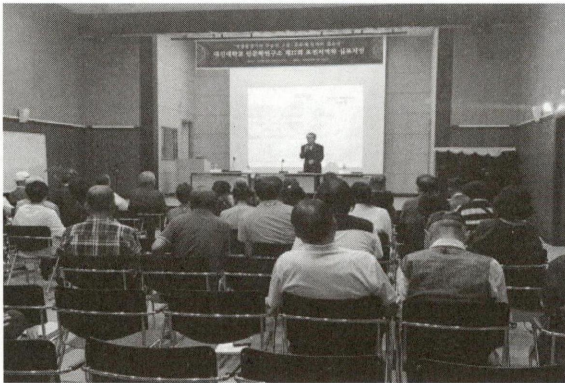


셋째마당은 첫째거리-궁초대기 둘째거리-군밤타령 셋째거리-개성난봉가 넷째거리-구 아리랑 맺는 거리-화적연의 순서로 관객과 하나 되는 공연을 하여 시민들의 감정을 뜨겁게 달구었다.

2018년 14회 정기 발표회를 포천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포천시립 연극단 무용단 합창단의 협찬으로 관람하는 시민들을 더

욱 즐겁게 하였다. 그간 인근 시군의 예술 공연단도 적극 출연하고 관람하였으며 틈틈이 전국의 명창도 특별 찬조출연을 하였다. 장소도 대진대학교 대운동장(개교기념일 특별공연) 포천시 공설운동장(시민의 날 전야 공연) 등에서 공연을 하였다.

아쉬운 점은 그간에 수원에서 경기도민에게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중앙무대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여한으로 남고, 향토무형문화재 지정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 향토문화재 자료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가사가 선현(先賢)님들의 원문 시문(詩文)과 거리가 있고 작곡 년대가 20년도 채 안되었다는 이유로 반송되었다. 후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고문서에서 고증을 받기 위하여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장 이병찬 교수에게 의뢰하여 2019년 8월 23일 15시 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교육장 포천신문사 대표 등이 입회한 가운데 후원회원 전원과 향토사학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발표회를 하였다. 식



전 공연으로 영평팔경가 수월정신과 화적에서 벼를 털어 2곡을 공연하고 작곡가 이병욱 교수의 작곡 배경설명과 다른 시군의 향토문화재 지정 사례 등을 보고한 후 개최하였다. 이병찬 소장의 진행으로 박영실 영평팔경가 보존회 이사장의 인사말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장 포천문화원장의 축사 후에 학술발표가 있었다. 1주제 조선 후기

의 경흥로 정비와 영평팔경의 성립. 발표자 포천시청 학예사 최동원 박사. 2주제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현황과 영평팔경가의 무형문화재 지정 방안에 관한 고찰. 발표자 중앙대학교 교수 서종원 박사. 3주제 영평팔경가의 전통성과 문학성 예술성. 발표자 대진대학교 교수 이병찬 박사. 4.종합 토론의 순서로 폐회하였다.

그간 박영실 이사장은 경기도지사 포천시장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고, 2014년 포천시민의 날에는 포천시민 대상(문화예술분야)을 받기도 하였다. 이제 영평팔경가가 포천시 향토무형문화재가 되느냐 지정을 받지 못하느냐는 포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심사위원들과 후원회원의 관심여하에 달려 있다. 그간 도비(경기문화재단) 지원과 시비가 지원된 액수도 상당한 금액이며, 현재도 임대건물에 대한 보증금도 시비로 부담하고 있다. 모든 사항을 살펴 볼 때 이번에는 향토 무형문화재 지정이 원만하게 되어 현재 포천의 향토무형 문화재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 그간에 깔고 닦은 공로가 헛되지 돌아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V. 앞으로의 발전 방향

논제에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답은 없는 것 같다.

향토문화의 대상과 범위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인물이나 유적지 경승지 등을 연구하여 책자로 펴낸다고 하여 그것으로 향토문화연구의 척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예나 지금이나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낙향한 지식인들이 세속 탈피의 휴식의 장소로 생각하지 않도록 지역학에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림의 전통행사(석전제, 삭망 분행례, 서원 사



(祠) 영당(影堂) 단(壇)의 제향. 학술회)에 초청을 하고 참여케 하여 호기심이 가도록 하고, 내가 사는 우리 고장에 이렇게 많은 인물이 국가에 공헌하여 후대인에게 향사(享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하여 인물과 지역을 연구하게 하는 의욕을 가지게 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애향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포천이 명현을 참배하는 최고의 성지(聖地), 금강산을 유람하는 경유지로의 명소(名所),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대상지로서 최적한 장소로 널리 알리어 역사성이 있는 고장 하면 포천. 학술성이 있는 고장하면 포천. 예술성이 있는 고장하면 포천. 향토성이 있는 고장 하면 포천이라고 알려질 때 향토문화의 연구는 정상궤도에 올려 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영평팔경가〉의 학술적 고찰,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용주유고(龍洲遺稿 3 5권), 용주연보(龍洲年譜 1 2권)
 인문학연구 1권-16권.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최창근, 마홀(계간지 통권 25호), 포천향교
 포천군지 상,하
 포천디지털 대백과사전
 포천명륜대학 교재, 포천향교, 2018, 2019.
 포천민요 [永平八景歌], 사)영평팔경소리보존회, 2012. 4.

여주학 어떻게 할 것인가?

조 성 문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目 次

I. 들어가며

II. 여주학

1. 정의
2. 목적
3. 필요성

III. 기존 지역학 연구의 현황

1. 연구영역
2. 연구성과물
3. 연구성과물 활용
4. 문제점

IV. 여주학의 방향

1. 여주에 관한 연구성과물
2. 여주학의 활성화방향

V. 나가며

집필자

조 성 문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I. 들어가며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지역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발전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¹⁾

이를 위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그것을 뒷받침할 지역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지역마다 유행처럼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중앙을 흐르는 남한강가에 접해 있는 여주는 기후가 온화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6만 5천 년 전 구석기시대, 정착생활을 시작했던 청동기시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 불교가 번창하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유교가 꽃피었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고 풍부한 문화가 생성되었던 곳이 여주다.

연양리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 벼농사의 증거인 탄화미가 발굴된 혼암리의 청동기유적, 매룡리 인근에서 출토되는 삼국시대 유물들, 고려시대 3대 사원의 하나였던 고달사터, 세종대왕릉과 원찰 신륵사, 효종대왕릉과 우암의 대로사, 9명의 여주왕비, 진상미, 도자기, 고구마, 인삼, 16개의 나루터 등 여주는 화려한 문화유산의 보고다.

그러나 지난 시절, 여주는 선조들이 물려준 빛나는 업적을 자랑만 하였지 그 전통을 이어 현재를 역동적이게 하고 미래를 희망차게 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과거에 착실히 뿌리를 내려야 현재의 건강한 변혁이 가능하고 그 토대 위에 약속된 미래가 사뭇히 엮히는 법이다. 오늘의 여주가 이처럼 흔들리는 이유는 과거에 기댄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양식이 학습되어서 세대를 이어 축적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지역학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역공동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체성을 찾아내어 잇고 있었던 지역민의 역량을 일깨워서 나와 이웃과 후세들이 행복한 미래로 나가게 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가치와 지역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오늘,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여주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행복한 여주의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임동규, 「지방정치와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16, p12.

II. 여주학

1. 정의

국어사전은 지역학을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학에 관한 앞선 연구들을 보면 ‘서울학’은 서울이라고 불리는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²⁾

‘부산학’은 부산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현재적 과제를 분석하여 부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며 나아가 미래의 부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제주학’은 제주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지역에서 파생된 인문, 사회, 자연 등 문화적 요인들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하여 보편적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라 정의하고 있다.⁴⁾

‘강진학’은 삶의 터전인 강진이 서울이나 광역 대도시에 대한 열등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것, 즉 ‘지역의 중심화’ 개념을 정립하는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⁵⁾

이를 근거로 여주학은 여주사람들이 이룩한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독자적인 여주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여주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목적

지역학은 무엇보다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대상을 놓고 연구하여 얻은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

그렇다고 해서 지역학 연구가 학문적인 분야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지역이 중앙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성을 획득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려는 이유는 지역성을 공유한 지역인들이 주체가 되어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삶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열매를 획득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2) 양기근, 「경남학의 연구동향과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2007, p.22.

3) 양기근, 위의 자료, p. 22.

4) 문순덕,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37집, 2012.

5) 오영교, 「지역학의 대두와 강진학」, 다산과 현대 제8권, 2015.

6) 오영교, 위의 논문, p.24.

여주학은 학문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여주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얻어지는 연구성과가 더 나은 여주 미래의 초석이 되도록 하는 일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3. 필요성

오늘날 지방수준에서의 정치적 행위와 경제활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들 사이에 지속되어 오는 관계망과 문화체계의 이해 없이는 적절하게 해석되지 못한다. 현재라는 것이 과거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며 역사적 축적은 현재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연과 새로운 학연의 존재형태, 마을과 생활조직, 경제적 관계, 역사를 되살리는 문화 활동과 외부 세계와의 연계조직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과정이든 경제활동이든 그것은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다양한 계산과 전략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다. 그 계산에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전통과 관습과 함께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는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이 함께 얹혀있다. 이것이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⁷⁾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학의 필요성은 ① 한정된 지역을 연구하고(한정성), ② 지역만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연구하며(고유성), ③ 오랜 역사를 통해 연대된 지역민을 연구하되(연대성), ④ 지역민의 더 나은 미래의 삶에 기여하는(기여성) 학문적 속성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역학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여주학은 과거로부터 지역민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학습을 통해 지역의 주인은 지역민이어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켜 지역민이 누리하고자 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시대적 필요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7) 오영교, 위의 논문, pp. 8~10.

Ⅲ. 기존 지역학 연구의 현황

1. 연구영역

지역학의 연구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역의 규모와 여건이 다르기에 연구의 영역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자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연구영역

구분	기관 명칭	연구분야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정책)	환경· 자연
지방 자치 단체 소속	발전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	○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	○	○	○
		충청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	○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	○	○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	○	○
	문화 기관	경기문화재단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학연구팀	○	○		
		한국국학진흥원	○			
		전주역사박물관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학과 민간 연구단체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 소속 · 민간 지역학 연구기관의 연구영역

구분	기관 명칭	연구분야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정책)	환경 · 자연
대학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	○				
	인천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	○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				
민간 단체	대구 경북학회	○	○	○	○	○
	제주학연구소	○	○			
	제주학회	○	○	○	○	○
	안산학연구원	○	○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군산학 연구자료(김민영, 2016)에서 국내 지역학 연구의 경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지역학 연구분야와 세부내용

분야	세부내용
역사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현장, 유물, 유적, 민주화 운동
문화	언어,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영화,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콘텐츠
생활	생활사, 생활정치, 생활공간, 생활양식, 생활세계, 생활환경, 여가, 종교
경관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체험과 이미지, 생태환경
산업	경제, 산업,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시민	개성, 인성, 성향, 집단성, 사회성, 참여성, 애향심, 공동체 의식
공공	교육기관, 공공시설, 대중매체, 네트워크, 다양한 제도적 요소
도시	도시화, 도시브랜드, 도시행정, 도시생태, 도시특성, 인구, 개발, 미래발전

* 국토연구원 재구성

2. 연구성과물

지역학 연구와 관련하여 발간된 연구성과물의 통계가 있다.

지자체 소속 지역학 연구기관의 출간물 현황

구분	연구기관명	연구성과(발행 권수)	종	권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10), 교양총서(13), 기획연구(8), 국제화연구(4), 자료집(1)	5	39
	울산학연구센터	기획연구(7), 연구논총(24), 구술자료(2), 교양서(4), 자료집 및 연구목록(5)	5	42
	경기학연구팀	경기대표인물평전(2), 경기마을기록(2)	2	4
	충북학연구소	충북학(15), 충북테마기행(9), 연구총서(7), 중원문화유산시리즈 (2), 교양총서(5), 자료총서(4), 충북의 인물(7), 100년전 충북의 옛모습(10), 기타(5)	9	64
	충남학연구팀	충남도지(25),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15), 충청학과 충청문화(15), 시/군지(4), 면/마을지(15)	5	74
	대구경북학연구센터	대구경북연구(13)	1	13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8)	1	8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총서(28), 전주학연구(6)	2	34
	한국국학진흥원	안동학연구(12)	1	12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대학소속 및 민간 지역학 연구기관의 출간물 현황

구분	연구기관명	연구성과(발행 권수)	종	권수
대학 소속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55), 연구총서(15), 교양총서(7), 사료총서(10), 색인 목록 집(10), 미디어총서(3), 번역총서(3), 서울학 모노그래프(3), 기타(8)	9	114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	로컬리티인문학(11), 로컬리티즈(3), 연구총서(14), 번역총서(16), 교양(3) · 자료총서(3), HUCO총서(1)	7	51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20), 연구총서(28), 자료총서(12), 교수논총(6), 단행본 (2), 기타(5)	6	73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총서(59), 선사문화연구관련(12), 호서문화연구관련(24), 기타(12)	4	107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총서(28), 판소리총서(17), 혼불학술총서(2), 전라문화논총(7)	4	54
	영남문화연구원	영남학(24), 저서 · 역서(49)	2	73
	호남학연구원	연구원총서(78), 호남문화연구(55), 감성연구(8)	3	141
민간 단체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42), 도서해양문화연구총서(25), 아시아해양문화연구총 서(4),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연구(10), 단행본저역서 (26), 생활도구총서(3), 교양문고(2), 해양도서문화 학술지(4)	8	116
	대구경북학회	대구경북연구(13), 단행본(3)	2	16
	제주학연구소	제주학(7)	1	7
	제주학회	제주도연구(40)	1	40
	안산학연구원	안산학 총서(5)	1	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3. 연구 성과물 활용

지역학 연구성과를 활용한 강좌나 탐방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은 연구의 이론적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 속에 반영함으로써 질 높은 삶을 향유하면서 행복을 구가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다시 지역학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된다는 선순환적 의미가 있다.

지역학 연구기관들의 강좌 프로그램 현황

구분	연구기관명	프로그램명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충북학연구소	충북아카데미(연 2회, 회당 5강)
	대구경북학연구센터	시민아카데미(연 1회, 회당 14강)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아카데미(연 2회, 회당 14강)
	전주역사박물관	전주학시민강좌(연 1회, 회당 8강)

구분	연구기관명	프로그램명
대학 소속	서울학연구소	서울의 고전강화(연 2회, 회당 12강)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	한국사아카데미(연 1회, 회당 9강)
	인천학연구원	연수구민대학 지원사업(연 1회, 회당 14강)
	영남문화연구원	영남유학회 시민강좌(매월 3째주 목요일)
	호남학연구원	향토사가에게 듣는 호남이야기(문화원 연계)
민간 단체	대구경북학회	시민아카데미(대구경북의 이해 15강)
	안산학연구원	안산학시민대학(안산학 지도자과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재구성

지역학 연구기관들의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현황

구분	연구기관명	프로그램명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울산학연구센터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화 사업 진행
	경기학연구팀	경기옛길 역사문화탐방로 사업
	충남학연구팀	기호유학한미당(강의, 공연 등의 종합적 체험)
	한국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유교문화박물관, 정기기획전 및 문중유물특별전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재발견활용답사, 토요박물관나들이,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어린이박물관, 세시풍속한미당, 상설체험교육(탁본체험)
대학 소속	중원문화연구소	역사문화탐방
	도서문화연구원	섬 스토리텔링 여행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재구성

4. 문제점

지역학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짧은 역사가 말해 주듯이 반성하고 고쳐가야 할 점들이 여기 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 근본원인의 기저에 지역학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부족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학이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성과물의 활용과 지역민과의 연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지역민, 연구기관, 지원단체와의 관계설정을 불확실하게 하여 지역학의 오늘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앞선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 ① 지역학의 개념과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 ② 지자체 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지역학 기관의 존립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
- ③ 이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이나 연구기관 지원이 소홀해져서
- ④ 우수한 연구 성과의 도출이나 지역주민과의 공유도 원활치 않게 되고
- ⑤ 지역학에 대한 지역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지속성을 상실하게 되어
- ⑥ 지역학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 창출을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시 지역학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학은 지역을 연구하고 그 성과물을 지역민이 공유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에 충실했을 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여주에서 지역학을 준비하면서 기본이 되는 올바른 방향설정, 지속가능성의 확보, 주민참여의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지역학 연구의 선행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IV. 여주학의 방향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지면서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1995년에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이른바 세계화의 등장이다. 세계화는 시장이 넓어지고 생산성이 증대되어 인류의 복리가 증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우선주의 속에서 연대와 배려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퇴색하고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세계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화라는 논리가 등장되었다. 지역화는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다시 말해 지역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잃지 않고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지역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다.

이 지역화와 같은 의미인 지방화(Localization), 그리고 세계화(Globalization) 사이에서 양자를 결합하는 개념이 생겨났다. 세방화(Glocalization)다. 세방화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방화는 지역화와 세계화의 상호 유기적이며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화는 지역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역화는 세계화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세방화 시대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기반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가 아닌 지역이 독자적으로,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각국의 지역

과 교류협력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역이 각광받는 시대다.

세방화 시대에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20세기와는 다른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방화의 물결 속에서 각 지역은 주체적으로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지역 중심의 가치 체계와 이념을 정립하고 지역 가치를 찾아내 세계적 수준으로 창조적인 변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학계는 물론 문화계의 예술창작과 시민사회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지역, 공간, 장소, 정체성 등이 지역을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고 필연적으로 지역학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⁸⁾

김양식(2016)은 최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주학 연구에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전통적인 지역개념은 폐쇄적이고 수동적이며 지역 내부에 국한된 인간-환경관계에만 주목하였으나, 새로운 지역개념은 사회적 행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역은 유무형의 경계를 가진 공간과 기억의 장소이자, 법, 권력 등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며 개인과 집단간의 이념적·물질적 복합체로 이해되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지역학은 타자의 학문이었지만, 최근 들어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을 비판하거나 재해석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곧 ‘세계에서 지역으로’가 아니라 ‘지역에서 세계로’ 바라보는 지역 중심의 주체적인 접근방식으로 연구관점이 전환된 것이다. 이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리즘에 기반을 둔 지역학이다.
- ③ 지역 중심의 지역학 연구는 지역연구의 무게 중심도 타자의 시선에서 본 지역성 탐구에서에서 지역의 정체성·동질성·차별성·장소성 등을 성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연구는 자연히 지역민과 그들의 삶과 문화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인문학적인 지역학 연구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④ 최근 지역학 연구는 타자에 의해 주어진 지역구분에서 벗어나 장소로서의 지역, 공간으로서의 지역, 경관·문화·생태·언어·종교 등을 기준으로 한 지역 등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8) 김양식, 「충북학 활성화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2016.

1. 여주에 관한 연구성과물

여주에서 본격적으로 지역학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그러나 산발적이긴 해도 여주박물관과 여주문화원에서 여주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여주박물관 연구자료

차례	연구자료명	발행연도
1	여주 천년 도자의 흔적	2005
2	여주군사(총 7권)	2005
3	여주 근현대 행정자료	2006
4	고산서원 학술조사 영역보고서	2007
5	청심루 학술조사 영역보고서	2007
6	장위공 서희 학술조사 연구	2008
7	여주 주어사지 학술조사 연구	2009
8	천년의 울림 여강의 노래	2013
9	여주 독립운동사 개관	2014
10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학술조사 보고서	2016
11	여주의 옛글을 읽다	2017
12	지포선생 유고	2018

여주문화원 연구자료

차례	연구자료명	발행연도
1	여주 지명유래집	1997
2	금사면지	1998
3	왜 다시 세종대왕인가	1998
4	명성황후를 찾아서	2000
5	세종대왕의 얼	2001
6	여주의 금석문	2002
7	여주군 오금리 조사보고서	2004
8	여강 한 굽이 산이 그림 같으니	2004
9	여주 왕비이야기	2005
10	여주의 능묘와 석물	2005

차례	연구자료명	발행연도
11	여강 청심루	2006
12	다시 보는 명성황후 1	2006
13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	2007
14	여주사람들과 한자성어	2008
15	대왕세종 바로보기	2009
16	여주 5일장	2010
17	다시 보는 명성황후 2	2012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깨달아 지역을 폭 넓게 알고자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주문화원이 주관하고 여주대학이 후원하는 ‘여주 집현전’이라는 시민강좌도 개설 되었다.

여주집현전 강좌

기수	강좌명	기 간	참석자
1	세종과 여주의 3강	2011. 9/8, 9/15, 9/22, 9/29	40명
2	세종의 인재 경영외 3강	2011. 11/3, 11/10, 11/17, 11/24	40명
3	세종의 소통 경영외 3강	2012. 4/4, 4/11, 4/18, 4/25	40명
4	세종의 비전 경영외 3강	2012. 6/21, 7/5, 7/12, 7/19	32명
5	세종의 창조 경영외 3강	2012. 10/9, 10/16, 10/23, 10/30	25명
6	세종의 리더십외 3강	2012. 10/11, 10/18, 10/25, 11/1	29명
7	세종의 백성 구휼외 3강	2012. 11/20, 11/27, 12/4, 12/11	30명
8	세종의 국가 경영외 3강	2013. 4/2	100명

2015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학과 시민과 행정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세종아카데미’를 열었다.

세종아카데미 강좌

회차	강사명	강 의 주 제	직 위	일 정
1	문 용 린	행복교육을 통한 여주의 미래	전 서울시교육감	6월 8일
2	최 종 철	세종대왕역,여주역 그리고 여주	여주대건축과교수	15일
3	김 문 환	세계 문자발생의 연원	전 SBS기자	22일
4	최 종 철	여주 도시발전의 미래	여주대건축과교수	29일

회차	강사명	강 의 주 제	직 위	일 정
5	정 태 경	전철시대, 여주의 비전	여주대 총장	7월 6일
6	이 동 선	지방자치의 역사와 과제	여주대사회복지과교수	13일
7	조 성 문	여주의 문화와 역사	여주문화원사무국장	20일
8	이 내 품	여주시와 소상공인	여주대세무회계과교수	8월 10일
9	양 승 룡	여주 중앙로와 도시재생	여주대도시생태과교수	17일
10	곽 호 영	세종대왕면의 의미	여주시문화예술팀장	24일
11	박 관 우	여주 도자기축제의 현실	남한강신문기자	31일
12	박 문 신	여주와 지역사회복지	여주지역자활센터실장	9월 7일
13	이 성 남	여주문화와 정체성	여주대광고홍보과교수	14일
14	김 성 희	가족의 의미(여주인을 중심으로)	여주대사회복지과교수	21일
15	정 태 경	세종, 훈민정음, 그리고 자유	여주대 총장	10월 5일
16	정 지 영	여주시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여주대사회복지과교수	12일
17	이 태 한	문화재의 이해와 문화관광도시	여주대사진영상과교수	19일
18	안 병 진	여주도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여주대도자문화과교수	26일
19	박 문 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	여주지역자활센터실장	11월 2일
20	이 주 현	여주 쌀과 농업의 미래	여주시농업기술센터장	9일
21	이 동 선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여주대사회복지과교수	16일
22	김 문 환	여주문화재와 세계문명교류	전 SBS기자	23일
23	조 성 문	세종대왕과 여주	여주문화원사무국장	30일
24	종 강	국회의원초청 의견나눔		12월 4일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주학 연구의 현실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성장단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여주학의 활성화 방향

1) 여주학 환경조성

여주학은 여주의 과거를 정확하게 집어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주의 현재를 구축해야 하며 희망으로 여주의 미래를 건인해야 한다. 이런 여주학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환경이 마

련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행정의 지원, 연구기관의 열정,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① 지원조례 제정

여주학이 목적인 대로 지역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존속이 필수다. 이를 위해 여주학 연구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 제주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2013)
- ▶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 ▶ 강원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2017)

② 연구기관 설립과 활동

여주의 정체성 정립과 여주관련 제반 연구, 자료조사·수집 및 연구성과 발간과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활성화, 유물·유적을 통한 지역의 재발견, 타 지역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학습프로그램 운용 등을 담당할 여주학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 ▶ 여주관련 연구 - 여주학 연구기관은 여주의 역사, 문화, 지리, 경제, 종교 등을 연구하여 여주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소속감을 불러일으켜서 여주발전을 이룩 하려는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학은 지역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발전과정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학문이므로 여주학 연구기관의 연구방향도 이에 합당해야 한다.
- ▶ 인적자원 양성 - 여주는 지역여건상 전문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전담 연구 인력의 양성과 함께 기존의 향토사학자 활용, 문화관광해설사의 전 문화, 마을술사·마을자료 수집가와 도시소개전문가 등의 양성이 병행 되어야 한다.
- ▶ 자료축적 DB화 -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한 인간의 인생역정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이르는 말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여주, 해방 전후의 여주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는 노인들도 이젠 드물다. 더 늦기 전에 이미 사라진, 그리고 사라져가는 여주의 원형들은 물론,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을 모

고 정리해서 발간해야 하며 원활한 활용을 위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 ▶ 문화예술 활성화 - 축제, 공연, 전시, 백일장, 세미나 등과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에도 여주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 내용의 심화, 장르간의 연계와 문화원, 예총, 민예총, 문화재단 등 문화예술단체와의 연대에도 여주학의 할 일이 존재한다.
- ▶ 지역의 재발견 - 여주시내의 이팔의 집터, 천주교신자 순교터, 비각거리, 수여선 기차길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한때 여주인들에게 친숙했으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유물과 유적들을 되살려내어 스토리텔링화 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 여주시 12개 읍·면·동에 지역주민의 생활흔적들을 모아 전시하는 생활자료관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 ▶ 타지역과의 교류 - 여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연구기관들과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중요하다. 지역학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와 영역에 대해 한국 연구문화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지자체의 지역학 연구센터 등과 교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종과 관련하여 세종연구 및 한글관련 학회와 단체들과의 교류, 세종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세종시, 종로구와 협력방안 모색은 여주학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 ▶ 학습프로그램 운용- 여주학 연구의 성과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과 교육, 참여 프로그램의 운용도 필요하다. 여주학 강좌, 여강길 걷기, 문화탐방, 유적지 돌보기 등 정체성 정립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하며 심화되어야 한다.

③ 시민참여

지역학을 하는 이유의 핵심에 지역민이 있다. 지역학은 지역민을 위한 학문이다. 더불어 지역민에 의한 학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학은 의미가 없다. 여주학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리고 성공하려면 여주인에게 여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여주인이 그저 여주학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여주학 학습의 주인이 되어야 여주학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고승 임제는 수처작주(隨處

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이라는 말을 남겼다.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면 서있는 그곳이 진리가 되리라’는 뜻이다. 주인의 삶은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여주학은 여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여주인이 학습의 향유자이자 전파자임을 자각하게 하고 여주학 관련 연구와 계획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유해야 한다.

2) 여주학 접근법

여주는 작고 열악한 도시다. 경제활동 기반이나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취약하다. 젊은 층의 이탈로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지역민의 문화역량도 부족하다. 이런 환경에서 태동하는 여주학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제한적일 것이라 예견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여주학의 연구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단계에서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김양식(2016)은 정치·경제학은 현상적 문제해결의 접근법이며 문·사·철의 인문학이 문제해결의 본질적 접근법이라는 전제하에서 연구기반과 전문인력이 제한적이며 재정 여건도 불충분한 충청북도의 지역학 연구와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학의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여주도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주학 연구의 단계적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학 연구의 모범이 되고 있는 제주학 연구센터의 발전과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학 연구센터 발전단계

구분	기간	내용
준비기	2010	
출범기	2011 ~ 2013	·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범 · 제주도 출연 사업비, 운영비로 사업추진(조례제정) · 기초 토대 연구, 연구사업 발굴 및 추진 · 연구인력 확보, 중장기 인력확충과 편제계획 수립
발전기	2014 ~ 2016	· 체계적인 제주학 연구사업 추진 · 지역학 연구기관, 세계 섬지역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연구 홍보, 교육 및 공감대 확산사업 추진 · 전문연구인력 확충, 분야별 전문가 확보
안정기	2017 ~ 2020	· 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연구기관 전환 · 제주학 관련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거점 확립 · 완성된 조직 및 역할에 따른 고유사업 추진 및 지원 · 제주학 연구의 정체성 확립

* 제주학 연구센터 2016

3) 세종과의 연계

여주학을 시작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여주학을 한다는 의미가 모르는 것에 대한 천착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재확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주가 이미 알고 실 천해 온 세종이 여주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연구 분야라는 이야기다.

① 여주는 세종의 도시

여주는 세종의 도시다.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의 고향이 여주다. 아버지 태종과 함께 세종은 여주를 3번이나 다녀갔다. 세종이 머물렀던 숲의 이름인 팔대장림은 세종과 소헌왕후가 낳은 8명의 왕자에서 유래되었다. 세종의 영릉이 옮겨 오면서 여주라는 지명이 생겼다. 신록시는 세종의 극락왕생을 비는 원찰이다. 세종을 가장 아끼던 누나 경안공주도 여주에 묻혀있다. 세종의 체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여주는 세종의 도시다.

② 세종의 브랜드 가치

2018년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약 70조원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 코카콜라에 이어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해서 화제다.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인도의 경제적 가치보다 셰익스피어의 문화적 가치가 더 크다는 말이다. 세종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 세계문화유산이 된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을 창제한 임금, 중국인의 이상인 요순시대를 재현한 성군이 물질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그런 세종이 550년 동안 여주에 묻혀서 여주인과 함께 하고 있다. 여주학이 세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③ 세종 브랜드

인구 15만명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를 상품화하여 먹고 산다. 연간 관광수입이 8천 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모차르트의 이름과 얼굴이 초콜릿에는 물론 각종 의류, 그림카드, 머그컵, 요구르트, 소시지, 맥주잔, 골프공, 인형, 케이크, 인터넷게임에 까지 붙어있다. 모차르트가 상품화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음악작품의 위대성이나 음악적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를 뛰어넘어 가까워지고 친숙해져서 더 위대해졌다. 여주에서 세종도 이처럼 자유로워야 한다. 가정에서 거리에서 세종이 넘쳐나야 한다. 여주만이 할 수 있는, 여주의 특성인 세종을 여주학이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④ 세종 콘텐츠

연전에 ‘대왕 세종’, ‘뿌리깊은 나무’ 등 세종을 주제로 한 TV사극들이 인기를 끌었다. 2개의 사극은 세종이 완벽한 성군이어서 극적 재미가 덜하다는 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극적 재미가 덜 할 것이라는 저간의 우려는 상상력의 부재가 빚어낸 허상이다. 재위 32년의 세종시대를 살펴보면 감동에서 감격으로, 감열에서 감읍으로, 감사에서 감명으로 이어지는 대하드라마에 다름 아니다. 집현전,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활자주조, 정벌과 개척, 무기개발, 삼강행실도, 천문 과학기구, 음악, 법률, 복지 그리고 한글창제에 이르기까지 세종이라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과 깊이는 지금의 한류와 비교되지 않는 차원에 있다. 세종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그러나 세종을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다. 여주학이 세종에 천착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⑤ 세종정신

흔히들 살아서 여주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사후에 여주로 옮겨진 세종이 여주와 무슨 큰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 대답은 설날과 추석이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 고향에 조상의 무덤이 있고 제사를 모시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조상의 무덤과 제사상 앞에서 조상의 영혼과 만나며 그들의 정신을 되새긴다. 그러기에 세종의 능이 있는 여주에서 세종정신을 잇고 기리는 일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다. 세종정신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정신을 21세기에 구현하는 것이 행복한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애민(愛民)정신 -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다.

노비가 비록 천할지라도 하늘이 낸 백성으로 알고 어여뻐 여겼다.

▶ 사민(事民)정신 - 세종은 백성을 섬겼다.

진정으로 백성을 섬겼기에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심을 하였다.

▶ 여민(與民)정신 - 세종은 백성과 더불어었다.

백성과 함께 즐기려고 직접 창작한 곡의 이름도 여민락이라 지었다.

▶ 편민(便民)정신 - 세종은 백성을 편하게 했다.

인류사를 빛낸 한글창제에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⑥ 세종의 축적

여주에서는 세종이 느껴진다. 그것은 여주가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의 고향이라는 이유로부터 연유한다. 이포, 팔대숲, 청심루터, 금당천가에 세종의 체취가 스며있고 세종과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신록사가 원찰의 역할을 하였다. 세종의 뒤편이를 일찍부터 알아보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3째 누나 경안공주의 무덤도 여주에 있다. 이처럼 세종대왕릉의 천장을 전후해 여주 곳곳에는 세종의 숨결이 넘쳐나게 되었다. 여주인들은 세종탄신일과 한글날이면 초대받지 않아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참배길에 올랐다. 여주인에게 세종대왕릉은 봄·가을 소풍의 단골 코스이기도 했다. 1962년부터 세종문화큰잔치가 개최되고 있다. 민선 6기 4년간 여주는 세종인문도시를 주창하고 실천했다. 경강선의 능서역을 시민들이 나서서 세종대왕릉역으로 바꾸었다. 여주대학에서는 세종리더십연구소를 세웠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주니어 세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주시의 중심가의 이름도 세종로다. 여주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세종어록이 붙어있다. 이렇듯 여주에 축적된 세종이 여주학을 통해 살아 움직여야 한다.

⑦ 세종의 세계화를 위한 연대

위대한 임금 세종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인 한글에 대한 세계의 찬사는 차고 넘친다. 유네스코는 1989년 세종대왕문해상을 제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57개국에 174곳의 세종학당을 꾸렸다. 2013년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재 지정되었다. 한글 의상디자인과 한글 캘리그래피(Calligraphy)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 세종의 세계화는 필연이다. 세종의 업적만이 아니라 세종의 정신까지도 세계화 하려면 저변이 튼튼해야 한다. 한글학자 최현배의 고향인 울산시, 세종의 도시로 새롭게 탄생한 세종시, 세종의 탄생지 종로구 등과의 연대는 그래서 필요하다. 오고 가며 주고 받는 연대를 여주학이 추동해야 한다.

V. 나가며

지역학은 지역화의 이론적 토대로서 이를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여주에서 지역학인 여주학을 논의하는 것은 여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실감에서 비롯한다. 여주문화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주학연구소 창립을 주창하고 나선 이유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21세기, 이른바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여주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

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주를 관통하고 있는 남한강, 그 여강(驪江)으로 인해 오래도록 풍요를 누려왔던 여주는 여강이 국도(國道)의 역할을 상실하면서부터 쇠락해졌다. 이제 다시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경강선이 가설되면서 수많은 물류가 모이고 연간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가게 되자 여주는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질로 도자기, 쌀, 땅콩, 고구마 등 산물이 풍성해서 인심이 넉넉한 고장이었던 여주, 이제 여주학을 통한 새로운 변신으로 옛 영화를 되찾아야 한다. 그 일은 여주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여 년 전 여주에 친척집이 있어 한 때 다녀가기도 했던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이 김광국(金光國)의 화첩인 석농화원(石農畵苑) 발문에 이렇게 썼다. 지즉위진애(知則爲眞愛) 애즉위진간(愛則爲眞看) 간즉축지이비도축야(看則畜之而非徒畜也).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나니 보게 되면 수집하게 되는데 이것은 헛된 수집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이 글의 핵심에 지(知), 애(愛), 간(看), 축(畜)이 있는데 여주학과 관련지어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다.

- ▶ 지(知; 앎, 이해, 구별) - 여주학을 알게 되면
- ▶ 애(愛; 사랑, 관심, 즐김) - 여주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 ▶ 간(看; 봄, 감상, 헤아림) - 사랑하면 여주의 참모습을 보게 되나니
- ▶ 축(畜; 쌓음, 수장, 수집) - 보게 되면 여주의 온갖 것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이 수집은 자부심과 지속성의 바탕이 되어 대대로 여주를 빛나게 할 것이라 결코 헛된 수집이 아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다. 급기야 2017년에는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생겨났다. 올바른 인성이 그리워지는 시대다. 여주학을 이야기하면서 세종의 인성을 떠올리는 이유는 세종의 모범적인 인성이 세종의 도시 여주에서 부활하기를 염원해서다. 세종은 부모사랑이 극진했고 형제사랑이 두터웠으며 자식사랑이 충만했고 부부사랑이 깊었다. 세종의 인성은 자신에게서 넘쳐 나와 가정을 적시고 나라를 적셔서 마침내 태평성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나만 잘되는 사회, 나 혼자만 잘사는 나라는 없다. 세상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곳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낸 세종의 바탕에 세종의 인성이 있다. 바로 이런 인성이 여주학에 기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여주학을 시작함에 있어 여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과학적인 원리와 규칙에 의해 여주 공동체를 이루고 여주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지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나그네는 떠나고 주인만 남는다. 여주학은 남아 있는 주인의 몫이다. 행복한 여주의 미래로 향하는 노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은 주인만이 해결해 낼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듯 여주를, 여주학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여주의 미래가 열린다. 주인된 그 마음 그대로 여주학을 기능과 기술이 아닌 성심과 진심으로 이루어 갈 때 여주학의 처음과 마침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민영, 『항구도시의 지역학발전과 ‘군산학’의 활성화방향』, 한국 도서연구 제8권 제4호, 2016.
- 김병인, 『지역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문화학회, 2013.
- 김양식, 『충북학 활성화방안 연구』, 충북연구원, 2016.
- 김영일, 『지역학으로서의 부산학과 시민의식』, 오토피아 제27권 제1호, 2012.
- 노영순 외, 『지역쇠퇴에 대응한 지역학의 역할과 문화정책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문순덕,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37집, 2012.
- 양기근, 『경남학의 연구 동향과 정립방향에 관한 연구』, 경남발전 연구원, 2006.
- 양기근,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한국비교정부학회, 2007.
- 오영교, 『원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강릉학회, 2004.
- 오영교, 『지역학의 대두와 ‘강진학’』, 다산과 현대 제8권, 2015.
- 이재필, 『대구 지역정체성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6.
- 이창식,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역사문화학회, 2016.
- 이천문화원, 『이천학의 도입과 활성화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4.
- 이해준, 『지역학의 범주와 향후 연구과제』, 안동학 제3집, 2004.
- 임동규, 2016 『지방정치와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16.
- 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한기범, 『지방화시대 지역학의 동향과 인문학적 과제』, 대구경북연구원, 2005.

동두천 역사와 문화시대 어떻게 대비(對備)할 것인가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目 次

I. 머리말

II. 동두천 역사와 문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 바람직한 동두천 문화 활성화 방안
2. 각동(各洞)현안 유적지 문제점
3. 어유소 장군 일대기
4. 마을 유적 발굴 복원 활용 방안
5. 문화 예술 자원 관광 상품화
6. 선진국 관광 상품 성공 사례들
7. 동두천 문화 관광자원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III. 맺는말

집필자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I. 머리말

일찍이 선각자 박은식(朴殷植, 1859 철종10~1925,임시정부 대통령 역임)선생은 국사(國史)는 애국심이다. 대한민국 정신을 교육하는 학문이라 하였고 신채호(申采浩 : 1880(고종17), 1936, 독립운동가)언론계의 선구자 선생은 국사를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였다. 유명한 철학자 토인비는 “경험(經驗)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길잡이 노릇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정신(精神)없는 백성은 정신없는 나라를 만들기 때문이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民族)역사를 소홀히 한 민족은 멸망한다”고 어느 석학은 말한다. 과거면(面)문화에서 인구 증가(增加)로 시(市)문화가 되었지만 역사 문화 유적지는 그대로 잠자고 있다. 이제 꿈속에서 깨어나야 한다. 동두천의 문화 유적지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희망의 땅이어야 한다. 유구(悠久)한 세월 속에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일구어 가꿔온 땅은 내가 태어나고 성장(成長)해온 곳이다. 역사의 문화재 기록이 있는가 하면 기록이 없는 곳도 있다. 각 지역 산과들 마을마다 남아있는 유적지조차 관심이 없다보니 언제 어떻게 발굴해야 할지 막막(漠漠)하기 만하다. 우리 향토사 연구의 필요성이 절감(切感)되는 환경 속에서 선조(先祖)들이 남긴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고 보존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가는 가치 없는 유물이라 해도 선조들이 쓰던 물건은 모두가 역사성이 있는 중요한 문화재인 것이다. 문화재는 잊혀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땅 속에 묻힌 매장 문화재(埋藏 文化財)의 경우 시·군(市·郡)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당시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동안 외면(外面)했던 우리지역의 역사 전통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고유 문화재를 찾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정신적 지주(支柱)로 삼아야 한다. 지난날 전통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거울이며 민족의 혼이며 이를 가꾸고 육성하여 애항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고장의 뿌리의 흔적을 연구하고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묻혀 있는 유형문화재 유물들도 발굴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II. 동두천 역사와 문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 바람직한 동두천 문화 활성화 방안

- 동두천시의 행정 연혁

동두천은 고구려때 내을매(奈乙買)또는 내이미(內爾米)라 하여 신라 경덕왕16(1757)때 사천현(泗川縣:상패동)으로 승격되었으며 그후 견성군(堅城郡:지금의 포천시)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 현종년(1018)에 견주(見州)가 양주(楊州:양주시)로 편입되고 견성군의 영현이었던 양주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왕조 건국 초기 지방 조직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양주목(牧)으로 된 것은 세조12년(1466)의 일로 그 이전까지 읍격(邑格)에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 양주는 태조3년(1394)조선 건국 직후 수도가 한성부로 천도됨으로서 지양주사(知楊州事)로 강등되었다가 태조4년(1395) 이민(吏民)들을 전주로 옮기고 전주는 양주군으로 개정되었다. 또 3년 뒤에는 양주부(楊州府)로 태종13년(1413)에는 도호부로 다시 세조12년(1466)에는 목(牧)으로 승격되고 군제 개편에 따라 진(鎭)이 설치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강력한 중앙 집권화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속현으로 남았던 군현이 주현(州縣)으로 승격되거나 인근 군현으로 통폐합되었다. 이 같은 행정조직의 구분은 인구밀도(人口密度)에 따라 자치적인 면(面), 방(坊), 사(社)를 두었고 그 밑에 리(里), 촌(村:마을 동네 말), 동(洞)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조직(地方組織) 편제가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담면(伊淡面)의 지명과 편제도 이때에 이루어졌으며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 조직 편제로 여러 번 바뀌었으나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7호로 이담면이 양주군 동두천읍(東豆川邑)으로 승격되면서 이담이라는 지명(地名)은 당시 면장과 지역 유지(有志) 몇몇 사람의 무관심 역사 법칙(歷史 法則)도 무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73년 7월 1일 양주군 조례 제173호에 의해 광암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그해에 대통령령654호에 의거 포천군 포천면 탑동(塔洞)3개리를 편입하여 구역이 확대되고 1981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3425호로 시(市)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83년 2월 15일 양주군 은현면 상패리가 편입되어 상패동이 생겨났으며 1998년 11월 30일 생연3동과 생연4동이 통합하여 중앙동이란 새로운 동(洞)이름이 되었다. 같은 연,월,일(1998년 11월 30일) 내행동과 광암동이 통합하여 불현동이 되었고, 소요동과 동안동이 통합하여 소요동이 되었다. 2007년 4월 14일에는 송내동과 지행동 별판이 신시가지 조성(造成)되면서 새로운 행정동인 송내동이 탄생되었다. 2011년 시(市)승격 30년이 되었으며 30년 동안 10개동에서 3개동이 줄어든 7개동이 되었으며 신시가지가 탄생하여 다시 1개동이 생겨 8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동두천시는 현재 12개 법정동(法定洞)에서 8개의 행정동(行政洞)을 관장(管掌)하고 있다.

1) 역사의 유래(由來)도 없는 중앙동(中央洞)과 불현동(佛峴洞)

그 옛날 조상 선대(先代)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의 지명 유래(地名 由來)는 지역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기록하고 인식(認識)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유래도 무시한 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지명(地名)을 갖다 붙이는 것은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조상이 있으므로 성씨(姓氏)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오는 마을이 있어 태어나고 성장해왔던 것이다. 역사와 문화의 응결체(凝結體)가 전해 내려오는 지명의 마을인 것이다. 전해오는 땅이름을 밝히는 것은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땅에서 발생하는 역사와 문화, 언어, 생활, 잉태 신앙 및 풍습, 풍수지리 등 철학적 인식 체계도 전통, 자연 환경, 그 지역의 산물(產物)을 알려주는 총체적 정보 코드이며 과거의 역사와 문화생활 잉태(孕胎)를 밝혀내는 축약(縮約)된 실마리인 것이다. 그런데 옛 마을의 이름이 행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조상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토박이 촌로(村老)들이 나서서 옛 마을 명칭을 이어가야 하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뒷집만 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때문에 지명 유래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무시(無視)되어 없어지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마을 유래 명칭이 없어지면서 역사의 유적지까지 없애 버리는 것은 냉철(冷徹)한 비판(批判)을 받아야 한다.

2) 어수동(御水洞)

어수마을, 어숫말, 어순물은 조상들이 부르는 소리음(音)은 자음(子音)준말로 음율에 따라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같은 마을 이름이 약간 다르게 들린다. 중앙동의 어수물은 1398년(태조7)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 제8남(男) 이방석(李芳碩) 의안대군(宜安大君)은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소생(所生) 태조가 방석을 총애함을 알고 정도전 등에 추거되어 1398년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방원(芳遠)은 때마침 정도전이 세자 승위(僧位)를 안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지방에 보낸 것을 계기로 정도전 등이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제거하려한다 하여 이를 알고 있던 이방원이 선수를 쳐 이복(異腹)동생 방석과 방원을 살해(殺害)하였다. 조선실록(實錄)에는 방석과 정도전이 공모하여 난(亂)을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도전의 난 또는 방석의 난이라 불리었다. 후대(後代)에 와서 방원의 1~2차 왕자의 난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울분(鬱憤)을 토한 태조 이성계는 고향 함흥으로 낙향(落鄉)하던 중 동두천 어수동에서 하룻밤

을 묵고 물을 마셨다하여 어수마을로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어수마을의 유래는 1970년대 말 그 자리에 어수물은 묻어버리고 어수동 노인정의 건물이 들어진 것에 기원한다.

3) 불현동(佛峴洞)

불현동은 부처불(佛)자에 언덕현(峴)자 유래를 보면 광암동 고갯마루 턱거리 긴 언덕 위 커다란 바위 아래 부처를 모셨다 하여 부처가 있는 동네라 하여 구전(口傳)으로 내려 올뿐 고증(考證)된 곳은 없다. 1940년대부터 광암리(廣巖里) 넓은광(廣)자에 바위암(巖)자에 이곳 마을에 넓은 바위들이 있다 하여 광암리 또는 광암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로 이곳 마을은 일명(一名)턱거리로 불리었으며 구전에 의하면 길고 긴 열 두 구비를 돌아 가파른 높은 고개에 짐 실은 마차를 끄는 말의 턱이 언덕에 닿았다 하여 턱거리로 불려왔다. 예전의 광암동 마을에 예속(隸屬) 촌락은 좌기골, 송정리, 결산리, 내촌, 개안, 세목, 골말, 기촌, 승지골 버석거리 등 10개 마을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미군부대가 주둔(駐屯)하면서 결산리 내촌 세목 기촌을 제외한 6개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4) 탑동(塔洞)

탑동은 고려시대부터 양주시 회천읍 회암리 회암사의 영향(影響)을 받아 세워진 마을로 전해지고 있다. 장림(長霖)의 조산(造山)마을이 회암리 긴고개로 통하며 조산 윗마을에는 탑동 석불(石佛)이 고려 말기(末期)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 좌상(坐像)이 안치되어 있다. 예로부터 탑동마을에 예속된 동점(銅店)마을은 구리(赤金)를 캐내는 광산(鑛山)이 있었으며 주막(酒幕)이 있었다 하여 동점리 또는 통점 통지미 마을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이곳은 특히 조선의 끝자락 27대 마지막 왕 순종(純宗)의 비(妃) 윤비(尹妃)의 생가(生家)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동쪽 마을에는 조선 세조(世祖)제7대 왕(재위1455~1468)때 명성(名聲)을 날린 북벌의 명장 정장공(貞莊公) 어유소(魚有沼) 장군(將軍)의 사당(祠堂)이 모셔져 있다.

2. 각동(各洞)의 현안 유적지(懸案 遺蹟地)문제점

먼 옛날부터 선조(先祖)들의 역사의 유래(由來)를 발굴 복원하여 우리 고장을 문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역사의 문화유적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서 소중히 다

루어야 할 역사의 문화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잊혀가고 묻혀 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25년이란 떠나간 세월 속에 우리 2세대를 위해 인물, 유적, 유물에 대해 수 십 편의 논문 및 일간신문에 기고도 했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 동두천 역사의 슬픈 현장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우리들이 역사의 현장을 보고도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남의 일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앞으로 진정(眞正) 동두천을 사랑한다면 동두천 역사의 인물(人物) 그리고 문화유적(文化遺蹟)을 기반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부터 극복하고 구체적인 내용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살펴 나가야 한다.

1) 개연성(蓋然性)있는 유적지

동두천 역사를 다름에 있어 희망의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狀況)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중대한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공동인식이란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현대사의 당연한 귀결(歸結)이며 그렇게 되기까지 역사를 인식하고 동참하고 있는 관심 속에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족사의 흐름속에 우리의 좌표(座標)는 어디인가 이러한 우리의 자아(自我)의 위상(位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면 암담한 현실도 희망의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시민의 자아의 위상을 우리만의 저력과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지닌 고유의 정신적 가치와 총체적인 전통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을 통해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2) 시민(市民)이 찾아야 할 문화 유적지

각동(各洞)에 분포(分布)되어있는 유적지를 기반(基盤)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부터 극복 전통문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 자체부터 종합적으로 살펴 나가야 한다. 문화재는 잊혀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두천의 대표적인 인물(人物) 윤비(尹妃)는 조선 마지막 27대 순종(純宗)의 비(妃)로 1906년 고종(高宗)10년 병오(丙午)13세 어린 나이로 태자비(太子妃)가 된 윤비는 일제 침략에 의해 나라를 잃고 국가의 정체성(政體性)이 상실되어 황후로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슬픈 생애를 보내야 했다. 1910년 8월 16일 일본, 본국의 지시대로 데라우찌 초대 총독은 한일합방(韓日合邦) 강제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치욕(恥辱)적인 날이다. 당시 창덕궁에서 일본인(日本人)궁내부 차관(宮內府次官)과 한국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만나 조약안(條約案)을 제시하여 합의를 본 후 이날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趙重應)등을 불

리 개별적인 승인을 얻어 1901년 8월 22일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어 오후5시 조인식을 끝냈다. 이때 거리에는 일본헌병과 경찰이 순회하고 전국적으로 애국 단체를 해산 수 천 명의 애국지사들을 구속하였다. 8월 29일 이완용은 윤비의 백부(伯父:큰아버지)윤덕영(尹惠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케 하니 이로써 조선은 27대 순종을 마지막으로 519년 만에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轉落)하고 말았다.

3) 윤비와 한일합방

윤비는 큰아버지 윤덕영 때문에 개인(個人)의 사사(私事)로운 일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으로 위험한 고비에 처했을 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곤경(困境)에 빠지고 말았다. 어질기로 이름났던 윤비는 정치문제에 초연(超然)하지 못했지만 순진한 임금 순종 뒤에서 그를 격려해 주곤 했다 당시 어지럽던 정국(政局)에서 그나마 순종이 지탱해 나간 것도 윤비의 숨은 힘 때문이었다고 한다. 일제시대가 시작(始作)되면서 한국 통감부 한일 신협약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은 덕수궁에 상주(常駐)하고 있던 고종을 협박하며 꾸준히 밀고 나온 데라우찌 총독 궁내부 차관을 비롯하여 훗날 오적(五賊)으로 구한말(舊韓末) 을사조약의 체결에 참가한 다섯 명의 매국노 1.이완용 2.박제순 3.이지용 4.이근택 5.권중현 등 참석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가 열렸을 때 친일파 대신(大臣)들이 순종(純宗)을 강박(強拍)하여 합방(合邦)할 것을 종용(慫恿)하자 이를 병풍 뒤에서 엿듣던 윤비는 밖으로 나와 순종을 불러내어 덕수궁에 계시는 상왕(上王) 고종(高宗)에게 이 엄청난 파국적(破局的)사태를 알려야 한다며 옥새를 순종으로부터 빼앗아 비단치마폭에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 장면(場面)을 목격한 일본 궁내 차관은 몹시 당황하여 윤비 국모(國母)의 치마속에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때 회의 석상(席上)에 있던 백부 윤덕영(尹惠榮) 자작(子爵)의 손을 통하여 윤비의 치마 속에 있던 옥새를 빼앗아 한일합방 문서(文書)에 날인(捺印)하여 구한말의 나라는 그렇게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4) 윤비의 한(恨)

순정효황후 윤비의 시어머니인 명성황후 민비(閔妃)에 대한 논문과 저술(著述)이 유명해지는 것과는 달리 윤비의 논문이나 저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어쩌면 백부 윤덕영의 매국(賣國) 행위 때문에 연좌죄(緣坐罪)로 인하여 연대(年代)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일까. 윤비는 최선을 다했으나 못한 큰아버지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었다. 윤비를 배출(輩出)한 도시 동두천 윤비의 슬픈 원한(怨恨)을 우리가 풀어주고 명예(名譽)를 회복(回復)해야 한다. 지금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윤비의 외가댁 마을에서는 매년 윤비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동두천시에서는 윤비의 사료(史料)에 대한 상황(情況)을 수집하여 양평군과 함께 공존(共存)해 나가야 한다.

5) 윤비 생가(生家)와 기념관 건립(建立)

윤비가 태어난 탑동의 동점마을은경기의 소금강이라 부르는 소요산 능선 따라 남쪽으로 뻗어나간 곳 아래 아늑한 구릉지(丘陵地)삼태기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구리를 캐내는 광산(鑛山)과 주막(酒幕)이 있어 구리동(銅)자에 가게점(店)자를 써서 동점마을이라 했다 이곳은 예전부터 윤비의 해평윤씨(海平尹氏)와 청풍김씨(淸風金氏)의 문중(文中)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다. 그러나 해평윤씨들은 떠나가고 지금은 청풍김씨들이 동점마을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윤비의 생가 터에는 민초(民草)의 향토음식점이 자리 잡고 성업(盛業)중이다.

3. 어유소(魚有沼)장군(將軍)의 일대기(一代記)

동두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육지에는 어유소 장군이 있다. 북벌(北伐)의 명장 어유소는 그가 세운 공적(功績)에 비해 그의 생애(生涯)에는 무명(無名)에 가까운 만큼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업적(業績)의 평가도 못 받고 있다.

1) 어유소

1434년(세종16)~1489년(성종20) 조선 초기의 무관(武官)으로 자는 자유(子游), 시호는 정장(貞莊), 본관은 충주(忠州)명장 득해(得海)의 아들이며 18세때 발탁되어 내금위(內禁衛)에 보직되고 1456년(세조2) 무과(武科)제1위로 장원급제, 1467년 함경도 이시애(李施愛)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으로 예성군(藥城君)에 있다가 이조판서(吏曹判書)에 특진되었고 그해 명(明)나라가 건주야인(建州野人)을 칠 때 명나라 요청에 따라 좌대장(左大將)으로 건주위를 공격, 완전히 소탕하고 그 이름이 명나라까지 떨쳤다 돌아와 우참찬(右參贊)에 도총관(都摠管)을 겸하였고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전임 우찬성(右贊成)에 승진했으며 1479년(성종10) 또 명나라 요청으로 원수(元帥)가 되어 야인(野人:옛날 압록강과 두만강 강 건너 이북에 살던 만주족)을 토벌하러 갔으나 강물이 얼지 않아 건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만 조정(朝廷)에서는 명나라의 의심(疑心)을 두려워하여 어유소 장군을 잠시 쉬게 하였다. 그 후 다시 봉군(封君:조선시대에 대군(大君)이

나 군(君)을 봉하던 일)되고 도총관으로 기용 1482년 영안도(永安道)의 야인들이 침입할 기세가 보이자 어유소 장군이 일찍이 북면의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지방 군대를 통솔하던 중2품의 무관직)로 10여년이나 야인들을 다스렸으므로 조정의 명을 받아 그들을 설득하여 추장(酋長:야인들이 사는 마을의 우두머리) 15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로 인해 북면(北邊)국경지대가 평온하였다. 1488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겸 도총관에 이르렀다. 어유소 장군은 성품이 유(裕)하고 지혜로웠으며 무인(武人)이면서도 서예(書藝)에도 능해 학자의 기품이 있었다.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치밀하고 정확한 판단력에 용감무쌍(勇敢無雙)하여 대적(對敵)할 자가 없었다.

2) 어유소 생가(生家)의 지행동(紙杏洞)

지동(紙洞)의 유래는 종이지(紙)자로 이곳에 종이 원료 닥나무를 대단위로 재배하여 품질 좋은 종이를 많이 생산하여 일제 강점기 때에는 제지(製紙)공장의 조합(組合)을 결성하여 경영하였다. 그런데 일제의 수탈(收奪)이 심화된 1930년대 이른바 농촌진흥운동과 더불어 이곳에 마을 공동작업반인 진흥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이장(里長:구장(區長)은 공동작업반장의 책임자였으며 명칭을 화성진회로 하여 한때는 화성 마을로 전해 오고 있었다.

3) 어유소가 태어난 사당골(祠堂谷)은 이담면(일담면)에 속한 자연마을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충주어씨가 세거(世居)하였다. 어유소가 출생 성장한 마을로 후손들이 집성촌(集成村)을 이루었다. 어유소 사후(死後)후손들이 이곳에 사당을 건립하는 등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훗날 병자호란(丙子胡亂, 1637년(인조15)) 중국 청 태종(淸太宗)의 침입으로 조선왕이 성문 밖으로 나와 수항단(受降壇)에서 청 태종에게 항례(抗禮)를 하며 항복하였다. 전화(戰禍)를 걱정한 후손들을 어유소의 사당을 미2사단 영내에 있는 좌기골(座起谷) 묘소앞으로 이전하였다. 과거 사당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어유소 생가 마을을 사당골 마을로 전해 오고 있다. 특히 이곳은 1,000년 수령(樹齡)의 신목(神木)인 은행(銀杏)나무가 있어 나무 아래 단(壇)을 쌓고 매년 마을의 후손들과 어르신들이 한해의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행단제(祭)를 올리고 있다. 지행동(紙杏洞)의 유래는 종이골의 종이지(紙)자와 행단제의 살구행(杏)자를 따서 지행동으로 전해 오고 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어유소가 청년 시절에 운동을 했던 흑돌80kg이 주인을 잃은 채 놓여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나 풍류(風流)를 즐기던 곳이었다.

4. 마을 유적 발굴(發掘)복원 활용 방안(方案)

문화자원의 축적(蓄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을에 묻혀있는 유적지(遺蹟地)를 지표 조사를 통하여 연구하고 발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마을 문화유적은 전승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까닭에 조사할 때 마다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효과가 있다. 오랜 세월 속에 관심(關心)조차도 두지 않는 마을문화 유적지는 문화적 가치(價値)로 물질 자원은 하고자 하는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마을 문화는 경쟁의 논리의 시장(市場)주의 체제에서 공생논리의 공동체제로 가는 대안(代案)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자연 적응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삶의 이치를 일깨워주며 새로운 문화 창조에서 자원(資源)으로 활용해야 한다.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오랜 전통 속에서 축적해 왔던 인류의 놀랄만한 창조와 슬기들을 저장하고 문화지식을 일깨우는 마을의 매장(埋藏)되어 있는 유적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전승해야 한다. 과학 문명의 발달(發達)은 도시가 팽창(膨脹)하면서 마을의 전통문화가 보존되어야 할 자연마을이 아파트촌으로 변하여 옛 자연을 찾아볼 수 없다. 시멘트벽으로 가로막힌 마을 지금 유적지를 발굴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마을의 역사는 끝내 소멸(消滅)되고 마을의 생명은 자연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동두천 각 마을에 분포(分布)되어있는 문화유적 유물은 서둘러 발굴하는 이유(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유적 유물의 가치와 필요성

발굴을 위한 재정(財政)확보와 그 집행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散在)해 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의 열린 문화 정책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원 높은 마을문화 창조를 목표로 삼아 예산을 할당(割當)해야 한다. 달성을 목표로 효율성 있는 안목과 전문적인 일에 예산을 들이는 것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문화유적의 발굴은 성장 잠재적 있는 역사 문화 관광의 고부가 가치의 문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문화기념상품을 개발 사업으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문화사업을 기반으로 다양성과 조화된 문화시민 사회의 성숙을 위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풀뿌리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조화된 새로운 문화 달성에 온 시민이 노력해야 된다.

2) 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認識)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사회경제문화 모든 부문에서 우리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급속한 경제 개발이다. 국민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가 현재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과 복리를 향상시켰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개발을 우리에게 어두운 면도 안겨 주었다. 환경오염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을 위한 효율적 국토이용이란 미명(美名)아래 우리는 그동안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였다. 그 결과 뜻하지 않은 자연 재앙을 맞았을 뿐 아니라 그 지역 내에 부존(賦存)하는 경제적 목적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무수히 목격되었지만 막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들어 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환경 및 문화재 파괴를 가져오는 무분별한 개발이 경제적으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삶의 질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 문제가 아님을 생각할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기념물 같이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상에 드러나 있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도 무차별적인 파괴를 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 알려져 있지 않거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유물유적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한다.

3) 지행동과 탑동의 없어진 문화재(文化財)

지행동의 어유소 생가터와 탑동 동점마을의 윤비 생가터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등록(登錄)되어야 한다. 생가(生家)를 복원하여 동두천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圖謀)하기 위해 방법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기초적으로 기념비(記念碑)또는 표지석(標識石) 안내판(案内板)을 입구에 세워 마을의 지리풍속 명소(名所) 고적(古跡)등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특별히 표시해 놓아야 한다. 생가 복원 후에는 관광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시대별로 복원하려면 우선 어유소 장군(1434(세종16)~1489(성종20)) 순정효황후 윤비(1894(고종31)~1966)생가 순으로 유적들을 살피고 역사에 이르는 생가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지난 25년간 필자가 거론(擧論)한 유적지는 외면 당한 채 생가사 있던 자리는 외지인들에게 매매(買賣)되어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조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안내판 그 마저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계로 역사는 있는데 역사는 없고 인물은 있는데 인물은 기억 속에 흐려지고 있다. 소문에 의해 관심을 갖고 유적을 찾는 향토사학자나 연구원 학생 문화유적답사 관광객 등에게 보여 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연유(緣由)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의 발굴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적의 보존 및 활용 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계획도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적이 지닌 그 중요성은 멸살(滅殺) 위에

놓여 있다. 전방위적인 문화적 구심점을 구축하고 문화유산보존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 가치와 문화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에 노력해야 한다.

4) 문화 정책에 대한 미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안정이 조화된 문화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풀뿌리 문화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적 특수성과 전국적 보편성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화 달성에 노력한다. 구체적인 사회 사업 계획에 문화 정책이 미래를 대비하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로서는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방안들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정책이 좀 더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개개인과 정책 당국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화 지향은 반드시 문화적 구심점을 구축하고 창조적 계승 생활화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전통을 구현해야 한다.

5) 문화재의 개념과 중요성

문화재는 잊혀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땅속에 묻히거나 철거(撤去)의 경우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당시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문화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수 천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지형과 풍토에 꼭 맞는 문화를 형성해 왔고 그 속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 문화재만큼 대외적으로 경쟁력있고 부가가치가 무한한 자원은 없을 것이다.

6) 개발과 문화재 보존

문화재 훼손원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자연적인 요인으로 홍수로 인한 침식이나 매몰 지진 그리고 목재나 석재 문화재의 경우 병해충이나 대기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하고 대규모적인 문화재 훼손의 결정적인 요인은 대체로 개발이라는 이름의 인위적인 요인이다. 국토개발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주택건설 공업단지 조성 경지정리 관광단지 조성 등 인위적으로 자연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발 사업은 대체로 주거가 가능한 문화재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지며 원래의 지형을 완전히 변

경시하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이처럼 개발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문화재는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재 보호법이 문제다.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만 이 법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사업 시행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오히려 문화재 훼손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를 찾는 비용도 찾아서 발굴하고 보존하는 비용도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견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감쪽같이 없애버리는 것이 예사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개발 우선 정책과 신고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의 부재 질 낮은 조사기관의 문제 등도 문화재 훼손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개정 문화재 보호법은 기존의 문화재 보호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건설공사를 시행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이나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개발 계획 수립시 반드시 문화재 지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아무런 자격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시행 되어왔던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인력이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5. 문화예술 자원의 관광상품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자원중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대상은 역사문화유적, 건축 구조물, 도시공간, 교육기관, 여가 및 생산시설, 의식주 관련, 생활환경과 전통풍속, 각종 축제, 문화작품이나 영화 TV드라마 음악, 미술, 공예, 연극 등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이외에도 관광객을 유발시켜 어느 지역으로 방문을 부추길 만한 문화예술 자원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발휘하면 문화예술 분야를 인위적으로 활용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하다. 조상들의 문화유산 고전이나 전설의 배경 TV드라마 작품의 배경지 등을 찾아 가려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익사회단체 여행사 등이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려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로 개발하는 방안은 무한하겠으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각종 문화유산 관람 개발

각종 문화 유산이나 역사유적을 관람하는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문화 테마형 관광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동두천이 보유하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소요산 별궁지 및 중앙동의 우물터 지행동의 정장공 어유소 장군의 생가 탑동 동점마을의 조선27대 왕 순종의 비(妃) 윤비의 생가터 그리고 소요산성(山城) 마차산의 봉화(烽火)터 및 보루(堡壘)등을 활용하여 지방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독특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나 동두천은 아직도 미진한 형편이다. 반 만 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과정에서 우리가 보유한 문화유적이 다양하고 풍부하나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면 많은 자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2) 타 지역(他 地域)의 개발(開發)성공 사례

용인 민속촌, 경주 보문단지 신라촌 조성,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재생, 서귀포 화가 이중섭 문학관과 거리, 남원지역의 춘향제와 춘향테마파크, 홍부마을 및 국악성지조성 토지의 하동마을 평사리 최참판댁 복원과 주변 지역 함양군의 변강쇠와 옥녀마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과 평창군 물레방아 재현, 강원도 영월의 김삿갓 유적 정비, 산청군의 허준과 스승 유의태 및 민족전통의학 성지 조성, 영화나 TV드라마 속의 배경 장소 방문 또는 영화 촬영장 활용. <서편제>와 남해안 일대 <모래시계>와 강원도 정동진, <그대 그리고 나>와 경북 영덕 강구항, <연풍 연가>와 제주도, <용가리>와 수원시 등 자기 지역들만의 특성을 부각시킨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3) 지방자치 단체의 관심(關心)

지역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잘 보전하고 잘 디자인된 관광 안내판을 충분히 설치하고 안내 해설 자료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가운데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 문화유적을 연결해주는 코스 중간 중간에 쉼터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문화유적 자원이 빈약한 동두천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 유물 자원을 발굴하고 재현하여 지혜롭게 활용해가는 타 지역의 아이디어 개발과정과 관광상품화 과정 등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觀點)과 관심으로 볼 때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적자원의 관광상품화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문화 자원은 경쟁시대에 자기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image:廣告)를 외부에 잘 알려 주

며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에 긍지와 애정을 갖게 해 주는 좋은 수단이다. 그리고 외지 관광객들을 자기 지역에 보다 많이 관광객을 불러오게 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주고 지역의 문화유적, 유물,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주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자연지형이나 기후 계절 등 지역 여건이 불리해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연중 고른 관광객 유치를 가능케 해 주기도 한다.

4) 창조적(創造的) 아이디어(idea)

어느 지역이건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 과정을 통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해 내되, 내실 있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성공의 기본 요체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과정까지의 전반에 걸쳐 문호를 개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들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관광 육성 전력에 앞장서서 지지하며 필요한 협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관광상품화는 단기간에 성패가 결정 날 일이 아니다. 선진국처럼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초지일관(初志一貫)하여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조급하게 결정해 버리고 이내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것은 실패할 우려가 크다. 문화자원 관광상품화는 각종 계획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있게 세워나가는 각종 건설계획 등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과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연계하도록 하는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5) 전문 인력 확보

우리 지역의 문화 자원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화로 개발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려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객이나 여행사 등 관련 업계 지역 주민들과 팀웍을 이루어 시민단체 지역여론 주도층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고도로 구축하여 관주 도형의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추진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에 전문인력이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하여 자체적으로 시장조사와 기획활동 홍보 마케팅 활동 등의 업무를 자발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고 성장전략이 바뀌며 문화관광을 통한 발전을 주요전략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 했으므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들을 지역 내부에 보다 많이 확보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인력을 통해 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하는 등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다.

6) 민관(民官)의 업무 추진(推進)

이제부터는 과거 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方式)으로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 등 각종 효과를 많이 거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보호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의식이나 관행도 바꿔나가는 등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역의 내외부에 걸친 협력 체계를 통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원의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한 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단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가용(可用)자원과 민관이 힘을 모아 예산을 확충(擴充)하고 과감(果敢)하고 독심 있게 추진해 가는 업무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7) 현상(現狀)보존

현상보존은 문화재 보존의 가장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으로 문화재가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상보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 문화재가 포함될 경우 현상보존의 방법으로는 사업지구에서 문화재 부존(賦存)지역을 도려내거나 제척(除斥)하여 도로의 경우 도로를 우회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지구내의 공원지역 등에 포함되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존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문화재의 보존에는 현상보존과 기록보존, 이전(移轉)보존의 3가지가 있다 그중 실질적인 의미의 문화재의 보존은 현상보존이지만 개발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화재 보존 문제를 해결하는 부차적인 방법이 기록보존과 이전 보존이다.

8) 기록 보존

기록 보존은 해당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보(情報)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다.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 등 그것을 완전히 분해하거나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밀(嚴密)한 의미에서 기록 보존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발 등의 이유로 현상보존이 불가피할 경우나 학문적

인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록보존에는 일반적으로 지표조사, 시굴(試掘:조사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광맥을 파 봄)조사, 발굴조사의 단계가 있다. 그중 지표조사 경우에는 현상을 훼손하는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시굴조사는 표본 발굴조사로서 해당문화재의 규모나 성격 보존이나 발굴조사 방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규모나 성격보존이나 발굴조사 방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경우 조사대상이 문화재가 아니거나 이미 대부분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로 끝나지 않고 대부분 발굴조사를 동반하게 된다. 또한 발굴조사 후 필요할 경우 조사지역에 대한 간단한 안내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9) 이전(移轉)보존

이전 보존은 문화재가 소재(所在)하고 있는 원위치에 보존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동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고가옥이나 고인돌처럼 지상 구조물인 경우는 그대로 옮겨서 이전하는 이전 복원(復元)의 방법이 있고 주거지나 패총(貝塚:조개 더미)등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것은 전사(轉寫:글이나 그림 따위를 베껴어 쓴 것)등의 방법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도 삼국시대의 지상가옥인 경우 발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기둥 구멍뿐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만들어진 토기(吐器)나 벽화 등을 참조(參照)하여 지상 구조물을 추정 복원하여 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화재 기존에 있는 것을 확인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문화재의 총량은 개발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역사와 시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한번 훼손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들은 그만큼 훼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다.

6. 선진국의 관광상품 성공 사례(事例)들

세계적으로 역사유적이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성공한 사례는 매우 많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은 거의 다 국제적 수준으로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수많은 문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의 세계적 문화유적은 런던이나 파리 로마 등 수위(首位)도시나 일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가 많

아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자기 지역만의 특성을 부각시킨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는 연구의 여려모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었다가 짧아 국제적으로 규모의 문화예술 자원이 빈약한 나라나 지역 사회들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 자원이 있을 경우 그것을 잘 보전하려는 가운데 창의성을 가미해 좋은 문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운 소규모 역사 유적들이 별거 아닌 듯한 문화유적자원을 잘 보전하며 지혜롭게 활용해가는 선진지역들의 아이디어 개발 과정과 관광상품화 과정 등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례 중 몇 가지를 개략적(概略的)으로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보스턴시의 자유의 길(Freedom Trail) 사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인 보스턴 다당 사건(Boston Tea Party Riot)과 관련하여 보스턴 항구와 그 주변 지역에 흩어져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잘 보전하는 가운데 보스턴 지역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문화유적을 연결해 주는 코스 중간 중간에 소규모 휴게공원과 공중화장실을 적절해 배치해 놓고 서점이나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시설과 음식점도 설치해 놓아 보스턴의 역사를 즐기면서 손쉽게 알 수 있는 관광 명물로 인정된다. 우리의 도시나 농촌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 문화유적의 적절한 보전과 지역민의 궁지 내방하는 관광객의 이용여건이나 서비스편의를 동시에 균형 있게 고려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곳을 관광객에게 매력 있는 테마형 관광 코스로 개발할 만한 역사적 흔적이나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정자(亭子)나 누각(樓閣) 서원(書院) 성곽(城郭)등 매우 많다고 본다.

2) 셰익스피어 출생지인 영국 스트랫퍼드시의 경우(境遇)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시골지역인 옥스퍼드 북서쪽 약 60km지점 스트랫퍼드시의 에이번 강 부근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오늘날 셰익스피어를 알고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트랫퍼드의 민관인이 협력하여 셰익스피어가 살던 건물이나 그의 가족(모친,장녀)들이 살던 건물들을 복원해 관광객에게 공개하였으며 셰익스피어 중앙도서관에서의 인생 일 그리고 그의 원작 등에 관한 전시물을 다수 전시하고 있다. 에이번 강주변에는 조경(造景)을 잘해놓고 있어 내방 관광객들이 전원 풍경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에이번 강변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장 등 3대 극장에서는 연극 활동이 열리고 있으며 리셉션이나 세미나

콘퍼런스 이벤트도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어 항상 볼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 문화 열차와 투어버스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주변 도시의 여러 관광지를 연결해 주며 편리한 교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유흥과 오락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단조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 치부(致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지방에도 자기 지역 출신으로서 훌륭한 문호나 시인 선비 예술인들이 많이 있으므로 스트랫퍼드 지역과 같은 명소로서 발전시킬 잠재력이 많다고 본다.

3) 불모지(不毛地)에서 국제적 만화도시로 발전한 프랑스의 앙굴렘시(市)

프랑스 남부의 작은 지방도시 앙굴렘은 그 혼한 포도농장 하나 없는 인구 3~4만 명의 불모지였다. 과원에서 고속열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변두리 소도시는 1970년대부터 만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자랑거리 하나 없는 불모지가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발이라는 축제를 키워 이제 만화를 아끼고 지망하는 모든 이의 꿈의 무대이자 축제지가 되었다. 45년이 지난 요즘 만화라는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만화 도시로 발전되었다. 물론 이런 성공이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자세로 한 해, 두 해 민·관이 힘을 합쳐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꾸준히 홍보 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만화라는 아이템의 참신함도 큰 몫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투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부대사업들이 앙굴렘시의 기간산업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만화라는 소프트웨어는 도시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앙굴렘은 더 이상 남부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유명만화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앙굴렘의 이런 성공은 열악한 지역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한 그 지방 사람들의 치밀함과 40여년 동안 일관성 있게 노력해온 끈기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4) 기발(奇拔)한 영화제로 성공한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 마찌

유후인 마찌는 일본 오이타현 내에 있는 인구1만2천명의 작은 고장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읍·면의 규모와 비슷하다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해에 약 3백만 명이 넘고 그중에 1백만 명 정도가 숙박 관광객이다. 이 작은 마을에 숙박 시설수가 120여개이며 1일 5천 명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정도면 가치 관광 마을이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하지만 이곳의 관광 매력은 사실 일본 내 다른 지역보다 출중(出衆)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저 또 하나의 온천(溫泉)마을로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을 뿐이다. 그나마 1970년대에 들어 일본이 한창 개발기를 맞이하면서 인

근에 위치한 뱃푸시(市)가 국제 관광 온천도시로 발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유후인 마찌의 마을은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유후인 마을 주민들에게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으며 새로운 시도(試圖)없이 생존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때 유후인 주민들이 내린 결정은 유후인 마을을 유후인의 고유성(固有性)을 나타내는 관광지로 다시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웃하고 있는 뱃푸시와의 분명한 차별화를 선언(宣言)하는 것이었다. 또다른 관광사업의 창의력 기획(企劃)은 영화관 하나 없는 마을 그러나 거기에는 영화가 있다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고안(考案)되었다. 이는 1976년 시작된 유후인 영화제의 출발을 알리는 폭죽(爆竹)이었다. 마을 내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 것을 오히려 역(闕)으로 이용하여 독창적인 이벤트를 창조해냈다. 매년 8월이면 마을회관을 빌려 영화를 관광하게 하여 영화에 출연했던 출연진과 흘러간 은막(銀幕)의 스타들이 심포지움(Symposium)을 열어 출연했던 영화배우들과 영화제작상의 숨은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면에서 의견을 말한 후 관중 배우들 간에 토론하면 매우 재미있고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제대로 영화관 하나도 없던 유후인 마을은 영화의 마을로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영화 팬들은 유후인을 기억하고 매년 몰려오고 있다. 유후인 주민들의 이러한 지혜는 영화제에 그치지 않고 유후인 음악제들의 개발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것은 쇠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매년 10월 10일 체육의 날이 되면 쇠고기 먹고 소리 크게 지르기 대회를 연다. 가장 큰소리 지르는 사람이 1등이다 이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반영된다. 유후인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 전략이다 이 대회는 사실 그 이면에 전략이 더욱 놀랍다. 원래는 농가의 소득을 위해 실시된 소 한 마리 목장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도시사람들이 구좌 형식으로 출자하고 소(牛)의 주주(株主)가 된 이들이 농가와의 친선모임을 가지면서 소리지르기 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아무튼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관광 이미지(image)도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렇듯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통 문화를 복원한 관광상품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유후인 원류를 400년 전부터 유후인 지역에 전해 내려온 전통의 리듬을 찾아내어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옷통 벗고 맨발로 두드리는 북소리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또 하나의 소리 구실을 해냈다.

- 유후인의 음식 문화와 특산물

유후인 주민들은 음식 문화의 연계를 빼놓을 수 없는 전략이다. 농가는 무공해 작물을 경작하여 관광여관이나 식당에 조달하고 관광객들에게 직접 팔기도 하다. 더욱 적극적인 경우에는 관광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며 숙박시설을 갖춘 관광농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는 버

섯 요리를 만들어 팔고 토종닭을 키우며 진짜 토종닭을 먹게 해준다. 청결한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는 정부의 감독을 의식할 필요 없이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제는 이러한 건강식품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들의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노력은 음식문화뿐 아니라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면 반드시 특산물 판매점이 들어서 있으며 관광 안내에도 특산물 안내가 반드시 포함된다. 특산물을 바깥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사람을 불러들여 파는 묘수를 발휘한다. 전통민예품을 전시하는 민예촌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그곳에서 직접 민예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관광객들의 쇼핑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유후인 마을주민들이 시도한 것은 유후다케산 중턱에 위치한 주변 산들과 어울어진 전원적인 유후인의 풍경이 아름답다는 생각에 착안(着眼)하여 산과 물 호수와 고원 맑은 공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한적한 산천에 위치한 자연마을을 활용하여 도시인들에게 보여주는 작전이었다. 이들의 노력은 쾌적한 환경이 유지를 위한 환경운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외지 관광객들이 타고 온 자동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매연을 억제하기 위해 마을 내 순환차를 순회시켜 운영하거나 스지바사라는 말 마차를 운영한다. 이곳 전통의 조랑말이 끄는 말마차를 타는 관광객들은 보다 새로운 느낌으로 관광을 하게 된다. 환경도 보존하고 관광 매력도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 유후인 주민들의 조직적 활동 내용

유후인 마을의 성공은 아이디어 기획이 매우 좋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관광상품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보여준 끈끈한 협력이 매우 좋았다. 그러한 협력이 없었다면 성공을 못 했을 것이다. 해당 지방 정부는 상공 관광과를 두고 산업차원에서 유후인의 문화예술관광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였다. 관련 공무원과 주민은 파트너(Partner)로서 한 팀과 같이 긴밀한 협력하고 있다. 또한 5명으로 구성된 기초 지역의회는 총무관광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종 관광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순수 민간차원의 유후인 관광협회가 전체 마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적극 활동하고 그 아래에 보다 작은 소단위로 지역(우리의 경우 동, 리 단위)차원에서도 관광협회를 구성하여 유후인 지역 전체의 관광 발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민관(民官)협력의 네트워크(Network)구성과 조직적 활동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유후인의 화려한 성공을 뒷받침하였다고 해도 과언(過言)은 아니다. 아직도 관주도형으로 주

어진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형태가 강한 우리로서는 유후인의 협력 시스템(System)과 성공 고정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7. 동두천 문화 관광자원 어떻게 활용(活用)할 것인가

필자(筆者)는 앞에서 서술(敘述)한 내용을 예(例)를 들어 국내외(國內外)의 문화 관광사업을 본보기로 기록(記錄)해 보았다. 동두천시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文化遺産)인 유적지(遺蹟地) (1) 윤비의 생가, (2) 어유소 장군 생가, (3) 태조 이성계 우물터 및 별궁지, (4) 소요산 산성, (5) 마차산 보루 및 봉화터 (6) 상패동 남산모루 마을의 호족의 묘 등 복원(復原)해야 한다. 그리고 동두천의 보물인 5층 석탑도 미2사단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모로 열악한 문화 자원의 무관심은 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慣行)제도를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유념(留意)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려면 철저한 기획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적 타당성(妥當性)과 경제적 타당성 등 제반 타당성이 고르게 제고(提高)되고 관광상품화가 가능해 진다. 관광상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려면 좋은 아이디어 발굴과 철저한 기획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 관광객의 입장을 중시해야 한다. 관광객은 무엇을 원하며 어떤 것에 만족할 것인가 등을 잘 이해한 후 그러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의 입장 등을 조화시켜 가는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1) 내실(內實)있는 윤비 관광사업

동점마을의 문화유적지 윤비는 동두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선 마지막 황후 윤비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선 윤비의 유래 안내판부터 설치하여 동두천시와 시의회의 안목(眼目)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 윤비와 관련된 사료(史料)를 발굴 수집하여 윤비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展示)기술의 개발과 응용도 매우 필요하다. 해당 문화유적이나 기념관 등에서 조출한 규모의 축제나 이벤트(Event)가 정례 등으로 개최되어 살아 숨 쉬는 문화자원이 되고 앞으로 윤비 생가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들이 충실히 제공되는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동점지역자원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면 각종 전문가나 주민 대표 시민단체 지역 언론의 주도층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System)을 고도로 구축하여 민·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 방식을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치열한 관광객 유치 경쟁속에서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 사업이 가능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자기 지역이 주변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고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신중한 선택과 가용자원 집중경쟁과 창조의 지속적 연계 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費用)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임에 유의해야 한다.

2) 시대변화에 맞는 성장 전략(戰略)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내 전문인력이 보다 많이 확보되도록 하여 자체적으로 시장(市場)조사와 기획활동 각종 협력 활동 홍보 마케팅(Marketing)활동 등 업무를 자발적으로 전개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고 성장 전략이 바뀌며 문화 관광을 통한 발전을 주요전략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到來)했으므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지역 내부 보다 많이 확보토록하며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인력을 통해 문화예술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는 등의 각종 계획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 있게 세워 나가는 일과 농촌개발 계획이나 도시 개발계획 각종 건설 계획 등 유관기관 등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과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연계하도록 하는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해야한다.

3)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推進)

조상(祖上)대대로 내려온 지역 주민들이 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 과정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까지의 전반에 걸쳐 문호(門戶)를 개방(開放)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들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을 앞장서서 지지하며 필요한 협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는 운동이나 교유도조직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단 결정된 관광 상품화 방안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가도록 해야 한다. 관광상품화는 단기간 성패가 결정 날 일이 아니다. 선진국처럼 수십년 수백년 앞을 내다보고 초지일관(初志一貫)하여 꾸준히 결정된 사항을 추진해 가는 인내력이 매우 필요하다. 조급하게 결정해 버리고 이내 포기하고 마는 방식으로 지역 문화 자원을 관광상품화하는 것은 실패할 우려가 크다. 일단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가용(可鑛)자원과 민관이 힘을 모아 과감하고篤심 있게 추진해가는 업무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Ⅲ. 맺는말

우리 선현(先賢)들의 옛 삶을 바라보며 더 나은 문화의 삶을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을 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해 문화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그런 시기이다 동두천시의 문화정책도 문화의 소비를 통한 생활의 질과 품격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런 문화 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는 곳이 지방문화원이다.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 공간을 건립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립하고 기초한 지역문화가 활성화 될 때 그 역량이 강화되리라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마다 다양하고 특성 있는 문화적 접근 기회를 만들어 주고 주민들은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의 문제가 무엇이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과거 방식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도모(圖謀)하여 지역 발전 등 각종 효과를 많이 거두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경쟁력이 있는 자기 지역만의 문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제는 개성의 시대요, 차별화의 시대이므로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문화 유산 유적을 복원하여 나가려면 시(市)도(道)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화 시켜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지역 자체로 육성하여야 자생력 있는 문화 자원의 관광상품화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 스스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이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만이 그로 인한 각종 효과를 지역이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옛 고언(古言)을 자주 음미한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알기 위해 내 고장 고유의 문화뿌리를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이 소중한 문화유적을 복원하면 역사의 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며 정서적인 도시로 애향심은 우리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풍요(豐饒)로운 문화생활 자랑스러운 동두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발전세미나,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6.
경기문화재단, 향토사연수교재, 경기문화재단, 1997.
경기문화재단, 『21세기문화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경기문화재단, 1999.
김광일,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 교문사, 1991.
동두천문화원, 『내행동(洞)지』, 동두천문화원, 1998.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동두천 시사』, 동두천시사 편찬위원회, 1998.
『윤비의 생애와 삼라만상』,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1999.
이홍직, 『국사대사전』, 한국출판사, 1982.
『한국인에게 역사의 미래』, 동서출판 사람과 사람, 1998.

여 백

연천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고 희 상 (연천문화원 향토사위원장)

目 次

I. 연천문화원 현황 및 실태

1. 설립 배경
2. 주요 연혁

II. 연천문화원의 연구현황 (문화원 소장 · 책자발간 현황)

III. 향토문화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 1) 전문 인력 확보
 - 2) 문화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
 - 3) 지역내의 네트워크 결성

IV. 결론

V. 참고문헌

집필자

고 희 상 연천문화원 향토사위원장

I. 연천문화원 현황 및 실태

1. 설립 배경

연천문화원은 1986년 12월 12일 창립을 위한 총회를 실시하여 창립총회에서 초대원장에 이연수를 선출하였고, 1987년 8월 27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연천문화원 승인(허가 제568호)을 받았다.

연천문화원이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연천의 문화와 역사, 전통 놀이, 유적 등을 연구하고 이를 계승, 발전, 보전하여야 한다는 뜻에 동의하신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연천문화원 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문화원 설립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재정문제, 사무실의 입주 문제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1987년 9월 22일 사단법인 연천문화원으로 법인등기가 완료되어 연천문화원이 탄생되었다.

연천문화원의 사무실을 창립 당시 연천읍 옥산리의 군민회관 1층에 소재하였고, 1999년 문화원을 건립하면서 현재의 문화원으로 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6년, 1998년, 1999년 3차례에 걸친 대홍수로 인해 당시 군민회관의 문화원 사무실이 침수가 되어 96년 이전의 자료들이 모두 훼손과 망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2. 주요 연혁

86.12. 1. - 연천문화원 준비위원회

86.12.12. - 연천문화원 창립총회 및 초대원장 이연수

87. 4.11. - 군민회관 무상사용허가 승인

87. 8.27. - 연천문화원 승인 (허가서 568호)

87. 9.22. - 사단법인 연천문화원 등기완료

89. 6.17. - 임시총회 현문수 원장 (제2대) 선출

89. 9.25. - 현문수 원장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91. 7. 9. - 임시총회에서 현무수 원장(제3대) 선출

94. 8.24.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1항 동시행령 제2조2항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제134호(문화체육부 장관)

95. 8.26. - 현문수 원장 취임(제4대)

- 99. 9.25. - 현문수 원장 취임(제5대)
- 99.11.16. - 연천 문화원 건물 준공
- 00.12.26. - 현문수 원장 퇴임
- 01. 2.13. - 서승후 원장 취임(제6대)
- 02. 9. 1. - 향토사료관 완공
- 03. 8.29. - 윤주길 원장 취임(제7대)
- 10. 5.10. - 이경순 원장 취임(제8대)
- 14. 5.19. - 이경순 원장 취임(제9대)
- 18. 5. - 이준용 원장 취임(제10대)

II. 연천문화원의 연구현황(문화원 소장 · 책자발간 현황)

연천문화원에서 198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향토문화연구자료 책자 발간활동을 통해 발간된 책자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책자 명	출간 형태	발행 년도	분량 (쪽)	수록 내용
연천문화	연간지	1989 - 2018	약200	연천을 빛낸 인물 - 허목의 성리학과 생애 연천군의 문화유적- 선사유적외 문화논단 - 우리고장 연천을 사랑합시다 외 연천문화원의 발족-연혁 및 주요사업내용 외
연천의 맥	단행본	1989	210	연혁 및 지명 유래, 문화재와 명승지, 특선 · 명물, 연천의 인물
향토사료집	단행본	1995	730	연혁, 지명유래, 문화유적 · 유물
의례해문집	단행본	1996	364	의례전통의 원인분석, 가정의례 준칙, 한국의 성씨 개관, 역사편람 외
연천 실록	단행본	2001	238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연천 관련 사료, 연천의 연 혁, 경제상, 사회상, 유적
연천 근대 민족운동사자료 집성	단행본	2005	760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연천관련 신문기사, 독립 운동가 신문조서, 독립운동 서훈자 명단, 사회인 명록, 친일인 명록

책자 명	출간 형태	발행 년도	분량 (쪽)	수록 내용
향토사료관 소장 자료집	단행본	2008	88	향토사료관 소장자료, 소장유물 기증자
미수허목 선생자 료 집성	단행본	2014	268	집저/애사/구묘문, 응연의 시와 기문, 허씨 묘비문 및 외가유사, 미수 허목 자찬묘비명과 신도비문

지금까지 연천문화원에서 발간 된 책자를 살펴보면, 그 중에 『연천문화』 지는 매년 발행되어 1989년에서 2018년까지 총 22호를 발간하였다. 『연천문화』 지를 통해 꾸준히 연천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활동을 홍보하고, 연천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문화원 설립 30년이라는 세월에 비해 향토문화연구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자발간 사업은 몇 권이 되지 않는다.

Ⅲ. 향토문화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이렇게 부족한 향토사 발간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이라는 것이 향토문화연구비는 없으며, 현재 문화원 사업 활동은 지자체에서 기획하고 위탁한 사업만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토문화연구는 뒷전이다.

연천문화원은 군청 보조금과 이사들의 회비, 공모사업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향토문화연구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 향토문화 연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향토문화연구의 전문 인력이 없다. 연천문화원 인적구성은 원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기간제 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향토문화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러한 문화 사업은 전문 인력확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2. 개선방안

1) 전문 인력 확보

최근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지역의 특성화 된 지질, 생태, 역사와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천군도 최근에 임진강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임진강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고, 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신청하여 실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질, 생태, 문화 환경 등이 새롭게 각광받고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문화원에서 향토문화 즉 지역문화연구와의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려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문화적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문화원이 대처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문화원의 존재감은 더욱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지역의 지질, 생태, 역사, 문화에 존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유의 가치를 잘 찾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은 문화원이 직접 양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산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이겠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 자체의 문화 사업 역량을 키워서 지역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원이 먼저 지역에서 요구되는 문화 사업을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문화원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움직이고 일구어가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지역의 문화전문가가 함께 노력함이 있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어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2) 문화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 (중 · 장기 발전방향)

요즈음 지역문화원은 지역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위상도 하락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시설과 많은 단체들이 서로 유사한 문화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원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생각을 모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데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문화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집행해 나가야 한다.

사실 문화원의 역할을 분석해 보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향토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구축하며, 지역 전통문화의 조사·발굴, 지역문화축제, 교양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문화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원 사업을 크게 둘로 나누어 향토문화 연구팀과 문화 예술 교육 행사팀으로 나누어 사업을 구성한다.

향토문화 연구 활동의 경우, 지역의 향토문화와 전통문화를 연구·조사하고 주민 생활사에 관한 책·잡지·자료 등을 발간하는 활동으로 이는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아카이브 구축에 기여한다.¹⁾

즉, 원천 자료수집 및 발굴 → 아카이빙(기록물, 책 발간) → 지역 전문 인력 양성을 한다.²⁾

문화예술교육행사팀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나 문화예술 전시회, 공모전과 같이 지역 주민과 외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구현에 기여한다. 문화교육 활동의 경우에도 문화강좌·문화교육과 같이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³⁾

그 외의 활동들은 연천 지역의 여러 문화기반 시설 및 단체인 문화원, 예총, 문화의 집, 평생통일 교육원, 문예회관, 면사무소의 주민 자치 센터 등에서 유사한 문화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시설, 인력, 재원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이들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3) 지역 내의 네트워크 결성

연천지역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지질, 생태, 역사,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여러 단체, 협회, 학교 등의 교육기관,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등과의 협력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원이 단독으로 혼자 사업을 진행해 간다면 주변여러 단체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외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1) 조용준, 『수원문화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9, pp.15-16.

2) 최영주 편집, 『경기문화저널 특별호 「담론2017」』,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2017, p.33.

3) 조용준, 위의 책, pp.16-17.

최근의 문화사업도 각자가 아니라 문화 공동체로서 단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지역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하기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원 스스로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문화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을 비롯한 여러 자원을 열어두고 각종 문화행사의 기획에서부터 같이 고민하며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각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공유하며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해나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학술회의나 강좌 등을 공동운영할 수도 있으며, 복지기관에 다양한 문화예술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문화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 내의 여러 지역문화 예술단체, 전통시장의 상인,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마을의 농촌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 기획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문화원이 지역 내의 역할과 위상이 드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연천문화원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문화원 이용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화적 사고가 달라지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 요구 증대되고 있고, 다른 단체와의 활동영역 관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와 통일평생 교육원, 도서관 등에서도 문화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역할이 특별할 것도 없어지고 위상도 낮아졌다. 그리고 오래전에 건립된 문화원 건물은 당시 이용자의 욕구와 이용인원에 대한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건립되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없다. 그리고 문화원이 지역의 전통과 향토문화에 대한 사업 역할이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연천문화원은 옛 건물로 공간 확보에 대한 걱정성이 떨어진다. 이용회원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므로 공간 확보를 위해 새 건물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문화원은 지역의 지질, 생태, 역사, 문화에 존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유의 가치를 잘 찾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다른 시설과 단체와의 중복적인 기능이나 사업에 대한 경합을 피하고 문화원만의 차별화된 독자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 문화원 사업을 크게 둘로 나누어 향토문화 연구팀과 문화예술 교육 행사 팀으로 나누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3.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있어서도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인문학과 역사 문화강좌를 개발하여 상설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
4. 인력활용에 있어 지역문화전문가 양성이 시급하여, 기존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전문성에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4. 향토 사료관을 활용하여 소 박물관역할과 더불어 관련된 지역 청소년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향토문화의 공부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
5. 문화원의 운영비는 이사들의 회비와 지자체의 보조금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사업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태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향토문화연구와 활동비의 증액과 또 연구에 대한 결과로서의 서적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증액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6. 지역 내의 네트워크 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 내의 여러 지역문화 예술단체, 전통시장의 상인, 마을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마을의 농촌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기획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송낙길, 「지방문화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자원의존이론(resources dependency theory)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4.
- 양태인,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4.
- 이원태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동 제9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조용준, 「수원문화원 증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9.
- 최영주(편), 『경기문화저널 특별호 「담론2017」』,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7.

京畿郷土史學(第24輯)

경기향토사학(제24집)

경기향토사학(제24집)

발행인 : 염상덕

편집인 : 최영주

기획 : 정지희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 2019년 12월 31일

발행 : 2019년 12월 31일

인쇄처 : 홍익문화사(02-2274-8110)

I S B N : 979-11-89046-06-4

이 책은 2019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본 지의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銅。卜。如브십為寶。官。不。格。何。王。曰。勿。恤。而。

비매품/무료
93910

9 791189 046064
ISBN 979-11-89046-06-4

